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

청년 1인 가구에 관한 정보시각화

디자인 리서치와 정보디자인 방법론을 중심으로

A Study of Information Visualization
about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Applying Design Research and
Information Design Methodology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디자인 전공
배민기

청년 1인 가구에 관한 정보시각화

디자인 리서치와 정보디자인 방법론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수정

이 논문을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배민기

배민기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5년 2월

위원장 백명진 (인)

부위원장 윤주현 (인)

위원 김수정 (인)

위원 송지성 (인)

위원 박승호 (인)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

청년 1인 가구에 관한 정보시각화

디자인 리서치와 정보디자인 방법론을 중심으로

A Study of Information Visualization
about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Applying Design Research and
Information Design Methodology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디자인 전공
배민기

국문 초록

PC와 인터넷의 대중화 이후, 스마트 디바이스의 등장과 더불어 다시 한 번 변화한 미디어 환경은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인지·문화적 패턴을 서서히 갱신해왔다. 마찬가지로 급격히 이루어진 시각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천 속에서 디자인의 주요 의제 또한 계속 변화해왔다.

디자인 리서치(design research)는 흔히 시장 조사 및 트렌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마케팅 기법 등을 응용하여 디자인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포착하는 방법론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는 그 기원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용례를 가지는 표현이다. 한쪽에는 디자인 비즈니스의 과학화와 그에 이은 범주의 다양한 확장—심미적 만족 및 ‘감성’적 측면으로 외연을 넓히고자 하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포괄하는—이 존재한다. 반면 다른 한쪽에는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등의 인문사회과학 담론의 하위분과에서 출발한 시각문화연구(visual culture studies)의 역사적 맥락과 디자인 미시사(微視史)를 결합한 형태의 (특정한 사회·정치적 태도를 근간에 둔) 문화비평이 꾸준히 존재해왔다.

또한 정보디자인(information design)은 공학 분야와 연계된 기능적 측면에 관한 분석적 방법론의 일환으로 매우 이른 시기부터 언급되어 왔다. 이것이 디자인 담론 내의 주요 키워드로 부상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의 일로, 정보 시각화(information visualization), 지식 시각화(knowledge visualization) 등의 개념 분화를 거쳐 (특히 인지적 측면을 소개하는 대중적 지침서의 형태로) 현재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관련 논문들 또한 적지 않게 생산되고 있다.

당대의 디자인 담론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이와 같은 키워드들은 적절한 영역에 적용되어 사용자들의 인식을 확장하기도 하지만, 이미 확립된 장르적 규칙 속에서 자기 완결적인 동어반복을 수행하거나, 시의적절한 주제 및 방법을 포착하는 데에 실패하기도 한다. 이처럼 디자인 리서치와 정보디자인은 (어떠한 문화적 흐름의 초반에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과도한 낙관주의적 청사진을 제공하는 특정한 시기는 지났으나, 어떤 비평적 유효성을 완전히

소진한 상태에 직면하지도 않았다. 즉, 가능성과 한계가 공히 선명히 드러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론적 틀은 주제에 따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틀, 즉 정보디자인(지식 시각화)과 디자인 리서치의 방법론을 ‘청년 1인 가구’의 문제에 대입하고자 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1인 가구 수는 2010년 서울에서 (표준적 가족 주거 모델인) 4인 가구 수를 추월했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할 예정^[1]이다. 그중에서도 20~39세 1인 가구 수는 전체 1인 가구 수의 절반에 가깝다. 이는 도시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변화시키고, 기존의 도시정책에 새로운 방향성을 요구한다. 또한, 이는 특정한 정치·경제적 입장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달라지는 의제가 아니다. 실제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불안 문제는 언론 등을 통해 빈번히 다루어지고 있다. 20~30대 1인 가구 전체는 “임차가구 비율이 83.6%로 월세가 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월세가구의 47.6%가 20~40만 원의 월세를 지불”하고, “평균 보증금이 1,370만 원, 전세금 평균이 7,058만 원으로 상당수의 1인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고 있다.^[2]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1인 가구의 거주자가 사회 속에서 자신을 가시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표준적 4인 가구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은 통상 보육, 교육, 의료 등 민생 관련 의제가 다양하게 대두하고, 거주자는 아파트 혹은 동 단위의 소속 집단이 대변하는 이해관계를 직·간접적으로 인식하며 투표 등의 권리행사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좌표 및 역학관계를 비교적 손쉽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거주자들은 높은 인구구성비에도 불구하고 (즉 정책적으로 유효한 크기의 집단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의 이슈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와 연결지어 생각해볼 기회가 많지 않다. 다르게 말해 이들은 특정 지역의 영속적 ‘지역민’이 아니라, ‘임시거주자’에 머무르기 쉽다. 더욱이 각종 경제지표가 드러내는 양상을 통해 추산해보면, 이들 중 표준적 4인 가구로 진입할 수 있는 인구는 많지 않다. 즉, 이들 중 대다수는

[1] 변미리 외,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viii.

[2] 이동훈,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SDI 정책리포트», 제109호,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p.1.

장기적 임시거주자로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자신을 사회의 일원으로
가시화하지 않으므로, 전체 도시구성원들에게는 1인 가구 거주자들의 존재
방식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즉, 이들이 실제로 어떤 생활방식과 문화적 양상을
띠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활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에 디자이너로서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식을 탐구해본다. 해당 문제에 디자인 리서치 방법론을 적용하여, 청년
1인 가구가 처한 사회적·경제적 위치를 조사하고, 정보디자인 및 지식 시각화의
테크닉을 활용하여 이를 시각화한다. 논문은 다음 단계를 통해 진행된다.

첫째, 1인 가구의 특성과 양상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는 데이터들과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정량적·정성적 자료를 특정한
관점에 따라 배치하여 맥락을 형성한다.

둘째, 선행된 리서치를 통해 정리된 내용과 파악된 바를 정보디자인 및 지식
시각화의 테크닉을 활용하여 직관적으로 시각화한다.

셋째, 최종작업으로서 시각화된 결과물을 매체에 맞게 적용한다. 크게
①인쇄물과 ②스크린 미디어 형태의 결과물이 생산된다. 인쇄물의 경우 방대한
정보를 빠짐없이 인식할 수 있는 정교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동시에 맥락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명료한 방식으로 제작되며,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특수한 콘텐츠의 경우, 여러 기술적 가능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스크린 미디어로 제작된다.

주요어 1인 가구, 디자인 리서치, 정보디자인, 지식시각화

학번 2011-31038

email baeminkee@gmail.com

목차

국문 초록	2
그림 및 표 목차	7
1. 서론	10
1. 연구배경	11
1. 1인 가구의 대두	11
2. 디자인 리서치와 정보디자인 및 지식시각화	19
(1) 디자인 리서치의 여러 가지 맥락	19
(2) 정보디자인 및 지식시각화	26
2. 연구범위 및 과정	31
2. 선행연구	36
3. 1차 기반 연구 및 시각화	53
1. 1인 가구의 시간적 분포 (1980-2010)	54
2.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65
3. 서울 50㎡ 이하 소형주택의 면적·임대료 현황	82
4. 수도권 1인 가구의 순자산별 자산과 소득	92
4. 최종 작업	100
1. 개괄	105
1. 1인 가구의 시간적 분포 (1980-2010)	105
2.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108
(1) 서울 동별 1인 가구 분포 1	108
(2) 서울 동별 1인 가구 분포 2	110
2. 청년 1인 가구: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사적 공간의 크기는?	112
1. 서울 소형주택의 구별 평균 면적 및 가격은?	114

2. 서울 소형주택의 1평당(3.3m ²) 평균 월세 가격은?	115
3. 수도권 1인 가구의 순자산, 부채, 소득은?	118
4. 수도권 다인 가구의 순자산, 부채, 소득은?	118
5. 20대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유지 가능한 집의 넓이는?	124
6. 30대 청년 1인 가구가 유지 가능한 집의 넓이는?	124
3. 최종 요약 작업	128
1. 서울 1인 가구의 시공간적 분포: 1980-2010	128
2. 수도권 1인 가구 거주자의 평균 순자산과 부채는 얼마이고, 자신의 소득으로 어느 정도 넓이의 공간에서 살 수 있는가?	133
5. 결론	140
참고문헌	143
부록1: 1인 가구의 이면	145
부록2: 첨부 자료	174
Abstract	186

그림 및 표 목차

그림 1-1 21개의 구체적인 요구사항(21 specific requirements).

그림 1-2 인디언 마을 구성요소의 측정을 위한 다이어그램.

그림 1-3 목동: 만들어진 도시의 꿈.

그림 1-4 1933년 美 사우스 캐롤라이나 컬럼비아의 가게소득 개요.

그림2-1 Earthquakes in the World 첫화면.

그림2-2 Earthquakes in the World 메인맵.

그림2-3 Earthquakes in the World 선택화면.

그림2-4 Earthquakes in the World 선택상세.

그림2-5 다시마 농장의 위치 및 관계도와 다시마 총량, 주요농장 생산능력.

그림2-6 첨가된 각종 다이어그램.

그림2-7 ROMAN LADDERS.

그림2-8 Dante's Inferno.

그림2-9 세 도시 이야기 - 데이터토피아: 핀볼.

그림2-10 세 도시 이야기 - 데이터토피아: 핀볼 설치 전경, 법원-경찰청/평촌역 정류장.

그림3-1 구별 격자 구조.

그림3-2 격자 구조내 정보배치.

그림3-3 좌측 상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운택해진다.

그림3-4 시각화: 1980년 서울 1인 가구 및 다인가구의 주택유형과 방의 개수.

그림3-5 시각화: 1985년 서울 1인 가구 및 다인가구의 주택유형과 방의 개수.

그림3-6 시각화: 1990년 서울 1인 가구 및 다인가구의 주택유형과 방의 개수.

그림3-7 시각화: 1995년 서울 1인 가구 및 다인가구의 주택유형과 방의 개수.

그림3-8 점유형태와 주택유형의 격자 구조.

그림3-9 시각화: 2000년 서울 1인 가구 및 다인가구의 주택유형과 방의 개수, 점유유형.

그림3-10 시각화: 2005년 서울 1인 가구 및 다인가구의 주택유형과 방의 개수, 점유유형.

그림3-11 시각화: 2010년 서울 1인 가구 및 다인가구의 주택유형과 방의 개수, 점유유형.

그림3-12 서울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도.

그림3-13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유형별 분류.

그림3-14 계층별 분류와 지역별 분류의 연관관계도.

그림3-15 시각화: 서울 구단위 1인 가구 연령별·성별 가구 구성과 동단위 가구 구성.

그림3-16 구별/동별 단일유닛 구성표와 유닛 분해도.

그림3-17 시각화: 서울시 구별 1인 가구 연령 남녀 인구 구성과 동별 분포.

그림3-18 작업 하단에 위치한 요소 설명 부분.

그림3-19 시각화: 서울 구별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입주형태별 가구 수.

그림3-20 점유유형과 연령별 가구가 가로세로축으로 배치되고, 격자 안에서 남녀가 나뉜다.

그림3-21 세 작업은 나란히 배치되었을때에 나타나는 별도의 정보구조가 존재한다.

그림3-22 시각화: 구별 면적과 환산 월세액.

그림3-23 구별 면적과 환산 월세액 이미지의 세부.

그림3-24 시각화: 1평당 (3.3m) 구별 환산 월세액.

그림3-25 1평당 (3.3m) 구별 환산 월세액의 세부.

그림3-26 시각화: 1평당 (3.3m) 월세순위.

그림3-27 세 작업은 나란히 배치되었을때에 세로축 정보를 공유한다.

그림3-28 시각화: 수도권 1인 가구의 연령/순자산별 자산과 소득(절대수치).

그림3-29 시각화: 수도권 1인 가구의 연령/순자산별 자산과 소득(상대수치).

그림3-30 자산과 소득 구성표(시각화 좌측 상단 위치).

그림4-1 최종 작업의 구조도.

그림4-2 시각화 최종 작업 1: 1인 가구의 시간적 분포(2000년도).

그림4-3 1인 가구의 시간적 분포에 사용된 주택유형별 아이콘.

그림4-4 같은 넓이를 갖고 있어, 가구 수를 나타내는 장치로 활용가능한 아이콘의 구조.

그림4-5 1차 기반 연구에서 제작된 시각화 작업의 격자 구조와 최종 작업에서 제작된 격자 구조.

그림4-6 시각화 최종 작업 2-1: 서울 동별 1인 가구 분포 1.

그림4-7 시각화 최종 작업 2-2: 서울 동별 1인 가구 분포 2.

그림4-8 동별 점유율과 밀집지역 유형을 나타내는 범례(작업 일부).

그림4-9 최종 작업 구조도 중 항목 2번.

그림4-10 1차 기반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

그림4-11 최종 작업에서 사용한 임대료의 단위와 면적의 단위.

그림4-12 1차 기반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

그림4-13 최종 작업에서 사용한 임대료의 범례.

그림4-14 시각화 최종 작업 3-1: 서울 소형주택의 구별 평균 면적 및 가격은?

그림4-15 시각화 최종 작업 3-2: 서울 소형주택의 1평당(3.3m) 평균 월세 가격은?

그림4-16 순자산, 부채, 소득의 시각화.

그림4-17 순자산, 부채총액, 부동산 담보대출액, 연간 소득 총액, 근로소득, 근로 외 소득의 시각화 구조.

그림4-18 시각화 최종 작업 3-3: 수도권 1인 가구의 순자산, 부채, 소득은?

그림4-19 시각화 최종 작업 3-4: 수도권 다인 가구의 순자산, 부채, 소득은?

그림4-20 확보 가능 면적의 범례(작업의 일부).

그림4-21 시각화 최종 작업 3-5: 20대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유지 가능한 집의 넓이는?

그림4-22 시각화 최종 작업 3-6: 30대 청년 1인 가구가 유지 가능한 집의 넓이는?

그림4-23 장면 1~2.
그림4-24 장면 3~4.
그림4-25 장면 5~6.
그림4-26 장면 7~8.
그림4-27 장면 1~2.
그림4-28 장면 3~4.
그림4-29 장면 5~6.
그림4-30 장면 7~8.
그림4-31 장면 9~10.

그림6-1 나들 17호(2014) <지방소녀의 서울살이>에 첨부된 인포그래픽스.
그림6-2 1인 가구의 이면 1: 책 표지.
그림6-3 1인 가구의 이면 1: 책 내지.
그림6-4 1인 가구의 이면 2: 구조도.
그림6-5 1인 가구의 이면 2: 구조도(부분).
그림6-6 사례별 부모와 자녀, 주거비 관련 흐름과 수입 관련 흐름의 범례.
그림6-7 1인 가구의 이면 3: 구조도.
그림6-8 사례별 부모, 자녀를 배치하는 방식.

표1-1 서울 가구원수별 가구 수(국가통계포털).
표1-2 서울시 연령별 1인 가구 비율(국가통계포털).
표1-3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별 비교(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표1-4 1인 가구 월평균 지출수준별 비교(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표1-5 연도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현대경제연구원, 2010).
표1-6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추이(현대경제연구원, 2010).

표3-1 서울의 1인 가구 변화 추이.
표3-2 자산과 소득 시각화에 사용할 기본 구조.

표4-1 자산과 소득 시각화 최종 작업에 사용할 기본 구조.

1. 서론

1.1. 연구 배경

본 논문의 시발점이자 핵심적인 의도는 ‘나의 문제, 혹은 내가 속한 세대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를 당대의 디자인 방법론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본 단락에서는 필자가 파악하는 문제, 즉 필자 자신이 속해있는 동시에 현시점에서 유효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의제로서 ‘청년 1인 가구’ 문제의 시의성과 중요함을 서술한다. 그리고 해당 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테크닉인 동시에 당대의 디자인 담론에서 활발히 제기되는 방법론으로서 ‘정보디자인(지식 시각화)’, ‘디자인 리서치’의 유효함을 기술한다.

1.1.1. 1인 가구의 대두

현재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으며, 언론 등을 통해서도 1인 가구가 중요한 이슈로 취급되고 있다.^[1] 2000년 대비 총가구 증가율은 11%에 불과하나, 이 중 1인 가구는 무려 4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을 기점으로 전체 가구의 20%를 차지하게 된다. 이후 2010년에 이르러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23.9%로 2000년 (15.5%)에 비해 8.4%가 증가하였다(2010년 기준 한국의 1인 가구는 414만 2천 가구이며, 남자는 192만 4천 가구, 여자는 221만 8천 가구로 나타났다).^[2] 특히 대도시 서울에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2000~2005년 사이의 서울 총가구 수는 약 6% 증가했지만, 1인 가구는 34%나 증가했다.^[3]

[1] <1~2인가구 도시형주택, 해도 너무한 주차난>, 한국경제, 2013-06-0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type=2&aid=201306030279y&nid=910&sid=00>), <서울 4집 중 1집 ‘1인 가구’>, YTN, 2013-05-30, (http://www.ytn.co.kr/_ln/0115_201305300624259819), <생활용품도 1인 가구 겨냥 제품 인기>, 연합뉴스, 2013-05-21,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5/21/0302000000AKR20130521047700030.HTML>), <[가족이야기] ‘비정상’ 취급받는 1인 가구의 생존분투기>, 경향신문, 2013-05-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62133505&code=990100), <서울시, 1인 가구 전력소비량 4인가구 1명의 2.6배>, News1, 2013-09-12, (<http://news1.kr/articles/1318780>), <도시형생활주택, 1~2인가구 삶의 질 높였다..’글쎄’>, 뉴스토마토, 2013-05-10,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510103005675.daum>) 등의 기사를 참고.

[2]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보도자료), 통계청, 2012-12-11, p.1.

[3] 변미리 외,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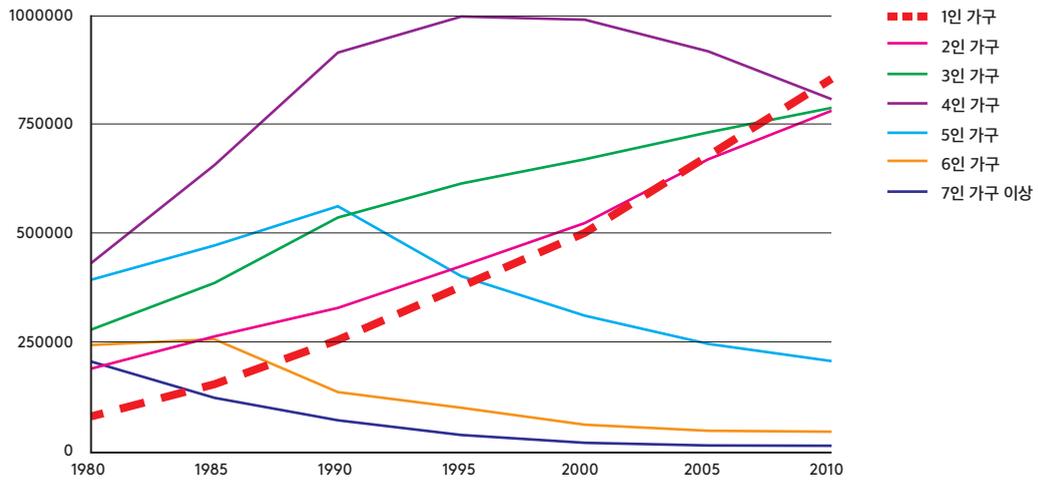


표1-1 서울 가구원수별 가구 수(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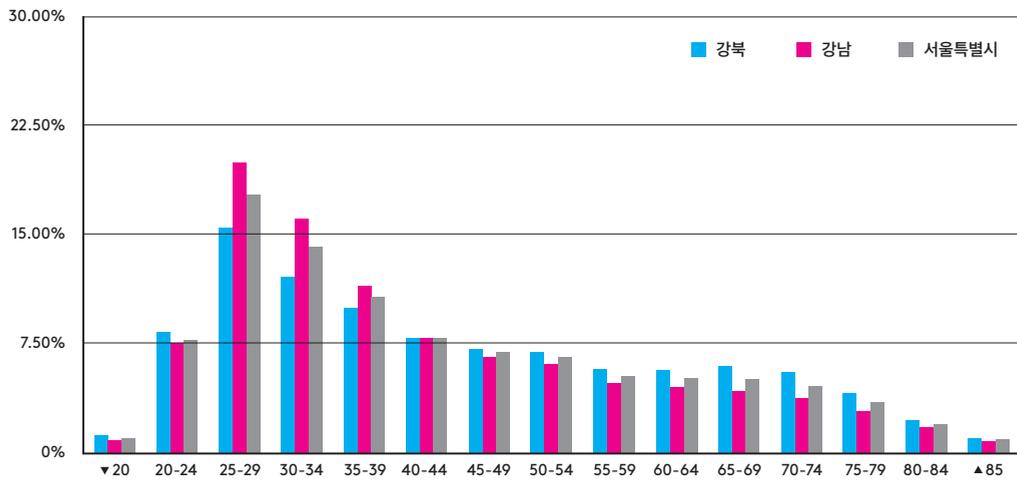


표1-2 서울시 연령별 1인 가구 비율(국가통계포털).

표 1-1은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계에 따른 서울 가구원수별 가구 수다. 1990년대 중반부터 4인 가구가 줄어드는 대신 상대적으로 1~2인 가구가 늘어났으며, 2010년 서울에서는 1인 가구 수가 4인 가구 수를 추월했다.

표 1-2는 서울시의 연령별 1인 가구 비율로서, 서울시 1인 가구 가운데 20~39세 사이의 1인 가구가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구직자(혹은 실직자) 등의 경로를 거치는 청년 세대의 1인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의 주요 구성원인 것이다.

또한, 1인 가구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의 추산으로는 2030년에 이르러 서울의 1인 가구는 24.9%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체 가구의 1/4을 차지하는 비중으로 “앞으로 ‘정상적인’ 가구 형태인 가족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함을 예상”할 수 있다.^[4]

1인 가구의 급증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특히 20~30대 1인 가구의 급증은 크게 대도시로 유입되는 인구의 유지와 결혼을 유예하는 인구의 증가로 설명된다. 즉, 교육이나 취업 등의 기회가 비교적 폭넓게 제공되는 대도시로 유입되는(대학생을 포함한, 청년 세대 중에서도 비교적 어린) 인구가 있으며, 또한 결혼적령기에 도달한 이들과 그 이후의 세대(30대)가 드러내는 혼인율 자체의 감소 경향, 즉 결혼의 유보에 따른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가 있다. 특히 후자에 속하는 30대(또는 40대를 일부 포함한) 세대 중 극소수는 언론 등을 통해 ‘골드미스·미스터’로 호명되며,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도시문화와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트렌드세터’로서 여러 기업의 주요 분석 대상으로 떠올랐다. 또한, 드라마, 영화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이들의 생활상이 반복 재생산됨으로써, 이들은 자신이 속한 세대를 과잉 대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계가 나타내는 20~30대 1인 가구의 구성원은 좀 더 다양하다. 변미리(2008)는 이들을 4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는데, 이 중 20~30대에 해당하는 범주는 3가지다. 20대를 중심으로 한 산업예비군, 30~40대의 골드미스·미스터, 30대 후반(에서 50대에 이르는) 불안정한 독신자이다. (해당 범주는

[4] 변미리 외,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viii.

경제활동인구^[5]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비경제활동인구^[6]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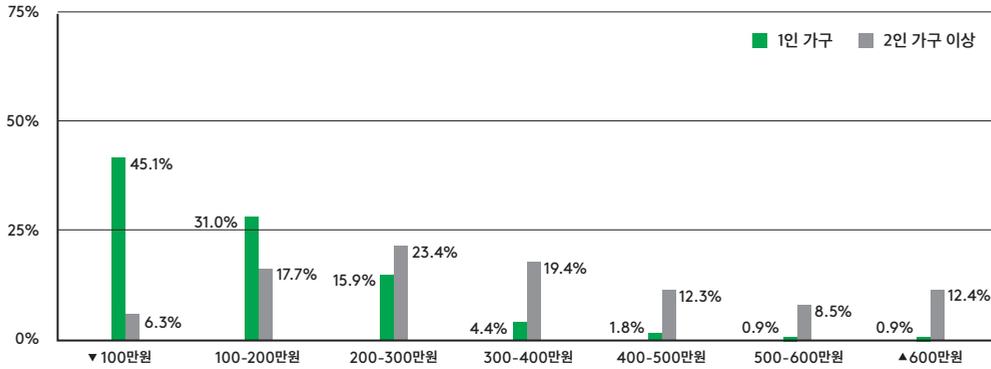


표1-3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별 비교(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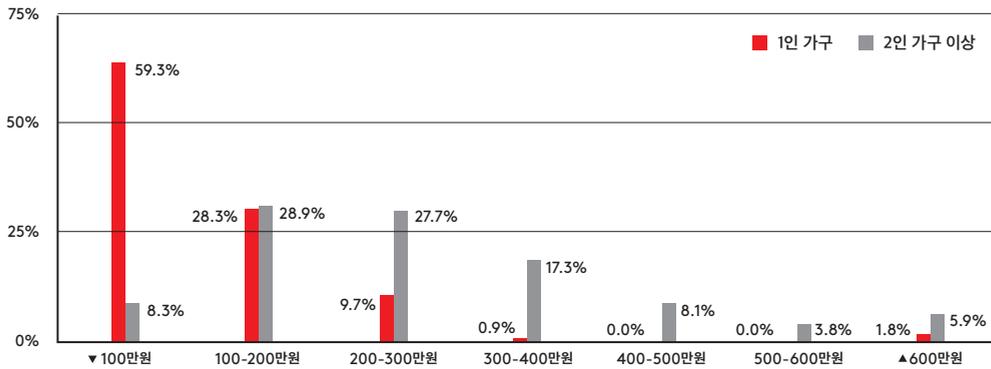


표1-4 1인 가구 월평균 지출수준별 비교(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5] 일정 연령 이상의 인구 가운데 노동 능력이나 노동 의사가 있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같은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14~15세 이상의 인구 중 학생·주부·환자 등 노동 능력이나 노동 의사가 없는 사람을 제외한 인구이며,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다(<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0450&cid=200000000&categoryId=200000130>).

[6] 만 15세가 넘는 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주로 집안에서 가사를 맡는 가정주부를 비롯하여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종교단체나 자선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7690&cid=200000000&categoryId=200002705>).

이 20~30대 1인 가구 거주자들은 일부를 제외하면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산업예비군은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실업 계층이며, (일부분 20~30대의 범주를 벗어나기는 하지만) 불안정한 독신자는 기러기아빠, 이혼, 경제적 궁핍 등으로 가족이 해체된 결과물이다.

또한, 대부분의 20~30대 1인 가구 구성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다. 표 1-3은 (비록 1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이나)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경향을 나타낸다. 전체 소득자의 45.1%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에, 31%가 월 소득 100~200만 원에 분포되어 있다. 즉,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더라도 80%에 가까운 1인 가구의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7] 또한, 정규분포 그래프^[8]를 그려보면, 2인 이상 다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 357만 원인 반면,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146만 원으로 추산된다. 더불어 가장 소득이 낮은(하위 20%) 1분위 집단의 월평균 소득은 34만 원인데 비해, 가장 소득이 높은(상위 20%) 5분위 집단의 월평균 소득은 354만 원으로, 다인 가구보다 1인 가구의 소득에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발견된다.

표 1-4는 1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의 경향을 보여준다. 소득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 미만 지출이 59%, 100~200만 원 지출이 28.3%로 2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9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9] 또한 다인 가구의 평균 지출은 285만 원이며, 이에 비해 1인 가구의 평균 지출은 120만 원이다. 분위별 지출을 살펴보면 하위 20%가 36만 원, 상위 20%의 월평균 지출은 295만 원으로 역시 양극화 현상을 드러낸다. (5분위 집단의 295만 원은 다인 가구의 전체 평균 수준을 넘는다) 특히 하위 20%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다.^[10]

통계를 정리해보면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1인 가구 대부분은 월 200만 원 이하의 소득과 지출을 반복하는, 저축이 불가능한 경제적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이처럼 낮은 경제적 지위를 영위하는 20~30대 1인 가구의 생애 주기에

[7] 변미리 외,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p.86.

[8] Ibid., <표 4-2>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분포 참조.

[9] Ibid., p.88.

[10] Ibid., <표 4-3>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가계지출 분포 참조.

등장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은 지속적인 집값의 상승이다.

표 1-5는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인용,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리포트에 삽입된 연도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11]이다. 1986년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2번의 상승기와 2번의 정체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첫 번째 상승은 1987년에서 1991년 사이에 일어났다. 이는 높은 경제성장률(1987년부터 1991년 순으로 각각 12.3%, 11.7%, 6.8%, 9.3%, 9.7%), 올림픽 효과 등 경제규모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이루어진 것이다. 1987년 6월부터 1991년 4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26.1에서 60까지 올라갔다. 이후 주택 200만 호 공급과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시행되었고, 1992년에서 2000년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아파트 가격은 다소 정체된 양상을 보였다. 특히 1990년 후반 IMF 외환위기가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1991년 5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59.18에서 59.43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두 번째 상승은 2001년에서 2007년 사이이며, 외환위기 이후의 부동산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경기부양책의 시행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등했다. 2001년 1월부터 2008년 9월 서프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까지 매매가격 지수는 51.93에서 101.48로 거의 두 배에 가깝게 상승했다. 이후 2009년 3월까지 다소 하락세를 보이다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결론적으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986년 1월에서 2010년 1월까지 월평균 0.46%씩 꾸준히 상승해온 셈이다.^[12]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특히 수도권에서 두드러진다. 표 1-6은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정량화한 것이다. 최근 10여 년간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전국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다. 1999년 평균 매매가를 기준(100)으로 삼을 때, 10년 후인 2009년 수도권 아파트

[11]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는 국토해양부가 2007년 개발하여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가격의 지표를 말한다. 특정 기준년도의 아파트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다음해 집값의 오르내림 정도를 반영하여 98, 혹은 103 등의 수치로 표기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86354&cid=516&categoryId=1170>)

[12] 현대경제연구원, <아파트 가격 하락 가능성과 시사점>, «VIP Report», 통권 제 435호(10-08), 현대경제연구원, 2010, p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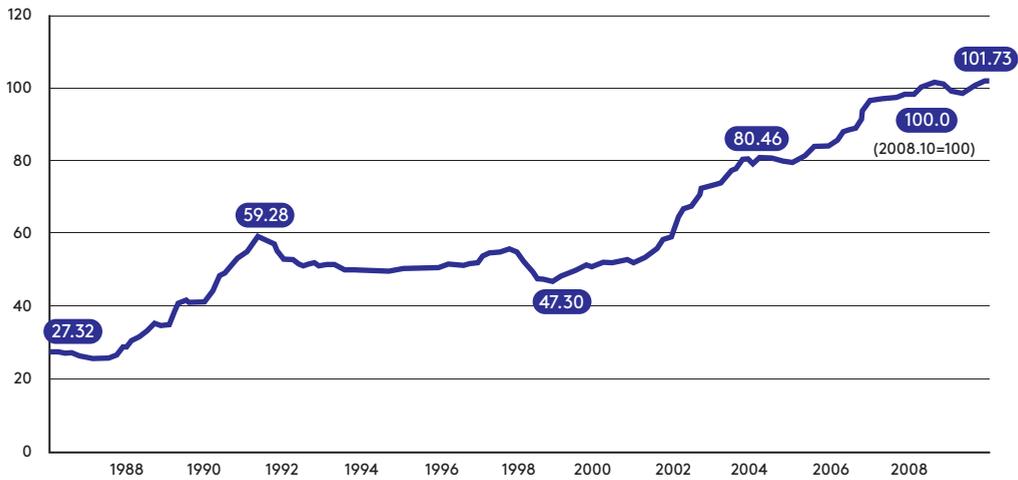


표1-5 연도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현대경제연구원,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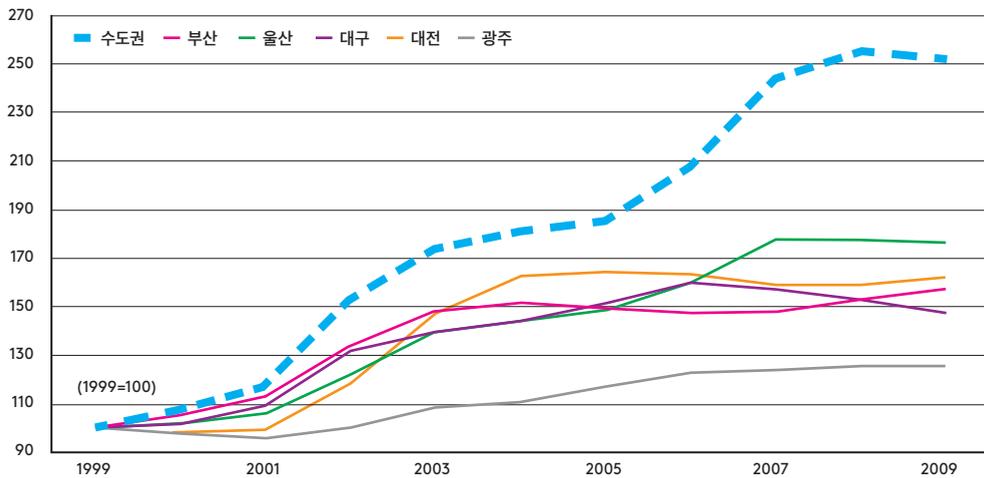


표1-6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추이(현대경제연구원, 2010).

매매가격 지수는 251.4를 기록했다. 이는 연평균 9.7%씩 상승한 것이다.^[13]

여기에서 한 명의 청년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하고, 내집을 마련하여 가정을 꾸리는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기능하기 어려워지는 원인이 발견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30대 1인 가구의 소득·지출의 규모와

[13] Ibid., p.3.

가파른 집값 상승의 경향을 병치해보면 둘 사이의 명확한 불균형이 있다.

생애 주기에서 일정한 나이에 도달했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결혼, 내 집 마련 등 일련의 과정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안정적 재생산의 역할을 맡는다. 그 과정에서 가장 표준적인 모델로 여겨지는 것이 4인 가구의 모델이다. 4인 가구의 구성원은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역할이 교대되며 이어진다. 이는 사회 전체의 인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장치인 동시에, 가장 작은 형태의 ‘기초 사회 복지 단위’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4인 가구 모델의 가장 전형적인 거주 공간이,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4㎡, 즉 방 3개와 욕실, 부엌, 거실을 갖춘 33평형 주택이다. 서울의 33평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5억이며, 강남권 33평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약 9억으로 추산되며^[14] 2012년 기준 서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1,600만 원대, 33평형의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5억 3,000만 원의 비용이 든다.^[15] 결과적으로 이러한 4인 가구 모델에 진입하지 못하는 20~30대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포착하고자 하는 ‘나의 문제, 혹은 내가 속한 세대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점차 심해지는 집값과 소득의 불균형 때문에 표준적인 4인 가구 모델에 진입하지 못하는, 즉 경제적 자립, 결혼, 가정을 꾸리는 등의 사회 재생산 활동이 유예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인 20~30대 1인 가구이다.

[14] <서울 도시근로자 가구, 공급 109㎡(33평형) 내 집 장만에 평균 12년 2개월 걸려>, 뉴스와이어, 2010-03-22,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463328>)

[15] <서울서 33평형 내 집 장만하려면 5억 3천만원은 있어야...>, MK 부동산, 2012-10-01, (<http://estate.mk.co.kr/news2011/view.php?sc=&year=2012&no=631802>)

1.1.2 디자인 리서치와 정보디자인 및 지식시각화

앞 단락에서 기술된 주제인 20~30대 청년 1인 가구의 문제를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디자인 리서치와 정보디자인(지식시각화)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단락에서는 해당 방법론의 간략한 발전 양상과 이것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근거와 그 배경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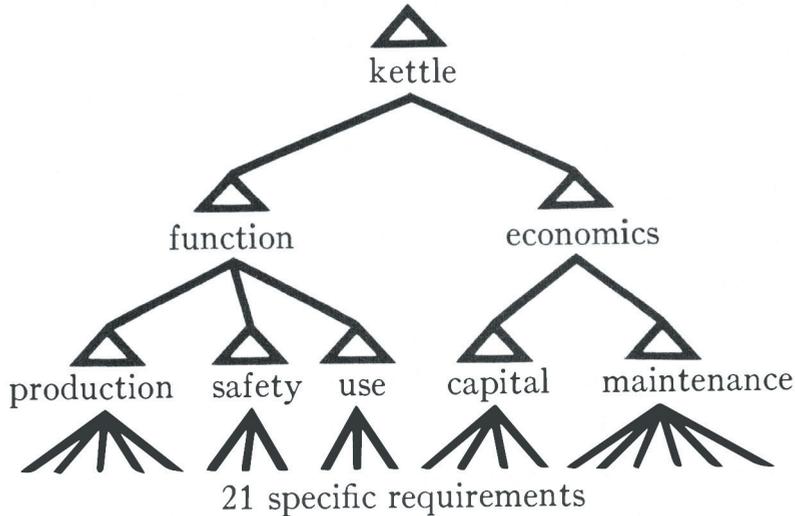


그림1-1 21개의 구체적인 요구사항(21 specific requirements).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는 사회가 고도화되며 복잡성이 늘어가는 디자인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시스템이론을 적용하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형태 통합에 대한 소고(Notes on the Synthesis of Form)'를 통해 (작은 주전자에서 도시 규모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에 대한 문제는 직관적으로 감지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해지고 있다고 서술했다. 위의 그림은 책 속에서 가장 간단한 사물의 예시로 종종 등장하는 주전자에 대한 4단계 위계 구조를 시각화한 것이다.(Christopher Alexander, *Notes on the Synthesis of For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p.62.)

(1) 디자인 리서치의 여러 가지 맥락

디자인 리서치는 디자인 방법론(design methods) 운동과 연관되어 전후 및 1960년대에 등장한 개념으로, 종래의 디자인 프로세스가 디자이너 개인의 심미적 역량에 기대는 차원에서만 머무르고 있다는 판단하에 디자인 프로세스를 좀 더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한 방법론의 일종이다. 디자인 방법론 운동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이론가 존 크리스 존스(John Chris Jones)는 인간공학의 성과들을 디자인 프로세스에 반영하고자 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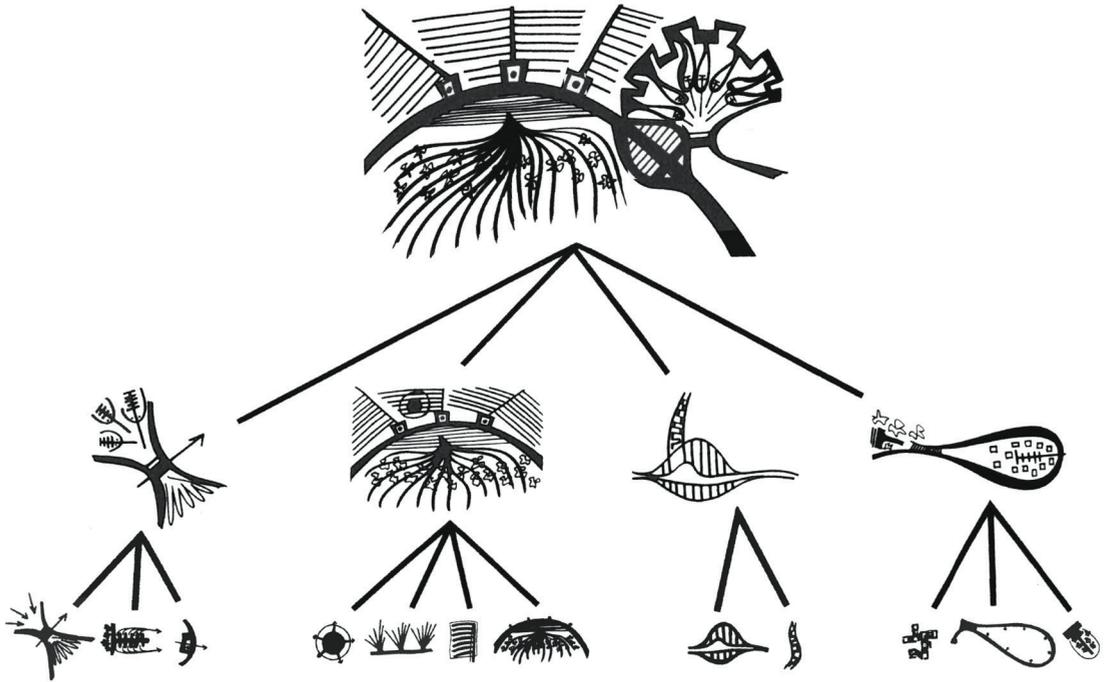


그림1-2 형태 통합에 대한 소고(Notes on the Synthesis of Form) 첫 번째 부록에 수록된 인디언 마을 구성요소의 측정을 위한 다이어그램.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는 이론의 범례로, 시골 인디언 마을의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조건들과 그 시각적 형태를 40페이지에 걸쳐 서술한다.

언어화·정량화하기 어려운 종래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모종의 합리성을 적용하기 위해 시스템적 디자인 방법론(systemic design methods)을 연구했다. 이는 최근 (디자인) 리서치의 원형이기도 하다.

이 원형은 전전(戰前) 군사 기술의 연구 성과들을 민간 분야에 응용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생겨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후 20세기 중반 학문 대부분에 불어닥쳤던 흐름, 즉 ‘합리성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지식 체계’를 새로이 건설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렸다. 이 과정에서 신경과학과 논리 모델링 등의 학제간 연구로 출발한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와 심리학의 과학화에 기여한 행동주의(behaviourism),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등 다양한 신생 연구분야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디자인 또한 “전후의 자본주의적 환경 속에서 시장의 요구에 맞춰

디자이너의 활동 범위와 프로세스를 합리화하고 교육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나름의 기반 지식을 갖춰야만^[16] 했으며, 디자인 프로세스의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디자이너의 자기 인식을 확장하고 재정의하는 지식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났다. 이렇게 초기의 디자인 리서치는 ‘디자인의 과학화’에 대한 모종의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그림1-2를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이들은 디자인 문제를 일종의 집합론적 구조로 범주화하고, 구성 요소들을 분해하여 세부 문제 요소를 정의 및 조합하여 최종 해결안을 도출하는 모델을 설계하려 했다. 특히 공학자로 출발해 이후 RCA 디자인 리서치 분과 교수로 재직한 브루스 아처(L. Bruce Archer)는 과학적 방법론과는 다른 디자인 고유의 생각하는 방식이 존재할 것이라 주장했으며,^[17] 디자인 방법론 운동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인 디자인 이론가 나이젤 크로스(Nigel Cross)는 컴퓨터 응용 디자인에서 인간과 기계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의문을 박사학위 연구로부터 이어나갔다.^[18]

이는 소위 ‘시스템론자’만이 디자인 리서치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건축사가·디자인 비평가 레이너 벤햄(Reyner Banham)은 전후의 디자인 담론에 자유주의적 사회학자, 실험심리학자, 산업적 배경을 가진 이론가·비평가 등 다양한 인적 구성원이 등장했다고 언급한다.^[19]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이르러 기능주의적 디자인 리서치 방법론은 한계에 봉착했는데, 이는 합리성이 구조화하는 문제가 실제 삶의 경험적 차원에 숨겨진 우발적 요인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며 점차 두드러졌다. 인간과 그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 환경은 입력과 출력에 따른 목적론적 행위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은, 몇몇 디자인 방법론 운동 주창자들의 자기반성과 이른바 ‘반-시스템론자’ 진영의 비판으로 인해 힘을 획득했고, 디자인 리서치 방법론 또한 변화를 맞게 된다.

[16] 박해천, <디자인 방법론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67호(19-05), 2006, p.108.

[17] 영문 위키 ‘Design research’(http://en.wikipedia.org/wiki/Design_research).

[18] 할 포스터 외, 박해천 역음, 《디자인 앤솔러지》, 서울, 시공사, 2004, p.86.

[19] 박해천, <디자인 방법론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67호(19-05), 2006, p.107

이후 디자인 리서치는 디자인 과정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사용자 조사를 의미하는 ‘디자인 유저 리서치’로 분화된다. 자본주의 고도화 과정에서 경영조직학과 마케팅 이론 등의 발전으로 인해, 디자인 리서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디자인 프로세스 전반부에 실시하는 일종의 예측 기법이 되었다. 초기에는 “사회과학적 방법론과 틈새시장 마케팅 조사기법 중 디자인 분야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발전시켜왔으나, 점차 디자인 리서치만의 독자적 방법론과 기법을 적용하며 새로운 연구 분야로 발달”^[20]하였다. 그 방법론은 몇몇 소비자를 초대하여 모더레이터가 토의를 진행하는 포커스그룹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포커스그룹인터뷰의 심화 형태인 심층인터뷰 (in-depth interview), 인류학적 기법을 응용하여 특정 사람의 행동이나 선호를 분석하는 문화기술연구 (ethnography), 역할 게임 등 디자인 제품과 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고받으며 소비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는 인포먼스 (informance), 목표대상의 사용자들에게 제품을 사용토록 하거나 특정한 과업을 성취하게 하여 피드백을 받는 사용성 테스트 (usability test), 특징적이고 전형적인 고객의 집단을 일반 사용자 전체에서 분화시켜보는 세그멘테이션 (segmentation), 세그멘테이션의 결과를 하나의 가상 인물로 상정하는 페르소나 (personas) 등 다양하다.^[21]

반면 이와 다르게 분화한 디자인 리서치의 일종으로, 디자인된 사물의 문화적 의미를 사회적 맥락을 통해 파악하고 비평하며 담론을 생산해내는 (디자인 ‘연구’[research]라는 의미의) 디자인 리서치 또한 대학을 중심으로 디자인 교육 이론 교과 내외에서 생존해왔다. 앞서 언급한 반-시스템론자의 진영은 주로 유럽식 인문 교양을 근간으로 한 진보적 성향의 지식인 집단이 주를 이루었다.^[22] 이들과 영향을 주고받은 많은 연구자는 1960년대 이후 비판 이론(critical

[20] http://ko.wikipedia.org/wiki/디자인_리서치

[21] http://ko.wikipedia.org/wiki/디자인_리서치

[22] 건축이론가 제프리 브로드벤트(Geoffrey Broadbent)는 이들과 시스템론자들의 대결을 마르크스주의적 실존주의자와 행동주의자의 대립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더 자세한 논의는 박해천, <디자인 방법론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67호 (19-05), 2006, p.111을 참조.

theory)^[23] 등의 영향 속에 시스템 과학과 거리를 두게 되면서, 새로이 대두한 진보 담론인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쪽으로 점차 옮겨가게 된다. 기존 좌파 이론의 경직성과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 삶의 일상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산물에 대해 탐구하고 이론적·실천적 개입에 목표를 두는 문화연구는 지구화 문제, 문화대중주의 비판, 미학과 정치, 광고 산업과 광고 분석 등 매우 넓은 범위의 주제를 포괄했다.^[24] 1960년대 후반에 일어난 여러 정치적 격변은 서구의 문화적·지적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는 문화연구와 더불어 신미술사학, 영화연구, 미디어연구, 커뮤니케이션연구 등 새로운 학문분야를 만들어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과는 다른 형식으로 문화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만들어졌다. 미술평론가 존 버거(John Berger)의 «어떻게 볼 것인가(ways of seeing)»는 예전과는 다른 미술사의 서술 방식을 생각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미술사학자 T.J. 클락(T. J. Clark)은 예술의 사회사적 맥락에 대해 많은 서술을 남겼다.^[25] 비평가 주디스 윌리엄슨(Judith Williamson)은 «광고기호론(Decoding Advertisements)»을 통해 광고에 포함된 기호학적 메커니즘과 정치적 의미를 논했으며, 이론가 딕 헵디지(Dick Hebdige)는 1970년대 펑크족 노동자·청년의 하위문화를 신좌파이론과 연계하여 분석하기도 했다.^[26] 종래의 문화 관련 서술이 다루지 않았던 대중문화 및 하위문화를 주요 주제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디자인 분야에서도 새로운 형식의 시도가 나타난다. 미술사학회의 하위 분과에 존재하던 디자인 이론가들이 디자인사학회를

[23] 프랑크푸르트의 사회과학연구소(Die Institute für Sozialforschung)를 기반으로 호르크하이머(M. Horkheimer), 아도르노(T.W. Adorno), 마르쿠제(H. Marcuse) 등의 이론가가 참여했으며, 전통적인 좌파이론가들이 천착한 정치경제학적 문제보다 인간의 주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며 문화와 일상생활이 어떻게 새로운 지배의 장이 되는가를 더 중요한 문제로 삼았다. 그들은 사회의 경제생활, 개인의 정신발달, 문화의 변형과정을 연구하며, 과학, 예술, 종교 등에 걸친 이른바 정신적 내용만이 아니라, 법률, 윤리, 유행, 여론, 체육, 오락, 생활양식 등의 광범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2011).

[24] 정인숙,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p.48.

[25] 존 A. 워커 외, 임산 옮김, «비주얼 컬처», 서울, 루비박스, 2004, pp.77-78.

[26] Ibid., p.94.

창설하고 저널을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디자인된 특정 사물이 사회와 관계 맺는 방식을 통사적으로 서술하거나 디자인 영역 바깥의 연구결과물, 즉 영화나 TV 등 대중문화와 관련된 연구들과 교집합을 형성하는 여러 저작물을 펴내기 시작했다. 문화연구와 연관되어 위에서 언급된 다종다양한 신생 학문 분야들을 통칭하여 시각문화연구(visual culture studies)라 부른다. 특정 사물을 출발점으로 삼아 당대의 사회사와 문화사를 묘사하는 에이드리언 포티(Adrian Forty)를 비롯하여, 문화라는 큰 범주 안에서 디자인과 연관된 메타 담론을 비평적 형태로 드러내는 수많은 연구자가 문화연구 및 시각문화연구의 범주 하에서 또 다른 의미의 문화적 리서치를 수행해온 셈이다.

이상과 같이 디자인 리서치는 상이한 양상을 띠는 몇 가지 흐름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결과적으로 디자인 리서치는 ①디자인에 과학적·합리적 프로세스를 설정하려는 태도이기도, ②자본주의 고도화 과정에서 발전해온 정교한 상업적 피드백의 모델이기도, ③또한 인문주의적 교양과 조사연구방법론에 기반을 두고 시각문화 전반을 범위로 삼는 문화비평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또 하나의 확장된 정의를 언급할 수 있다. 2007년 설립 이후, «DRS 01 : 특별한 도시공부»를 시작으로 총 4권의 연구실적물을 발간했던 ‘디자인리서치학교’(이하 DRS)가 재정의한 디자인 리서치가 그것이다(이후 기존의 논의와 구분점을 확보하기 위해 ‘디자인 문화 리서치’라는 이름으로 수정되었다). 첫 번째 연구실적물의 서문에서 DRS는, 앞서 언급된 세 가지 유형의 리서치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정의를 비교하며 디자인 리서치라는 표현을 새로이 갱신하고자 한다.^[27]

먼저 시장조사 및 마케팅이론의 계량화 기법으로서의 디자인 리서치는 디자이너와 사용자 양자가 “가치와 목적에 대한 성찰적인 판단과 태도”^[28]를 함양해보는 기회를 박탈하는, 한갓 상업적·순응적 기술로 전락할 수 있다. 반면 해석과 비평의 담론으로서의 디자인 리서치는 실제 디자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27] 홍은주 외, «DRS 01 : 특별한 도시공부», 서울,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2008, pp.7-12. DRS가 자리하고자 노력하는 담론적 좌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여러 디자인 리서치의 역사적 열개, 혹은 개별 프로젝트들의 특성을 본 논문에서 언급하지는 않는다. 자세한 논의는 해당 도서의 서문을 참고.

[28] Ibid., p.7.

'99

복지구센터의 주상복합

복동 복지구센터의 주상복합 공지는 94년 공매 때 밀린 뒤로 11년 만에 경매로서 분양사가 뒤로 늦춰지게 된다. 광고는 부영그린타운(위)과 기동스위트(아래)



(1999년 7월 23일 <동아일보> 광고)

대우전자 기술연구소

대우전자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복동에서 현대건설과 공동주택 '대우테크타워' 계약을 체결했다. 총 31층의 투자는 대우전자에서 100%로, 현대건설은 20%로 투자한다. 현대건설은 20%로 투자한다.



(1996년 11월 28일 <경향신문>)

대우 테크타워

대우전자가 국내 최대규모의 연구개발센터를 복동에 세우고자 했을 때 그 장충은 대단했다.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한시라도 광한할 중요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 불가능이 아닌 포스트의 작업을 통해 세움으로써 복동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이 건물 대우전자의 물량과 함께 연구개발센터 부지도 타당기까지 완료한 상태로 건설업체에 매각되었다.

'96

'98

(1998년 1월 23일 <경향신문>)



서울목동 한국방송회관 준공식

한국방송회관

이러도 없던 한국방송회관이 복동으로 이전했다. 방송회관은 11층복에서 가장 먼저 팔린 부지로서 복동 스카이라인을 오랫동안 담당했다.

10만평 백화점 40층짜리 호텔에 들어선다

나산 호텔과 백화점

94년 공매에서 복동의 왕으로 군림한 것은 다름아닌 상유기업인 나산이었다. 당시 몰아붙여질 확정하던 나산은 땅상에서 10만평 규모의 백화점과 40층짜리 호텔이 들어선다. 시가지 공백은 그들의 관심을 끄는 좋은 기회였다. 기록적인 가격으로 백화점 중역이 호텔까지, 주상복합을 차지하지 사들인 나산은 그러나 곧 자금부족으로 완공을 차부지 못하고 주상복합만이 현재 복동에서 나산의 흔적을 보여주고있다.

행복한 세상

94년 공매 이후 복동에는 많은 건물 수급계획이 생겼는데 중소기업 건물 계획이었던 행복상도 그 중 하나였다. 행복한 세상은 개성 후 뒷단간 지역의 유일한 쇼핑몰이었으나 현대백화점의 개입으로 대형 쇼핑몰로서로서의 매력은 떨어졌다.



첫 中企 전문백화점 '화려한 탄생'

(1999년 10월 28일 <경향신문>)

'96

복동에 최고층 오피스텔

현대건설은 서울 영등포 복동상업지구에서 신축중인 국내 최고층 오피스텔을 건설한다.



(1996년 3월 28일 <경향신문>)

현대그랜드타워 41

현대건설이 지은 현대그랜드타워 41은 당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복동의 다른 어떤 건물보다 높았던 그랜드타워는 하이아일랜드, 지척에 상점으로써 현대백화점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

공매가 끝난 후 (1994-2000)

1994년 실시된 공매에서는 1990년에 비해 훨씬 많은 필지가 팔렸다. 판매된 용지에는 대우전자와 나산을 비롯한 매수자들이 R&D센터와 호텔 백화점 등 다양한 상업업무시설에 대한 개발계획을 발표하느라 분주해졌다. 1985년 목동 아파트단지 개발 이후 목동에 다시금 대규모 개발의 바람이 불었고 그 대상이 10여년간 조용했던 중심축이라는 사실이 흥미로운 점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말 한국을 강타한 IMF 외환위기는 목동에서 진행되던 개발계획들을 휩쓸어 버렸고 결국 손에 잡힐 듯 보였던 서울 서부의 상업 중심지라면 목동의 꿈도 순식간에 환상처럼 사라져버렸다.

- 1985-1990년 사이에 판매된 필지
- 1990-1994년 사이에 판매된 필지
- 1994-2000년 사이에 판매된 필지

그림1-3 '목동: 만들어진 도시의 꿈'의 발체. 목동의 특정 지역들과 그 지역에 해당하는 신문기사들(1994-99년)을 병치하여, 목동 개발과 관련된 순서, 기사 등을 한 눈에 보여주는 복합적인 정보디자인 작업이다. 해당 챗터는 '디자인 문화 리서치'의 가장 전형적인 예시로, 서울의 목동 개발사를 순차적으로 서술하면서 공문서, 언론 등 각종 정보들에 나타난 목동 개발의 편린들을 정보시각화 작업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이현송 외, <DRS4: 도시의 시간>, 서울, 사회적기업티팟, 2011, pp.96-97.)

현실에서 거리를 둔 채 관념적인 도덕론을 설파하는 데에 그칠 수 있다. 전자는 ‘성찰’의 결여가, 후자는 ‘실용’의 결여가 문제가 된다.

DRS가 추구하고자 하는 디자인 리서치는 이 성찰과 실용 양자를 담아낼 방법을 탐구한다. 이를테면 당대의 특정한 사회적 이슈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 자료 및 재료들을 정교한 정량적 기법을 통해 정리·시각화하여 맥락을 형성하는 것이다. 전자는 해석과 비평의 담론으로서 사회적 이슈에 비평적으로 접근하는 ‘성찰’적인 디자인 리서치에 기대며, 후자는 계량적 측정 기법으로서 수치가 그려내는 객관적 현실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실용’적인 디자인 리서치에 기대다. 이처럼 디자인 리서치의 정의는 의미의 분화, 부분적 종합을 거치며 변해왔다. 본 논문에서 포착한 동시대의 의제를, 역사적으로 변천해온 디자인 리서치가 갖춘 상이한 방법론들을 통해 모색해볼 수 있는 것이다.

(2) 정보디자인 및 지식시각화

리서치를 통해 정리된 내용은 시각화되어 수용자들에게 전달된다. 이 전달과정에서 필요한 시각화 방법론이 정보디자인 혹은 지식시각화라 할 수 있다.

해석되지 않은 단편적인 자료의 나열로 정의되는 데이터(data)를 특정한 관점을 취하여 조직하고 의미를 부여한 묶음을 정보(information)라고 정의한다.^[29] 정보디자인은 “효율적인 정보전달 및 반응을 위해 사용자 중심으로 정보를 재구성”^[30] 및 조직화하는 것이며 해당 정의의 초점은 ‘재구성 및 조직화’에 맞추어져 있다. 멀티미디어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정보디자인 개념은 단순한 의미 만들어내기(정보생산) 혹은 정보 옮기기(정보전달)와는 다르며, 의미 만들기(sens making), 방법 찾기(way finding), 주의집중(mindful attention)을 가능케 하는 의도적인 정보 조직화 활동이다.^[31]

[29] Rob van der Spek, André Spijkervet, *Knowledge management: Dealing intelligently with knowledge*, The Hague, CIBIT, 1996, p.13.

[30] 장동훈, <정보디자인의 개념과 멀티미디어 제작 분석>, «인포디자인이슈» 통권 제 1호, 2002, p.14.

[31] Ibid., pp.14-15. 해당 논문의 전반부는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브렌다 더빈 (Brenda

지식은 정보의 상위 개념이자 생산된 정보가 고정·실체화된 결과물이며, 올바르게 디자인되어 개인화 과정을 거친 정보는 지식으로 축적된다.^[32] 즉, “정보의 시각화가 추상적 데이터를 재배열하여 새롭고 가치 있는 정보 형태를 만든다면, 지식의 시각화는 사용자가 유사한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게 통찰력, 경험, 의견, 가치, 예견, 전망 등을 더하는 것”^[33]이다. 이는 ①하나의 데이터가 정보로 변환되고, ②정보가 다시 지식으로 변환되며, ③그 지식이 한 사람의 수용자가 가진 통찰의 근간을 이루도록 만드는 상호소통의 과정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문제를 손쉽게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시각화 방법론 중 가장 유명한 역사적 사례로 아이소타입(ISOTYPE)을 꼽을 수 있다. 아이소타입(ISOTYPE: International System of Typographic Picture Education)은 사회통계학자·철학자 오토 노이라트(O. Neurath), 교육학자 마리 라이데미스터(M. Reidemeister)와 미술가 게르트 아르츠(G. Arntz)를 중심으로 1930~1940년대에 개발된 시각언어체계이다.^[34]

아이소타입은 그림 원소들과 그 원소들의 배열 및 관계에 관한 규칙들로 구성된다. 시각언어체계로서 아이소타입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는, 수량 정보를 나타낼 때 하나의 기호 단위로 정해진 수량을 표시하고, 더 많은 수량은 단위 기호의 반복으로 나타낸다는 점이다.^[35] 디자인 저술가이자 타이포그래퍼인 로빈 킨로스(Robin Kinross)는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통계 그래픽을 이른바 ‘전문가’ 대상 작업물과 ‘일반인’ 대상 작업물로 나누어 언급하며, 그 중 아이소타입은 매우 의식적으로 두 번째 범주에 속하려 했다고 말한다.^[36] 아이소타입은 실제로

Dervin, 정보설계(information architecture) 개념으로 알려진 리처드 솔 워먼(Richard Saul Wurman)을 비롯, 많은 연구자들이 언급한 정보디자인의 정의를 분야, 효용, 정체성의 범주에 따라 정리하고 있다. pp.14-18 참고.

[32] 강성중·오병근, 《정보디자인교과서》, 서울, 안그래픽스, 2008, p.47.

[33] Ibid.

[34] 이상하, <시각소통1.2. 아이소타입(ISOTYPE), 오토 노이라트>, 2005(http://blog.dreamwiz.com/media/pt/CT_guestFolderList.asp?page=68&tuid=suk5kyu&folder=0#MM_SCRIPT).

[35] 마리 노이라트·로빈 킨로스, 최슬기 옮김, 《트랜스포머: 아이소타이프 도표를 만드는 원리》, 서울, 작업실유령, 2013, p.103.

[36] 이러한 아이소타입의 대중적 특성은 분명한 장단점을 가진다. 정보 시각화 분야의 이론가인 에드워드 터프티(Edward R. Tufte)는 아이소타입이 가진 선명한 정치성과 이상은

Profile of Family Income in Columbia, South Carolina, 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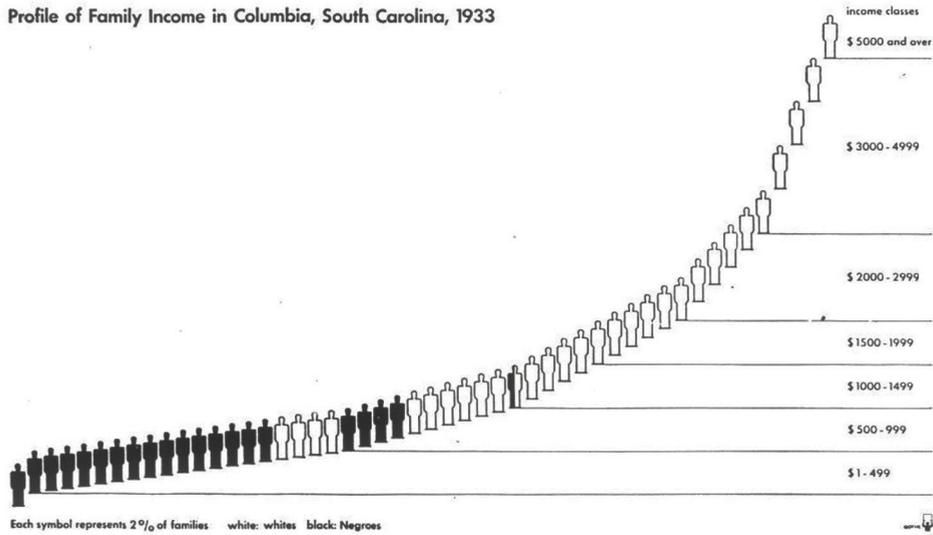


그림1-4 1933년 美 사우스 캐롤라이나 컬럼비아의 가계소득 개요.

여러 측면에서 기존 사회통계학의 복잡한 시각화 기법과는 성격을 달리했다. 아이소타입은 추상(비구상)적인 그래픽 요소가 아닌 구상적 아이콘(icon), 즉 문화적 식별성이 높은 기호를 사용하여 각 단위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한다. 아이소타입은 복잡한 추론 혹은 분석이 필요없는 직접적·직관적인 기호로 설계되었으며, 통계 수치 또한 특정 수준 이상으로 자세히 기술하지 않는다. 분석 장치로 기능하는 복잡한 통계적 도표 기법과 달리, 아이소타입의 기법은 사회 문제와 관련된 핵심 사항을 모든 이에게 공유시켜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적 움직임을 자극하려는 교육적 목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아이소타입은 일부 전문가들이 아닌 ‘보편적 대중’을 대상으로 삼으며, 문제를 분석하는 장치를 넘어 문제 자체를 인식하는 장치로도 기능하고자 했다.^[37]

그림 1-4는 아이소타입의 전형으로, 1933년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주도(州都) 컬럼비아의 흑인 가정과 백인 가정의 소득 차를 시각화한 것이다. 소득 상위는 대부분 백인 가정이 차지하며, 소득 1,500달러를 초과하는 흑인

선호하나, 다소 ‘과잉 압축’되어 있는 측면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Ibid., p.98.

[37] 이상하, <시각소통1.2. 아이소타입(ISOTYPE), 오토 노이라트>, 2005(http://blog.dreamwiz.com/media/pt/CT_guestFolderList.asp?page=68&cuid=suk5kyu&folder=0#MM_SCRIPT).

가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명확히 드러난다. 해당 표에서 인구 구성비는 단위 기호(단위기호당 2%)로 표시될 뿐 정확한 수치를 드러내고 있지 않으나, 인종 간 소득 불평등의 상황을 충분히 드러낸다. 모든 통계적 수치를 자세히 표현하지 않아도 단위 기호가 일관성을 지키며 양적 속성을 올바르게 표상한다면, 주요 사회 문제를 이해하는 보편적 시각언어로 기능할 수 있다.

20세기 대중매체의 발전과 함께 시각언어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고, 대중적보편적 시각언어로서의 아이소타입은 이질적 집단 간 상호작용의 기반, 즉 여러 계층의 집단이 동일한 사회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졌다.^[38] 이와 같은 ‘공용의 시각언어’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각언어가 사람의 타고난 인지적 제한의 범위 안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노이라트는 좌표축, 선분 등의 기존 사회통계학의 도식 기법이 사람의 인지적 특성에 어긋나지는 않으나 효율적으로 설계되지는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대상을 (양적 관계와 질적 관계 모두 셈[counting] 능력에 기반을 둔 양적 대조를 통해 인식하는) 인간의 인지적 특성에 효과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생략 및 단위 기호의 직접적 대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아이소타입)이 좀 더 강력하다 여겼다.^[39]

아이소타입은 이질적인 사회 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회적 의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알리는 보편적 방식으로 최적화되어 있었다. ①문화권의 습속이 그려놓은 경계를 넘는 직관적 표현방식으로 기능하는 구상적 아이콘, ②신속한 인지를 저해하는 세부 수치를 생략한 단위 기호(그림 원소), ③직접적인 양적 대조를 보여주는 시각요소의 배치는 사회 주요 의제를 드러내는 방식에서 아이소타입이 지니는 힘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포착하고자 하는 ‘문제를 풀어내는 당대의 유효한 디자인 방법론’으로서, 디자인 리서치의 여러 역사적 맥락과 정보디자인 및 지식시각화의 개념, 그리고 주요한 사회 문제를 가시화하는 효과적인 시각화 방법론의 예시로 아이소타입을 살펴보았다.

[38] Ibid.

[39] Ibid.

청년 1인 가구의 분포와 경제적 상황을 명확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쟁점을 가시화하기 위해, 이후 논문에서는 각종 정량적 분석 및 정성적 조사연구방법론에 기반을 둔 (디자인) 리서치 방법론을 적절히 적용하고, 연구결과를 유효한 쟁점으로 구분·재배치한 후 각각의 항목을 (인지적 특성에 최적화한) 정보디자인의 문법에 따라 수용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인식되도록 제작한다.

1.2. 연구범위 및 과정

본론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전반적 사항을 항목별로 나누어 서술한다. ‘나의 문제, 혹은 내가 속한 세대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라는 본 논문의 출발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의 주요 범위는 ‘서울 및 수도권 1인 가구’ 전반으로 삼되 20~30대 청년 1인 가구를 중점적으로 언급한다. (필요에 따라 기타 지역 및 세대에 관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1.2.1 선행연구

1인 가구를 주제로 삼아 정보시각화 작업을 수행함에 앞서, 작업 이전부터 유지해 온 연구자 본인의 문제의식이나 방법론 등을 일별할 수 있는 선행연구 작업을 제시한다. 각 작업의 접근 방식과 방법론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통계나 (사회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충분히 가시화되지 못한 정보들을 리서치를 통해 재구조화하여 특정한 맥락을 만들고, 정보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시각화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이 작업들은 공통점을 가진다.

1.2.2 1차 기반 연구 및 시각화

본 단락에서는 1인 가구의 등장 및 증가의 시간적 양상, 지역별 분포와 주거 현황, 계층별 가계소득의 유형 등을 서술하고 그것을 1차적으로 시각화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다. 서울 및 수도권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1차적 시각화를 거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1인 가구의 시간적 분포 (1980-2010)
- ②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 ③ 서울 50m² 이하 소형주택의 면적·임대료 현황
- ④ 수도권 1인 가구의 순자산별 자산과 소득

첫 번째 ‘1인 가구의 시간적 분포’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1인 가구가

구별로 얼마나 증가해왔고, 그 양상은 여타 다인 가구와 비교해 어떠한지를 7장의 이미지를 통해 5년 단위로 드러낸 시각화 작업이다. 인구주택총조사 등 통계청이 수행하는 대규모조사가 5년 단위로 진행되므로, 가장 최근의 조사결과인 2010년의 분포 양상을 현재로 삼았다.

두 번째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는 앞의 작업 ‘1인 가구의 시간적 분포’의 마지막 장인 2010년을 현재로 삼아, 현재 서울 1인 가구의 분포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낸 시각화 작업이다. 공간적 분포는 3가지 작업으로 나뉘게 된다.

세 번째 ‘서울 50m² 이하 소형주택의 면적-임대료 현황’은 서울에 존재하는 일반주택 매물 중 50m²(약 15평) 이하의 매물정보를 수집하여, 가격대별로 평균 면적과 임대료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시각화한 작업이다. 환산 월세 액수 순으로 5개의 계층(분위)을 설정하고, 각 분위의 매물 및 임대료 정보를 시각화에 반영했다.

네 번째 ‘수도권 1인 가구의 순자산별 자산과 소득’은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시각화한 작업이다. 해당 작업은 연령별/순자산별로 각각의 행위자들이 얼마만큼의 순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 그 행위자들의 소득은 어떠한지를 나타낸다.

위와 같은 1차 기반 연구를 통해 생산된 시각화 작업들은 정보의 가독성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복잡성이 정보 전달에 적절한지, 특정한 논점이나 선명한 메시지의 제시하는 데에 무엇이 효율적인지(즉, 무엇을 더 강조하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에 따라 재구조화가 필요했다. 따라서 이 1차 기반 연구의 생산물들은, 최종 연구로 다시 재배치된다.

1.2.3 최종 연구

본 단락에서는 1차 기반 연구에서 연구되고 생성된 작업들을 보다 간결하고 또렷하게 제시하기 위해 선행 작업을 전면적으로 재작업 및 재배치한다.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개괄

- (1) 1인 가구의 시간적 분포 (1980-2010)
- (2)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②청년 1인 가구: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사적 공간의 크기는?

- (1) 서울 소형주택의 구별 평균 면적 및 가격은?
- (2) 서울 소형주택의 1평당(3.3m²) 평균 월세 가격은?
- (3) 수도권 1인 가구의 순자산, 부채, 소득은?
- (4) 수도권 다인 가구의 순자산, 부채, 소득은?
- (5) 20대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유지 가능한 집의 넓이는?
- (6) 30대 청년 1인 가구가 유지 가능한 집의 넓이는?

③최종 요약 작업

- (1) 서울 1인 가구의 시공간적 분포: 1980-2010
- (2) 수도권 1인 가구 거주자의 평균 순자산과 부채는 얼마이고, 자신의 소득으로 어느 정도 넓이의 공간에서 살 수 있는가?

개괄적 정보와 주요 논점을 대분류로 구분하여 구성했다. 1인 가구의 시간적/공간적 분포는 전반적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①개괄이라는 큰 범주를 설정하여 먼저 제시하고, 이어 주요 논점으로 ②‘청년 1인 가구: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사적 공간의 크기는?’ 항목을 보여준다. 이는 1차 기반 연구의 세 번째 항목 ‘서울 50m² 이하 소형주택의 면적·임대료 현황’과 네 번째 항목 ‘수도권 1인 가구의 순자산별 자산과 소득’을 토대로 구성한 것이다.

②번의 첫 번째 항목 ‘서울 소형주택의 구별 평균 면적 및 가격은?’과 두 번째 항목 ‘서울 소형주택의 1평당(3.3m²) 평균 월세 가격은?’은 실제 매물들의 면적과 임대료, 평당 임대료를 시각화하고 있다. 두 작업 모두 1차 기반 연구에서 생산된 시각화 작업을 개선했다.

세 번째 항목인 ‘수도권 1인 가구의 순자산, 부채, 소득은?’과 네 번째 항목인 ‘수도권 다인 가구의 순자산, 부채, 소득은?’은 (1차 기반 연구에 존재하는 항목과 같이) 순자산과 부채, 소득을 분류별로 나타낸다. 네 번째 다인 가구와 관련된

작업은 세 번째 1인 가구에 관한 작업과 비교해볼 수 있는 기준점으로 기능하며, 통상 ‘일반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기도 한다. 역시 두 작업 모두 1차 기반 연구에서 생산된 시각화 작업을 개선했다.

다섯 번째 항목인 ‘20대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유지 가능한 집의 넓이는?’과 여섯 번째 항목인 ‘30대 청년 1인 가구가 유지 가능한 집의 넓이는?’은 앞의 4가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제 20~30대 청년 1인 가구가 소득계층별로 얼마만큼의 면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결론 부의 작업에 해당하는 최종 요약 작업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내용의 핵심을 최대한 효과적이고 간결하게 제시할 수 있는 스크린 미디어 작업을 제시한다. 대형 터치스크린을 통해 디스플레이됨을 가정하고, 항목①의 압축인 ‘서울 1인 가구의 시공간적 분포: 1980-2010’과 항목②의 압축인 ‘수도권 1인 가구 거주자의 평균 순자산과 부채는 얼마이고, 자신의 소득으로 어느 정도 넓이의 공간에서 살 수 있는가?’ 두 가지 작업이 제작되었다. 전자는 30년간의 1인(다인) 가구의 주택유형 및 방의 개수 변화와 현재(2010년 기준) 동별 분포, 밀집 유형별 분류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후자는 수도권 1인 가구 거주자의 평균 순자산과 부채, 평균 소득, 유지 가능한 집의 평균 면적을 한꺼번에 일별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1.2.4 부록1: 1인 가구의 이면

논문의 결론 항목 이후, 부록의 성격을 띠는 작업이 추가되어 있다. ‘1인 가구의 이면’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해당 작업은, 현실의 경제 지표나 역사적 사실들을 기반으로 가상의 이야기를 만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인 1950년대생 부모와 (예코 세대로 불리는) 1980년대생 자녀를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12가지 삶의 패턴을 만들었다. 하나의 가족이 삶의 특정 시기에 어떠한 경제적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 분기점이 만들어지고, 그 선택에 따라 만들어진 12가지의 가상 사례를 에세이 형식의 텍스트로 만들었다.

텍스트에 묘사된 사례는 다시 도표와 다이어그램으로 제시된다. 해당 시각화 작업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가계의 자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부모

세대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시각화 작업에서는 그들 중 누가 청년 1인 가구가 되고, 그 청년 1인 가구는 어떤 부모가 소유한 원룸에 거주하고, 어떤 부모가 창업한 점포에서 아르바이트하게 되는지를 드러낸다. 현실의 지표에서 출발하여 가상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 가상의 이야기를 구조화하여 ‘1인 가구의 이면’이 어떠한 역학으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해당 작업의 주요 특징이다.

2. 선행 연구

2장 선행 연구에서는 1인 가구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디자인 리서치나 정보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특정한 주제를 시각화한 선행 작업들을 살펴본다. 본 장에서 제시되는 4가지 작업은 작업의 의도, 제시하고자 하는 주제, 적용한 방법론 등이 각각 다르다. 전달하는 내용보다도 그 내용의 전달하는 형식의 중립성에 초점을 맞춘 작업이 있는 반면, 내용의 간접적 전달을 위해 의도적으로 형식을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뒤틀어 제시한 작업도 존재한다. 즉, 시각적 문해(visual literacy)가 손쉬운 ‘친절한’ 작업과 꼼꼼한 독해를 요구하는 ‘친절하지 않은’ 작업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한 데이터를 시각화함으로써 중립적/편파적인 맥락을 형성시키고, 그것을 통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수용자들에게 특정한 사실을 전달 및 환기한다는 점에서 해당 선행 연구 작업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2.1. Earthquakes in the World (2009)

해당 작업은 2009년 수업 과제로 제작된 ‘Earthquakes in the World : 지진을 세 가지 매체로 표현하기’의 일부분이다. 매우 간략한 정량적 정보만을 가지고 진행된 작업이므로 해당 논문에서 논술한 ‘디자인리서치’의 방법론을 적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특정 정보를 매체에 맞게 시각화한 기초적인 예시로서 간략하게 언급한다.

이 작업은 2008년 세계에서 일어난 지진들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수업의 전제조건은 같은 정보를 상이한 3가지의 미디어—페이지, 스크린, 피지컬 미디어—로 표현하는 것이었으며, 뒤의 그림은 그중 스크린 미디어로 제작된 웹사이트이다.

작업에 있어 주요 고려사항은,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가장 적합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스크린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 특성, 즉 제작 및 수용에 있어 페이지 분량에 관한 부담이 적은 점, 화면상의 역동적인 변환이 가능한 점 등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지진 박물관에 전시되는 키오스크라고 가정하고, 실용적인 정보디자인의 기본적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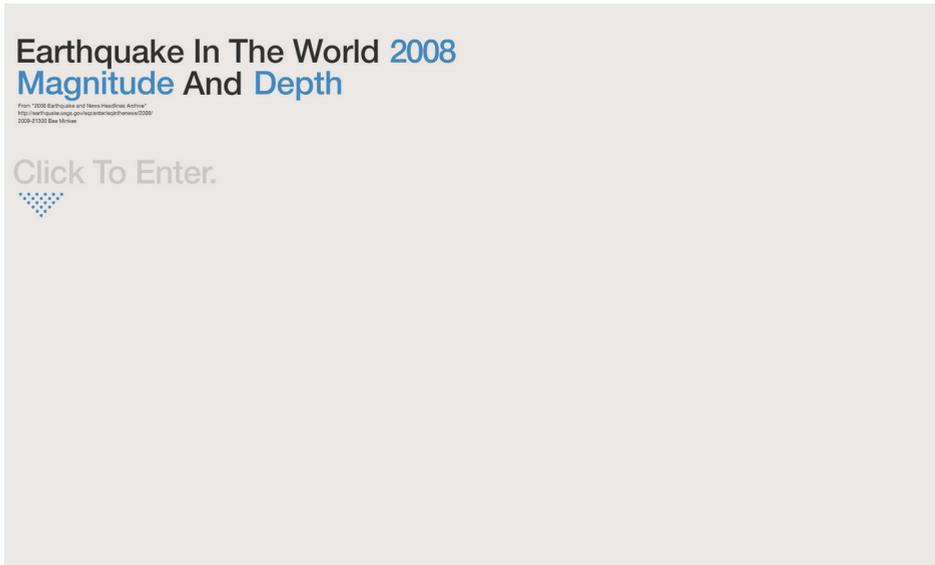


그림2-1 Earthquakes in the World 첫화면. (조사연구 및 디자인: 배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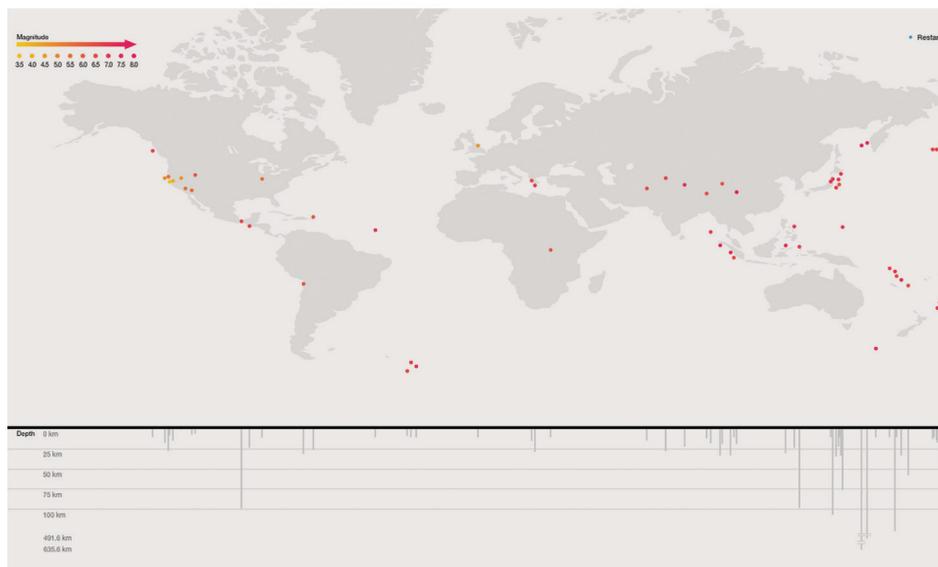


그림2-2 Earthquakes in the World 메인맵. 지진발생지점이 표시되어 있다. (조사연구 및 디자인: 배민기)

노력하면서 작업했다. 메인화면(그림2-2)으로 들어가면, 진도(magnitude)와 진원지의 깊이를 하나의 화면에 나타내어 개략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지점의 색상은 지진 강도에 따라 황색과 적색 사이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지진 강도별로 수치를 분절하여 별개의 색상을 불연속적으로 할당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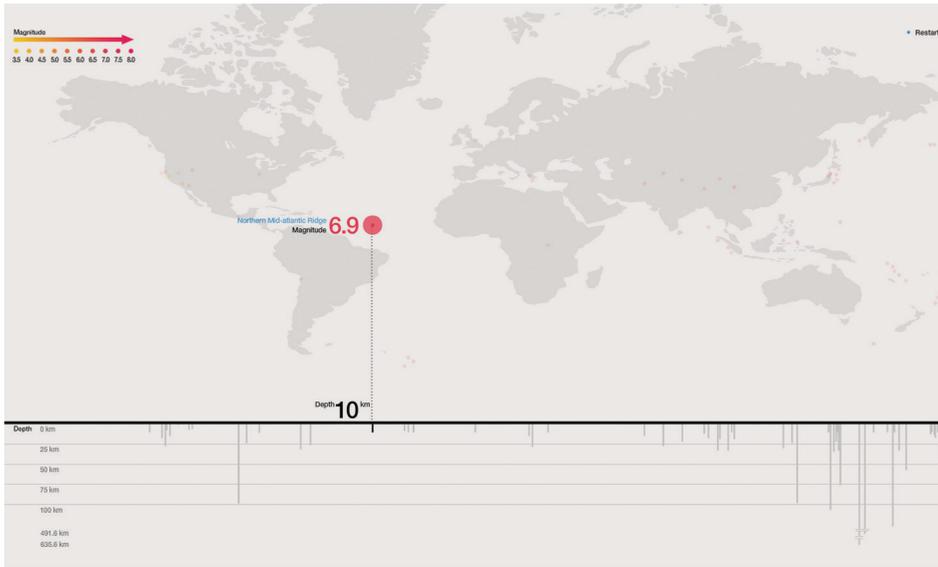


그림2-3 Earthquakes in the World 선택하면, 롤오버 시 축약정보가 표시된다. (조사연구 및 디자인: 배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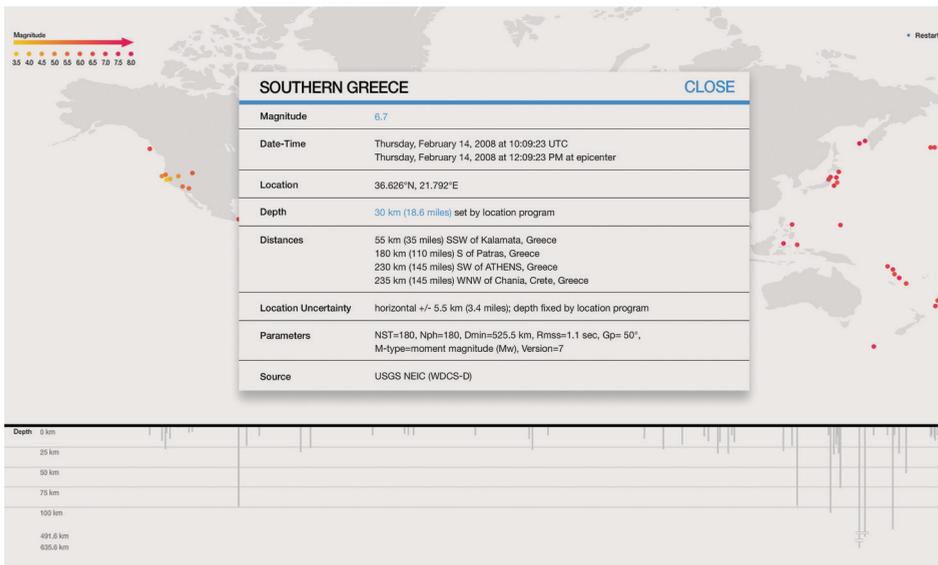


그림2-4 Earthquakes in the World 선택상세. 특정지점의 진도, 위도, 경도, 깊이 등의 상세정보가 표시된다. (조사연구 및 디자인: 배민기)

것보다는, 낮은 진도(황색)에서 높은 진도(적색)로 높아질수록 주목도가 높은 색이 표시되는 방식으로 색상체계에 그라디언트(gradient)를 적용하는 편이 연속적인 값을 표현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지점에서 동심원이 지진 강도의 크기와 비례하여 움직이도록 디자인함으로써, 수치의

크기 차이를 명료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지점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지도 위의 지진 발생지점과 지도 하단의 깊이 정보가 점선으로 연결되면서(그림2-3), 해당 지점의 지진 강도와 깊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했다. 클릭하여 해당 지점으로 들어가면 상세정보가 팝업의 형태로 제시되며, 상위 레이어의 팝업 창은 이전 화면이 충분히 노출되는 방식으로 등장함으로써 언제든지 지도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2. 동아시아 평화의 다시마벨트 (2012)

본 작업은 2012년 6월 30일 발행된 비정기 문화잡지 «DOMINO» 2호에 게재된 것으로, 교통·인프라 연구자 전현우의 기고문 <번영의 다시마, 평화의 다시마, 화합의 다시마를 공약으로!>의 첨부 자료 형태를 띠고 있다. 연구자 전현우는 시각화를 위한 각종 자료의 조사 및 수집, 정리를 담당하였으며, 디자이너 배민기가 해당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상의 동아시아 다시마 농장분포도인 ‘동아시아 평화의 다시마 벨트’ 지도를 만들고, 그와 연관된 에너지 수급밸런스 표, 다시마 활용모식도, 재난과 대처에 관한 시나리오 다이어그램 등을 제작한 것이다.

연구자 전현우는 일종의 ‘사이코 과학자’로서의 화자를 스스로 설정하고, 당해 시행될 예정이던 대통령 선거의 당선예정자를 가상의 독자로 삼아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재료공업, 나아가 물질문명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제안”, 즉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에 “초대형 다시마 농장을 건설하고 다시마를 통해 점진적으로 석유의 역할을 대체”하자고 제안한다.^[1] 해당 글은 에너지에 관련된 담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즉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그에 맞서 제시되는 해상풍력, 태양광, 육상작물 바이오매스 등의 대체에너지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연구자 전현우는 “다시마는 석유값의 요동으로부터 우리 국민경제를 지켜줄 것이고, 탄소로 인한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환경을 지켜줄 것이며, 플라스틱의 대체 연료로서 우리 국민의 생활 수준을 지켜줄 것이고, 콤비나트(기업집단) 건설지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2] 더 나아가 그는 건설된 다시마 농장이 태풍 등의 자연재해를 초국적 협력으로 대비하게 하는, 즉 다시마농장이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선택압이자 공유 재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해당 글은 다시마로 대표되는 해상 바이오매스 수급의 원활함, 높은 화학 원료비율, 저탄소 녹색성장에의 적합성 등을 역설하며 동아시아

[1] 도미노 편집부, «DOMINO», 통권 2호, 2012-06, p.55.

[2] Ibid., 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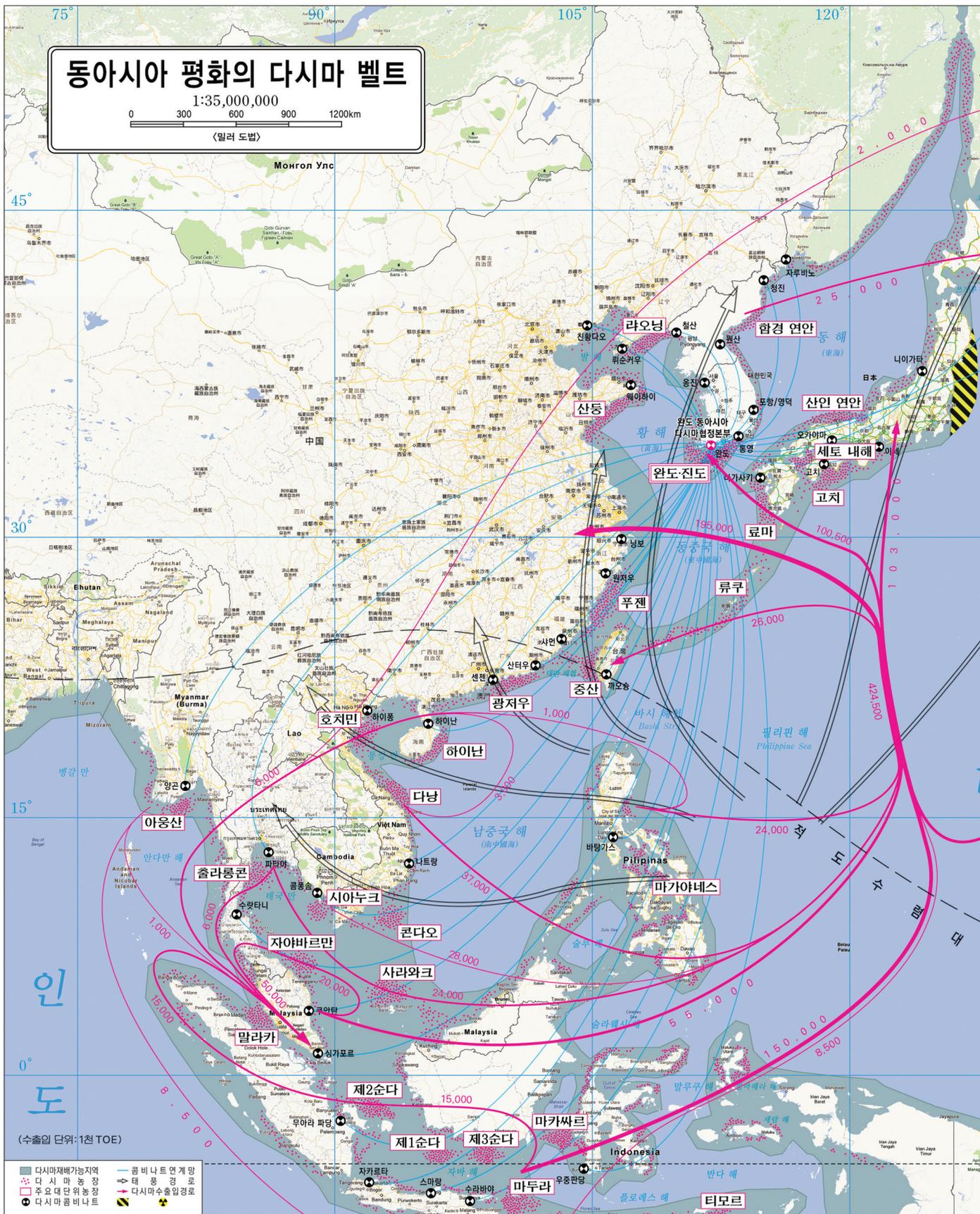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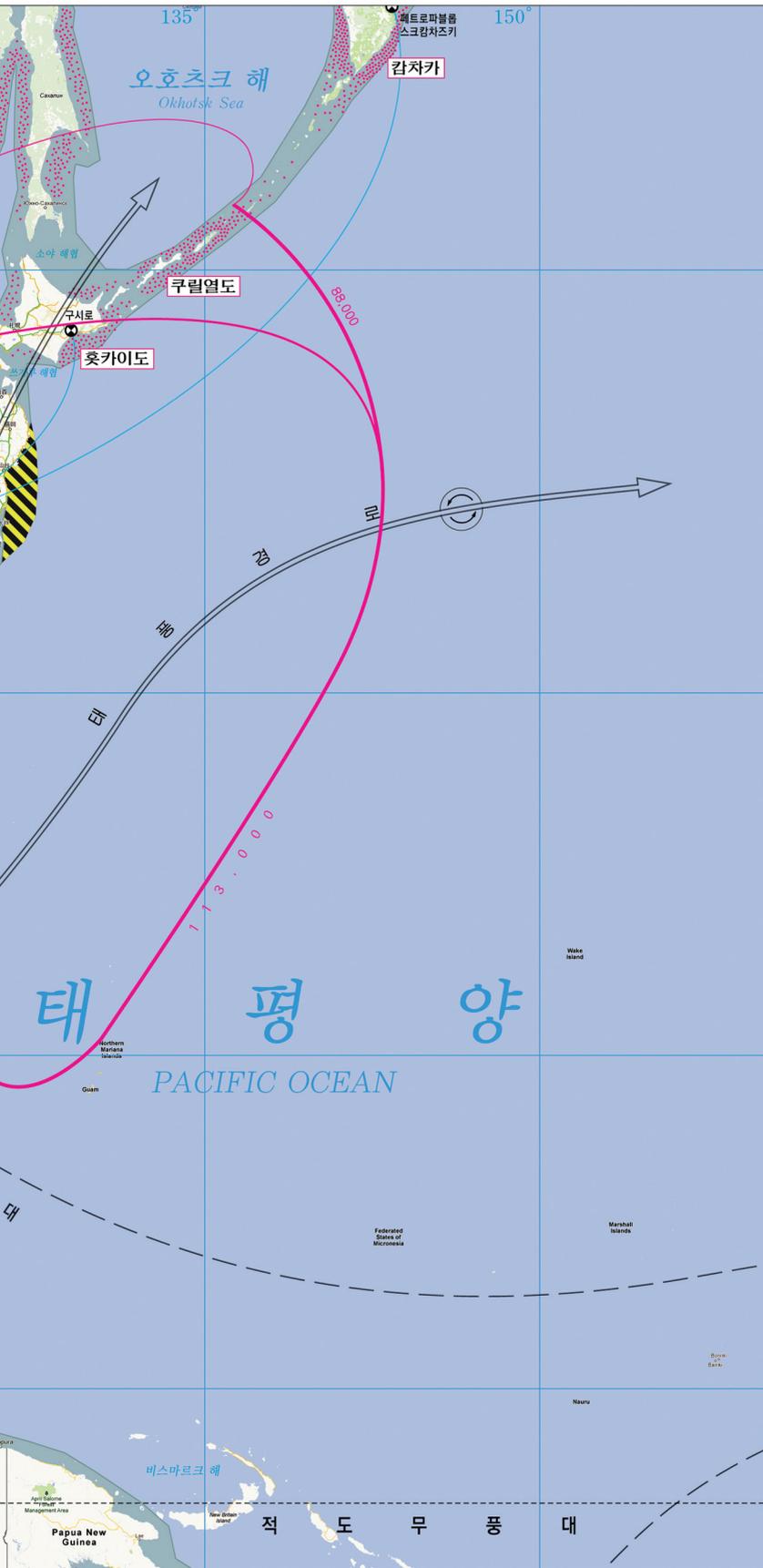


그림2-5 다시마 농장의 위치 및 관계도와 다시마 총량, 주요농장 생산능력(조사연구: 전현우, 디자인: 배민기).



1 다시마 총량 (2032년 추정량, 단위: 1천 TOE)

	공급능력	정제능력	1차에너지 총량	총량대비 정제능력
한 국	48,000	150,000	240,734	0.6231
중 국	200,000	400,000	2,380,645	0.1680
일 본	60,000	160,000	478,508	0.3344
대 만	15,000	40,000	104,202	0.3839
인도네시아	200,000	50,000	198,366	0.2521
말레이시아	100,000	25,000	66,584	0.3755
베 트 남	50,000	10,000	62,520	0.1599
필 리 핀	35,000	10,000	39,711	0.2518
태 국	70,000	40,000	108,377	0.3691
미 안 마	20,000	10,000	15,158	0.6597
북 한	35,000	10,000	19,267	0.5190
싱 가 폴	0	50,000	57,750	0.8658
브루나이	0	0	3,344	0.0000
캄보디아	40,000	10,000	5,141	0.0000
러 시 아	120,000	30,000		
역 내	993,000	995,000	3,780,307	0.2499

2 주요농장 생산능력

	면적 (km ²)	생산능력 (1000 TOE)	총출 (1000 TOE/km ²)
한 국			
완도-진도	3000	10400	3.47
남해-통영	3000	10300	3.43
남제주	5000	16000	3.20
동해연안	1500	5000	3.33
총 계	15000	48000	
중 국			
랴오닝연안	10000	25000	2.50
산둥연안	18000	56700	3.15
푸젠연안	10000	25000	2.50
광둥연안	12000	30000	2.50
하이난	7000	21000	3.00
총 계	70000	157700	
일 본			
료마(큐슈)	2000	5850	2.93
세토내해	2000	8000	4.00
고치연안	2000	6000	3.00
산인연안	3000	10000	3.33
홋카이도	6500	15000	2.31
큐슈	3000	10000	3.33
총 계	18500	54850	
대 만			
중산	4000	13000	3.25
인도네시아			
제1순다	23000	49000	2.13
제2순다	21500	46300	2.15
제3순다	20800	43200	2.08
마카싸르	16000	27500	1.72
마두라	15000	27000	1.80
총 계	96300	193000	
말레이시아			
말라카	25000	53000	2.12
사라왁	30000	67000	2.23
베트남			
훈치민	8000	15400	1.93
다낭	5000	8000	1.60
콘다오	16000	32300	2.02
총 계	29000	55700	
필리핀			
마기야네스	20000	30000	1.50
태국			
출라롱콘	25000	64000	2.56
미얀마			
아웅산	10000	20000	2.00
북한			
함경연안	10000	25000	2.50
철산	5000	10000	2.00
캄보디아			
시아누크	11300	28000	2.48
지아바르만	23000	56000	2.44
러시아			
쿠릴	16000	25000	1.56
캄차카	50000	80000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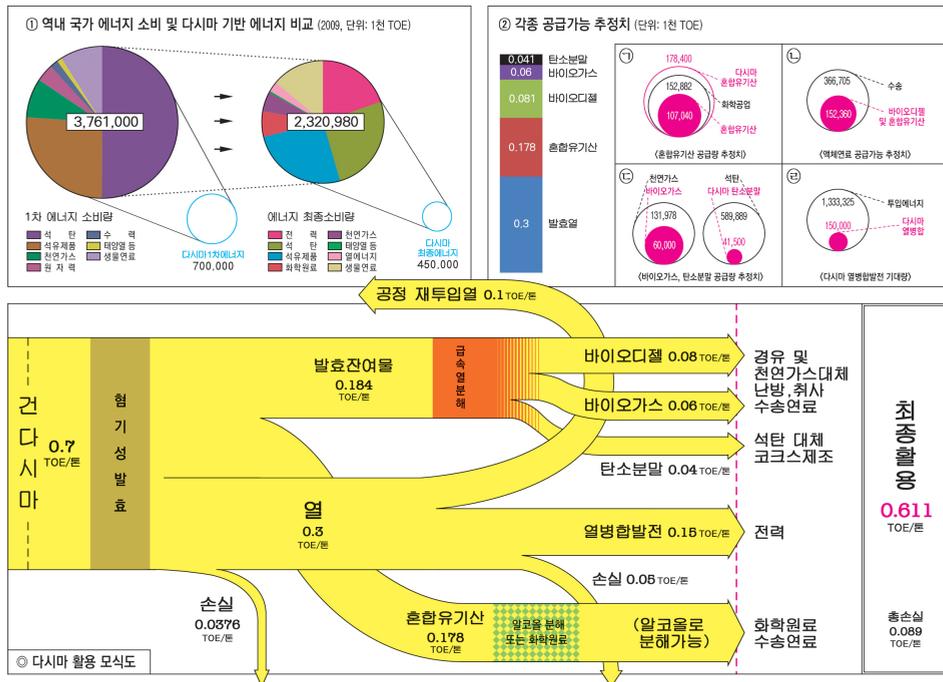


그림2-6 첨가된 각종 다이어그램(조사연구: 전현우, 디자인: 배민기).

지역 국가 에너지 수급밸런스, 다시마 생산 가능 총량, 주요농장의 위치와 면적, 생산능력, 효율, 기존 역대 국가 에너지 소비 및 다시마 기반 에너지 비교, 각종 공급 가능 추정치, 활용 모식도, 북서태평양 지역의 평균 해수면 온도, 국가별 EEZ 면적, 비상 수급계획 등의 항목을 통합적으로 리서치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 시각화에서는 먼저 지형학적 정보와 각종 수치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보여주기 위해, 그림2-5와 같이 여러 시각적 기호를 사용한 관계도를 제작하였다. 논의 주제와의 연관성 및 기획의도에 따라 중·고등학교 지리부도의 표현방식이 적극적으로 차용되었으며, 면적으로 표현된 다시마 재배 가능지역 위에 다시마 농장의 위치가 지정되어 있다. 해당 농장은 적색 계열의 점으로 생산 가능한 양이 표현되어 있으며, 점이 많이 찍혀있을수록 생산량이 많다. 농장들 사이의 수출입 경로는 적색 화살표로 시각화되어있는데, 수출입량이 화살표의 굵기로 표현되어 있다. 해당 지도는 각 농장의 생산량과 수출입 경로 및 수출입량을 한 화면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지도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수치는 본문의 도판 및 다이어그램으로

삽입되어 글의 이해를 돕는다. 그림2-6 하단부의 활용 모식도는 특정량의 건다시마(0.7 TOE/톤)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얼마만큼의 양이 사용되고 버려지는지를 드러낸다. 발효 잔여물과 혼합유기산, 열에너지와 손실로 나뉜 원재료는 각각 바이오디젤, 바이오 가스, 탄소분말, 열병합발전, 기타 화학 연료로 분화되며 그 과정에서 손실과 공정 재투입 열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발생한 각 요소는 각각 천연가스 대체, 석탄 대체, 전력, 화학 원료로 활용되고, 모식도 말단에는 최종활용량과 총손실량이 표시된다.

2.3. ROMAN LADDERS (2012)

본 작업은 2012년 12월 31일 발행된 비정기 문화잡지 «DOMINO» 3호에 게재된 것으로, 1993년에서 2008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노동자들의 연령별 임금 계층과 (노동시장 유입)인구, 해당 요소들과 연관된 저축률 및 가계부채를 시각화한 작업이다(로마식 사다리[roman ladders]라는 제목은 서커스 기술에서 따온 것으로, 사다리를 축으로 가운데에 서 있는 남성 공연자 양쪽에 2명의 여성 공연자가 좌우로 매달려 아슬아슬한 평형을 이루는 묘기의 이름이다. 근과거의 한국경제가 변천하는 과정 속에서 동적 평형을 유지해 온 근로계층에 관한 은유로서, 본 작업의 제목으로 차용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을 시각화하여 세대별, 계층별 노동자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였고, 그 비율은 어떠한지, 그 경제적 토대는 무엇인지를 1장의 대형 포스터로 드러내고자 한 작업이다. 리서치는 부동산 연구자 박재현이 진행했으며, 디자이너 배민기가 시각화 작업을 맡았다.

리서치는 시간을 기준으로 잡은 후, 연도별 국민 총임금 합계, 인구, 가계부채 총액, 저축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해당 요소들은 각각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집계되었는데, 총임금액은 5인 이상/미만 사업장의 임금총액, 연봉 계층별 임금총액, 세대별 임금총액으로 분할되고, 인구는 연도별 5인 이상/미만 사업장 구직자와 실업자, 구직포기자로 나뉘며 가계부채 총액과 저축총액은 연도별로 구분된다.

이처럼 조사한 사항을 시각화하는 것에 있어, 우선 화면의 상하를 시간 축으로 잡고, 하나의 영역 층위에 해당 연도의 정보들을 표현하는 방식을 취했다. 화면 중앙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5인 이상^[1] 사업장 근로자들의 임금 정보가 배치되고, 오른쪽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임금 정보가 자리한다.^[2]

가운데 줄기는 연도별 노동시장 유입인구를 나타내고, 이는 다시 3가지

[1] 5인 이상/이하 사업장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관련이 있다.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월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요건이 제외된다.

[2] 화면 좌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상용직 근로자 임금총액이 표시되며, 우측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용직 및 모든 사업장의 임시직, 일용직, 기타 고용 형태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표시된다.

ROMAN LADDERS* EQUILIBRISTIC CIRCUS SK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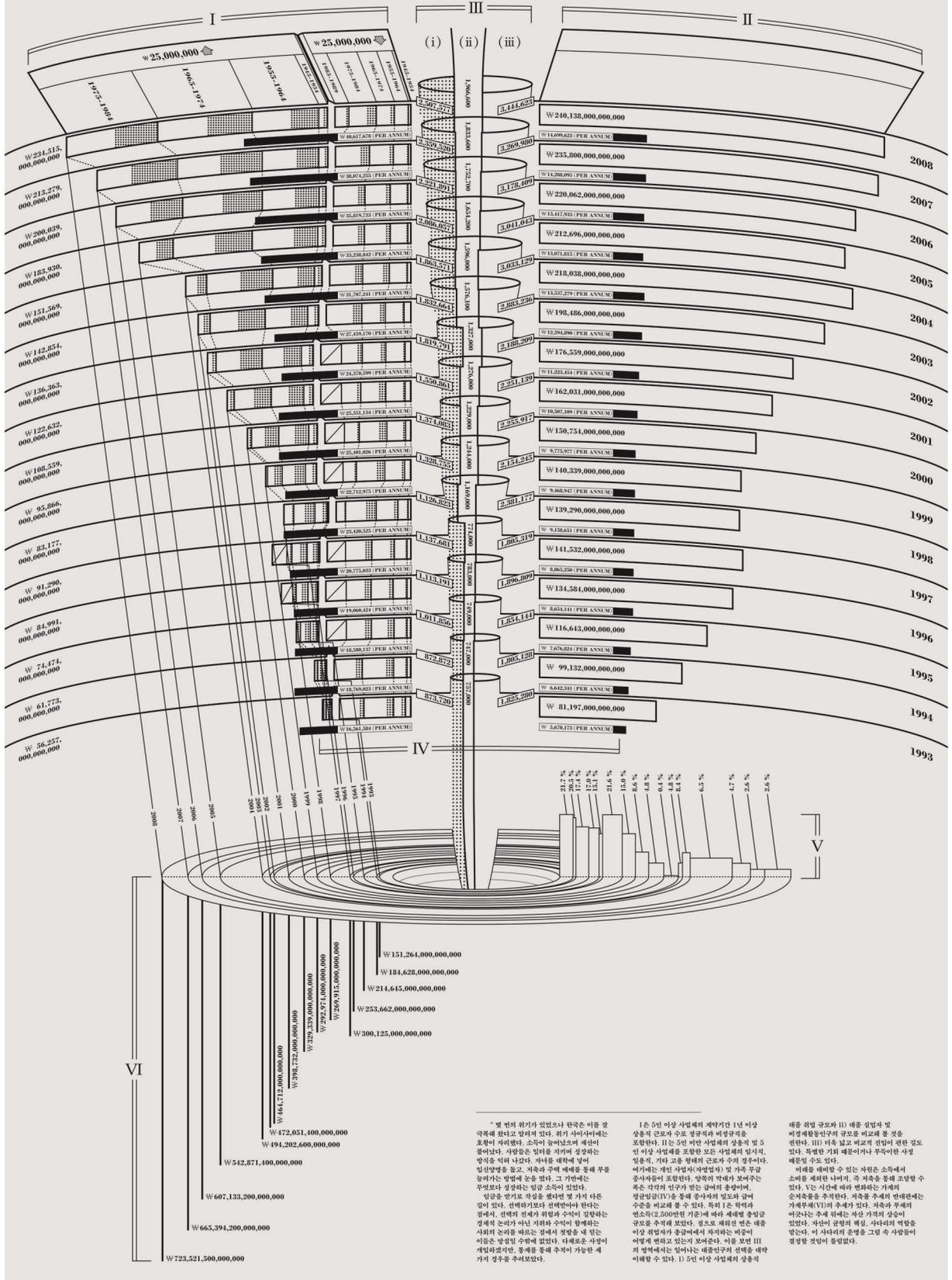


그림2-7 ROMAN LADDERS(조사연구: 박재현, 디자인: 배민기).

* 몇 번의 위기가 있었으나 한국은 이를 잘 극복해 왔다고 알려져 있다. 위기 사이사이에는 호황이 자리했다. 소득이 늘어났으며 재산이 불어났고,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며 고통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갔다. 나라를 배반해 넘어 입신양명을 하고, 저축과 주택 배분을 통해 부를 늘려가는 방법이 눈물 흘렸다. 그 기만에는 무조건적 실패는 일관 속이 있었다.

인물을 받기로 작성을 했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전체가 보다 선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체의 전체가 위함과 수단이 고통하는 정렬 도리가 아닌 위함과 수단이 고통하는 사회의 논리를 따르는 점에서 찾았을 때 넣는 이유는 알릴 수 없었었다. 대체로 사람이 정렬되지, 함께 물리 주적이 가능한 게 가지 경우를 추려보았다.

I는 5년 이상 사업체의 계약기간 1년 이상 상용직 근로자 수로 정량적과 비정량적용 포함한다. II는 5년 미만 사업체의 상용직 및 5년 미만 사업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체의 상용직, 임용직, 기타 조종 형태의 근로자 수의 경우이다. 여기에는 개인 사업자(자영업자) 및 가족 무급 종사자를 포함한다. 양쪽의 차이가 보여주는 것은 직장의 인구가 많을수록 총액이며, 평균임금(IV)은 총 종사자의 임의와 급여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특히 I은 학력과 연소득(2,500만원 기준)에 따라 세부별 총임금 규모로 추려해 보았다. 앞으로 세련된 연도 다음 이상 취업자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아준다. 이를 보면 III의 정렬에서는 나타나지는 패턴의 선명해 데카 이해할 수 있다. I) 5년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대중 취업 규모와 II) 대졸 설립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를 비교해 볼 것을 권한다. III) 더욱 넓고 비교적 건실이 편한 길도 있다. 특정한 기의 때문이나 무조건적인 사정 때문일 수도 있다.

비율을 대략할 수 있는 자원은 소득에서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즉 저축을 통해 저장할 수 있다. V는 소득에 대한 변화는 가계의 순저축을 추적한다. 저축과 부채의 반대편에는 가계부채(VI)의 추세가 있다. 저축과 부채의 여는 두어 뒤에는 자산 가치의 상승이 있다. 자산이 감질된 경우, 사다리의 변형은 않는다. 이 사다리의 운영은 그림 속 사람들이 경험할 것이다.

영역으로 나뉘게 된다. 왼쪽 날개는 I 영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연봉 25,000,000원^[3]을 기준으로 큰 분류가 나뉘며, 그 안에서 다시 세대별로 구획이 나뉜다. 각 면적은 해당 집단이 받은 임금의 총액이며, 각 액수를 양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다. 또한 각 면적에는 대졸 출신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흑색 점의 패턴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각 막대 하단에는 흑색 막대가 자리하는데, 이는 해당 연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연봉을 의미한다.

오른쪽 날개는 II 영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5인 미만 근로자와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등의 연도별 임금총액만이 표시되어 있고, 역시 하단에는 해당 연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흑색 막대로 시각화되어 있다(좌우 양측의 흑색 막대는 IV 영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양쪽 날개가 금액을 양적으로 나타낸다면 가운데 줄기는 인구를 나타내는데, III 영역으로 지정된 해당 요소는 각각 (i), (ii), (iii)으로 지정되어 있다. 줄기의 오른쪽 (i)는 매년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에 취직하는 유입인구, 가운데 (ii)는 매년 생겨나는 실업자와 구직포기자의 인구, 왼쪽 (iii)는 매년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직하는 유입인구(및 일용직 임시직 유입인구)이다. 방향에 따라 좌우로 들어가는 형상을 띠며 (ii)는 어느 쪽에도 진입하지 않는다.

또한, 위에서 설명된 모든 그림은 화면 하단의 동심원에서 솟아나오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 동심원의 우측 윗부분에는 해당연도별 저축률이 표시되어 있고, 좌측 하단으로 뻗은 선분들은 연도별 가계부채 총액을 나타낸다. 이처럼 해당 포스터는 한국의 특정한 경제적 변천 속에서 근로 인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왔으며 계층별로 얼마만큼의 임금을 분점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동시에, 저축률 하락/가계부채 총액 상승(과 집값 상승) 속에서 각 행위자의 상황을 한 화면에 드러내는 설명문으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졌다. 전체 구조는 제목 ‘로마식 사다리’처럼 위태로운 평형 상태를 드러내는 시각적 은유이기도 하지만, 특정 시기의 한국 사회를 하나의 유기적인 자연물처럼 표현해보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이와 같은 구조와 단색 선화[線畵] 양식은 ‘신곡’의 몇몇 현대 판본에 등장하는 지옥[inferno]의 그림2-8 등에서 그

[3] 도시근로자 평균생활비를 통해 역산으로 책정하였으며, 연도별 수치를 가변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것은 작업 상의 오류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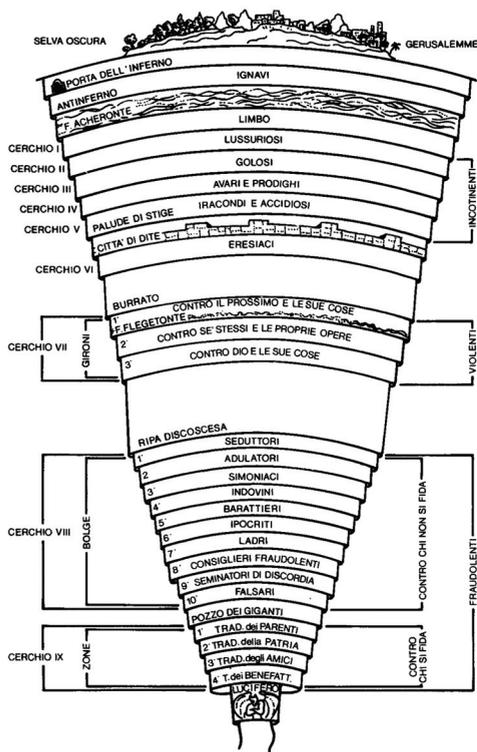


그림2-8 Dante's Inferno
 (http://danteonline.altervista.org/divina_commedia.html).

형식을 빌어온 것이다).

해당 작업은 기고 및 기획단계에서의 자의적 결정으로 인해, 길이로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할 저축률이 면적으로 표시된 점, 단위 영역 안에서 임금의 양적 표현과 연봉의 양적 표현이 동일한 기준이 아닌 점 등 통상적인 정보디자인의 문법에서 오류로 간주할 수 있는 요소들 또한 적지 않다. 이후 진행될 작업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라 하겠다.

2.4. 세 도시 이야기 - 데이터토피아: 핀볼 (2014)

본 작업은 제4회 APAP(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개별 프로젝트 ‘세 도시 이야기’ 작업 일부이다. ‘세 도시 이야기’는 “한국 고도 성장기의 유산, 그리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신도시 발전 과정에서 작동해온 세대들의 정체성과 특성을 발견”한다는 전제하에, 신도시의 “지리적 정보와 역사적 자료를 모으고 분석한 후, 그래픽 디자인을 통해 그 결과를 흥미롭게 제시”^[1]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다.

디자이너 배민기가 포함된 한시적 창작집단 O/R은 ‘세도시 이야기’의 세부 항목 ‘데이터토피아’를 공동작업했다. 데이터토피아는 일산, 평촌, 분당 등의 “신도시 아파트들의 평당가격과 시가총액, 지역별 전세가 및 매매가 등의 부동산 가치가 고속도로와 지하철 노선의 추가 현황,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의 차선 수, 실제 교통량 등과 갖는 상관관계를 주목”^[2]하면서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을 도표화 하는 하위 프로젝트였다.

데이터토피아는 주제에 따라 총 4가지 작업이 제작되었는데, 게임의 은유를 적용하여 각 주제를 구체화했다. 신도시 아파트의 누적 시세차익을 시각화한 ‘버블버블’, 신도시의 생애주기를 다룬 ‘젠가’, 서울 및 수도권의 마트 매출 추산액을 표현한 ‘차이니즈 체커’,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 및 변화를 그려낸 ‘핀볼’이 있으며, 그중 본 단락은 ‘핀볼’을 다룬다. ‘핀볼’에 한하여 리서치는 교통·인프라 연구자 전현우가 담당하고, 디자이너 배민기가 모든 시각화를 담당하였다.

핀볼은 신도시의 교통에 대한 작업으로, 일산, 평촌, 분당의 세 신도시를 중심으로 연도별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어나가는 과정과 각 도시의 아파트 연면적 변화와 인구 변화, 시간당 서울행 교통량의 증가 추이 등을 시각화했다. 각 연도는 색상으로 표시되어, 외곽으로부터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들—고속화도로, 순환도로, 지하철 및 국철 등—이 실제 교통망의 형태를 따라 그려져 있다. 또한, 아파트 연면적과 인구 추이는 각각 실선과

[1] APAP 세 도시 이야기 설명 페이지(http://www.apap.or.kr/ko/a_tale_of_three_cities).

[2]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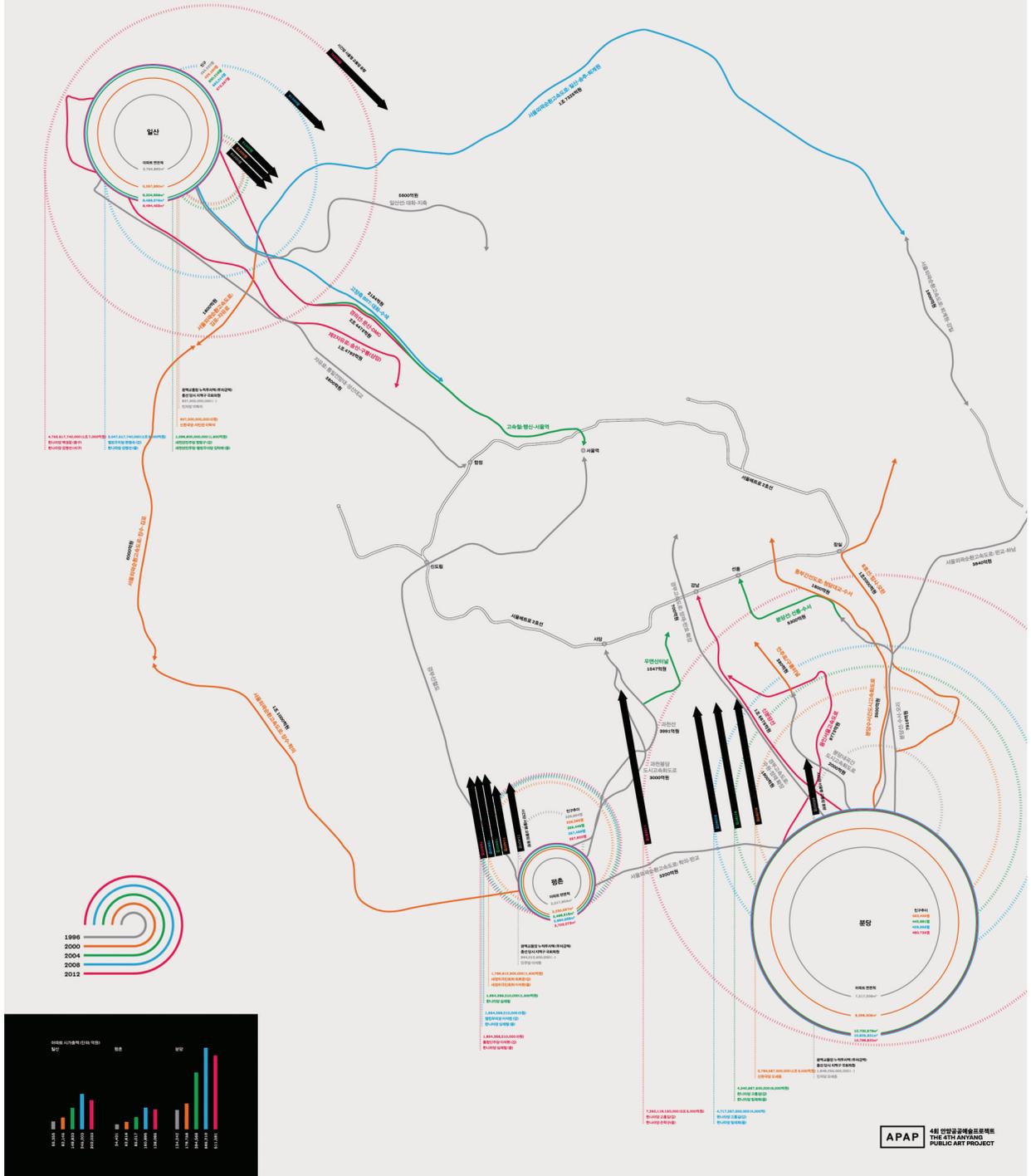


그림2-9 세 도시 이야기 - 데이터토피아: 핀볼(조사연구: 전현우, 디자인: 배민기).



그림2-10 세 도시 이야기 - 데이터토피아: 핀볼 설치 전경, 법원-경찰청/평촌역 정류장.

점선의 동심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검은 화살표는 시간당 서울행 교통량의 연도별 증감을 나타낸다. 서울의 위치 및 교통망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순환선인 2호선이 표현되어 있으며, 2호선의 외곽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연도에 따라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분당과 일산이 두드러진 성장세(와 그에 비례하는 투자액수)를 보여주는 동안 평촌은 다소 답보상태에 놓여있는데, 여기에 더해 해당 연도의 지역에 재직할 국회의원이 명시되어 있어 당적과 인물에 따라 얼마만큼의 교통 인프라 정책이 시행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핀볼을 포함한 세 도시 이야기의 시각 작업은 갤러리가 아닌 안양 시내 5개 장소의 정류장—귀인중학교, 초원대림아파트, 한림대병원/중앙공원, 안양시청, 평촌역—에 설치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생활공간 속에서 벽보처럼 기능했다.

3. 1차 기반 연구 및 시각화

3.1. 1인 가구의 시간적 분포 (1980-2010)

3.1.1 개요

서울이나 한국의 이야기로 국한하지 않더라도, 1인 가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11년 기준 전 세계 1인 가구 수는 약 2억 4,20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톡홀름과 같은 유럽 대도시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60%에 이른다.^[1] 이는 후기산업사회로의 진입에서 일어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경향이기도 하다.^[2] 한국 전체를 놓고 보아도, 2010년 기준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23.9%로 1980년 4.8%에 비해 많이 증가했으며, 한국의 1인 가구 증가세는 세계 기준으로 보아도 매우 빠른 편이다.^[3]

연도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전체 가구	1인 가구수 비율 (전체 가구 대비)
1980	79,179	1,749,585	1,828,764	4%
1985	156,093	2,153,765	2,309,858	7%
1990	257,382	2,557,463	2,814,845	9%
1995	382,024	2,583,770	2,965,794	13%
2000	502,245	2,583,691	3,085,936	16%
2005	675,739	2,634,151	3,309,890	20%
2010	854,606	2,649,691	3,504,297	24%

표3-1 서울의 1인 가구 변화 추이.(최경은 외, «1인 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p.26.)

[1] 최경은 외, «1인 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p.25.

[2] Ibid., p.18.

[3] Ibid., p.25.

서울시의 1인 가구 또한 계속 증가해 왔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살펴보아도, 서울의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기준 대전(25.3%)에 이어 2위인 24.4%이다.^[4] 1980년의 4%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 10%를 넘은 이후, 증가 일로에 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에 관해 많은 분석이 존재한다. 안신현(2012)^[5]은 이를 ①소득 증가, 교육 수준 향상, 여성 고용 확대 등의 경제적 요인, ②개인주의 확대, 초혼 연령 상승 등의 문화적 요인, ③고령화 심화, 남녀 평균 수명의 차이 등의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한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증가를 개인주의의 확산 등의 가치관 변화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하는 예는 많은 미디어에서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분석될 수 있다. 이희연(2011)^[6]의 경우 청년실업 증가와 소득 부족으로 인한 결혼 지연이 청년층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은미(2013)^[7]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로 근로소득 여건이 악화하면서, 특히 청년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20~30대 1인 가구는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에 각각 89.7%, 76.3%를 의존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 여건 악화는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8]

3.1.2 리서치

‘1인 가구의 시간적 분포’에서는 이처럼 1인 가구가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증가해왔는지를 알아보고, 그와 동시에 ‘어떻게’ 증가해왔는지를 살펴본다. 1인 가구와 여타 다인 가구의 가구 수를 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본 장의 주요 주제이지만,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몇 가지 변수를 같이 반영함으로써 좀 더

[4] Ibid., p.32.

[5] 안신현, <부상하는 1인 가구의 4대 소비트렌드>, 《SERI 경제포커스》, 제159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2.

[6] 이희연, <1인 가구의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과 공간분포>, 《대한지리학회지》 제46권 (4), 2011.

[7] 이은미, <인구와 가계통계로 본 1인 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제 422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3.

[8] Ibid., p.7.

다채로운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특히 그 변수가 경제적 계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암시할 수 있다면, 단순한 가구 수의 변화가 아니라 경제적 상황에 대한 변화를 함께 알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는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인구총조사 항목에서 추출하였다. 여러 변수 중 본 장에서 해당 리서치에 적용한 요소는 주택유형과 방의 개수이다. 리서치 항목은 교통·인프라 연구자 전현우와 배민기가 결정하고, 데이터의 재편집 및 정리는 전현우가 담당하였다.

(1) 주택 유형

거처에 관한 통계 자료에서 분류하는 주택 유형은 크게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로 나뉜다.^[9] 이 중 주택 이외의 거처를 제외하면 모두 주택의 요건, 즉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로서 한 개 이상의 방으로 구성된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에 포함된다.

① 단독주택은 통상 한 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하지만, 실제로 ‘한 가족만이 사는 주택’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범주에는 다가구주택, 즉 구획을 분리해서 소유 및 매매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실제로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② 다세대주택은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주택으로 연면적^[10]이 660m²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칭한다. ③ 연립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주택이라는 점에서 다세대주택과 공통점을 갖지만, 연면적이 660m²를 초과하는 주택을 지칭한다. ④ 비거주용 건물내주택은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 내에 주택의 요건을 갖춘 공간을 칭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자영업 점포 안쪽에 있는 작은 ‘쪽방’같은 것이 포함된다. ⑤ 주택 이외의 거처는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으로 일부 오피스텔과 여관,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임시 막사 등이 포함된다.

[9] 이하 주택유형에 관한 설명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용어 설명 섹션을 참고하였다. (http://census.go.kr/hcensus/ui/html/census/census_050_014.jsp?q_menu=1&q_sub=5)

[10] 주거에 이용되는 부분을 말하며, 다층건물인 경우 각 층의 전용면적을 합친 것이다.

이와 같은 주택유형 분류는 소득분위처럼 계층별로 구획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크게 범주를 나누어 볼 때, 평균가격이 여타 주택에 비해 월등히 높은 특수한 상품으로서 아파트라는 범주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실제로 주택 관련 통계는 아파트를 별도의 분류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 비거주용 등의 통상적 형태의 주택을 일반주택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비거주용 건물내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 등 나머지 주택유형을 범주화할 수 있다.

따라서 가구 수의 변화라는 주요 줄기에 부가적으로 리서치할 수 있는 요소로서 '주택유형'을 선택하되, 이를 편의상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본다. 첫 번째 범주가 '아파트', 두 번째 범주가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 비거주용 주택을 포함하는 '일반주택', 세 번째 범주가 비거주용 건물내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함하는 '비주택'이다.

(2) 방의 개수

통계청의 데이터들은 항목별로 제공되기 때문에, 별개의 항목으로 존재하는 변수를 교차하여 사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주택유형과 해당 주택의 금전적 가치는 별도의 범주(인구주택총조사와 가계동향조사)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변수로서 주택의 면적이나 현재 가치 등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반면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은 '방의 개수'라는 항목을 포함한다. 방의 개수가 해당 주택의 금전적 가치를 완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주택의 면적 및 크기를 암시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추가 리서치할 요소로서 방의 개수를 선택했다.

해당 리서치에서는 연도에 따른 1인 가구 수와 다인(2인 이상) 가구 수의 변화를 조사하되, 주택 유형과 방의 개수를 주요 변수로 삼는다. 연도별 데이터는 부록2의 175~18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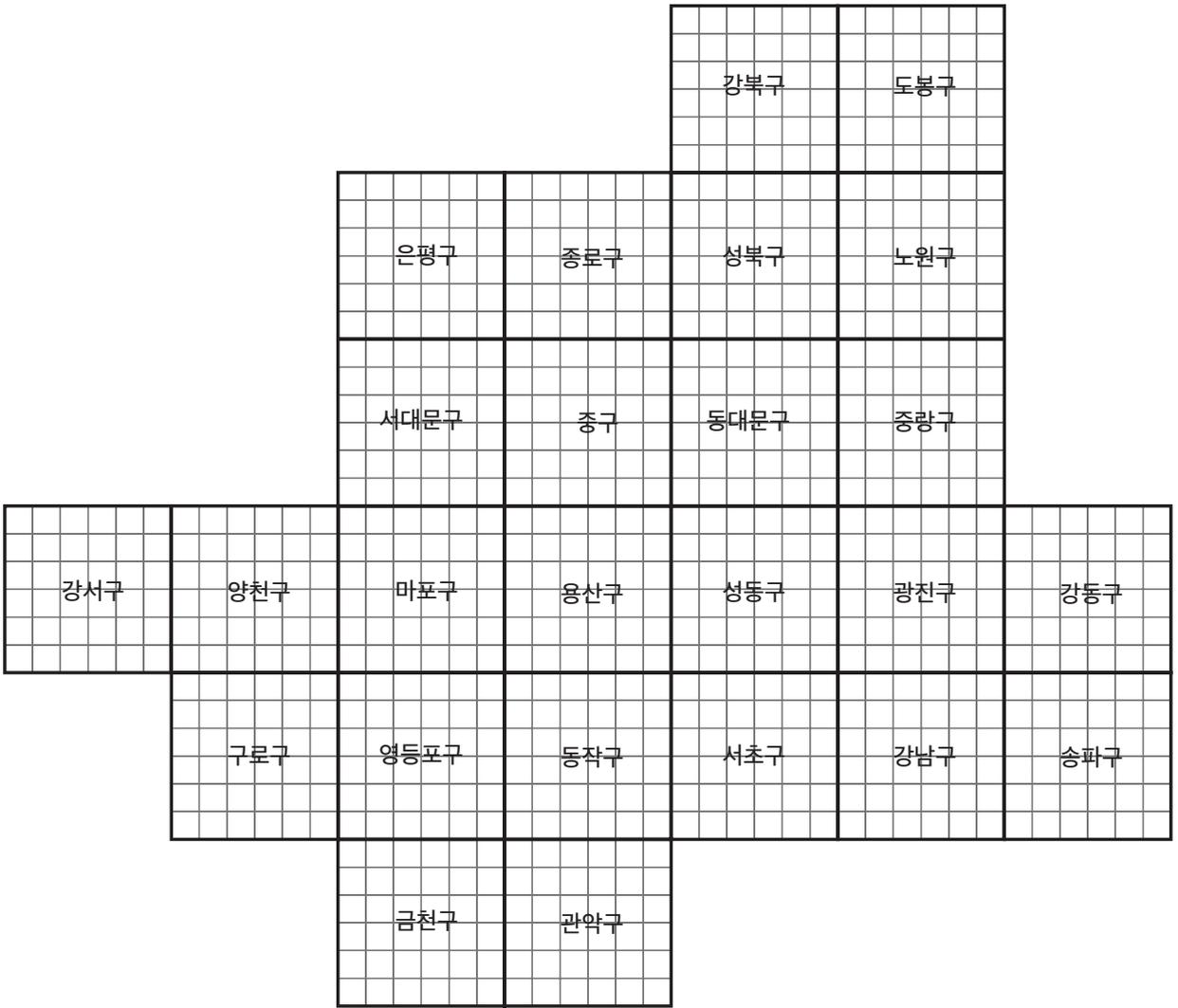


그림3-1 구별 격자 구조.

3.1.3 시각화

7단계의 시계열 정보를 1차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해, 7장 모두 동일한 시각적 형식을 나타낼 수 있는 일종의 템플릿을 제작했다. 구별로 $6 \times 6 = 36$ 칸의 매트릭스로 구성된 단위를 설정하면, 해당 칸의 가로/세로축에 주택유형과 방의 개수를 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구마다 한 단위로 구성된 칸의 각 영역에 표시될 정보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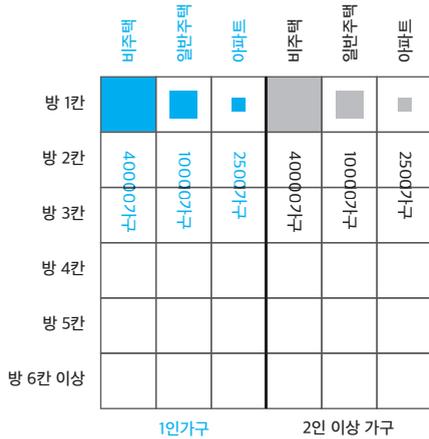


그림3-2 격자 구조내 정보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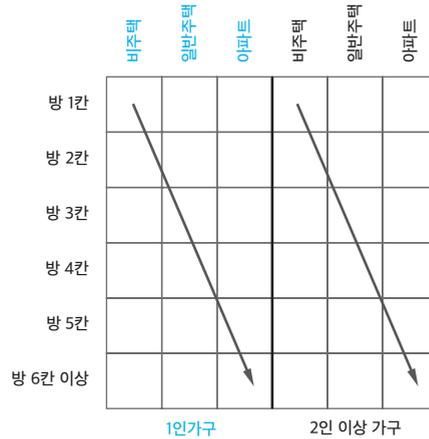


그림3-3 좌측 상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윤택해진다.

위 그림은 나뉜 칸의 각 영역에 어떠한 정보가 표시되는지 나타낸다. 매트릭스는 가로 3칸, 세로 6칸으로 크게 나누어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표시하고, 그 둘의 양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작업에서 중요한 1인 가구는 청색으로, 다인 가구(2인 이상 가구)는 회색으로 표시하여 1인 가구 쪽의 주목도를 높였다.

가로축은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의 순서로 나열되고, 세로축은 방의 개수 순으로 나열된다. 예를 들어 방 2칸의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2행 2열에 위치하고, 방 4칸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인 가구는 6행 4열에 위치한다. 가구 수는 면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한 칸은 40,000가구를 나타낸다.

이 안에서도 계층적 상황, 즉 상대적으로 윤택한 경제적 상황에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양상이 (일정 수준) 좌표상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단일 유닛 안에서는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 사이의 위치 값이 그 기능을 맡는데, 이를테면 (좌측 상단의) 방 1칸 비주택 거주 가구보다 (우측 하단의) 방 4칸 아파트 거주 가구가 상대적으로 윤택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로 구별 가구 수를 표시하고, 모든 구가 표시된 지도 격자를 하나의 시간 단위로 삼아 모두 7장의 시각화 작업을 제작하였다. 작업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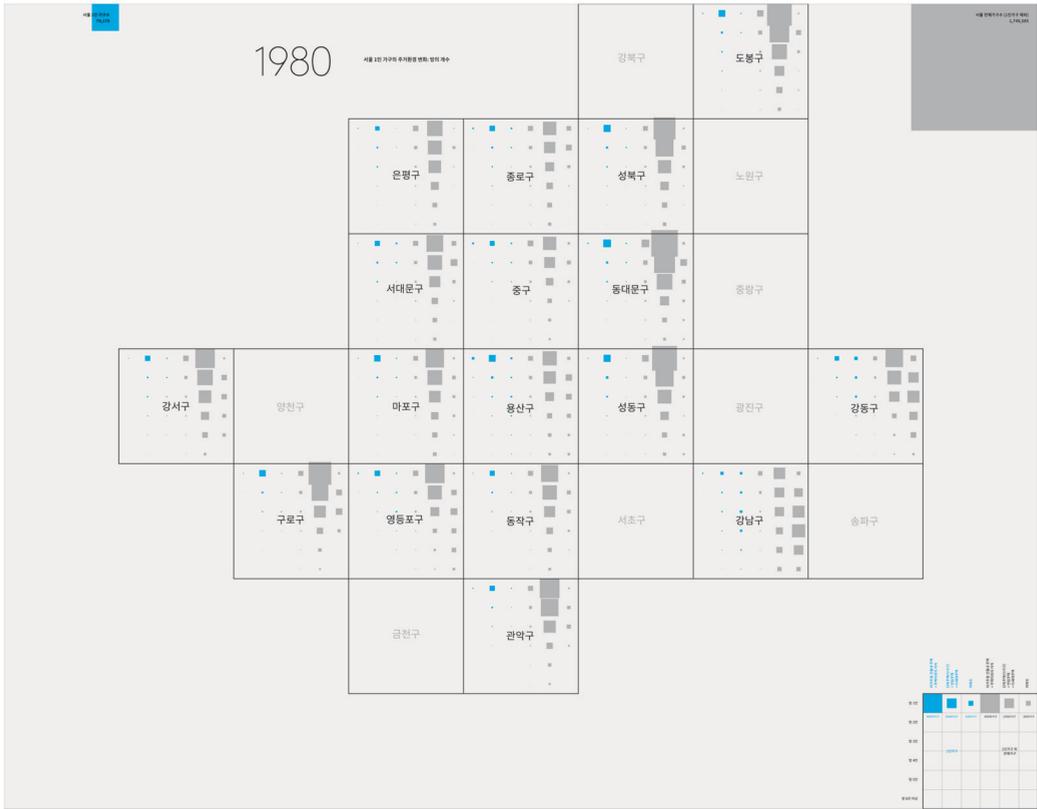


그림3-4 시각화: 1980년 서울 1인 가구 및 다인가구의 주택유형과 방의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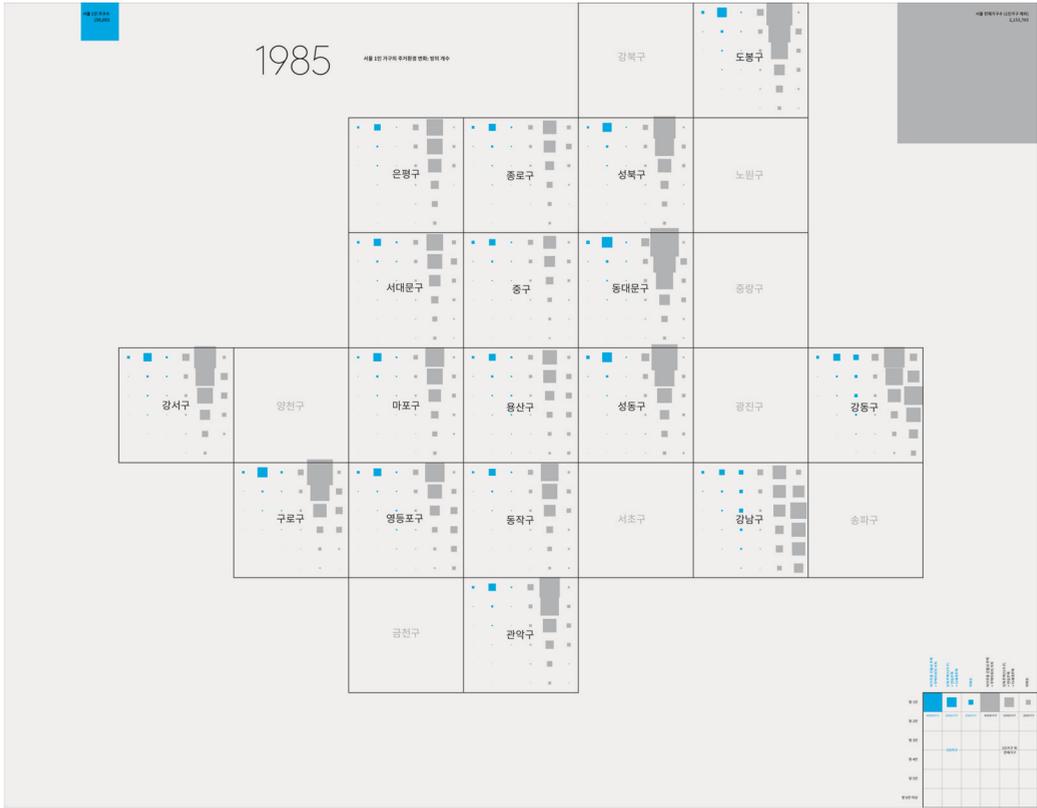


그림3-5 시각화: 1985년 서울 1인 가구 및 다인가구의 주택유형과 방의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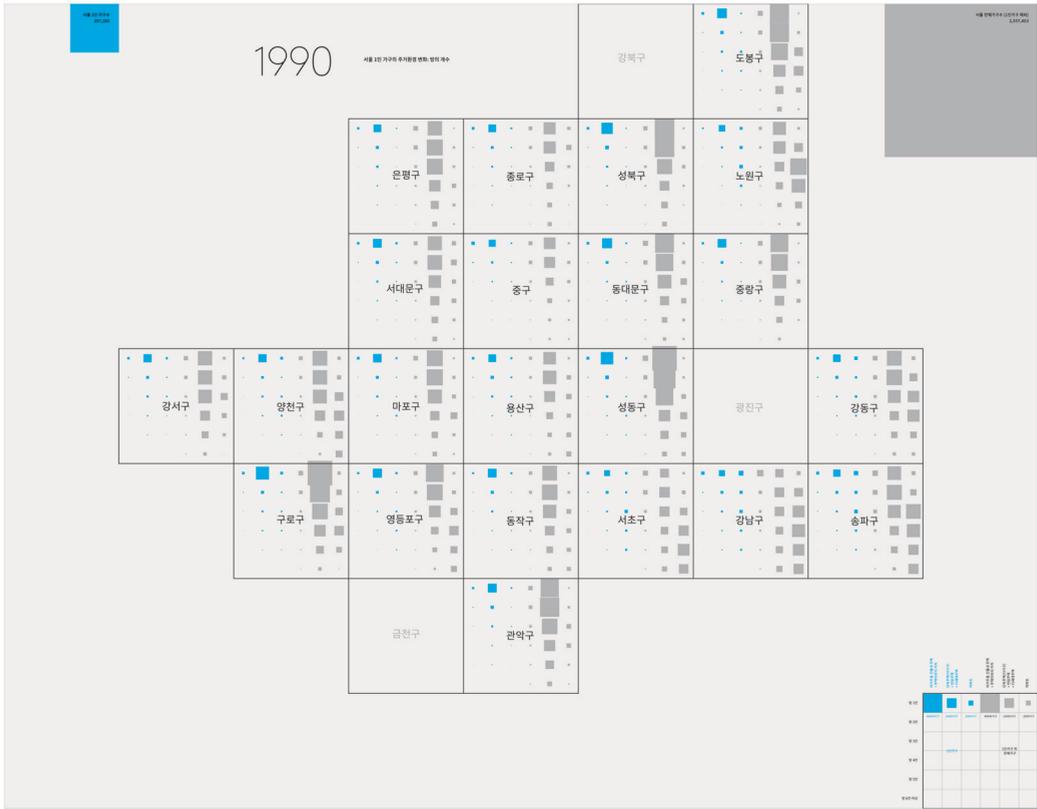


그림3-6 시각화: 1990년 서울 1인 가구 및 다인가구의 주택유형과 방의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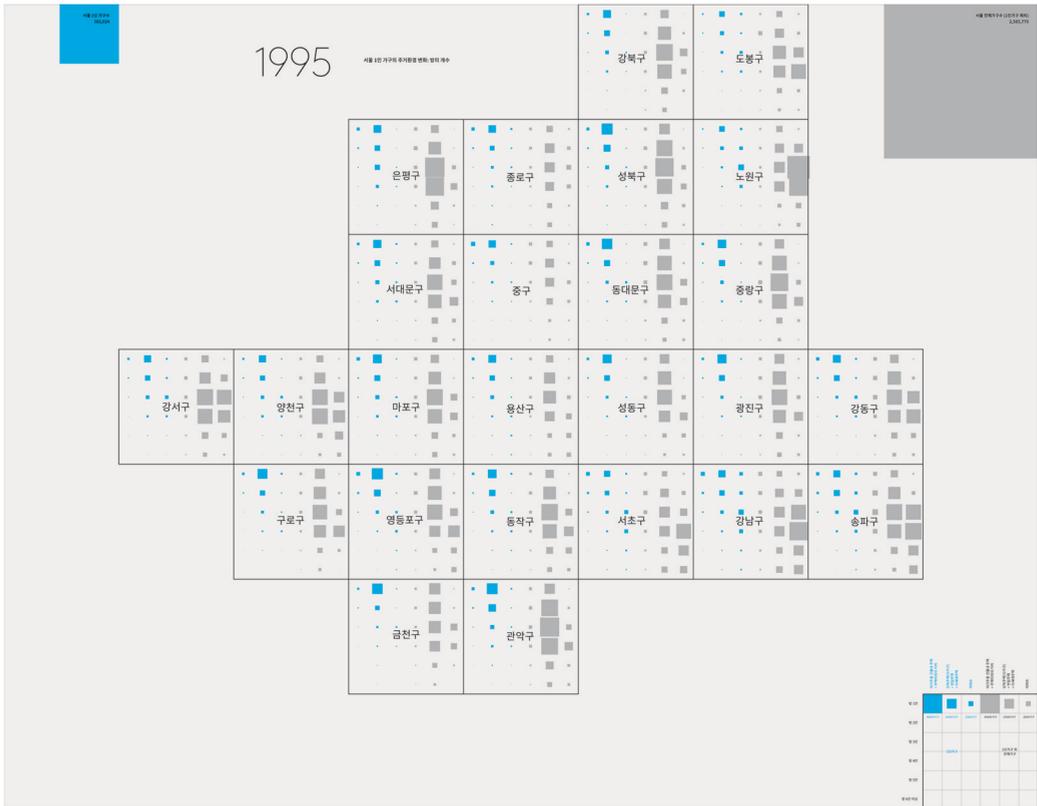


그림3-7 시각화: 1995년 서울 1인 가구 및 다인가구의 주택유형과 방의 개수.

화면 중앙에 격자가 표현되고, 화면 좌측 상단과 우측 상단에는 해당연도의 서울 전체 1인 가구 수와 서울 전체 다인 가구 수가 표현되어 있다. 격자 속 사각형 면적의 합과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어 구별 구체적 양상과 전체 가구 수의 전반적 양상을 같이 살펴볼 수 있다. 화면 우측 하단에는 앞 페이지의 범례 격자가 시각화되어 있다.

2000년부터는 화면 하단에 점유형태 정보를 추가로 표시했다. 동일한 면적으로 표시되지만, 별도의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기에 적색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였다. 가로축에 위치해 있던 주택유형 정보(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를 가로축에 그대로 유지하되, 6칸 전체를 활용하여 배분했다. 좌측부터 주택 이외의 거처,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다가구), 아파트 순이다.



그림3-8 점유형태와 주택유형의 격자 구조.

세로축에는 점유형태, 즉 상단부터 무상, 사글세, 보증금 없는 월세,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자가 순으로 표시했다. 가구 수는 면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한 칸은 40,000가구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도 계층적 상황, 즉 상대적으로 윤택한 경제적 상황에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양상이 어느 정도 좌표상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이를테면 (좌측 상단의)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사글세로 사는 가구보다 (우측 하단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사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윤택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다음 이미지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양상으로, 점유형태 정보가 화면 하단에 추가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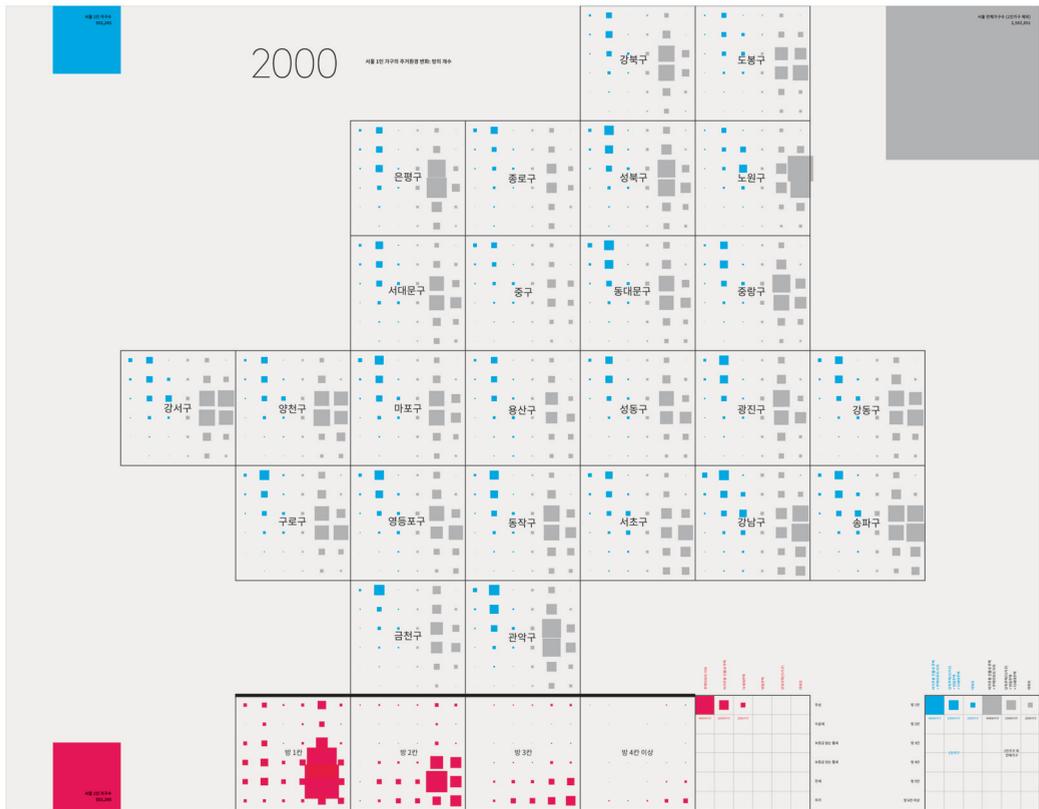


그림3-9 시각화: 2000년 서울 1인 가구 및 다인가구의 주택유형과 방의 개수, 점유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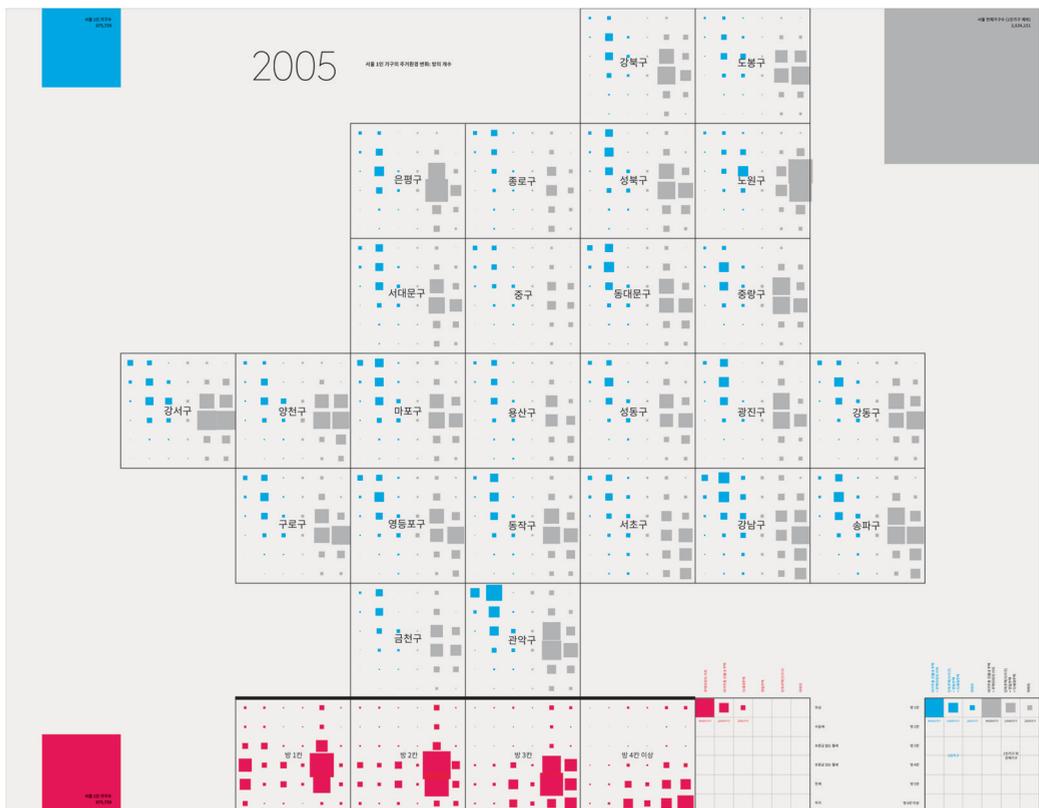


그림3-10 시각화: 2005년 서울 1인 가구 및 다인가구의 주택유형과 방의 개수, 점유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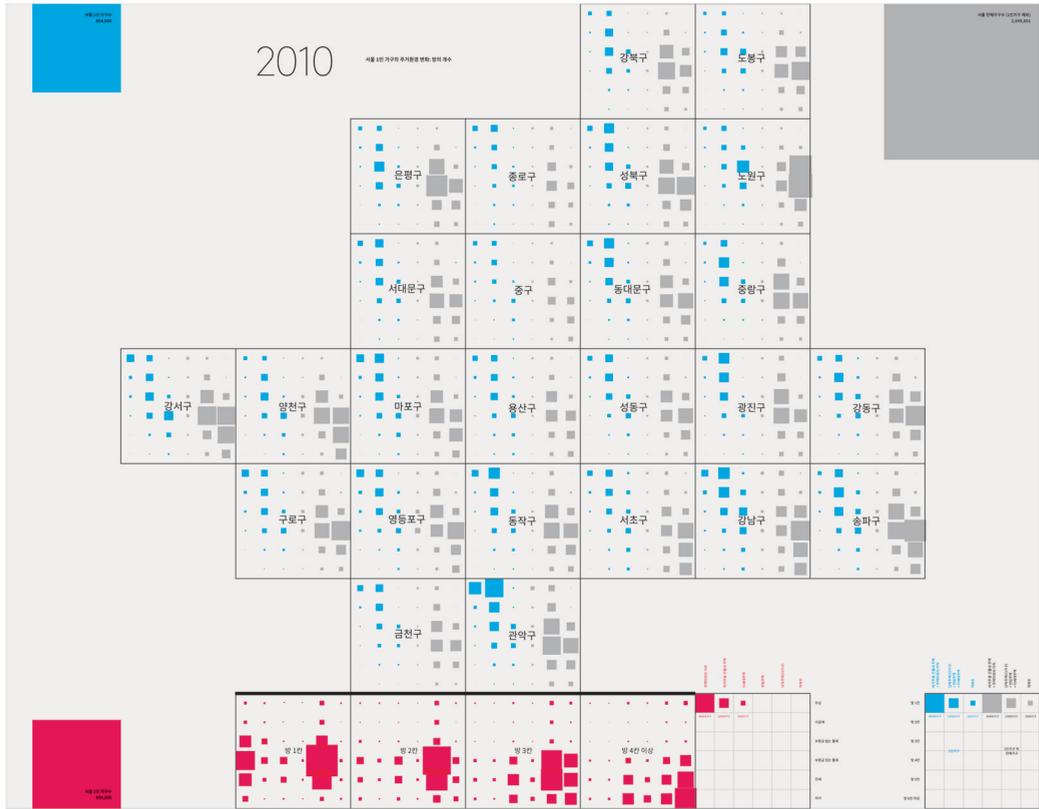


그림3-11 시각화: 2010년 서울 1인 가구 및 다인가구의 주택유형과 방의 개수, 점유유형.

화면 좌측 하단에는 좌측 상단에 있는 전체 1인 가구 수와 동일한 면적의 사각형이 적색 계열로 표시되어 있고, 그 면적이 각 분류에 맞게 분할되는 구조이다. 격자는 좌측에서 우측 순으로 방 1개, 방 2개, 방 3개, 방 4개 이상의 가구이다.

이처럼 1인 가구의 시간적 분포에서는 1980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서울 1인 가구(및 다인 가구)의 가구 수 변화, 주택유형, 방의 개수와 (2000년부터는) 점유유형까지를 한 화면으로 일별할 수 있는 시각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해당 이미지들은 1차 기반 연구 자료이므로, 전체 작업군 내에서의 역할이나 구조, 균형과 관련한 검토를 거친 후, 최종 작업에서 전반적으로 수정 및 보완된다.

3.2.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3.2.1 개요

앞에서 검토하였듯이, 1980년에서 2010년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본 장에서는 2010년을 현재로 상정하고, 현재 서울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양상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서울 1인 가구의 지역적 분포는 서울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가 동별로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를 개별 조사함으로써 조망할 수 있다고 하겠다.

3.2.2 리서치

(1) 동별 가구 수

전체 가구 수 대비 30~35%를 차지하는 지역은 종로구 사직동/종로5.6가동/이화동/혜화동, 중구 황학동, 용산구 한강로1동/이태원1동/한남1동/한남2동, 광진구 노유1동/군자동/능동, 동대문구 용두2동/제기2동/전농2동/휘경1동/문1동, 중랑구 중화2동, 서대문구 충정로동/북아현1동, 마포구 창전동, 금천구 독산본동, 영등포구 신길1동, 관악구 봉천 10동, 서초구 양재2동, 강남구 청담2동 등 총 27개 동이다.

35~40%를 차지하는 지역은 중구 소공동/필동, 종로구 창신1동, 용산구 청파2동, 성동구 사근동, 동대문구 용두1동, 성북구 안암동, 마포구 상수동, 구로구 가리봉2동, 금천구 가산동, 관악구 봉천6동/신림본동, 강남구 논현2동/삼성2동/역삼2동 등 총 15개 동이다.

40~45%를 차지하는 지역은 중구 광희동/장충동, 용산구 한강로2동, 동대문구 이문2동/회기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연희3동, 관악구 봉천7동, 동작구 흑석1동, 서초구 반포1동 등 총 10개동이다. 이어 45~50%를 차지하는 지역은 종로구 명륜3가동, 중구 명동, 용산구 남영동, 성북구 동선1동, 서대문구 대신동/창천동, 마포구 동교동/서교동, 강남구 논현1동/대치4동 등 총 10개 동이다.

50% 이상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1인 가구 초 밀집지역은 종로구



그림3-12 서울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도. 구별/동별 면적으로 나뉘어진 지도 위에 적색으로 표시되었다. 면적은 구간별 평균값을 적용하여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으로 나누어 표현되어 있다(그림: 배민기).

종로1.2.3.4가동, 중구 을지로동/회현동, 마포구 노고산동, 구로구 가리봉1동, 영등포구 영등포2동, 관악구 신림9동/신림2동/신림5동/봉천4동, 강남구 역삼1동 등 총 11개 동이다.^[1]

위의 통계를 포함, 전체 가구 수 대비 1인 가구 수를 동별 면적으로 적용하여 나타낸 도해는 위의 그림과 같다. 구별 1인 가구의 분포를 보면 관악구와 강남구 비중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관악구는 도심 접근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다가구주택의 비중 또한 높아 지방에서 서울로 진학한 학생이나 경제적

[1] 변미리 외,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p.42.

기반이 약한 젊은 독신가구가 자신의 경제적 기반에 맞추어 선택하는 주거지로 주목받아 왔고, 또한 신림동 지역을 비롯한 대학가 주변에 집결된 고시원이 (전국을 상대로 한) 거대한 고시촌으로 발달해 있다. 강남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가인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이 발달해 있으며 주로 주변의 상업업무 지역에 직장을 둔 젊은 독신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2] 두 경우 모두 청년 1인 가구의 특성과 교집합을 이루는 사항이다. 1인 가구의 직장 및 학교 위치 또한 위에 언급된 강남구를 포함 서초구, 영등포구, 중구, 종로구, 관악구, 마포구, 동대문구 등이 높게 나타나는데,^[3] 이는 도해에 나타난 1인 가구 밀집지역과 일정 부분 공통점이 있다.

(2) 지역별 유형

이와 같은 분석을 앞서 언급된 공간 분포도를 통해 심화시켜 볼 수 있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논문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직업, 거처의 종류, 주거점유형태 등의 일반적 변수와 주택유형, 주택가격 수준, 상업업무시설 집적도, 학원 밀집도, 대학 및 전철역과의 거리 등의 특수한 변수를 통해, 몇 가지의 지역별 유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4] 이는 ①대학가 인접형, ②고시촌형, ③도심 및 역세권형, ④다세대 주거지형, ⑤공장지대 인접지형, ⑥상업업무 집적지형의 6가지 유형으로, 각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①대학가 인접형은 이화동, 혜화동, 명륜3동, 창신1동, 장충동, 남영동, 청파2동, 한남1동, 한남2동, 사근동, 노유1동, 군자동, 능동, 휘경1·2동, 동선1동, 안암동, 북아현1동, 대신동, 연희3동, 노고산동, 창전동, 상수동, 흑석동, 제기2동, 회기동, 이문1동, 이문동을 꼽을 수 있으며 서울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유형이다. 전철역 등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학생뿐만 아니라

[2] Ibid., p.43.

[3] Ibid., p.45.

[4] Ibid., p.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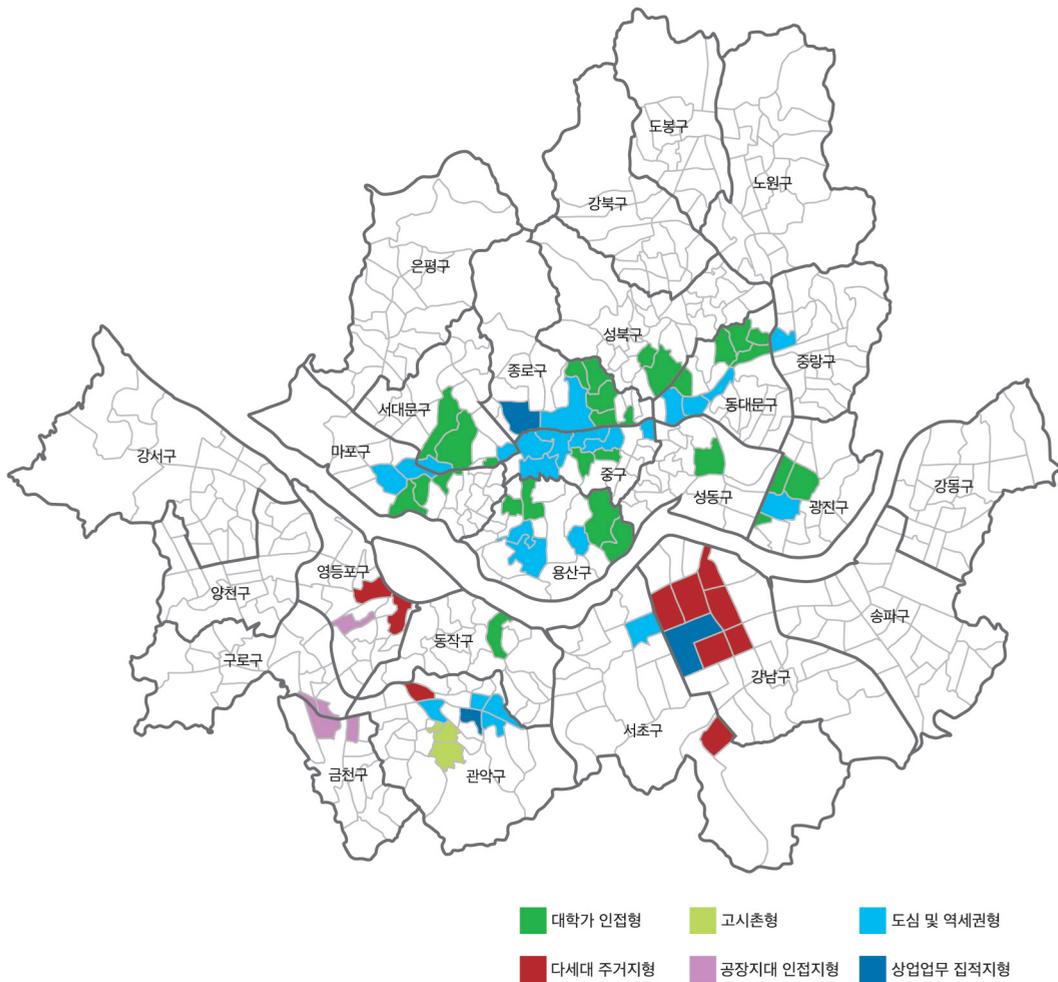


그림3-13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유형별 분류(그림: 배민기).

젊은 직장인이 많고, 다가구·다세대 원룸 등 자취방과 하숙집이 밀집해 있다.

②고시촌형은 신림2동과 신림9동으로, 학생 및 고시생을 비롯하여 젊은 직장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인 동시에 남성의 비율이 매우 높다. 독서실과 학원 등과 함께 고시원이 밀집해있는 양상을 띠지만, 전통적인 형태의 고시원에서 점차 고급화 및 대형화하는 경향 또한 나타난다.

③도심 및 역세권형은 회현동, 명동, 소공동, 황학동, 이태원1동, 용두1동, 전농2동, 중화2동, 신림본동, 봉천6동, 봉천7동, 반포1동, 종로 1~4가, 광희동,

을지로 3~5가, 한강로1~2가, 화양동, 용두2동, 충정로동, 동교동, 서교동, 창천동, 봉천10동 등을 꼽을 수 있다. 사대문(구)도심지와 전철역 인근에 형성된 지역으로 상업시설과 혼재된 접이지대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1인 가구 거주자가 노후화된 소형 주거지에 다수 자리 잡고 있다.

④다세대 주거지형은 영등포2동, 신길1동, 양재2동, 논현1~2동, 역삼2동, 청담2동, 대치4동, 삼성2동을 포함하는 지역이며, 주택상태와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다세대/연립 원룸이 밀집해 있어 청년층과 일부 장년층의 직장인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⑤공장지대 인접지형은 도림2동, 독산본동, 가리봉1~2동, 가산동 등 구로디지털단지 주변 지역으로 속칭 ‘벌집’, 즉 공장근로자들의 소형 주거가 밀집된 지역이다. 비교적 소득이 낮은 장년층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거주한다.

⑥상업업무 집적지형은 사직동, 봉천4동, 역삼1동 등으로 상업업무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양상을 띠는 지역이다. 다세대 주거지형과 유사하게 주택상태와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다세대/연립과 오피스텔 등이 밀집해 있어 직장인이 주로 거주한다.

(3) 계층별 유형

주거지를 중심으로 유형을 나눈 것이 앞과 같은 분류라면, 사회계층을 토대로 유형을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앞 단락인 지역별 유형에서 언급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논문에서는, 서울 1인 가구가 공간적으로나 계층적으로 분절화된 집단임을 논설한 후 이를 다시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있다. 이는 ①산업예비군, ②불안한 독신자, ③골드세대, ④실버세대의 4가지 유형으로, 각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5]

‘산업예비군’은 아직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실업자들 혹은 기존의 취업시장에서 후퇴하여 새로운 직업을 모색하는 계층이며 주로 대학가와 고시촌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다. 청년 1인 가구를 연령순으로 배치한다면, 이들은 첫

[5] 변미리 외,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p.99.

번째 순서를 두텁게 차지하는 구성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20~30대로 구성된 산업예비군 유형은 공간적으로는 독립적인 1인 가구의 패턴을 영위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부모 세대에게 의존하는 독특한 속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들을 한국 경제의 변천 구조와 세대 변환 구조의 두 축이 맞물리며 형성된 특수한 계층으로 간주하느냐(즉, 구조적·사회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 비교적 윤택한 경제적 시기에 성장하며 형성한 특정한 가치 체계가 현실과 이상의 조율에 실패하는 문제로 간주하느냐(즉,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단, 이들이 늘어나면서 인구 구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고정계층으로 등장할 경우 장기적 측면에서 사회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에게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대부분의 논자가 동의하고 있다.

‘불안한 독신자’는 3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1인 가구 거주자로, 구성원의 범주가 다양한 만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기러기가족, 이혼, 경제적 빈곤 등) 등장하게 된 인구집단이다.^[6] 이 유형의 모든 구성원이 청년 1인 가구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불안한 독신자 유형의 일부는 아랫세대인 산업예비군이 특정한 조건 속에서 진화한 형태라 칭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적 지위와 불안한 직업으로 인해 뒤이어 언급될 골드세대와 대조를 이루는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산업예비군 유형과 마찬가지로 적합한 사회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인구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대조되는 ‘골드세대’는 30~40대 골드미스·미스터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내고 있다고 여겨지는 전문직종, 화이트칼라 계층을 칭하는 개념이다. 강남역, 논현동, 역삼동 등의 다세대 주거지와 상업업무 집적지를 중심으로 거주하며, 1인 가구 인구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서울 1인 가구의 구성계층 중 상위 계층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결혼이나 가족,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어 장래 변화할 시장의 주목 대상으로 언급되기도 하며, 역시 30~40대에 속하는 불안한 독신자 유형과 대조적인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6] 변미리 외,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p.100.

마지막으로 '실버세대'는 급속한 고령화와 남녀 평균 수명의 차이를 바탕으로 사별, 이혼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로 인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고령자 1인 가구 집단이다(따라서 이들은 청년 1인 가구와는 명확히 별개의 범주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실버세대는 하나의 분류로 구획되어 있지만, 경제력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다수는 낮은 수입과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경제력을 갖춘 고령자 집단은 (앞의 골드세대와 마찬가지로) 통칭 실버산업 등의 시장에서 주요 고객층으로 떠오르는 인구집단이기도 하다.^[7]

위에서 분류된 4가지 유형은 각각 독립된 범주이지만, 하나의 인물이 생애주기 동안 거쳐 갈 수 있는 순차적 범주로 가정할 수도 있다. 물론 위의 구분은 동일한 시간대의 세대별 인구구성을 가정한 것이므로, 이는 현실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방법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굳이 순차적으로 배열해보자면, 해당 유형들은 산업예비군으로 출발하여 골드세대와 불안한 독신자 그룹으로 나뉘었다가, 이들 중 일부가(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실버세대로 진입한다. 세대를 중심축으로 삼아 양극화라는 주요 변수를 기준으로 갈라지는 셈이다. 특히 그중 산업예비군과 불안한 독신자, 골드세대는 청년 1인 가구의 3가지 양태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뒷장의 그림은 그 도해로, 앞서 다룬 주거지 중심 유형과 위에서 다룬 사회계층 중심 유형이 서로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강한 연관관계를 가진 유형 사이에는 굵은 점선이, 통상적인 연관관계를 가진 유형 사이에는 얇은 점선이 표현되어 있다(물론 모든 계층별 분류의 1인 가구 거주자는 불균형하나마 6가지 지역별 분류 유형에 모두 거주하고 있을 것이다. 해당 도표는 두 가지의 상이한 분류체계가 맺는 관계를 드러내는 다이어그램이다).

도표에 따르면 산업예비군 계층은 주로 대학가 인접 지역 및 고시촌 지역과, 불안한 독신자는 대학가 인접지역과 고시촌 지역과 다세대 주거지 모두와, 골드세대는 다세대 주거지와 상업업무 집적지 공히 집중적으로, 실버세대는 주로 (구)도심 및 역세권과 소수는 다세대 주거지와 짝지어진다.

[7]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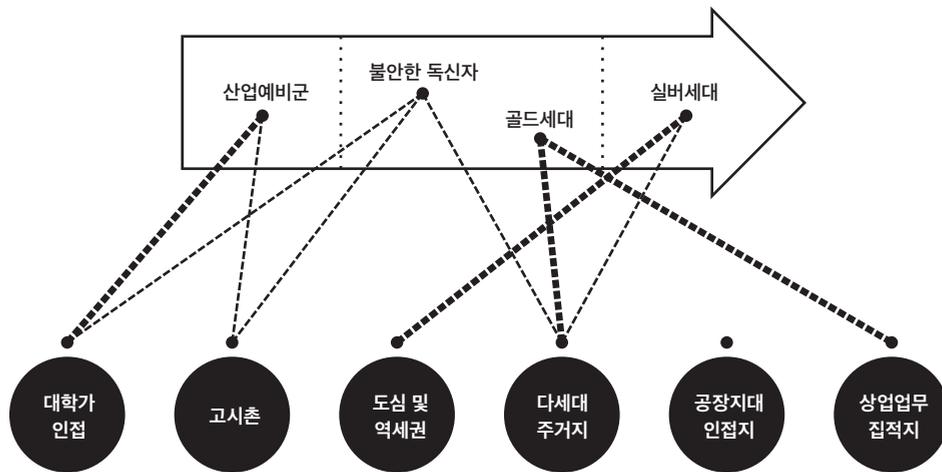


그림3-14 계층별 분류와 지역별 분류의 연관관계도(그림: 배민기).

3.2.3 시각화

(1) 서울 구 단위 1인 가구 연령별·성별 가구 구성과 동 단위 가구 구성

앞서 언급했던 1인 가구의 분포와 지역별 유형 등 기타 요소들을 정리하여, 시각화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서울 구 단위 1인 가구 연령별·성별 가구 구성과 동 단위 가구 구성’으로 서울 1인 가구의 연령별, 성별 분포를 구별로, 세부지역별 가구분포를 동별로 적용한 것이다. 인구에 관련된 정량적 정보만을 가지고, 양적 속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작업을 진행하였다. 구 단위로 하나의 유닛(unit)을 고안하여 각종 정보를 표현하였으며, 각각의 유닛은 기존 지도 위에 배치되어 (최소한의) 지리적 정보를 준다. 인쇄물의 좌측 상단에는 해당 유닛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구성표가 자리하고 있다. 유닛은 구 단위의 연령과 성별을 나타내는 좌측 영역과 동 단위의 인구분포를 나타내는 우측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영역 모두 해당 구역 내의 일반가구 전체 영역은 흑색으로 지정되고,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영역만이 별도의 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먼저 좌측은 구 단위의 전체 가구 수 대비 1인 가구 수가 나타나고, 해당 영역은 다시 남성과 여성 2가지로 분류되어 표시된다. 성별 가구 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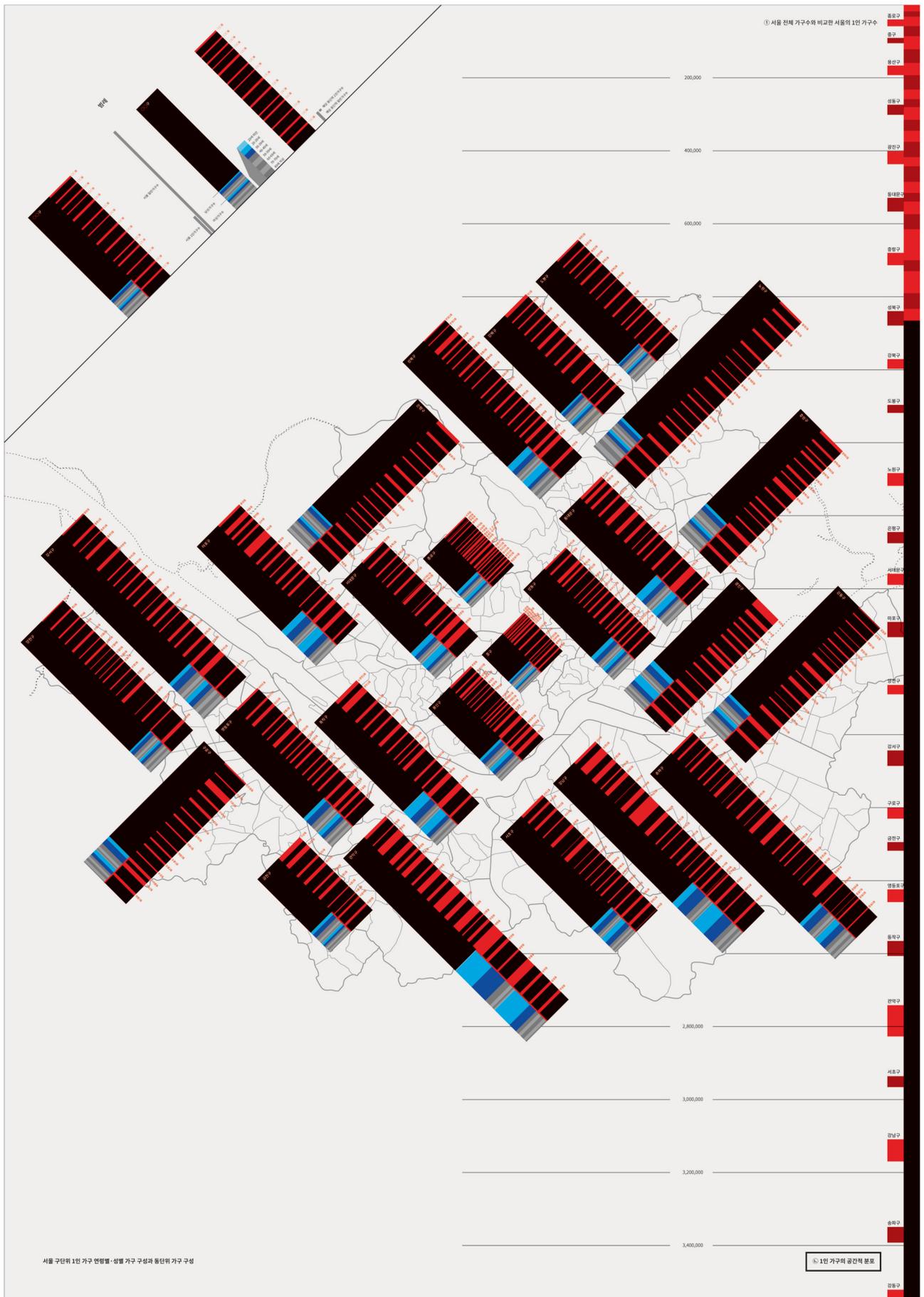


그림3-15 시각화:서울 구단위 1인 가구 연령별·성별 가구 구성과 동단위 가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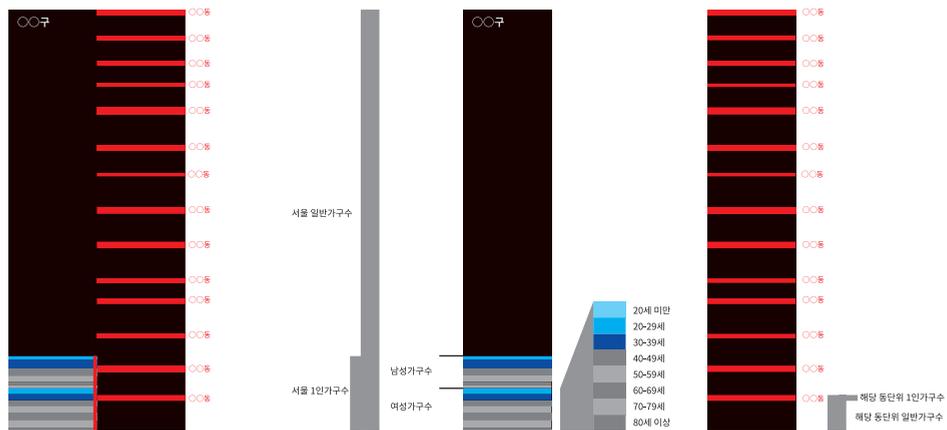


그림3-16 구별/동별 단일유닛 구성표와 유닛 분해도.

다시 연령으로 나뉘는데, ①20세 미만, ②20~29세, ③30~39세, ④40~49세, ⑤50~59세, ⑥60~69세, ⑦70~79세, ⑧80세 이상의 8가지 분류로 지정되어 있다. 색상은 크게 청색과 회색 계열로 대비되며, 특히 20세 미만과 20~29세, 30~39세 1인 가구는 청색 계열, 40세 이상 1인 가구는 회색 계열로 적용되어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우측은 동별 가구 수가 비례에 맞게 구획되어 있으며, 그 안에 적색 선으로 동별 1인 가구 수가 표시된다. 또한, 영역 우측에 해당 동의 명칭이 명기되어 있다. 동일한 양적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해당 적색 선의 세로 길이를 합산한 것과 (앞서 설명한) 연령별 및 성별 1인 가구 수를 표현한 길이는 일치한다.

단일 유닛을 구성하는 데에 사용된 색상들은 각각 구분이 용이하도록 적용되어 있다. 구 단위 정보는 청색 계열, 동 단위 정보는 적색으로, 별도의 기준으로 살펴봐야 할 요소들이 혼동되지 않게 설계되었다.

이처럼 구 단위로 성별, 연령별 가구분포를 조망할 수 있고, 더욱 세밀한 동 단위로 가구분포를 조망할 수 있다. 시선의 출발점은 같지만, 하나의 유닛을 선택적으로 나누어 보면서 각기 다른 층위의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작업을 만드는 것이 본 작업의 목적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각 유닛의 좌측 영역들을 훑어봄으로써 구 단위 정보를, 우측 영역들을 훑어봄으로써 동 단위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작업의 경우 양적 속성의 왜곡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 때문에 절대량이 미미한 수치들 사이의 비교가 (그 차이도 시각적으로 미미하므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화면 좌측 가장자리에는 서울 전체 가구와 1인 가구의 비율이 다시 적색과 흑색으로 표현되어 있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양적 속성을 비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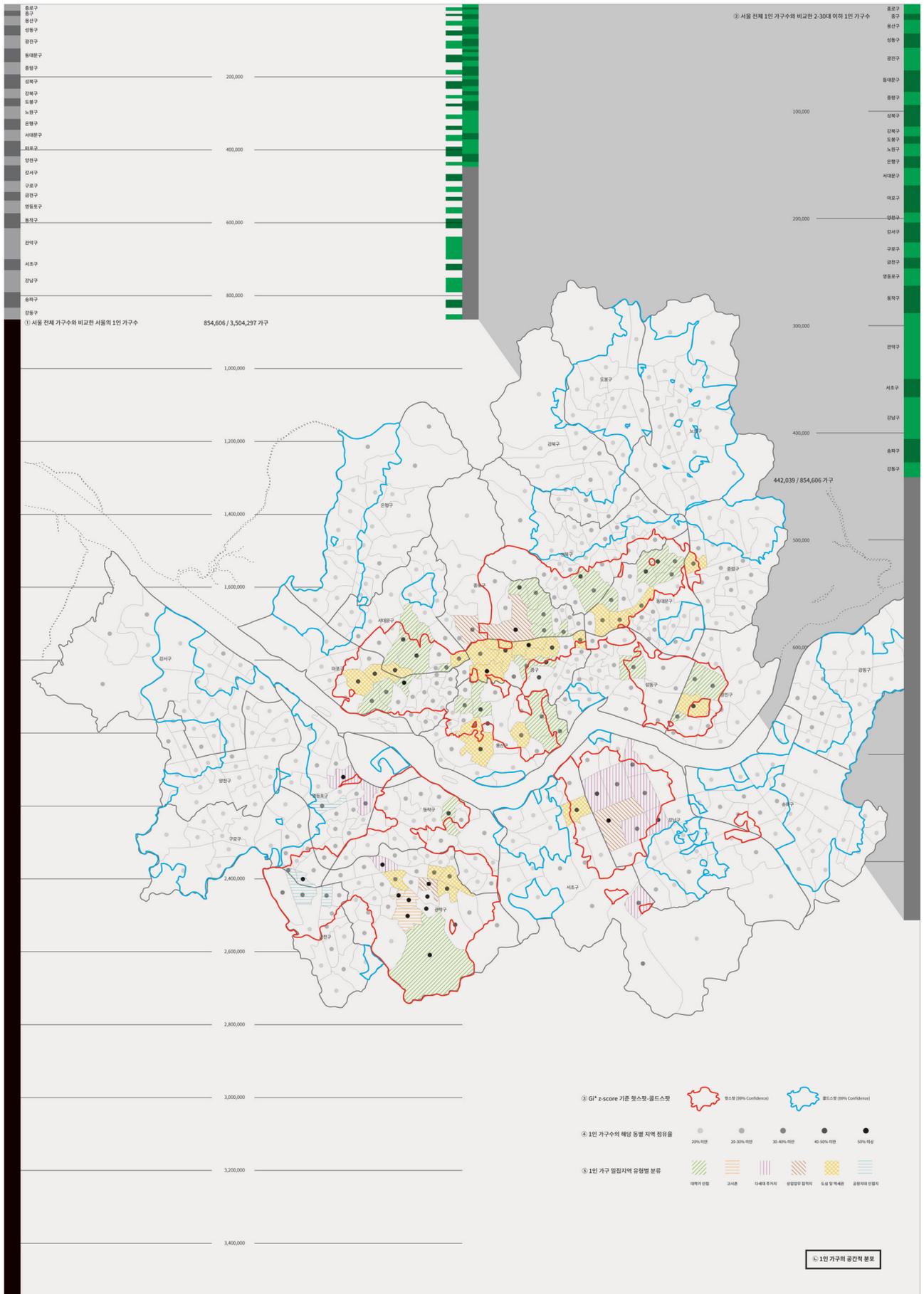


그림3-17 시각화: 서울시 구별 1인 가구 연령 남녀 인구 구성과 동별 분포.

(2)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그림3-18 작업 하단에 위치한 요소 설명 부분.

이와 같은 점을 다소 개선하고, 앞서 리서치한 사항들을 하나의 화면에 표시하여 종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번째 작업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작업은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로, 화면 중앙부의 구별·동별로 구분된 서울 지도 위에 주요 정보들이 표시되고, 기타 여백을 이용하여 부가적 정보들이 특정 규칙에 따라 배치되었다. 중앙에 표현된 변수는 세 가지로 ①1인 가구 수의 동별 점유율, ②핫스팟-콜드스팟, ③밀집지역 유형별 분류이다.

첫 번째 1인 가구 수의 동별 점유율은 앞서 시간적 분포에서 구별로 검토해본 1인 가구의 양상을, 행정동 단위의 세밀한 기준으로 살펴보기 위해 표현되었다. 중앙 지도 위 행정동 단위마다 단색 점을 찍고, 점의 진하기에 따라 점유율이 구분되도록 설계했다. 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 이상이라는 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점의 진하기를 조절했다.

두 번째 핫스팟-콜드스팟은 앞의 동별 점유율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하기 위한 장치이다(핫스팟-콜드스팟 연구결과는 채정은의 논문 «서울시 1인 가구의 공간적 밀집지역과 요인 분석»에서 참고하였다). 핫스팟은 특정 현상의 공간적 군집을 칭하는 용어로, 해당 논문은 공간 패턴을 분석하는 특정 통계 기법인 Getis-Ord's G_i^* 로 1인 가구의 밀집 지역을 분석한다.

핫스팟-콜드스팟 연구를 본 작업에 적용한 이유는 이것을 통해 좀 더 세분화한 밀집 양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구 단위나 행정동 단위는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패턴과 별개로 존재한다. 행정동은 인위적으로 구성된 불연속적이고 인공적인 경계이지만, 실제 사람들은 매우 연속적이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계에서 살아간다. 즉, 행정동이라는 최소 단위도 엄밀한 의미에서 동질적인 지역이 아니며, 그 안에서도 밀집 패턴이 달라진다. 이러한 인위적인 동 단위로 밀집패턴을 규정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불일치를 가변적 공간단위 문제(MAUP, Modifiable Areal Unit Problem)라고 부른다.^[8] 핫스팟-콜드스팟은 동 단위보다 더 세밀한 소지역을 단위로 삼아 밀집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앞의 동단위 밀집도가 점으로 표시된 화면 위에 핫스팟-콜드스팟 영역을 겹쳐 표현한다면, 동 단위로도 밀집도를 확인할 수 있고 더 세분화된 소지역 단위로도 밀집도를 확인할 수 있다. 지도 위에는 99% 신뢰도를 보이는 핫스팟-콜드스팟 영역만을 경계선으로 표시했다.

세 번째 밀집지역 유형별 분류는 별도의 표현방식으로 시각화되었다. 해당 밀집지역은 앞서 논의했던 지역별 분류유형의 6가지(대학가 인접형, 고시촌형, 도심 및 역세권형, 다세대 주거지형, 공장지대 인접지형, 상업업무 집적지형)이며, 기본적으로 각 유형은 패턴의 차이와 색상의 차이로 서로 겹치지 않게 설계되었다.

그리고 인쇄물 좌측 세로축 전체, 중앙 일부, 우측 세로축 전체를 이용하여, 서울 전체 가구 수와 비교한 서울의 1인 가구 수와 청년 1인 가구 수를 표시했다. 먼저 좌측에서 서울 전체 가구 수와 비교한 서울의 1인 가구 수가 표시된다(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서울 전체 3,504,297가구 중 854,606가구가 1인 가구이다). 그리고 중앙에서 서울 1인 가구 수 가운데 20~30대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나누어 표시된다. 그다음 화면 우측 세로축에서 20~30대 청년 1인 가구가 구별로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다시 표시하고 있다(서울 전체 1인 가구 854,606가구 중 442,039가구가 20~30대 청년 1인 가구이다).

[8] 채정은, <서울시 1인 가구의 공간적 밀집지역과 요인 분석>, 《서울도시연구》, 제 15권(2), 2014,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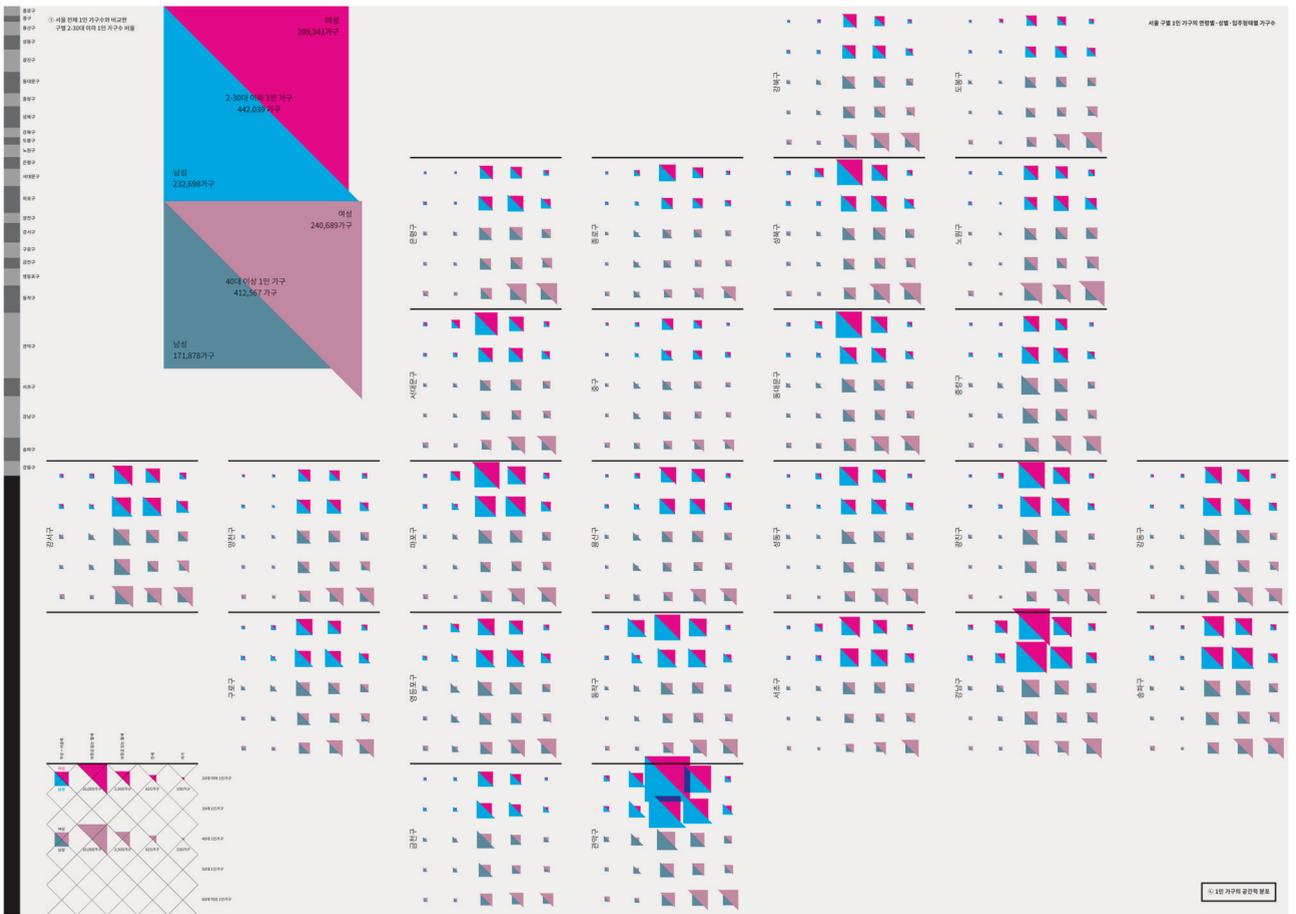


그림3-19 시각화: 서울 구별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입주형태별 가구 수.

(3) 서울 구별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입주형태별 가구 수

세 번째 작업은 시간적 분포 마지막 장인 2010년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점유유형에, 리서치에는 포함되었지만 화면에 적용하지 않았던 연령과 성별을 같이 구조화한 것이다. 제목과 같이 서울의 구별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입주형태별 가구 수를 나타내는 본 작업의 기본적인 구조는 시간적 분포에서 사용한 지도 격자를 토대로 하되, $5 \times 5 = 25$ 칸의 매트릭스를 기본 유닛으로 삼는다. 기본 유닛의 구조는 다음 페이지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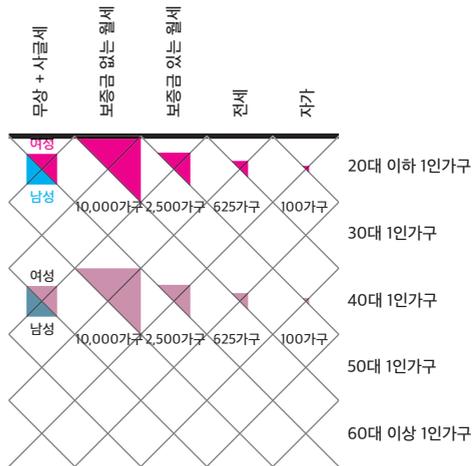


그림3-20 점유유형과 연령별 가구가 가로세로축으로 배치되고, 격자 안에서 남녀가 나뉜다.

가로축은 무상 및 사글세에서 월세를 거쳐 자가에 이르는 점유형태를 표시하고 있고, 세로축은 연령별 1인 가구를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다. 격자 구조를 활용한다는 점은 앞에서 진행된 작업과 유사하나 여기에 성별이라는 요소를 추가로 적용해야 했으므로, 사각형을 사선으로 잘라 좌측 하단을 남성, 우측 상단을 여성으로 표현했다. 남성은 청색 계열이고 여성은 적색 계열이며, 20~30대 1인 가구의 색상을 명시도가 높은 색상으로 적용했다. 하나의 삼각형은 10,000가구를 표시하며, 사각형으로 합쳐졌을 시에는 20,000가구를 나타낸다.

이 작업은 앞의 작업들과 같이 계층적 상황이 전체 좌표상으로 구별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는 없다. 단,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할수록, 이를테면 (좌측의) 사글세 가구보다 (우측의) 자가 가구가 상대적으로 윤택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연령이 높아진다. 작업 전체의 상단에는 20~30대 남성/여성 1인 가구 수와 40대 이상 남성/여성 1인 가구 수가 면적으로 표시되어 있다(서울 20~30대 남성/여성 1인 가구는 각 232,698가구, 209,341가구이며, 서울 40대 이상 남성/여성 1인 가구는 각 171,878가구, 240,689가구이다).

그리고 인쇄물 좌측 세로축 전체를 이용하여, 서울 전체 1인 가구 수와 비교한 구별 20~30대 이하 1인 가구 수 비율을 표시했다(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서울 20~30대 1인 가구는 442,039가구, 40대 이상 1인 가구는 412,567가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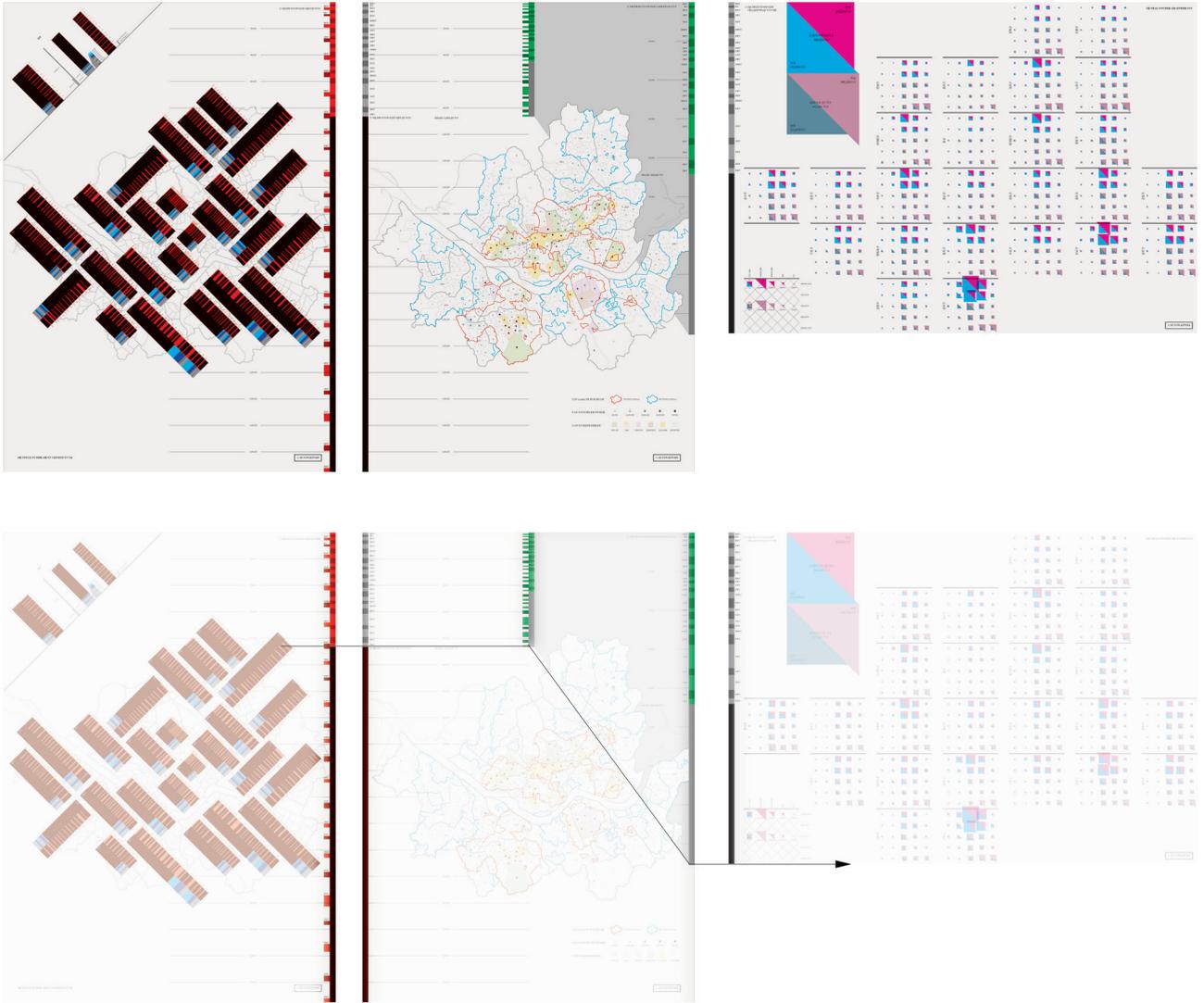


그림3-21 세 작업은 나란히 배치되었을 때 나타나는 별도의 정보구조가 존재한다.

공간적 분포에 해당하는 세 작업에는 모두 화면 가장자리 세로축을 이용한 양적 시각화가 있다. 이 그래프는 각각의 작업이 나란히 디스플레이 되어있을 때, 또 하나의 연속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첫 번째 작업에서 구별 1인 가구 수가 정렬되어 두 번째 작업으로 넘어온 후, 1인 가구 중 20~30대 청년 1인 가구가 별도로 정리되어 세 번째 작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개별 작업 내에서 콘텐츠를 담는 방식을 넘어, 특정 형태로 전시된 작업들의 배치를 이용하여 별도의 정보 레이어를 설정하는 것에 관한 실험이기도 하다.

3.3. 서울 50m² 이하 소형주택의 면적-임대료 현황

3.3.1 개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주택에 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을 도입하거나, 종래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주거 형태였던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을 정책의 테두리 안에 넣고 있다.^[1] 2009년 건물과세대장 기준으로 서울의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 수는 약 598,400호로 전체 주택재고의 19%를 차지하며,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 수는 약 1,421,100호로 전체 주택재고의 45%, 즉 절반에 가깝다. 특히 해당 소형주택 중에서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순으로 비중이 높다. 전용면적 40m²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주택 수는 전체 1인 가구 수의 72.9% 수준으로, 소형주택의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물량이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2]

위의 서술은 약 5년 전의 상황이므로, 실제로 시장에 나와 있는 최근 매물들의 면적과 가격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았다. 앞서 1인 가구의 시간적/공간적 분포를 검토하고 시각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그 서울 1인 가구가 현재 살고 있고, 살게 될 집들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단락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매물들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으며, 어떤 수준의 임대료를 요구하는지를 알아본다.

3.3.2 리서치

자료는 부동산뱅크(<http://www.neonet.co.kr>)에 존재하는 2013년 9월 매물정보 전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아파트 26,630건, 단독(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등 일반주택이 16,382건으로 총 43,012건을 원자료로 활용했다.

해당 원자료 중 다인 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1인 가구(특히 청년 1인 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매물로서 소형주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중·대형매물은 제외했다. 일반적으로 소형 주택은 20m² 이하, 40m²

[1] 신상영, «서울의 준주택 실태와 정책방향»,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p.3.

[2] Ibid., p.95.

이하, 60㎡ 이하의 구간으로 구분하기도 하나, 통상적으로 40~60㎡ 사이의 주택을 의미하며, 원자료에서는 그 사이인 50㎡(약 15평) 이하의 매물만을 선택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감가상각의 패턴이 다른) 독특한 상품으로 기능하는 한국 상황의 특수성이 있고, 가격대 또한 여타 일반주택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1인 가구(특히 청년 1인 가구)의 경제적 선택을 염두에 둔 작업에 포함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했다. 실제로 1인 가구의 경우 아파트 거주 비율이 일반가구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아파트는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주거형태로 여기기 어렵다.^[3]

또한, 본 리서치는 임대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매매를 위한 매물은 제외하고, 전세나 월세로 나온 매물만을 대상으로 했다. 임대료는 모두 월세로 환산하였으며, 환산 월세는 해당 주택들이 매물로 존재하던 시점인 2013년 3분기를 기준으로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하여 산정했다. 해당 분기의 전월세 전환율은 도심권^[5] 8.6%, 동북권^[6] 7.75%, 서북권^[7] 7.7%, 서남권^[8] 7.55%, 동남권^[9] 7.55%이다.

위와 같은 기준, 즉 ‘아파트를 제외한 50㎡(약 15평) 이하의 일반주택 중 전세나 월세로 나온 주택’로 분류했을 시 약 3,200여 개의 매물이 대상이 된다. 이 주택들을 대상으로 면적과 임대료를 리서치했다. 리서치와 데이터의 재편집 및 정리는 교통·인프라 연구자 전현우가 담당하였다.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서울 50㎡ 이하의 소형주택 매물의 면적과 임대료에 관한 시각화를 배민기가 진행하였다. 구별 데이터는 부록2의 182~18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3] 신상영, «서울의 준주택 실태와 정책방향»,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p.82.

[4]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서, 매월 산정된 월별 산정 비율((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에, 12개월을 곱하여 연이율로 나타낸 것이다(<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32509>).

[5] 종로구, 중구, 용산구

[6]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7]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8]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9]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3.3.3 시각화

본 항목에서는 총 3가지의 시각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먼저 '구별 매물의 면적과 환산 월세'를 나타낸 첫 번째 작업이 있다. 첫 번째 작업에서는 각 5분위로 나누어 조사된 서울 25개 구 매물 125종류(군)의 면적과 환산 월세를 나타냈다.

두 번째 작업인 '구별 평당(3.3m²) 월세'는 첫 번째 세로축 정보를 그대로 공유한다. 이는 첫 번째 작업에 등장하는 매물들을 모두 1평으로 환원했을 때, 각각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작업이다. 두 번째 작업을 통해 구별·분위별로 가격을 비교해볼 수 있다.

그리고 1평당 (3.3m²) 환산 월세순위가 명시된 세 번째 작업이 있다. 해당 작업에서는 두 번째 작업의 평당 임대료 순위를 숫자로 나타내고, 그다음 구 전체 평균 임대료를 산출하여 25개 구의 순위를 추가로 표시했다.

그림3-22
시각화:
구별 면적과 환산 월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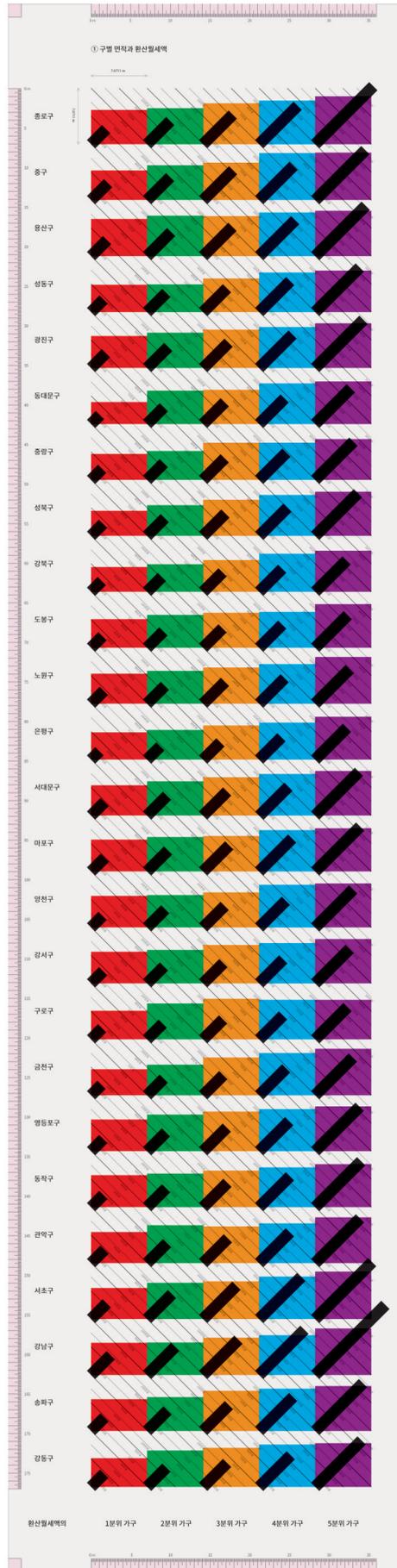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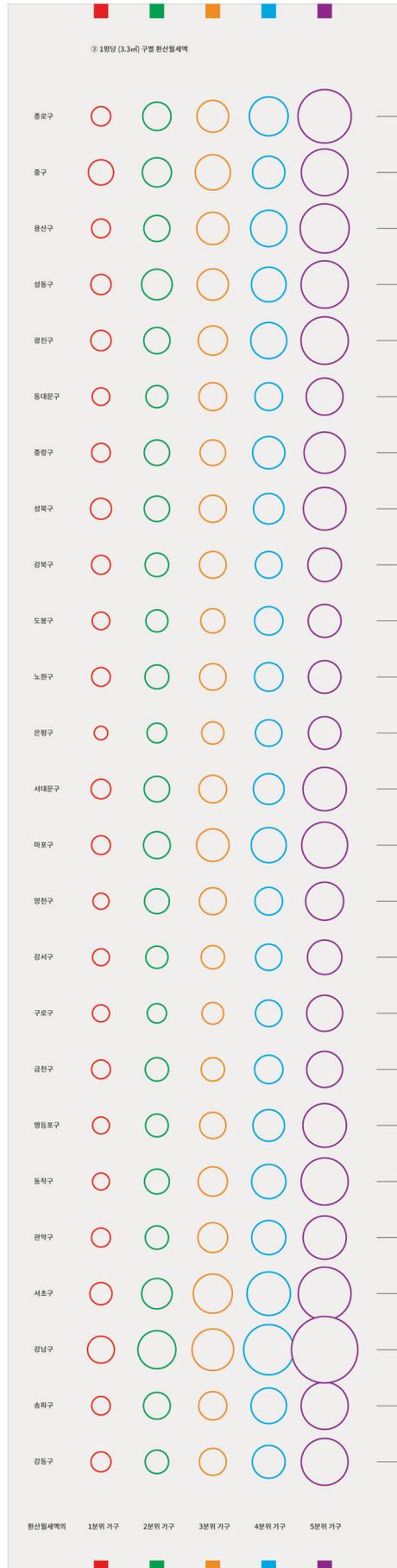
그림3-23 구별 면적과 환산 월세액 이미지의 세부.

위 그림은 첫 번째 작업의 세부로, 매물의 면적과 월세액이 같은 지점에 두 레이어로 겹쳐져 표현되어 있다. 먼저 색깔이 구별되는 직사각형은 매물의 면적을 나타낸다. 가로축으로 가장 저렴한 매물(1분위)이 적색, 그다음 저렴한 매물(2분위)이 녹색, 중간 정도인 매물(3분위)이 황색, 다소 고가인 매물(4분위)이 청색, 가장 고가인 매물(5분위)이 자색이다. 면적을 나타내는 유닛의 가로/세로 폭은 약 7m로 한 유닛의 기본 면적은 50m^2 이다. 그 안에서 고가인 매물일수록 면적도 조금씩 늘어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세로축은 서울 25개 구가 나열되어 있다. 또한, 면적이 드러나는 레이어와 같은 층위에서, 화면 가장자리에는 길이를 가늠할 수 있는 자 형태의 이미지가 병치 되어 있다.

그리고 사선으로 기울어 있는 막대그래프는 임대료를 나타낸다. 면적을 나타낸 지점 위로, 사선으로 된 기준선을 표현하고 그 위에 막대그래프를 표시했다. 사선 한 칸은 15만 원으로 100여만 원까지 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첫 번째 작업은 통상적인 시점으로 바라보면 면적을 나타내지만, 45도 각도로 기울인 시점에서는 임대료를 나타내고 있다. 복수의 시점(과 복수의 데이터)을 하나의 공간에 구조화한 것이 본 작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3-24
시각화:
1평당 (3.3㎡) 구별 환산
월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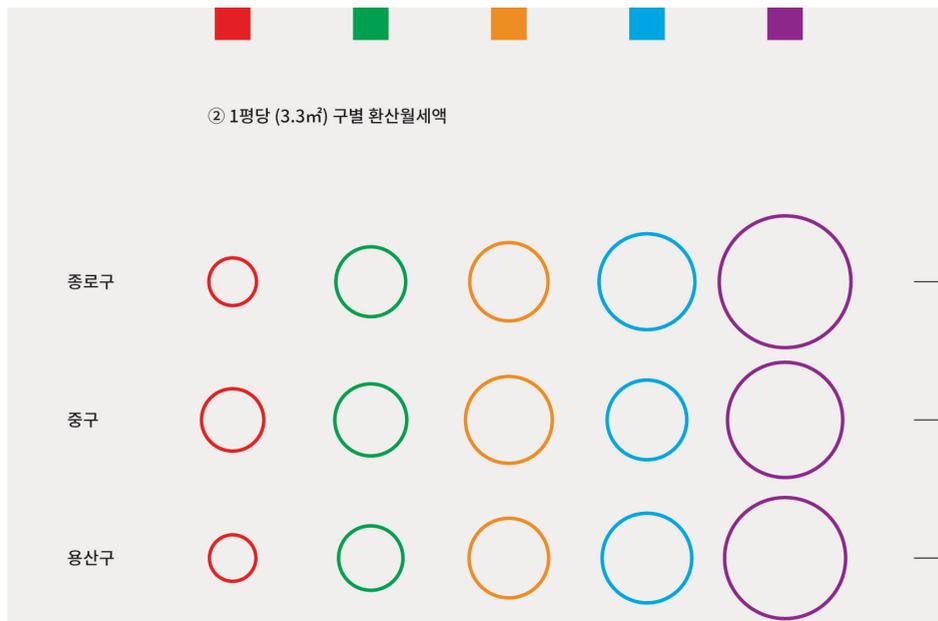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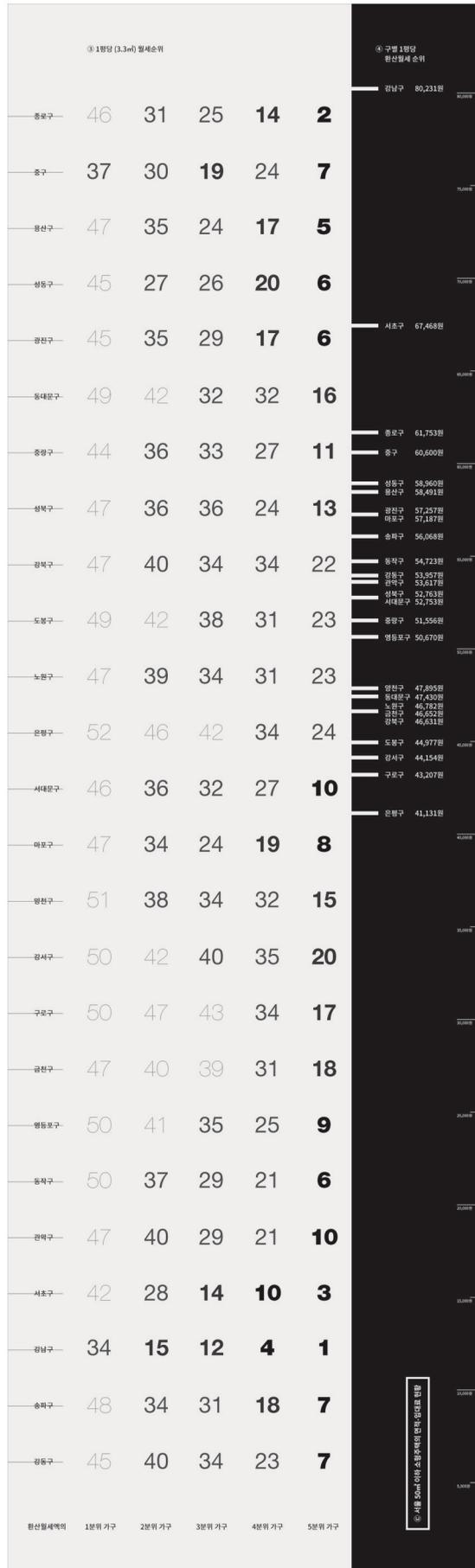
그림3-25 1평당 (3.3㎡) 구별 환산 월세액의 세부.

(2) 1평당 (3.3㎡) 구별 환산 월세액

두 번째 작업은 첫 번째 작업의 세로축과 동일하게 구별 정보를 드러내고 있다. 첫 번째 작업이 면적과 임대료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면, 두 번째 작업은 해당 매물을 1평(3.3㎡)으로 환원했을 시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역시 가로축은 가장 저렴한 매물이 좌측, 가장 고가의 매물이 우측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면적은 1평으로 모두 동일하므로 작업 최상단에 단위 면적을 표시하였다.

첫 번째 작업과 두 번째 작업 모두 금액이 등장하고, 평당 임대료는 실제 환산 임대료를 나눈 값이므로, 가격의 시각적 표현에 있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시 평당 임대료가 소액이라 잘 드러나지 않는 난점이 있다. 따라서 평당 임대료는 원(circle) 형태의 선이라는 별도의 시각적 표현을 적용했다. 적색에서 자색으로 색상을 적용하여 분위별 평당 임대료라는 점을 나타내었다.

그림3-26
시각화:
1평당 (3.3m)
월세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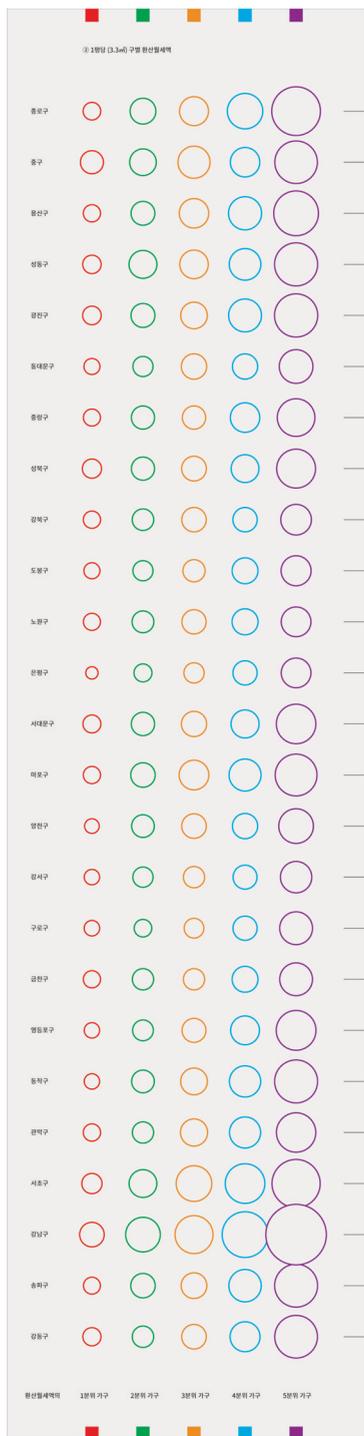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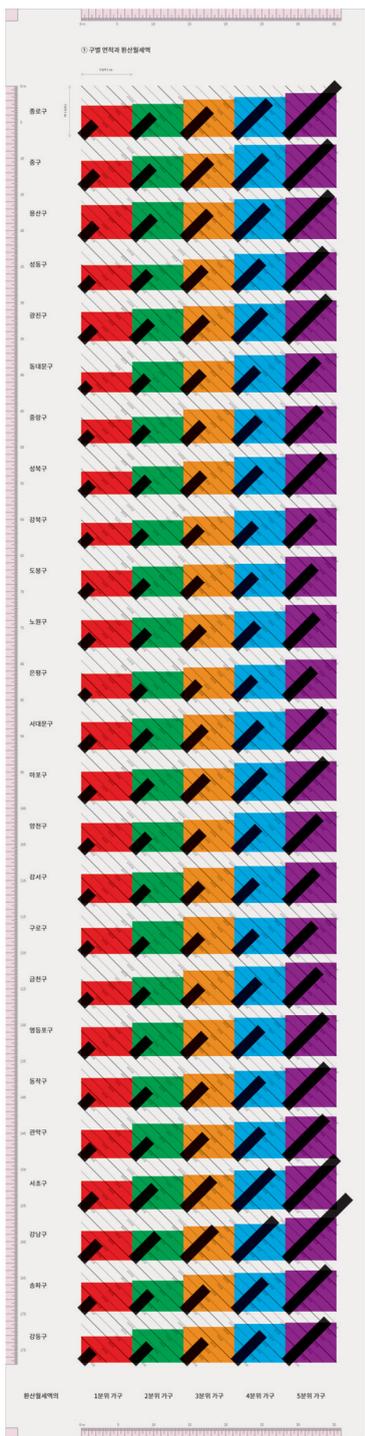
(3) 1평당 (3.3m²) 월세순위

세 번째 작업은 두 번째 작업에 표현된 평당 임대료의 순위와 최종 구별 임대료의 순위를 명시한 작업이다.

먼저 작업 좌측에서는 분위별 평당 임대료의 순위를 적었다. 순위가 높을수록 굵은 서체를 적용하여, 높은 평당 임대료가 많이 몰려있는 구와 그렇지 않은 구가 확연히 구분된다. 이를테면 은평구에서 가장 비싼 분위(5분위)에 속하는 매물의 평당 임대료는, 강남의 두 번째로 싼(2분위) 구간 매물의 평당 임대료보다도 저렴하다. 125개로 분류된 구별 평당 임대료 중 가장 저렴한 평당 임대료 또한 은평구 1분위의 24,187원이다. 또한,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는 상위 20~40%에 속하는 4분위조차 30위권에 속해 있다. 이처럼 작업을 살펴보면 구별 가격 편중이 어느 정도의 양상을 보이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우측에는 구 전체의 평당 임대료 평균을 순서대로 제시했으며, 총 25개의 평당 임대료 순위를 긴 세로축을 이용하여 표현했다. 우측 세로축을 금액 눈금으로 이용하여, 강남구의 80,231원에서부터 은평구의 41,131원을 표시했다.

본 장에서 다루어진 세 가지의 작업 또한 공간적 분포와 마찬가지로, 별개의 작업들이 평행하게 디스플레이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다. 세로축은 서울 25개 구 표준배열을 유지하고, 세로축은 분위별 5개 항목이 반복되는 형태이다. 해당 이미지들은 1차 기반 연구 자료이므로, 전체 작업군 내에서의 역할이나 구조, 균형과 관련한 검토를 거친 후, 최종 작업에서 전반적으로 수정 및 보완된다.



③ 1분위 (3.3~4) 구별 현산출내역

구분	1분위 가구	2분위 가구	3분위 가구	4분위 가구	5분위 가구
홍도구	46	31	25	14	2
홍구	37	30	19	24	7
홍안구	47	35	24	17	5
성동구	45	27	26	20	6
광안구	45	35	29	17	6
동대동구	49	42	32	32	16
홍원구	44	36	33	27	11
성북구	47	36	36	24	13
광학구	47	40	34	34	22
도봉구	49	42	38	31	23
노원구	47	39	34	31	23
관악구	52	46	42	34	24
서대동구	46	36	32	27	10
여의구	47	34	24	19	8
영천구	51	38	34	32	15
관서구	50	42	40	35	20
구로구	50	47	43	34	17
금천구	47	40	39	31	18
영등포구	50	41	35	25	9
동작구	50	37	29	21	6
관악구	47	40	29	21	10
서초구	42	28	14	10	3
강남구	34	15	12	4	1
송파구	48	34	31	18	7
강동구	45	40	34	23	7

④ 구별 1분위 현산출내역

- 홍도구 80,211명
- 홍구 67,468명
- 홍안구 61,733명
- 성동구 58,949명
- 광안구 57,277명
- 동대동구 56,068명
- 홍원구 54,723명
- 성북구 53,927명
- 광학구 53,617명
- 도봉구 52,733명
- 노원구 52,733명
- 관악구 51,561명
- 서대동구 50,670명
- 여의구 47,859명
- 영천구 47,468명
- 관서구 46,732명
- 구로구 46,252명
- 금천구 46,031명
- 영등포구 44,977명
- 동작구 44,154명
- 관악구 43,207명
- 서초구 41,111명

⑤ 서울특별시 1분위 현산출내역

그림3-27 세 작업은 나란히 배치되었을 때 세로축 정보를 공유한다.

3.4. 수도권 1인 가구의 연령/순자산별 자산과 소득

3.4.1 개요

서울 1인 가구가 현재 살고 있고, 살게 될 집들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했으므로, 본 장에서는 그 집에 임대료를 지급할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상황을 조사한다.

3.4.2 리서치

자료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에서 판매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항목에서 추출하였다. 마이크로데이터 (micro data)는 데이터 가공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며 통계 원시자료라고 칭하기도 한다.^[1] 마이크로데이터는 표본집단의 1%에 해당하는 원 조사자료를 그대로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에 포함된 모든 항목을 교차하여 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본 장에서 활용한 마이크로데이터는 총 18,596개의 조사 자료를 재가공하여 만든 것이다.^[2]

‘수도권 1인 가구의 연령/순자산별 자산과 소득’ 항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및 2인 이상 가구가 계층별로 어떠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알아본다. 특정 가구의 경제 지표는 총자산과 소득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총 자산은 순자산과 부채의 합계이므로, 실제로 소유한 재산과 빚의 상황을 알아볼 수 있다.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과 그 외의

[1]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사이트의 용어 설명 페이지(<http://mdss.kostat.go.kr/mdssect/etc/Glossary.jsp>)

[2] 본 장에서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를테면 별도로 존재하는 두 개의 공표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결혼 여부를 주제로 결혼/비혼/이혼 인구수를 제공하는 항목이 있다. 그리고 소득을 주제로 소득계층구간별 인구수를 제공하는 항목도 있다. 그렇다면 이혼 인구수가 몇 명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고, 소득이 약 3,000만 원인 인구수가 몇 명인지를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혼한 상태인 동시에 소득이 약 3,000만원인 인구수가 몇 명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별도의 공표 데이터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다.

앞서 시간적 분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렇게 통계청의 데이터들은 주제 항목별로 제공되는 공표 데이터이기 때문에, 별개의 항목으로 존재하는 변수를 교차하여 사용하는 등의 심층적 분석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때 마이크로데이터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소득을 비교함으로써, ‘일해서 번 돈’이 소득의 전부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볼 수 있다. 그 양상을 구조화하기 위해 자산총액, 순자산액, 저축액, 부채액, 부동산담보대출액을 조사하여 순자산별 5개 분위로 나누어 평균을 냈다. 소득 부문 또한 총소득액, 근로소득액, 사업소득액, 재산소득액, 가처분소득액 등을 조사하여, 5개 분위로 나누어 평균을 냈다. 리서치 항목은 교통·인프라 연구자 전현우와 배민기가 결정하고, 데이터의 재편집 및 정리는 전현우가 담당하였다. 분위별 데이터는 부록2의 184~18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자산 1분위	가장 가난한 20대 이하	가장 가난한 30대	가장 가난한 40대	가장 가난한 50대	가장 가난한 60대 이상	가장 가난한 20대 이하	가장 가난한 30대	가장 가난한 40대	가장 가난한 50대	가장 가난한 60대 이상
순자산 2분위	비교적 가난한 20대 이하	비교적 가난한 30대	비교적 가난한 40대	비교적 가난한 50대	비교적 가난한 60대 이상	비교적 가난한 20대 이하	비교적 가난한 30대	비교적 가난한 40대	비교적 가난한 50대	비교적 가난한 60대 이상
순자산 3분위	중간 수준의 20대 이하	중간 수준의 30대	중간 수준의 40대	중간 수준의 50대	중간 수준의 60대 이상	중간 수준의 20대 이하	중간 수준의 30대	중간 수준의 40대	중간 수준의 50대	중간 수준의 60대 이상
순자산 4분위	비교적 부유한 20대 이하	비교적 부유한 30대	비교적 부유한 40대	비교적 부유한 50대	비교적 부유한 60대 이상	비교적 부유한 20대 이하	비교적 부유한 30대	비교적 부유한 40대	비교적 부유한 50대	비교적 부유한 60대 이상
순자산 5분위	가장 부유한 20대 이하	가장 부유한 30대	가장 부유한 40대	가장 부유한 50대	가장 부유한 60대 이상	가장 부유한 20대 이하	가장 부유한 30대	가장 부유한 40대	가장 부유한 50대	가장 부유한 60대 이상

표3-2 자산과 소득 시각화에 사용할 기본 구조.

3.4.3 시각화

연령·순자산별 자산과 소득의 시각화는 앞의 그림과 같은 기본 구조를 토대로 한다. 가로축을 기준으로 크게 좌측을 1인 가구, 우측을 다인 가구로 두고, 그 안에서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가구 순으로 배치한다. 세로축은 순자산 분위, 즉 가장 순자산이 적은 하위 20%의 평균부터 가장 순자산이 많은 상위 20%의 평균까지를 배치한다. 이처럼 가로축과 세로축을 구성하면, 좌측의 1인 가구와 우측의 다인 가구를 비교해볼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연령이나 순자산 분위에 따라 자산과 소득이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 알 수 있다. 각 수치는 양적 속성을 명확하게 적용하여 시각화하며, 간혹 특정 수치가 지극히 낮은 경우 잘 보이지 않는 난점이 있기도 하다.

해당 시각화 작업에서는 전반적 차이를 (절대량의 명확한 제시와 함께) 크게 조망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시각 요소의 일부 디테일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 작업은 상술한 구조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단, 복수의 작업을 제작하여 그 부분을 다소 보완하였다.

작업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각 요소의 절대 수치를 그대로 반영한 안이다. 이는 계층별 자산과 소득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단, 자산과 소득 자체가 (가장 부유한 계층의 자산 및 소득에 비해) 지극히 미미할 경우, 해당 구성 요소의 비율을 인지하는 데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두 번째 작업이 제작되었는데, 이는 각 연령/계층별 가구의 소득 및 자산을 상대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이 경우, 절대 수치가 지나치게 작더라도 크기는 동일하게 표현되므로, 가장 빈곤한 계층의 자산 및 소득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더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의 시각화 작업 2가지는 절대 수치를 나타낸 판본을 먼저 제시하고, 그다음 상대 수치를 나타낸 판본을 보여주는 방식을 취한다.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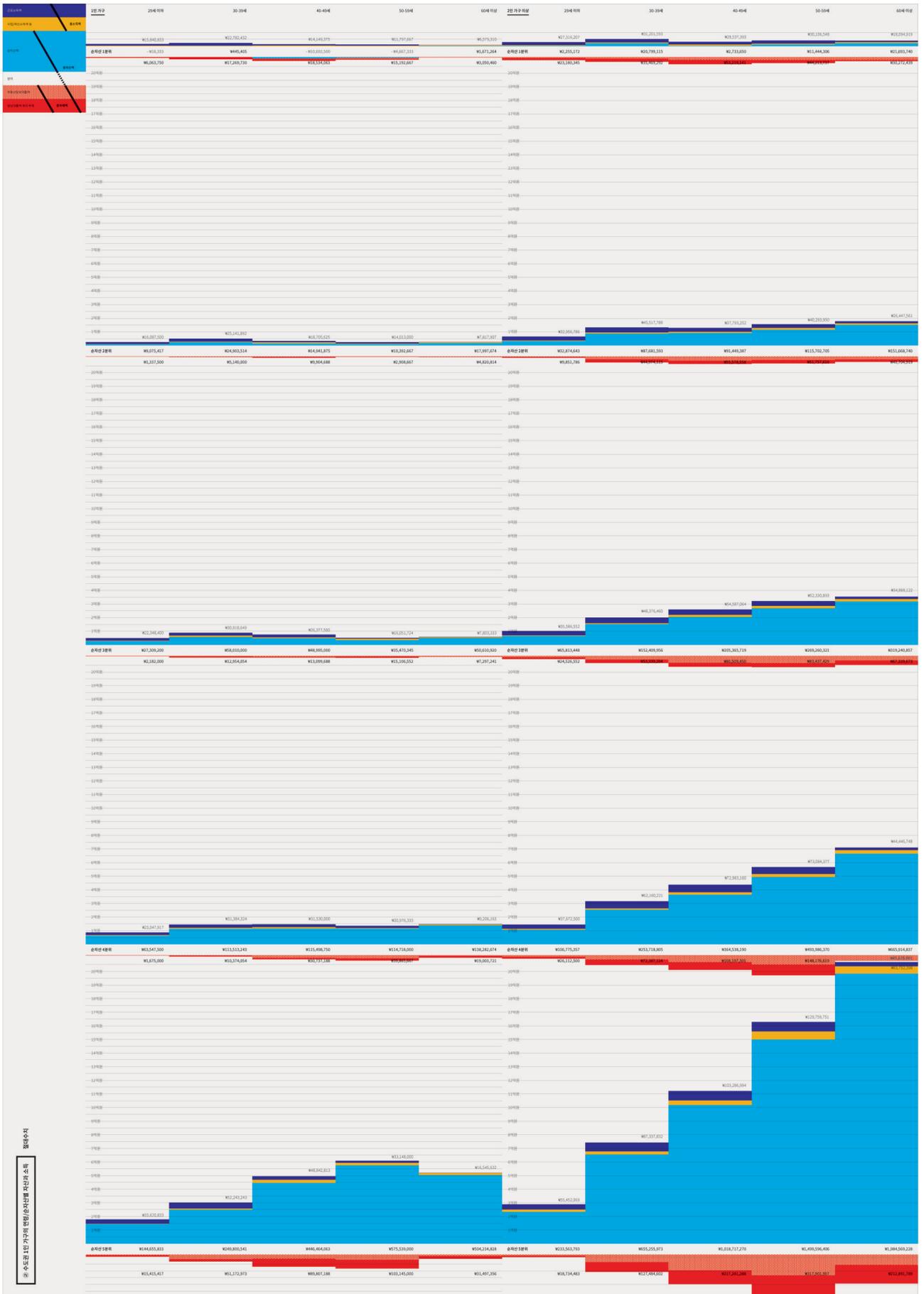


그림3-28 시각화: 수도권 1인 가구의 연령/순자산별 자산과 소득(절대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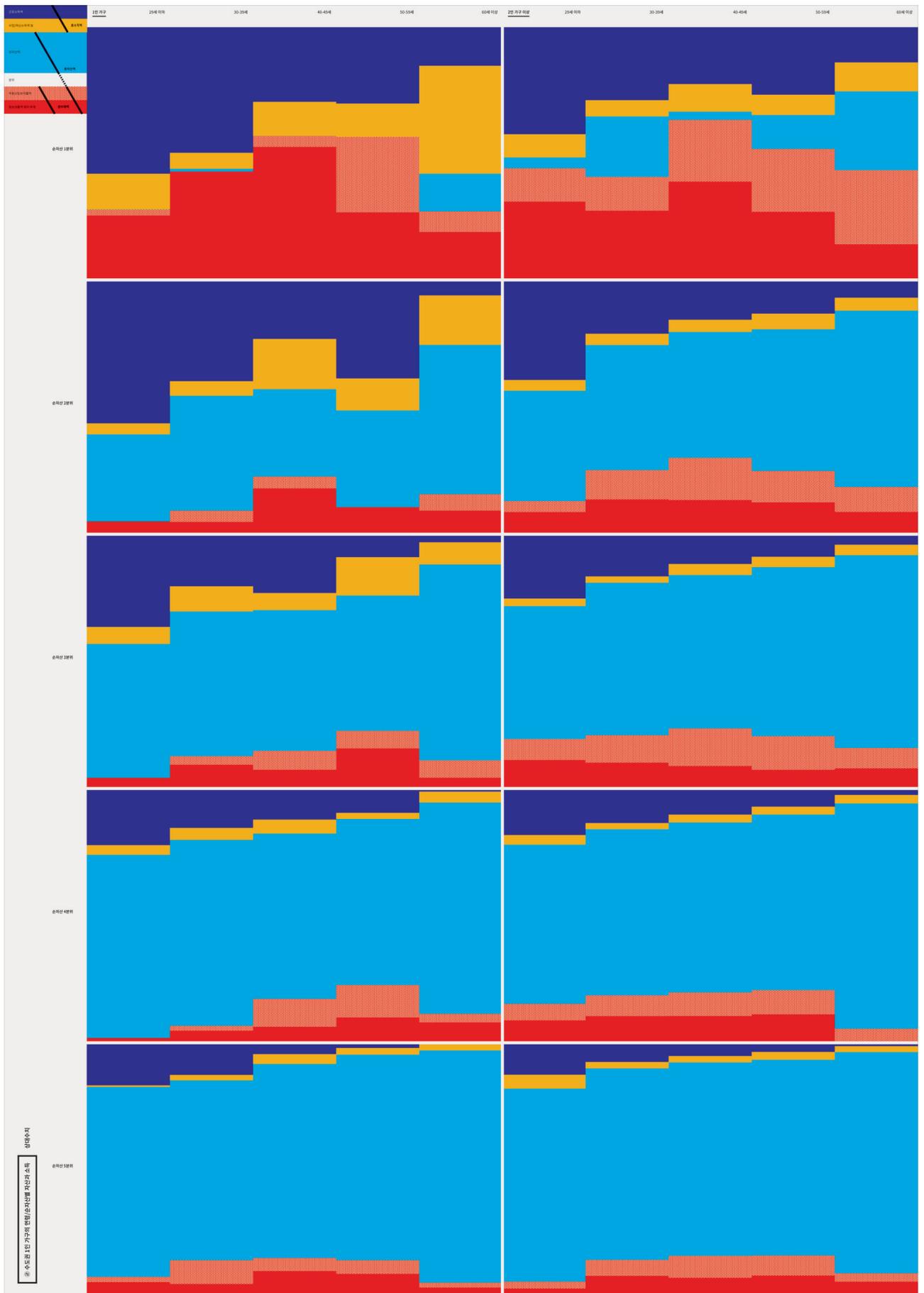


그림3-29 시각화: 수도권 1인 가구의 연령/순자산별 자산과 소득(상대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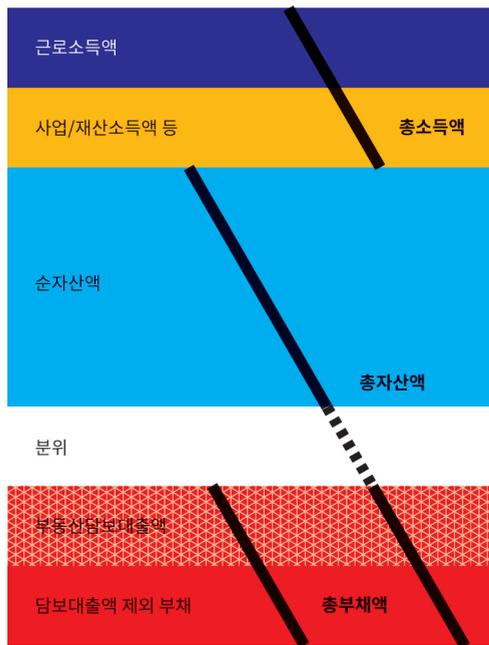


그림3-30 자산과 소득 구성표(시각화 좌측 상단 위치).

절대 수치 시각화와 상대 수치 시각화 모두, 좌측 상단에 위의 그림과 같은 범례를 배치하였다. 범례는 소득, 순자산, 부채의 순서로 위에서 아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액을 나타내는 진청색, 사업소득·재산소득 등 근로 외 소득을 나타내는 황색, 순자산액을 나타내는 청색, 부채를 나타내는 적색 영역이 있다. 적색 영역은 다시 격자무늬가 적용된 부동산 담보대출액과 나머지 대출액 영역으로 구성된다.

절대 수치 시각화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중간 수준의 가구 (3분위)조차 순자산, 부채, 소득이 모두 미미함을 알 수 있다. 특히 20대 이하 1인 가구와 60대 이상 1인 가구의 문제가 두드러지는데, 1분위에 속하는 20대 이하 1인 가구는 자산 총액 평균보다 부채 총액 평균이 더 많은 상태로, 순자산이 음수를 나타낸다. 또한, 60대 이상 1인 가구는 거의 면적이 보이지 않는 선에 가까운 형태로, 기본적으로 소득, 순자산, 부채를 막론하고 가진 것이 없는 상태임이 드러난다. 1인 가구의 경우 가장 부유한 계층은 50대 1인 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비해 다인 가구의 경우 가장 가난한 계층을 제외하면 일정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특히 다인 가구는 모든 분위에서 60대가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부유한 5분위 60대 다인 가구의 경우, 1~4분위의 평균 자산을 모두 합친 액수의 두 배에 가까운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대 수치 시각화를 살펴보면, 자산과 소득액의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드러난다. 특히 1분위의 60대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근로 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는데, 이는 실소득액 자체가 미미한 가운데 이전소득 등의 사회보장급여액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상대수치 시각화에서는 황색 영역, 즉 근로 외 소득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관찰되고, 1분위 50대 1인 가구의 경우 부채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이처럼 절대 수치와 상대 수치를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어느 한쪽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요소를 상호보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해당 이미지들은 1차 기반 연구 자료이므로, 전체 작업군 내에서의 역할이나 구조, 균형과 관련한 검토를 거친 후, 최종 작업에서 전반적으로 수정 및 보완된다.

4. 최종 작업

1차 기반 연구에서는 크게 4가지의 연구를 진행했다.

① '1인 가구의 시간적 분포 (1980-2010)'에서는 가구 수 증가와 더불어 주택유형과 방의 개수 변화를 통해, 30년 동안 변화해온 1인 가구의 양상을 점검하였다.

②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에서는 현재 서울의 1인 가구의 성별·연령별·동별 분포를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하였다. 지역별 유형이나 계층별 유형 연구를 통해 밀집지역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고, 행정동 단위보다 더 세밀한 분포를 알 수 있는 핫스팟-콜드스팟을 동시에 적용해보았다. 그리고 점유형태에 따른 공간적 분포를 추가로 제시했다.

③ '서울 50m² 이하 소형주택의 면적·임대료 현황'에서는 위와 같은 1인 가구(및 다인 가구) 거주자들이 마련하는 실제 매물들이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는지, 면적과 임대료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1평당 임대료로 모든 매물을 환원했을 때, 분위별·구별 가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고, 그 순위를 매겨보았다.

④ '수도권 1인 가구의 순자산별 자산과 소득'에서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였다. 연령과 분위에 따라 순자산·부채·소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절대 수치와 상대 수치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결과물을 도출했다.

이와 같은 연구는 물론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위치의 가시화라는 특정한 맥락을 전제하고 있지만, 각각의 주제가 좀 더 체계적인 상위 구조하에서, 가능한 한 간결하고 명료하게 의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밀도와 복잡도가 높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수용자들이 작업을 빠르고 쉽게 이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등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4장 최종 작업에서는 앞서 리서치하고 제작한 작업들을 수정 및 개작하여, 전체 작업들의 구성이 주요한 메시지를 비교적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1차 기반 연구에서 제작된 작업 일부는 최종 작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큰 범주를 구분하여 작업을 정리하고, 전체 작업의 의도를 좀 더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새로이 정리한 전체 구조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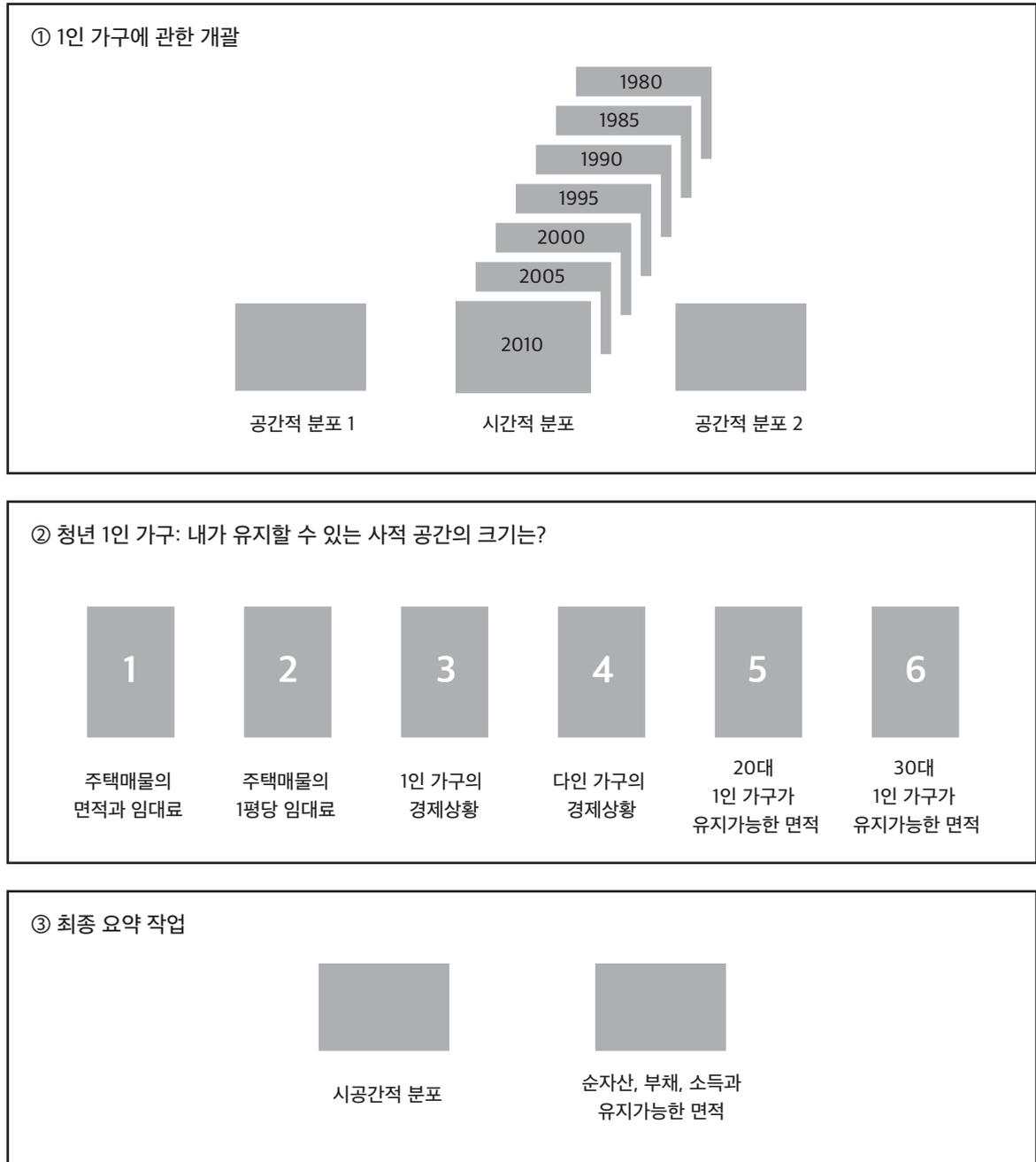


그림4-1 최종 작업의 구조도.

구조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① 1인 가구에 관한 개괄

전반적 정보를 전달하는 ‘개괄’ 영역을 첫 번째 장으로 삼아, 시간적/공간적 분포 정보를 배치했다.

② 청년 1인 가구: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사적 공간의 크기는?

주택매물의 임대료와 1인(다인) 가구의 경제상황, 그리고 그들이 유지 가능한 집의 면적을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총 6가지의 항목을 두 번째 장으로 배치했다.

③ 최종 요약 작업

모든 정보를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항목으로 ①번과 ②번의 내용을 각각 하나의 작업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1차 작업은 대대적인 개작을 거쳤다. 수정을 통해 삭제된 요소가 일부 존재하나 모든 항목은 최종 작업에 반영되었다.

- 1차 시각화 중 ‘1인 가구의 시간적 분포 (1980-2010)’는 아이콘 개발 및 지도 윤곽 추가를 포함한 개작을 거쳐 항목①로 들어갔다.
- 1차 시각화 중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는 동별 분포와 점유율, 밀집유형분류, 핫스팟-콜드스팟과 성별/연령별/점유형태별 지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핵심적인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 몇 가지 요소는 제외되었다. 역시 항목①로 배치되었다.
- 1차 시각화 중 ‘서울 50m² 이하 소형주택의 면적-임대료 현황’은 추상적인 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지도 기반의 시각화로 바꾸어 항목②의 1, 2번 항목으로 배치했다.
- 1차 시각화 중 ‘수도권 1인 가구의 순자산별 자산과 소득’ 역시 추상적인 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를 아이콘 중심으로

개작하여 항목②의 3, 4번 항목으로 배치했다.

- 면적·임대료 현황과 자산/소득을 토대로 청년 1인 가구가 실제로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의 넓이를 시각화한 작업을 새로이 제작하여, 항목②의 5, 6번 항목으로 배치하였다.

- 항목③은 최종 요약 작업으로 항목①에서 다루는 내용을 하나의 작업으로 압축하여 제작하고, 항목②에서 다루는 내용 또한 하나의 작업으로 압축하여 제작하였다. 1980년에서 2010년까지의 1인(다인) 가구의 구별분포와 2010년 기준 동별 분포 및 밀집지역 유형별 분류를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며, 1인 가구 거주자의 연령, 순자산, 부채, 소득을 (월세로) 유지 가능한 집의 면적과 같이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작업이다.

4.1. 개괄

4.1.1 1인 가구의 시간적 분포 (1980-2010)

개괄 항목 속으로 재배치하여 개작한 1인 가구의 시간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격자 구조를 여전히 유지하지만, 지도의 형태가 외곽에 추가되어 지도임을 드러낸다. 또한 화면 일부분에 (격자를 보는 방식을 설명하는) 범례를 빼도 감상에 문제가 없도록 방의 개수나 주택유형을 격자 영역에 직접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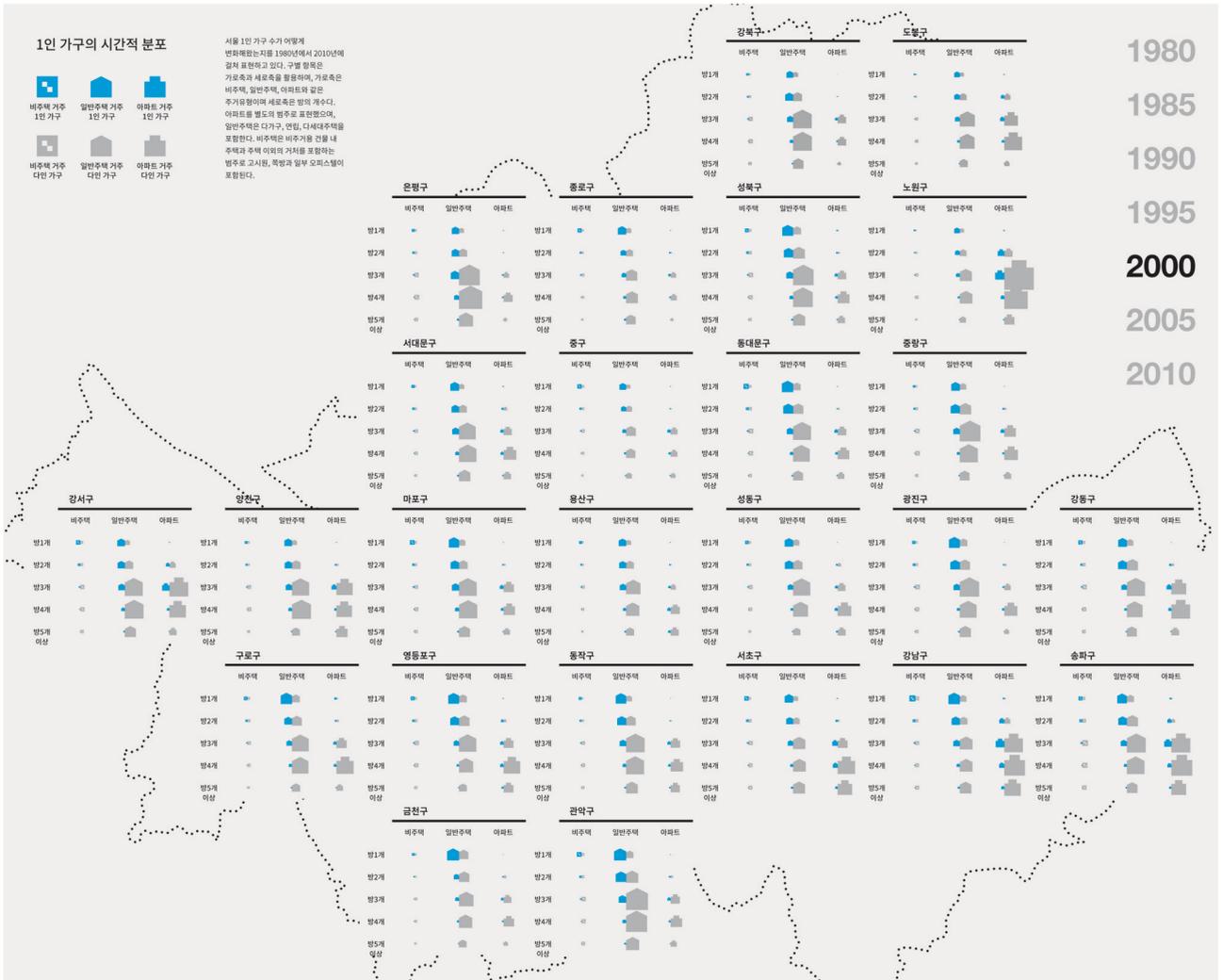


그림4-2 시각화 최종 작업 1: 1인 가구의 시간적 분포(2000년도).



그림4-3 1인 가구의 시간적 분포에 사용된 주택유형별 아이콘.

이전 작업에서는 행과 열 정보로만 표현한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를 별도의 아이콘(icon)으로 표현하였다. 비주택은 쪽방 등 주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거로서 내부에 빈칸이 있는 사각형으로, 일반주택은 집 아이콘의 전형적 형태로, 아파트는 높이 차이가 있는 사각형의 구조체로 제작하였다.

해당 아이콘은 단순히 언어를 형태로 치환하는 방식의 ‘친근한’ 시각 방법론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실제 양적 속성을 나타내는 시각적 장치로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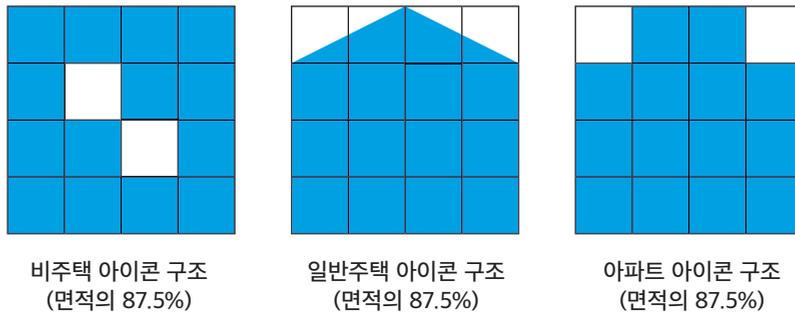


그림4-4 같은 넓이를 갖고 있어, 가구 수를 나타내는 장치로 활용 가능한 아이콘의 구조.

위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세 가지 아이콘 모두 16 등분된 사각형에서 14개를 차지하고 있어, 동일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면적으로 아이콘이 제작되었기 때문에, 세 가지 아이콘은 넓이를 표현하는 시각적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다. 격자는 1차 기반 연구에서 제작된 작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로축은 주택유형, 세로축은 방의 개수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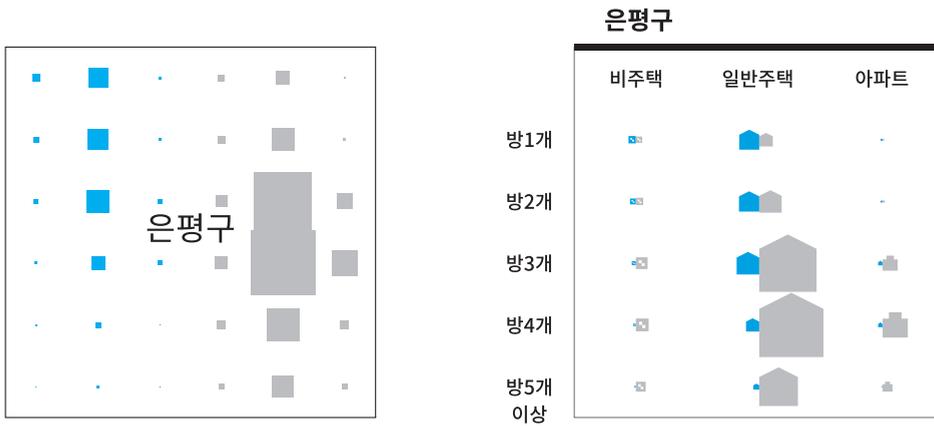


그림4-5 1차 기반 연구에서 제작된 시각화 작업의 격자 구조와 최종 작업에서 제작된 격자 구조.

구별 유닛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1차 기반 연구에서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영역을 가로축으로 크게 나누어 표현했다면, 새로 제작된 작업은 주택유형별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하나의 열로 표시하여,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방 5개 이상의 가구는 그 수치가 매우 미미하여, '방 5개'와 '방 6개 이상'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것보다, '5개 이상'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합산하여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였다.

4.1.2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개발 항목 속으로 재배치된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는 두 가지 간략한 판본으로 다시 작업 되었다. 1인 가구의 동별 분포를 나타낸 첫 번째 작업과 동별 점유율 및 밀집유형별 분류를 나타낸 두 번째 작업이다.

(1) 서울 동별 1인 가구 분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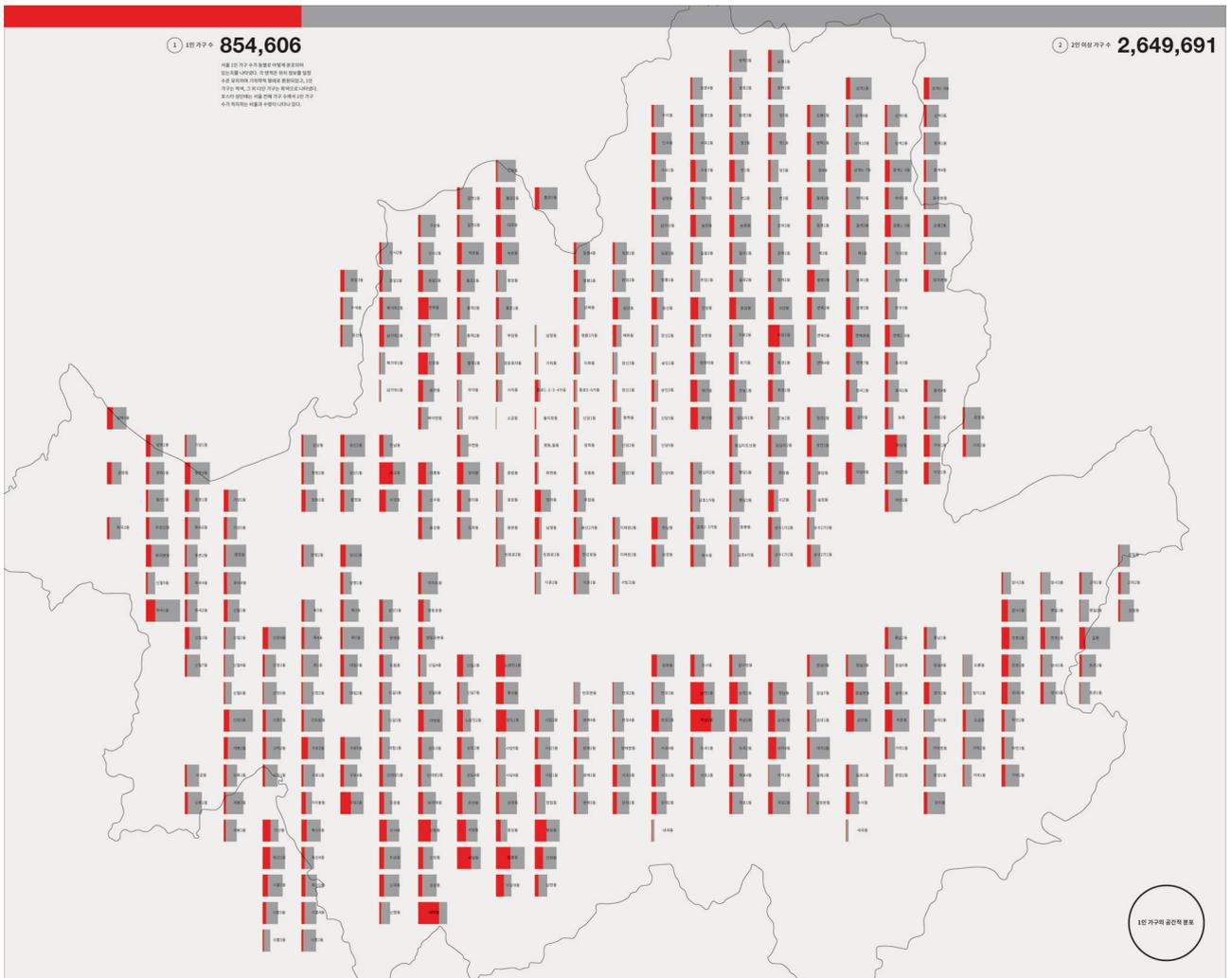


그림4-6 시각화 최종 작업 2-1: 서울 동별 1인 가구 분포 1.

‘서울 동별 1인 가구 분포 1’은 현재 서울의 1인 가구 분포를 행정동 단위로 자세히 나타낸 작업이다. 1차 기반 연구에서 진행된 시각화 작업 ‘서울 구 단위 1인 가구 연령별·성별 가구 구성과 동 단위 가구 구성’을 단순화한 이 작업은, 기본적으로 행정동 단위의 자세한 분포도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이전 작업에서 반영한 성별 분류나 연령별 분류를 제외하였다. 1인 가구는 적색으로, 2인 이상 가구는 회색으로 표현하여, (작업을 보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범례가 따로 필요 없도록 제작되었다.

1차 기반 연구에서는 지도의 형태를 완전히 반영하여 작업이 제작되었으나, 수정을 거치며 동별 격자 구조를 따로 만들었다. 해당 작업에서 행정동은 개략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동의 형태 등 부가정보의 밀집도가 높은 실제 지도를 기반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단, 지도를 기반으로 추상화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 서울의 외곽 영역을 남겨놓았다. 작업 상단 가로축에는 동일한 색상 원칙을 적용하여 1인 가구 수와 2인 이상 가구를 드러내는 막대 형태의 그래프를 배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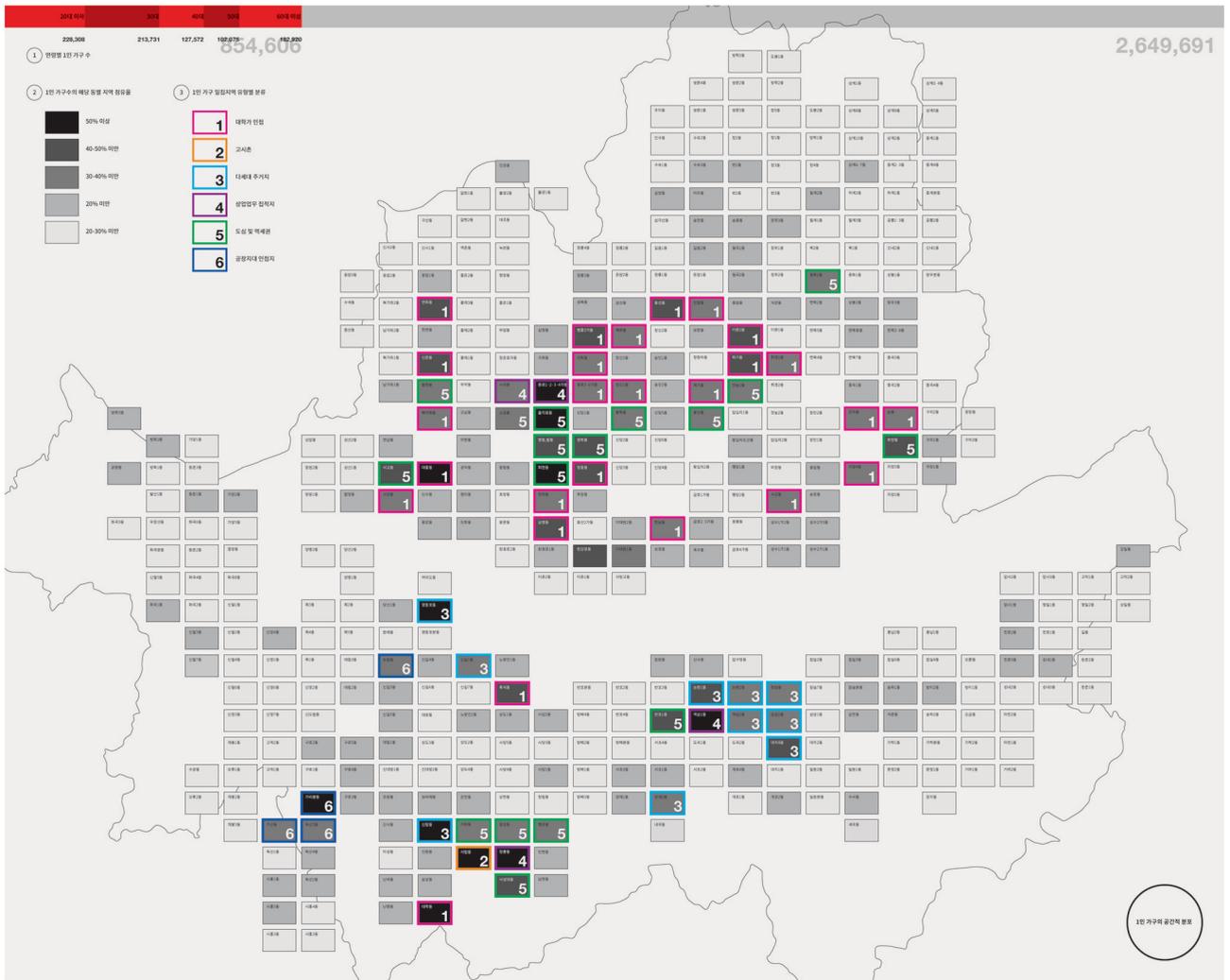


그림4-7 시각화 최종 작업 2-2: 서울 동별 1인 가구 분포 2.

(2) 서울 동별 1인 가구 분포 2

‘서울 동별 1인 가구 분포 2’은 행정동 단위의 작업인 동시에, 해당 동의 1인 가구 점유율과 밀집지역 유형을 동시에 드러낸 작업이다. 1차 기반 연구에서 진행된 시각화 작업 ‘서울 1인 가구 점유율·밀집유형’을 개작한 이 작업은, 앞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새로 설계한 동별 격자구조를 사용하여 각 동의 점유율과 밀집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점유율의 경우 1차 기반 연구에서는 실제 지도 위 행정동 영역에 무채색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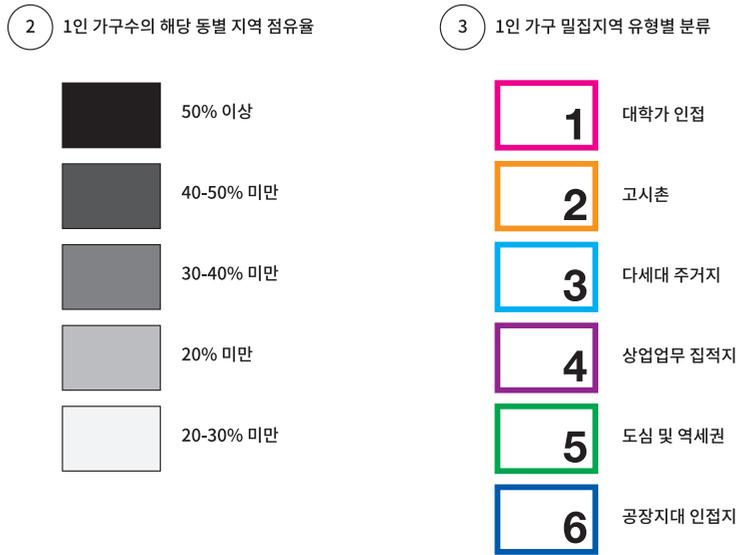


그림4-8 동별 점유율과 밀집지역 유형을 나타내는 범례(작업 일부).

점을 찍어 나타냈는데, 이 작업에서는 동별 격자 구조가 존재하므로 해당하는 유닛의 색상을 점유율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시각화했다.

밀집유형의 분류 6가지(대학가 인접형, 고시촌형, 도심 및 역세권형, 다세대 주거지형, 공장지대 인접지형, 상업업무집적지형)는 그대로 적용하되, 역시 동별 격자 구조가 화면상에 존재하므로 격자의 테두리 부분에 명시도 높은 여섯 가지 색상을 적용하여 표현하였다.

지도 상단 가로축에는 선행 작업 '서울 동별 1인 가구 분포 1'과 같이 1인 가구 수를 표현하였는데, 영역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연령별 분류를 구체적으로 나타냈다.

1차 기반 연구에 존재하던 핫스팟-콜드스팟의 경우, 실제 지도 위에 경계선을 정밀하게 표현하여 동 단위보다 작은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 의의가 있는데, 이미 동별 격자 화가 진행된 이 작업의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제외하였다.

4.2. 청년 1인 가구: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사적 공간의 크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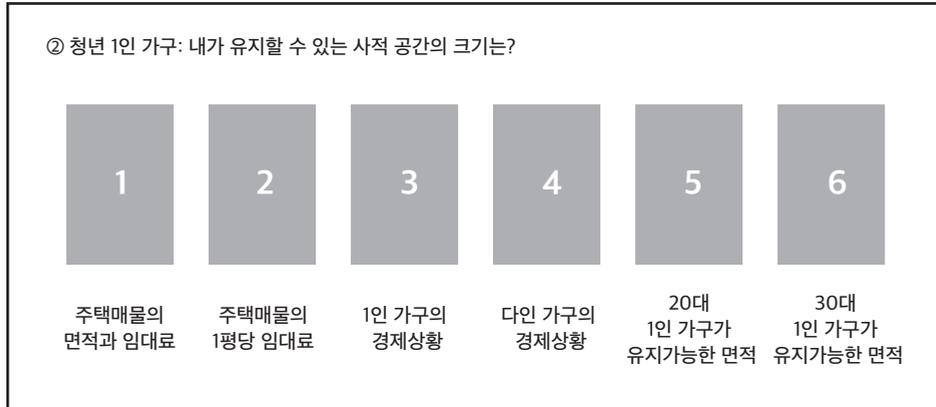


그림4-9 최종 작업 구조도 중 항목 2번.

두 번째 장 ‘청년 1인 가구: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사적 공간의 크기는?’은 1차 기반 연구에서 진행된 여러 작업을 하나의 방향성을 지닌 작업 군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괄에 이은 두 번째 챕터는 총 6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 ① 서울 소형주택의 구별 평균 면적 및 가격은?
- ② 서울 소형주택의 1평당(3.3m²) 평균 월세 가격은?
- ③ 수도권 1인 가구의 순자산, 부채, 소득은?
- ④ 수도권 다인 가구의 순자산, 부채, 소득은?
- ⑤ 20대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유지 가능한 집의 넓이는?
- ⑥ 30대 청년 1인 가구가 유지 가능한 집의 넓이는?

①에서는 주택매물들의 평균 면적과 월세 가격을 알아보고, ②에서는 그 매물들을 모두 1명으로 환원했을 때의 임대료를 드러내어 분위별/구별 임대료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③에서는 1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 즉 순자산과 부채 및 소득을 알아본다. 그와 더불어 ④에서는 (1인 가구의 상황과 비교해볼 수 있는) 2인 이상 가구의 경제적 상황도 알아본다.

첫 번째 작업에서 네 번째 작업까지는, 사거나 임대해야 할 대상(집)에 대해 알아보고 또 그것을 사거나 임대할 사람(1인 및 다인 가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그러므로 집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데이터와 사람의 경제적 상황에 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얼마만큼 구매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대와 30대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그들이 지불 가능한 임대료로 어느 정도의 면적을 (한정적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를 알아본다. 즉, 가장 가난한 계층(1분위)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5분위)까지 1인 가구 거주자가 서울의 25개 구에서 각각 얼마만큼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것이 ⑤와 ⑥이며, 이는 6개의 항목 전체가 드러내는 4.2 항목의 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사적 공간의 크기는?’의 6개 항목은 ‘계층별로 경제 사정이 다른 청년 1인 가구들이,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 일부로, 자신이 밭 딛고 살아가는 서울 땅에서, 자신의 경제생활상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의 지출로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사적 공간의 크기’를 알아보는 과정을 담고 있다.

4.2.1 서울 소형주택의 구별 평균 면적 및 가격은?

1차 기반 연구에서 진행된 시각화 작업 ‘구별 면적과 환산 월세액’을 개작한 이 작업은, 동일한 내용을 좀 더 손쉽게 전달하기 위한 수정을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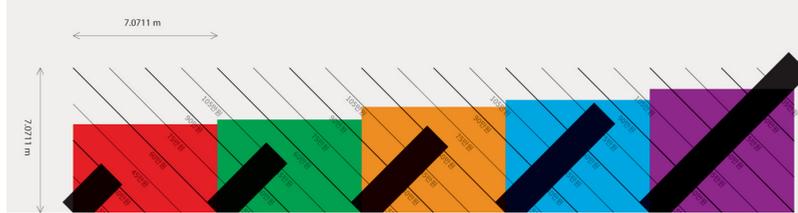


그림4-10 1차 기반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

‘구별 면적과 환산 월세액’ 작업은 2차원 평면에 가격 분위별 5가지 평균을 제시하고, 각기 다른 색으로 표현된 평균 면적과 사선 막대그래프로 표현한 평균 임대료가 도표처럼 제시되어 있었다. 이는 정보의 속성에 따라 구별된 형태로 논리적인 배치를 따르고 있으나, 이것이 ‘주택의 면적과 임대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더욱 쉽게 전달하기 위해 지도의 형태를 이용했다.

작업은 다섯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저렴한 매물들(환산 월세 1분위)에서 가장 고가인 매물들(환산 월세 5분위)의 정보가 맨 위부터 차례대로 제시되어 있다. 하나의 층은 서울 지도를 구별로 격자 화한 구조를 입체적으로 사용했으며, 각 25개 구 유닛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그림4-11 최종 작업에서 사용한 임대료의 단위와 면적의 단위.

3차원으로 표현된 단위 공간은 50m²이며, 그 안의 회색 영역이 매물의 면적을 의미한다. 단위 공간 위에는 검은색 유닛이 임대료를 표시하며, 한 칸당 10만 원을 나타낸다. 화면 위에서 밑으로 갈수록 (임대료를 의미하는) 검은색 유닛이 늘어나며, 하나의 구를 지정해 각각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임대료의 변화량을 추적해보면 매물가격의 분포가 구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다.

4.2.2 서울 소형주택의 1평당(3.3㎡) 평균 월세 가격은?

1차 기반 연구에서 진행된 시각화 작업 ‘1평당 (3.3㎡) 구별 환산 월세액’을 개작한 이 작업은, 앞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을 좀 더 손쉽게 전달하기 위한 수정을 거쳤다. ‘1평당 (3.3㎡) 구별 환산 월세액’ 작업은 5가지 가격대로 나눈 서울 25개 구 매물 총 125가지를 모두 1평당 임대료로 환원해서 그 액수를 비교해보는 작업이었다. 평당 임대료는 그림과 같이 원 형태의 선화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림4-12 1차 기반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

개정판의 기본 구조는 앞 장의 작업 ‘서울 소형주택의 구별 평균 면적/가격은?’과 동일하다. 동일한 구조 안에서, 모든 매물을 한 평으로 환원했을 때의 임대료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표현한 작업이다.

모두 1평으로 환원하여 표시한 것이므로 면적은 3.3㎡로 동일하다. 가격은 검은색 원으로 표시되며 한 단위는 만원이다. 점으로 가격 정보를 표시했지만 좀 더 양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면적에 색 변화를 추가로 할당했다. 예를 들어 평당 임대료가 3만 원 선이면 황색을 띠지만, 10만 원을 넘어가면 자색을 띠게 된다.



그림4-13 최종 작업에서 사용한 임대료의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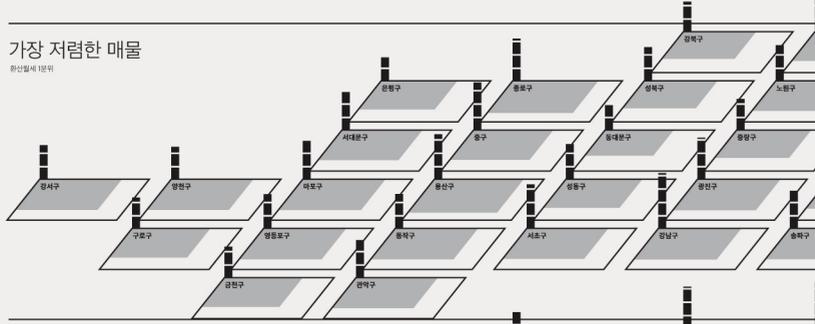
아래로 갈수록 붉은 영역이 많이 나타나지만, 구에 따라 그 양상은 매우 다르다. 은평구의 가장 비싼 매물 평균(5분위)은 강남구의 비교적 저렴한 매물(2분위)보다도 평당 임대료가 낮다. 같은 분위 내에서의 구별 차이를 확인하는 동시에, 특정 구에서 비싼 매물이 다른 구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매물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구별 평균 면적 및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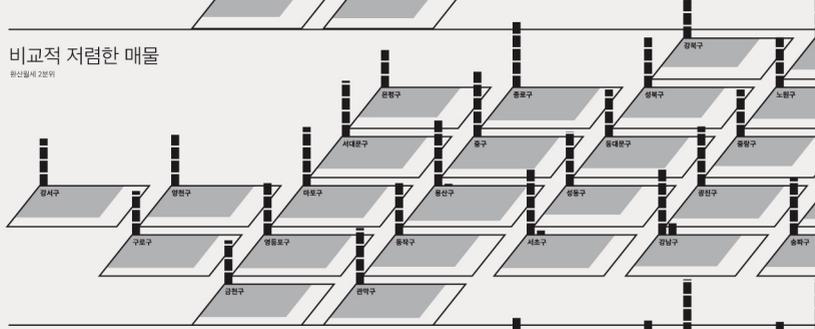
가장 저렴한 매물

한산빌세 1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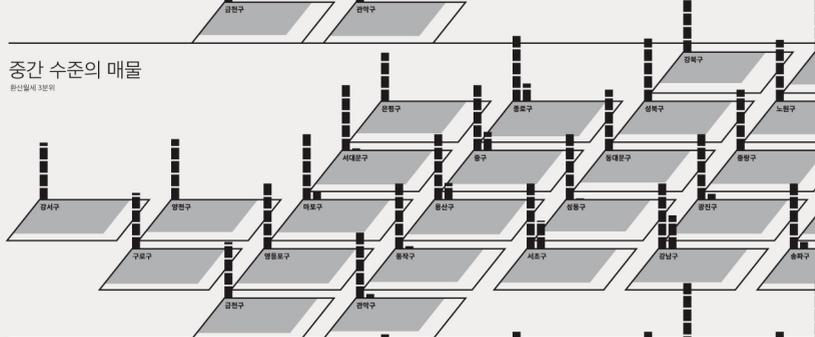
비교적 저렴한 매물

한산빌세 2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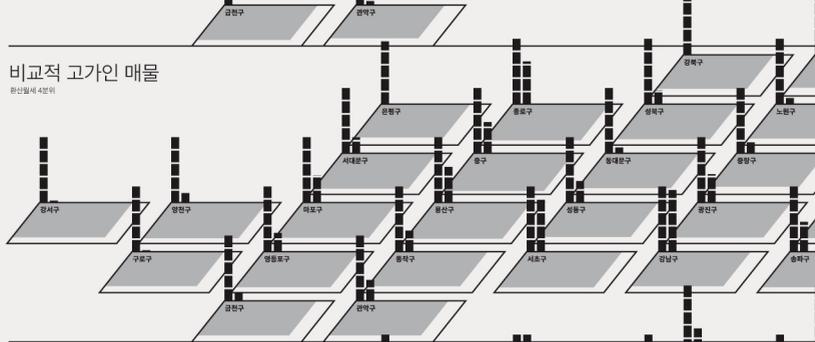
중간 수준의 매물

한산빌세 3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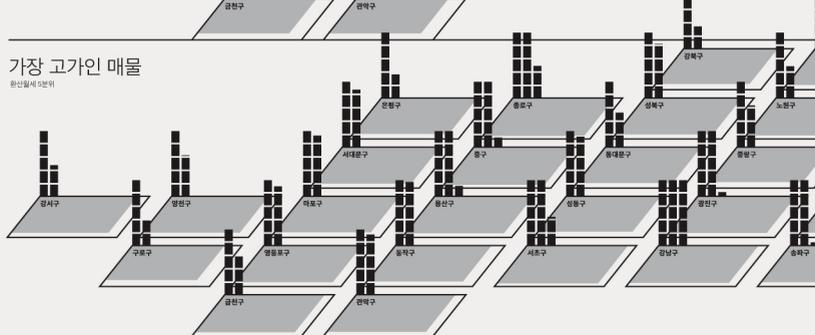
비교적 고가인 매물

한산빌세 4분위



가장 고가인 매물

한산빌세 5분위



서울 소형주택의
평균 면적 및 가격



그림4-14 시각화 최종 작업 3-1: 서울 소형주택의 구별 평균 면적 및 가격은?

1평당 평균 월세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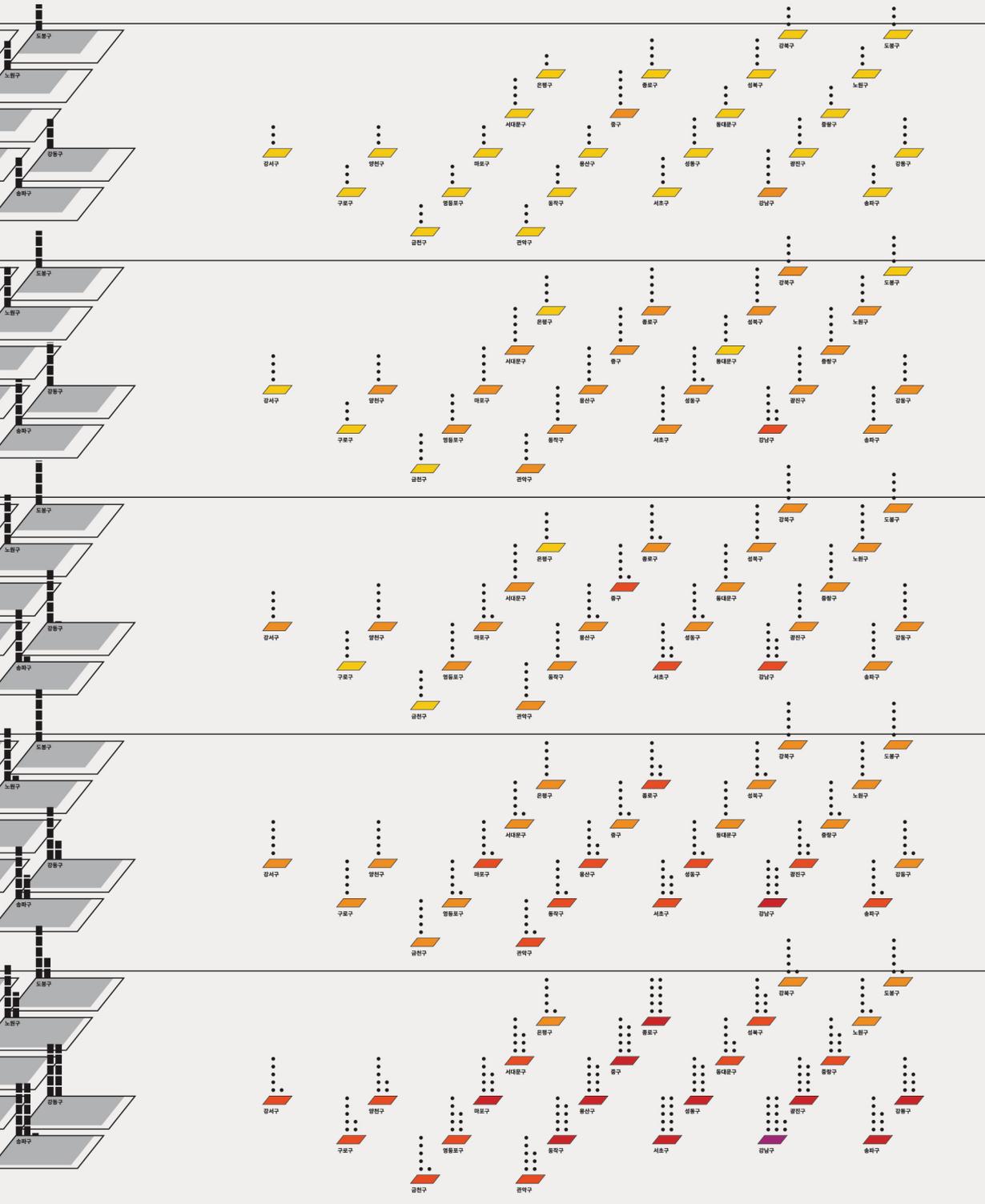


그림4-15 시각화 최종 작업 3-2: 서울 소형주택의 1평당(3.3m) 평균 월세 가격은?

4.2.3 수도권 1인 가구의 순자산, 부채, 소득은?

4.2.4 수도권 다인 가구의 순자산, 부채, 소득은?

본 작업은 1차 기반 연구에서 진행된 시각화 작업 '수도권 1인 가구의 순자산별 자산과 소득'을 아이콘 등을 이용하여 좀 더 서사적인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자산과 소득을 기계적으로 표현한 기존 작업은 연령별·순자산별로 구획을 나누는 구조(표3-2 참고)에 면적을 배분하는, 기존의 그래프와 큰 차이가 없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작업의 개작은 이전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단순히 면적의 크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설계된 특정한 아이콘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문화적 재인(recognition)을 일으킬 수 있도록(즉, 학습된 문화적 내면에 감정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내용을 시각화한 것이다.

해당 작업은 특정한 가구가 돈을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쓰고, 얼마만큼을 벌렸는지에 대한 매우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때때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재산'과 '돈벌이'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양적 속성을 왜곡하지 않는 정확한 시각화'뿐만이 아니다. 수용자의 특정한 문화적 습속이나 감정적 형식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작업에서는 수용자가 동일시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이나 매개물을 아이콘으로 활용해보기로 했다. 특정 정보가 묘사하는 대상이 사람이라면 사람 형상의 시각 이미지를 제작 및 사용하고, 특정 정보가 묘사하는 대상이 어떤 행동이라면,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시각 이미지를 제작 및 사용하는 것이다. 본 작업에서 활용한 아이콘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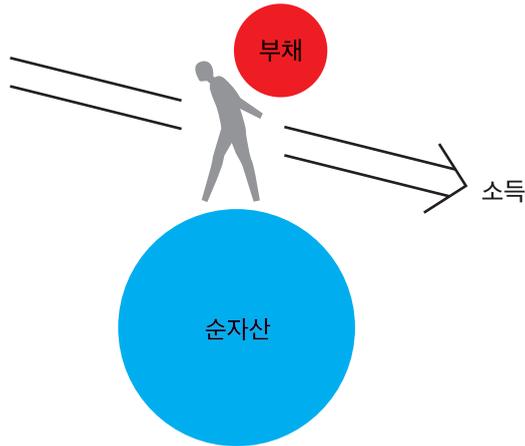


그림4-16 순자산, 부채, 소득의 시각화.

시각화해야 할 정보는 크게 순자산과 부채, 그리고 소득이다.

자산은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자산은 나름의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자신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토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소 위태롭게) ‘굴러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반면, 부채는 흔히 ‘깊어지는 것’이라고 표현된다. 마지막으로 소득은 자산 및 부채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자산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의 존재량’인 스톡(stock)의 개념에 부합하고, 소득은 ‘흐름의 양’을 나타내는 플로우(flow)의 개념에 부합한다. 고로 자산(및 부채)과 소득은 별도의 시각 문법을 가지고 구축되어야 한다. 소득은 1년 단위로 나를 통과하여 ‘흘러가는’(혹은 스쳐 가는) 유동량이다.

이러한 구어적 표현을 각 요소에 할당해본다면, 자산은 ‘굴리는’ 것이고, 부채는 ‘깊어지는’ 것이며, 소득은 ‘스쳐 가는’ 것이다. 정보시각화를 위한 아이콘을 제작하면서, 이러한 은유적 측면을 직접 드러내는 방식을 적용했다.

우선 한 명의 사람 아이콘을 배치하고, 그의 발밑으로 청색 원의 순자산을 배치한다. 액수는 원의 면적이며, 걷고 있는 듯한 사람의 발 밑에서 굴러가는 형상을 취한다. 그리고 사람의 팔 위로 적색 원의 부채를 배치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과해 지나가는 선으로 소득을 표현한다.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삼아, 각 계층 및 연령에 속한 가구의 경제지표를 시각화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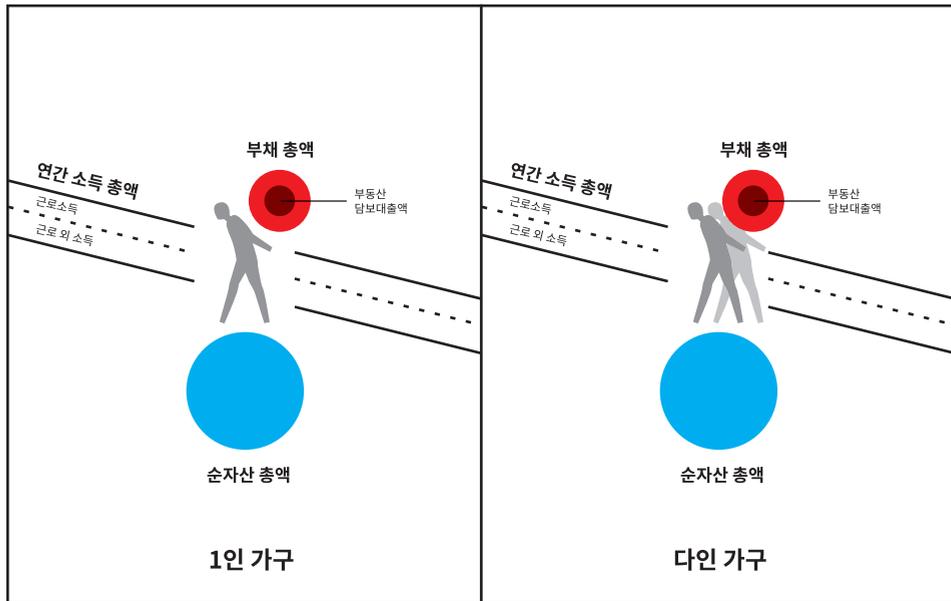


그림4-17 순자산, 부채총액, 부동산 담보대출액, 연간 소득 총액, 근로소득, 근로 외 소득의 시각화 구조.

사람, 발밑의 원, 짙어진 원, 스쳐 가는 선을 기본구조로 삼아, 세부사항들을 배분하였다. 먼저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는 사람의 숫자를 다르게 적용하여 시각적 차이를 주었다. 순자산 총액이 하단의 큰 청색 원을 차지하며, 부채는 부채 총액과 부동산 담보대출액을 나누어 표현했다. 적색 원 내부의 진한 흑색 원이 부동산 담보대출액이며, 각 면적은 정확히 부동산 담보대출액과 그 차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인물을 통과하는 두 개의 선은 폭에 따라 연간 소득 총액을 나타낸다. 선 안에는 점선이 추가되었는데, 두 개로 나뉘어진 폭은 각각 근로소득과 근로 외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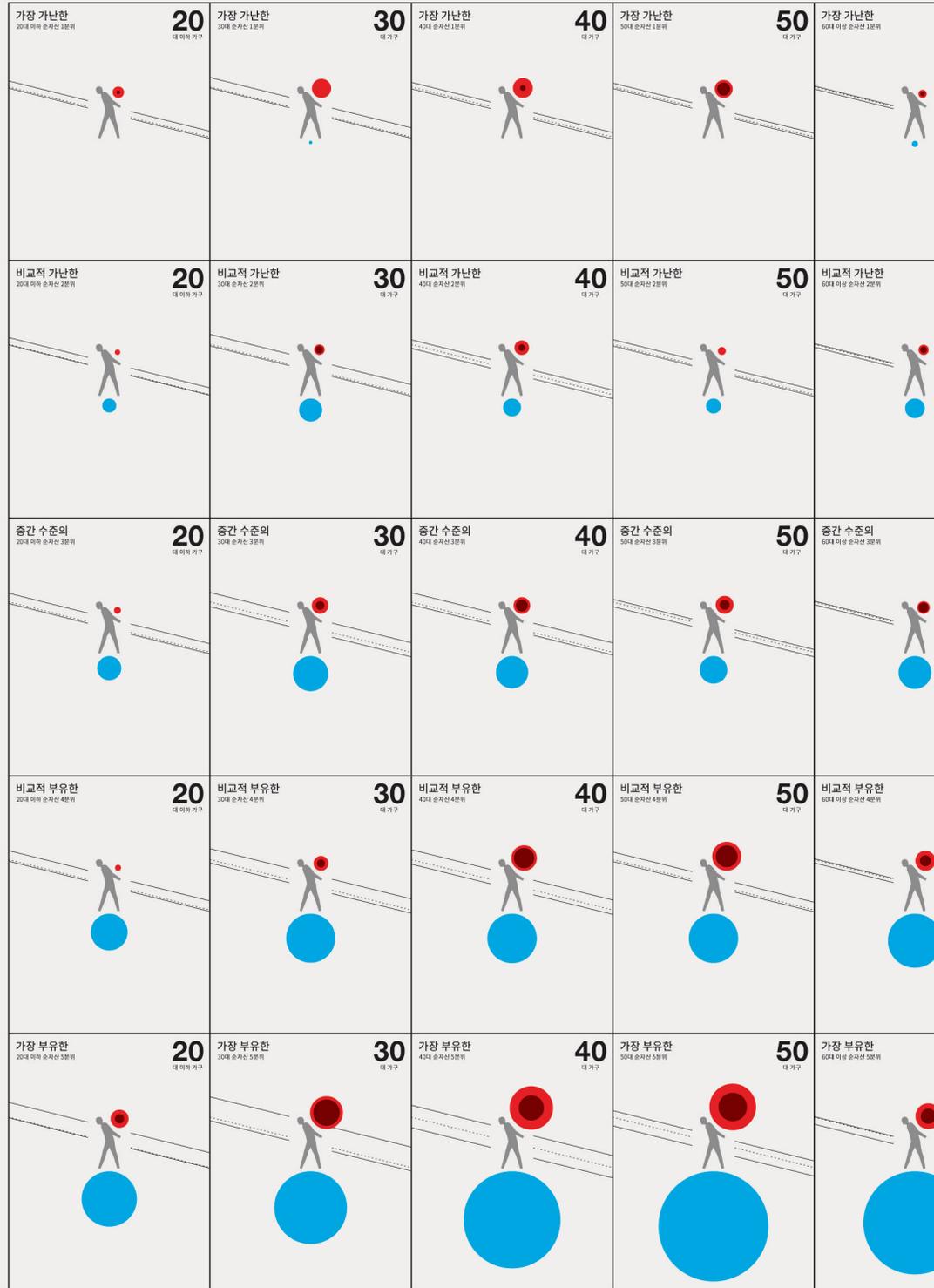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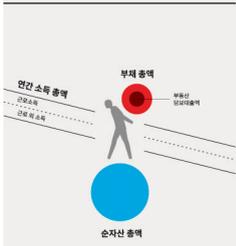
이 모든 정보가 표현된 구획을 하나의 단위로, 분위별·연령별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시각화했다. 기본 구조는 ‘수도권 1인 가구의 순자산별 자산과 소득’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 단,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별도의 작업으로 나누어 제작했다. 전체 구조도는 다음과 같다.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자산 1분위	가장 가난한 20대 이하	가장 가난한 30대	가장 가난한 40대	가장 가난한 50대	가장 가난한 60대 이상
순자산 2분위	비교적 가난한 20대 이하	비교적 가난한 30대	비교적 가난한 40대	비교적 가난한 50대	비교적 가난한 60대 이상
순자산 3분위	중간 수준의 20대 이하	중간 수준의 30대	중간 수준의 40대	중간 수준의 50대	중간 수준의 60대 이상
순자산 4분위	비교적 부유한 20대 이하	비교적 부유한 30대	비교적 부유한 40대	비교적 부유한 50대	비교적 부유한 60대 이상
순자산 5분위	가장 부유한 20대 이하	가장 부유한 30대	가장 부유한 40대	가장 부유한 50대	가장 부유한 60대 이상

표4-1 자산과 소득 시각화 최종 작업에 사용할 기본 구조.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모두 위의 구조로 제작되었다. 작업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수도권 가구의
순자산, 부채, 소득은?



그림4-18 시각화 최종 작업 3-3: 수도권 1인 가구의 순자산, 부채, 소득은?

2인 이상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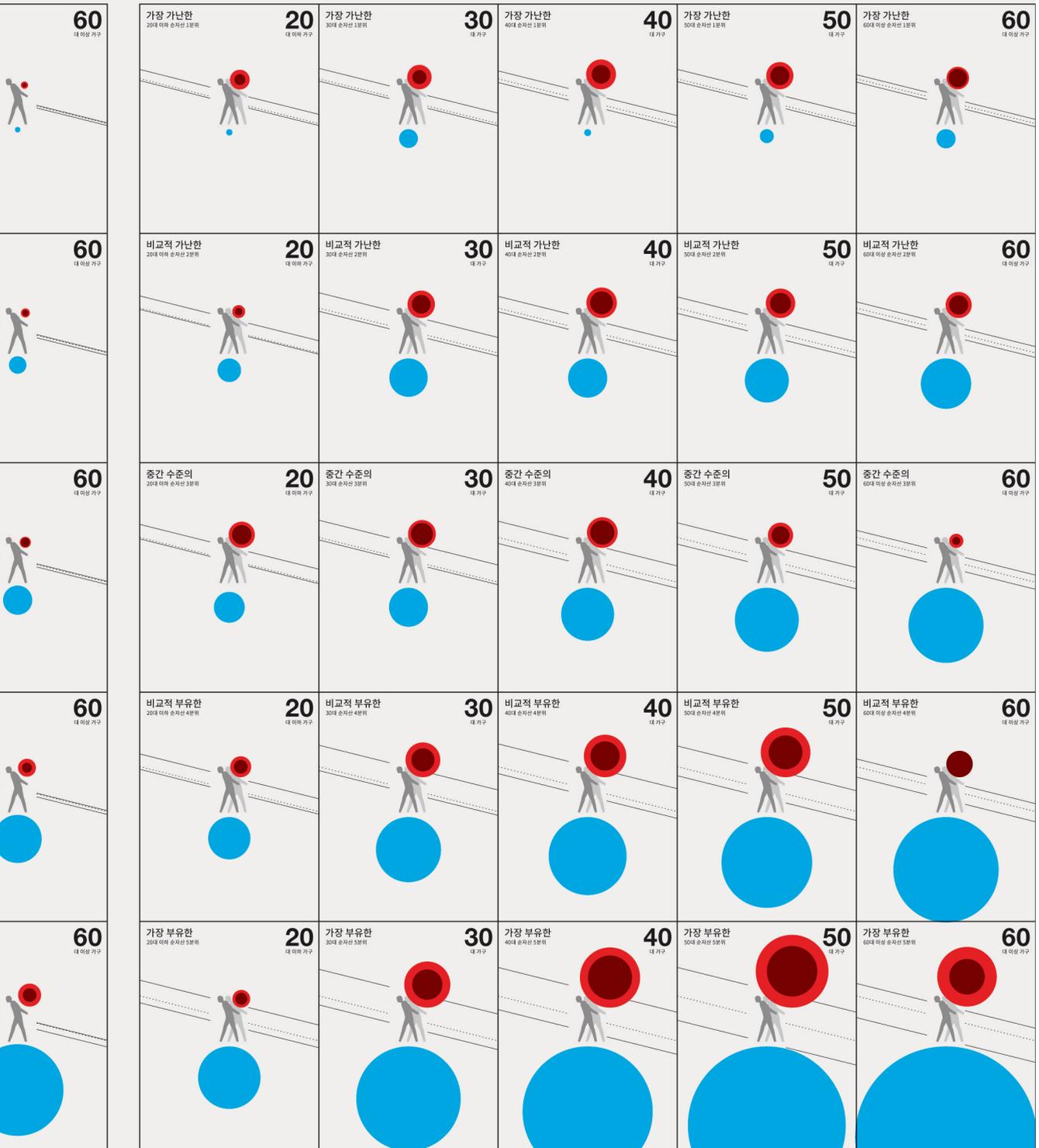


그림4-19 시각화 최종 작업 3-4: 수도권 다인 가구의 순자산, 부채, 소득은?

4.2.5 20대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유지 가능한 집의 넓이는?

4.2.6 30대 청년 1인 가구가 유지 가능한 집의 넓이는?

서울에 존재하는 매물들의 여러 정보(면적, 임대료, 평당 임대료)를 살펴보고, 그 매물을 구매할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순자산, 부채, 소득)을 살펴보았으므로, 그 두 정보를 이용하여 '청년 1인 가구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4.2.5과 4.2.6에서는 각각 20대 청년 1인 가구와 30대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이 소득 수준별로 얼마만큼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시각화했다.

앞에서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의 자산과 소득을 알아보았다. 소득은 연간 총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득액과 월세지출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가 존재한다. 이는 월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 Rent-to-Income Ratio)이라고 불리는데, 무주택자가 주거를 위해 소득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뜻한다.^[1] 해당 용어의 해설을 따르면, 월소득 대비 임대료 지출이 20%가 넘어갈 경우 주거비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가난한 계층부터 부유한 계층까지 서로 다른 청년 1인 가구가 월 소득의 20%를 임대료로 지출한다고 가정하면(다시 말해 임대료 부담이 과중하지 않은 수준 안에서 최대치를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얼마만큼의 면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이것은 각 청년 1인 가구가 서울에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 면적의 크기를 알아본다.

기본구조는 다섯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1장과 2장의 시각화 작업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단, 이번 작업의 경우 위로부터 가장 가난한 청년 1인 가구(순자산 1분위)부터 가장 부유한 청년 1인 가구(순자산 5분위)의 순이다. 작업은 20대 청년 1인 가구의 경우와 30대 청년 1인 가구의 경우로 나누어 두 개로 진행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부유해질수록)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지만, 구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1] e-나라지표 부문별 지표 페이지(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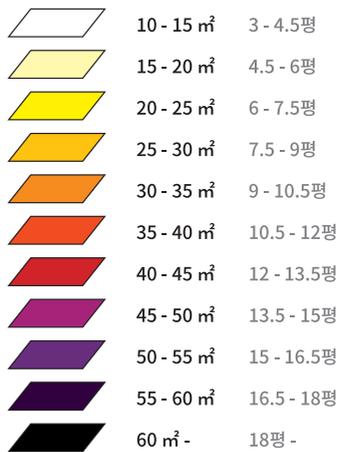


그림4-20 확보 가능 면적의 범례(작업의 일부).

확보 가능 면적의 넓이가 작업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만으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전반적 양상을 좀 더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색상의 차이를 두었다. 위의 그림에서 나타나듯, 백색에서 황색, 적색, 자색을 거쳐 검은색에 이르기까지 색채 스펙트럼을 넓게 적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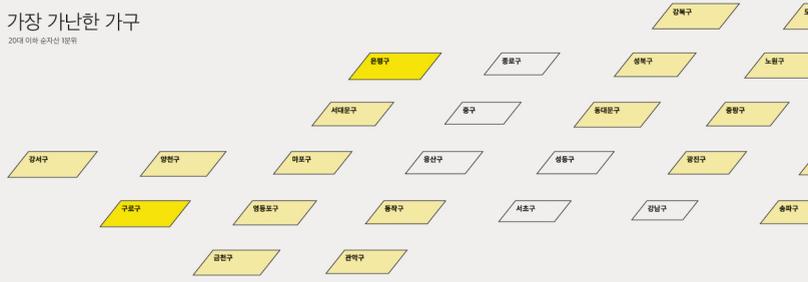
각 항목에 표현된 면적과 색상 차이를 통해, 계층적 차이(분위에 따른 차이)와 지역별 차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20대 1인 가구의 경우, 상위 20%에 속하는 부유한 가구조차 강남구에서는 약 7평 이상을 확보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20대 1인 가구의 경우 서울 전체에서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를 제외하면) 약 5평 이상의 면적조차 확보할 수 없다.

30대 1인 가구의 경우 가장 부유한 계층(5분위)과 나머지 계층의 확보 가능 면적 차이가 크다. 이들은 구 대부분에서 50m²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강남구와 서초구는 예외다. 또한, 가장 가난한(5분위) 30대 1인 가구가 10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은 은평구가 유일하다. 이렇게 구별 정보와 분위별 정보를 함께 탐색하면, 확보 가능 면적이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대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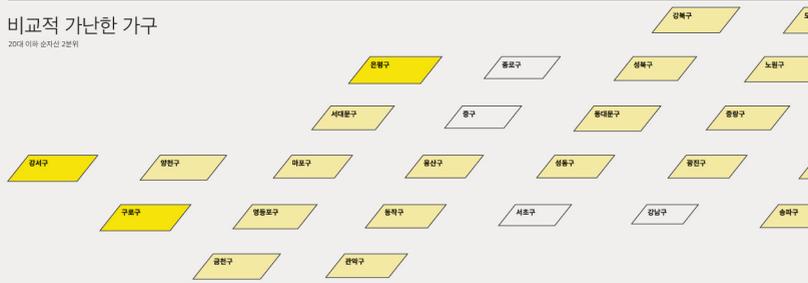
가장 가난한 가구

20대 이하 순자산 1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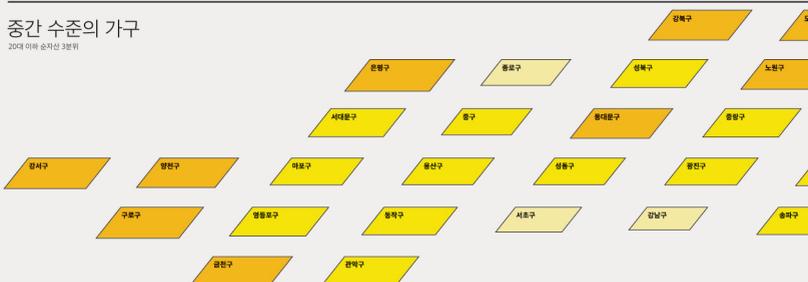
비교적 가난한 가구

20대 이하 순자산 2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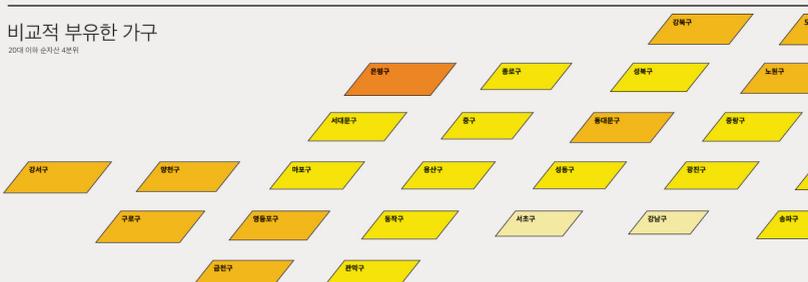
중간 수준의 가구

20대 이하 순자산 3분위



비교적 부유한 가구

20대 이하 순자산 4분위



가장 부유한 가구

20대 이하 순자산 5분위



청년 1인 가구가
지불가능한 월세로
유지가능한 면적은?



그림4-21 시각화 최종 작업 3-5: 20대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유지 가능한 집의 넓이는?

30대



그림4-22 시각화 최종 작업 3-6: 30대 청년 1인 가구가 유지 가능한 집의 넓이는?

4.3. 최종 요약 작업

4.3장에서는 앞에서 다룬 모든 리서치와 시각화 작업의 핵심을 압축한 최종 요약 작업을 진행한다. 작업은 모두 2가지로, 4.1장에서 다룬 내용이 모두 반영된 작업과 4.2장에서 다룬 내용이 모두 반영된 작업이 있다.

4.1장과 4.2장에서 진행했던 작업들은 비교적 정보의 밀도가 높고, 그 구조 또한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정보의 높은 밀도는 해당 작업에서 수용자들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을 온전히 제시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할 수 있고, 구조의 복잡성은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복수의 정보들 사이의 관계가 복합적인 특성을 띠고 있으므로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4.2장의 작업은 매물의 임대료·평당 임대료, 수도권 가구주들의 분위별 자산·부채·소득, 연령별/분위별 점유가능 면적과 같은 많은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정보의 전달 순서를 정하여 습득이 선행되어야 하는 항목을 앞부분에 배치하고 앞의 내용을 토대로 산정되는 항목은 뒷부분에 배치함으로써, 원인과 결과를 순차적으로 서술하는 문장과 같은 형식을 취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조적 복잡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보 습득을 최대한 용이하게 설정한 것이 선행 작업물이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 습득의 용이성을 조금 더 증진할 방법을 여러 각도로 모색하였고, 그 결과 앞서 정리한 내용을 압축하여 인터랙션이 있는 스크린 미디어로 제작하게 되었다. 1인 가구에 관한 가상의 전시에 설치될 수 있는 대형 키오스크(kiosk)를 가정하고, 사용자가 제시되는 내용에 반응하며 콘텐츠를 습득할 수 있도록 작업을 제작하였다.

4.3.1 서울 1인 가구의 시공간적 분포: 1980-2010

4.1장에서 다룬 서울 1인 가구의 시간적·공간적 분포를 하나의 콘텐츠로 결합한 작업이다. 1980년에서 2010년까지의 5년 단위 시간적 분포 7장과 2010년 기준의 공간적 분포 2장이 키오스크용 인터페이스로 제작되었다. 작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페이지 순으로 캡션을 통해 서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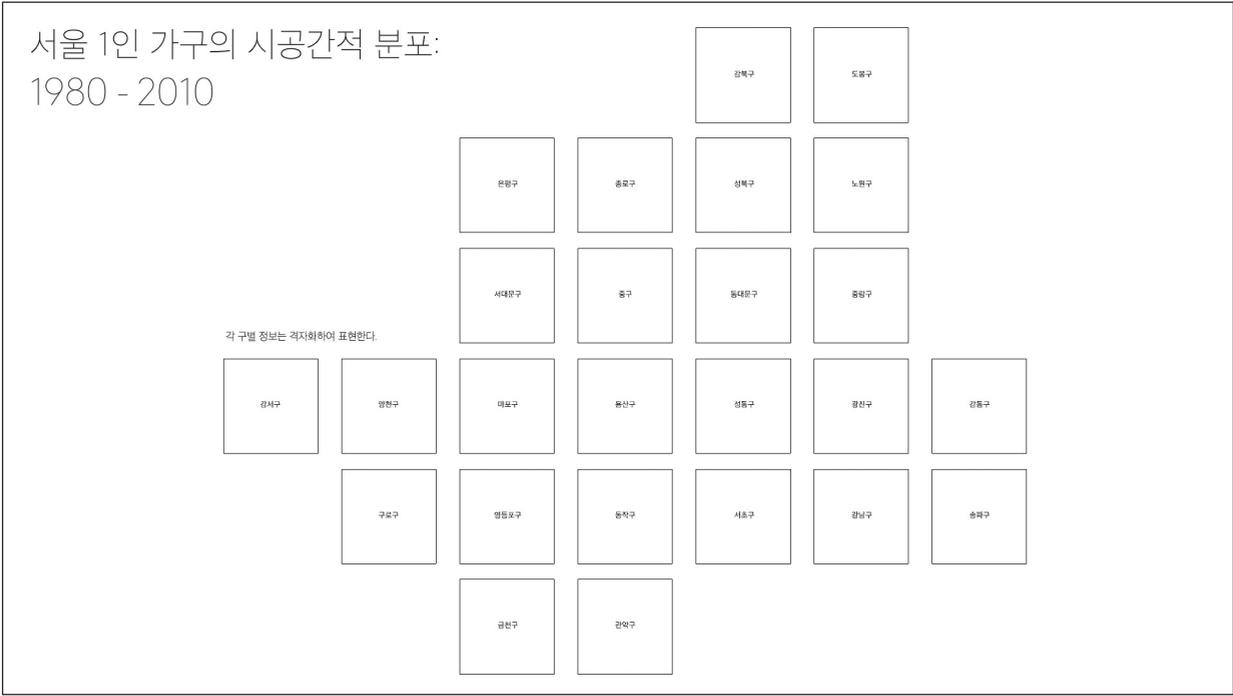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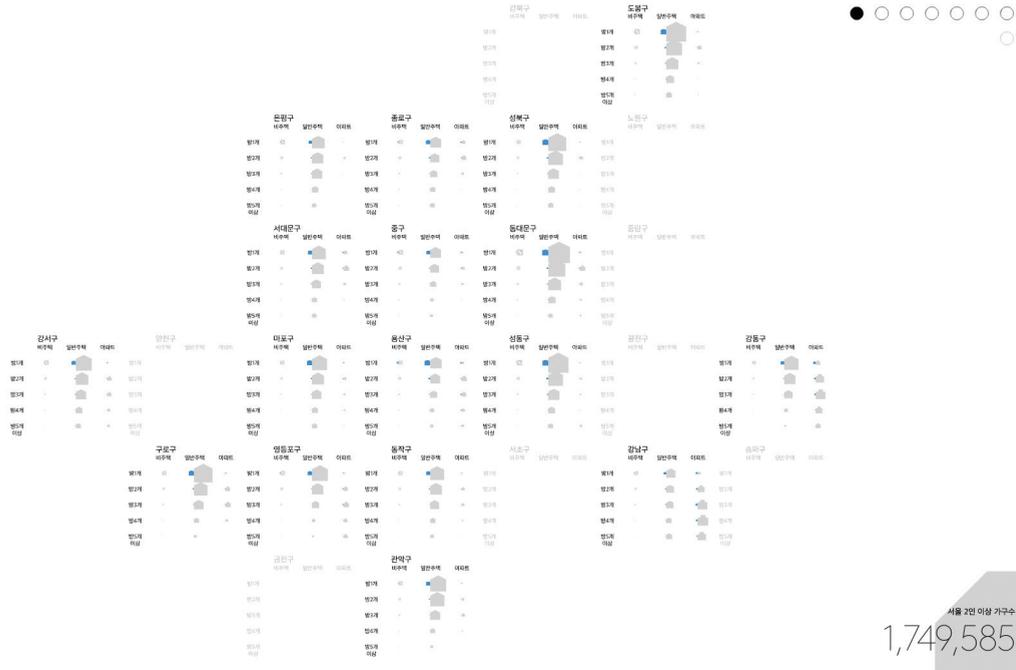


그림4-23 장면 1~2. 스크린 미디어 작업은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보는 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가이드 무비가 먼저 제시되고, 가이드 무비가 끝난 후 실제 데이터가 연도별로 제시되는 순서를 띠고 있다. 화면이 구동되면, 서울의 지도가 등장하고 곧이어 구별로 격자화 된다. 이는 구별로 정보가 제시될 것이며, 해당 구의 위치는 실제 지도를 반영하나 추상화되어 제시될 것이라는 점을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그림4-24 장면 3~4. 뒤이어 아파트, 일반주택, 비주택과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를 나타내는 기호가 각각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그 기호들을 방의 개수와 주택유형에 따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가이드 형태로 제시한다. 사용된 기호와 배치 규칙은 4.1장에서 제작한 작업과 동일하다.

1980



서울 1인 가구수
79,179

2010



서울 1인 가구수
854,606

그림4-25 장면 5~6. 가이드 무비가 끝나면, 구별 격자에 따라 연도별로 1인 가구의 분포를 나타내는 화면이 나온다. 사용된 기호와 배치 규칙은 4.1장에서 제작한 작업과 동일하며, 화면 하단 가장자리에 해당 연도의 전체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숫자가 제시된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단위로 총 7장의 데이터가 제시되며, 화면 우측 상단에 내비게이션 메뉴가 위치한다. 2010년 현재 시점을 선택했을 때, 7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내비게이션 하단으로 (테두리가 두 개인) 또 하나의 원형 버튼이 활성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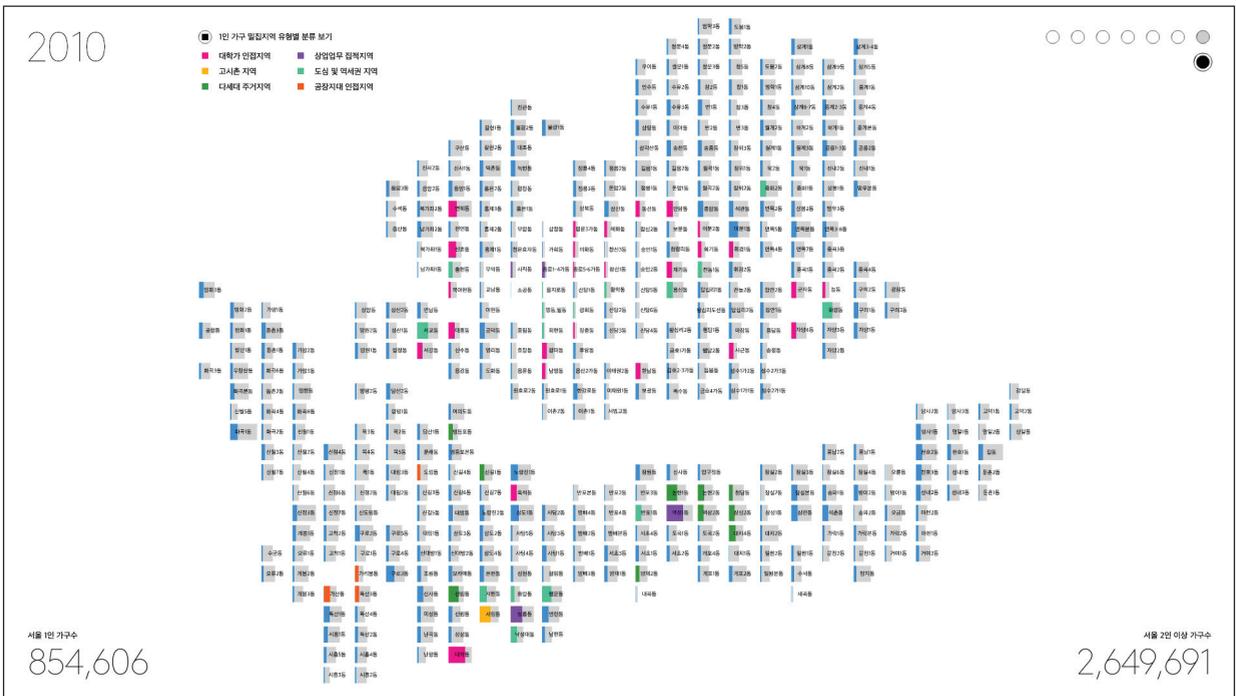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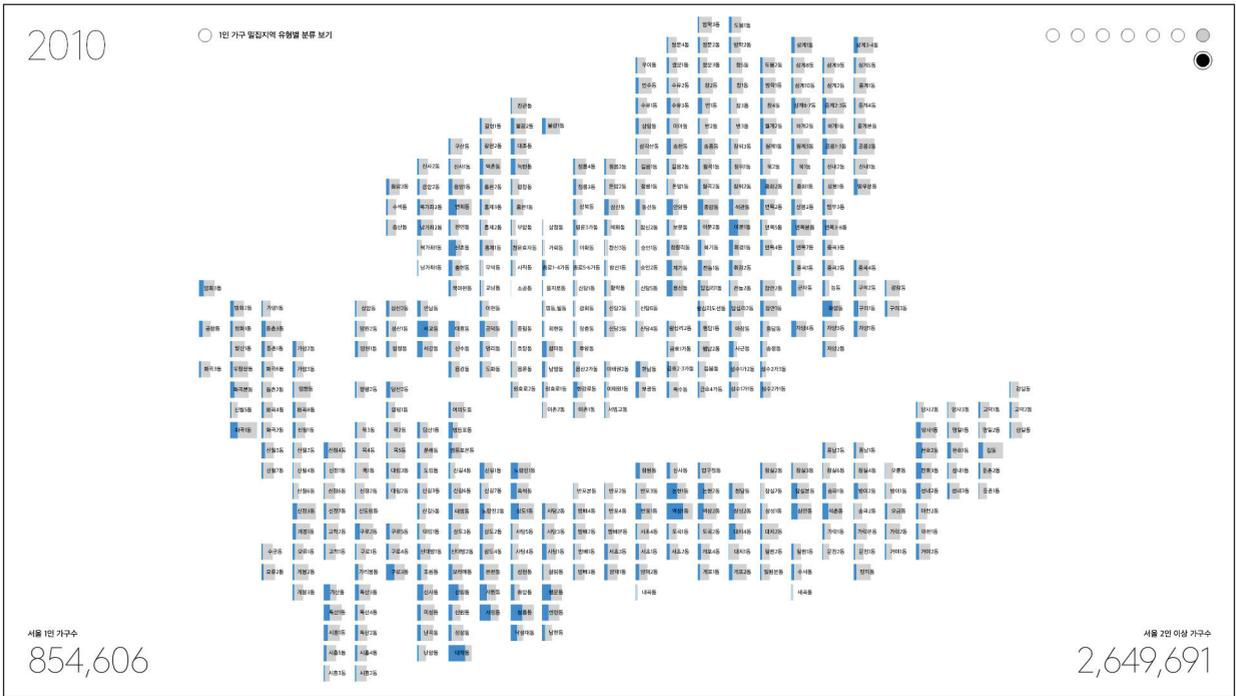


그림4-26 장면 7~8. 활성화된 원형 버튼을 누르면, 구별 격자가 동별 격자로 세분화되면서 2010년 현재 서울 1인 가구의 동별 분포가 등장한다.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를 나타내는 색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다. 동별 분포를 나타내는 화면이 드러나면 화면 좌측 상단에 밀집지역 유형별 분류 체크박스가 등장한다. 해당 체크박스를 누르면, 4.1장 '서울 동별 1인 가구 분포 2'에서 제시되었던 1인 가구 밀집지역 유형별 분류가 (별도의 색상 체계를 갖추고) 추가로 제시된다. 이처럼 4.1에서 다룬 모든 내용이 본 작업 안에 적용되었다.

4.3.2 수도권 1인 가구 거주자의 평균 순자산과 부채는 얼마이고, 자신의 소득으로 어느 정도 넓은 공간에서 살 수 있는가?

4.2장에서 해당 작업 군은 6개의 작업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먼저 주택에 관한 정보를 평균 임대료와 평균 평당 임대료로 나누어 제시한 후, 그 주택을 매물로 선택하게 될 1인(2인 이상) 가구주들의 평균 순자산, 부채, 소득을 시각화했다. 집의 정보와 그 집에 거주하게 될 거주자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시한 후이므로, 해당 소득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월세 수준을 분위별로 산정할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유지 가능한 면적을 제시하는 것이 4.2장의 결론이었다.

본 장에서는 복잡한 정보가 제시되는 이러한 작업 군을 어떻게 사용자에게 익숙하고 간명한 형식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해법으로, 역시 인터랙션이 있는 하나의 키오스크용 인터페이스를 통합적으로 제작하였다.

단, 4.2장을 구성하는 6장의 대형 포스터에 담긴 모든 정보 및 방식을 해당 스크린 미디어에 반영하지는 못했다. 특히 인쇄물은 무한한 해상도가 제공하는 조밀한 표현, 정태적 형식이(사용자에게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꼼꼼한 독해방식 등 스크린 미디어가 가지지 못한 고유의 특성이 존재한다. 즉, 인쇄물로 제작된 6개의 작업은 모두(가격 및 순자산) 분위에 따른 차이들이 한 화면에 한꺼번에 제시되는 방식을 띠고 있지만, 스크린 미디어로 제작된 본 작업은 특정한 연령 및 분위에 해당하는 단일 거주자 군의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드러내는 방식을 취했다. 이 때문에 스크린 미디어에서는 모든 거주자의 차이들을 한눈에 일별할 수는 없지만, 순자산·부채·소득·점유가능 공간 4가지의 변수를 명확히 제시하여 사용자가 작업에 접근하는 일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했다. 최종 결과물은 인쇄물과 스크린 인터페이스가 동시에 제공되므로, 전체를 조망하고자 할 때에는 인쇄물을, 특정 층위 거주자의 모든 정보를 살펴볼 때에는 스크린 인터페이스를 검토할 수 있다. 작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페이지 순으로 캡션을 통해 서술한다.

1인 가구 거주자의 평균 순자산과 부채는 얼마이고,
자신의 소득으로 어느 정도 넓이의 공간에서 살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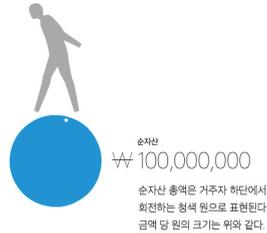


1인 가구 거주자의 평균 순자산^①과 부채^②는 얼마이고,
자신의 소득^③으로 어느 정도 넓이의 공간^④에서 살 수 있는가?



그림4-27 장면 1~2. 스크린 미디어 작업은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보는 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가이드 무비가 먼저 제시되고, 가이드 무비가 끝난 후 실제 데이터가 제시되는 순서를 띠고 있다. 화면이 구동되면, 장문의 제목이 등장하고, 제목에 포함된 '순자산', '부채', '소득', '어느 정도 넓이의 공간' 4가지의 변수에 각주 형태의 번호가 표기된다. 가이드 무비는 번호 순서대로 해당 항목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각화되는지 알려준다.

1인 가구 거주자의 평균 순자산^①과 부채는 얼마이고,
 자신의 소득으로 어느 정도 넓이의 공간에서 살 수 있는가?



1인 가구 거주자의 평균 순자산과 부채^②는 얼마이고,
 자신의 소득으로 어느 정도 넓이의 공간에서 살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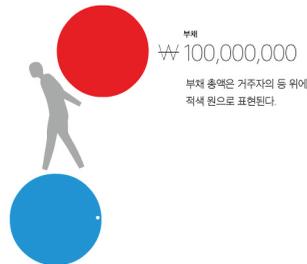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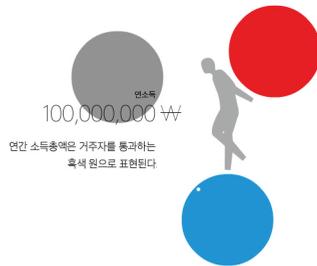


그림4-28 장면 3~4. 위의 이미지는 화면 가운데의 거주자(사람) 아이콘을 중심으로 각각 순자산과 부채가 어떠한 방식으로 표시되는지를 나타내는 장면이다. 앞서 4.2장에서 제작된 바와 같이 순자산은 거주자의 하단에서 청색 원 형태로 표현되고, 부채는 거주자의 상단에 적색 원 형태로 표현된다. 각 원은 범례로 해당 크기가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를 나타내고, 금액과 함께 간략한 설명이 같이 제시되어 있다.

1인 가구 거주자의 평균 순자산과 부채는 얼마이고,
 자신의 소득^③으로 어느 정도 넓이의 공간에서 살 수 있는가?



1인 가구 거주자의 평균 순자산과 부채는 얼마이고,
 자신의 소득^④으로 어느 정도 넓이의 공간에서 살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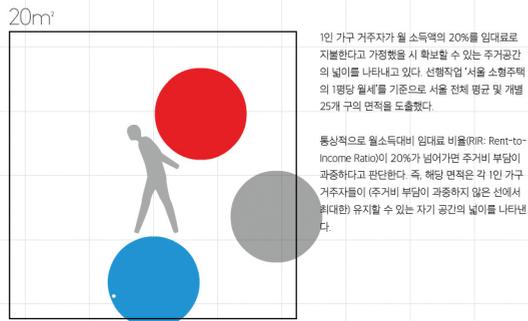


그림4-29 장면 5~6. 화면 가운데의 거주자(사람) 아이콘을 중심으로 각각 소득과 유지가능 면적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시되는지를 나타내는 장면이다. 소득은 화면 중앙 거주자를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스쳐 지나가는 흑색 원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순자산 및 부채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도형만으로도 각 금액을 비교해볼 수 있다. 유지가능 면적은 정사각형의 윤곽선으로 표시되며, 앞의 가이드 무비 예시와 같이 해당 항목을 도출하는 원칙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텍스트가 표현된다.



그림4-30 장면 7~8. 가이드 무비가 끝난 후 각 상황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제시된다. 화면 상단에는 현재 화면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문장의 형태로 제시한다. 테두리로 구획된 3가지 항목은 흔히 접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의 형식을 취한다. 가장 가난한(순자산 1분위) 사람부터 가장 부유한(순자산 5분위) 사람까지, 20대 이하부터 60대 이상까지, (서울 전체 평균 및) 종로구에서 강동구까지 각 항목의 조건을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한다. 선택된 항목은 필터로 기능하고, 맞추어진 조건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순자산, 부채, 소득, 유지가능 면적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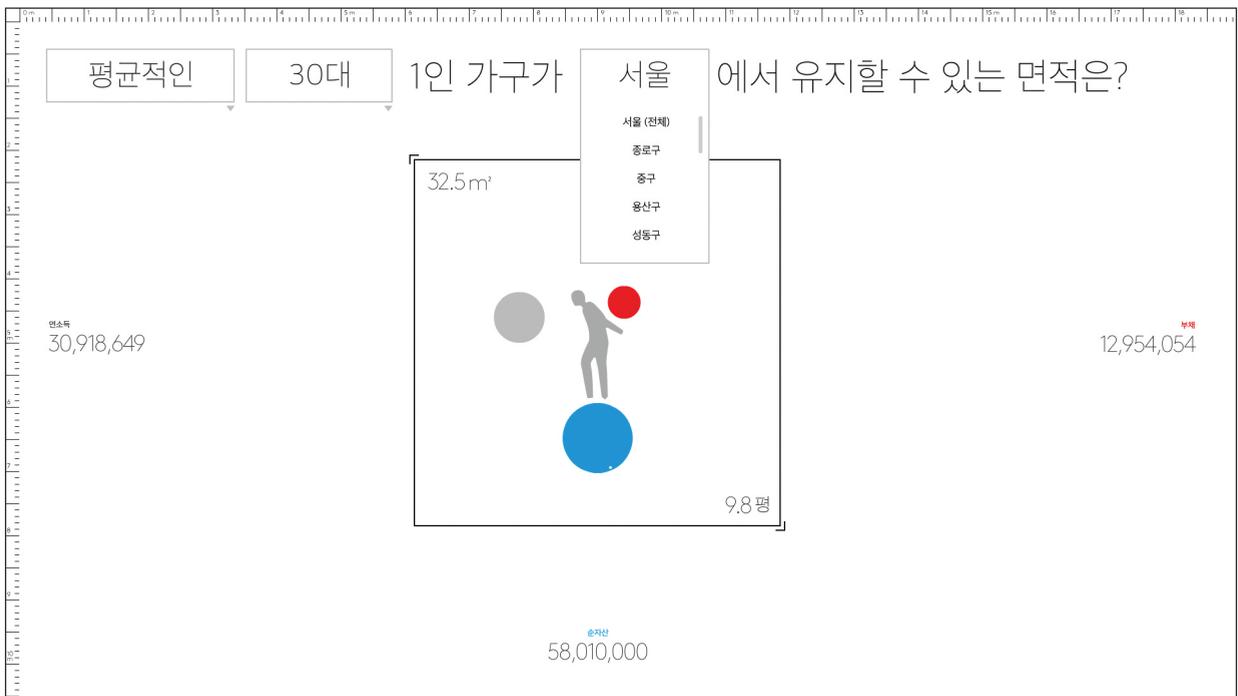


그림4-31 장면 9~10. 3가지의 드롭다운 메뉴가 열리고, 선택된 항목에 따라 변수들이 변화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3번째 항목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서울 25개 구를 선택할 수 있는 동시에 '서울 전체' 항목을 선택할 수도 있다. 조건을 설정함에 따라 '비교적 가난한 40대 1인 가구가 구로구에서 유지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낼 수도, '가장 부유한 20대 이하 1인 가구가 서울(전체)에서 유지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낼 수도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4.3.2 작업은 복잡한 구조를 띠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특정한 거주자 군의 4가지 항목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러한 사용성 증폭의 목적을 화면에 구조화하기 위해, 기존 사용자들이 운영 체제나 브라우저 등에서 익숙하게 사용해 온 드롭다운 인터페이스를 응용하여 적용했다. 각 항목을 다르게 설정함에 따라, 화면은 역동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를 기존의 인쇄물과 같이 일별하면, 먼저 스크린 미디어를 통해 다소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는 본 작업 속의 정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이후 인쇄물을 통해 모든 행위자가 한꺼번에 나열된 상황을 검토하면서 전반적인 경향성과 항목 간의 차이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최종 요약 작업’ 장은 앞서 진행한 (시각화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그 불가피한 복잡성이 빠르고 선명한 정보 습득을 일부 저해할 수 있는) 작업을 압축 및 요약하는 동시에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5. 결론

본 논문은 크게 서론, 선행연구, 1차 기반 연구 및 시각화, 최종 작업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서론에서는 논문의 주제인 (서울의 청년) 1인 가구를 선택하게 된 배경 및 관련 사실들을 간략히 논하고, 논문에 적용한 방법론인 정보디자인과 디자인 리서치 개념의 역사적 정의를 서술했다.

선행연구에서는 조사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정보시각화의 형식으로 제작된 선행작업들을 제시하고, 각 작업의 의의 및 한계점을 각각 첨부하였다.

1차 기반 연구 및 시각화는 최종 작업을 제작하기 위한 정보시각화 초안의 성격을 띠며, ①1인 가구의 시간적 분포, ②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③서울 50m² 이하 소형주택의 면적·임대료 현황, ④수도권 1인 가구의 순자산별 자산과 소득 총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작업을 제작했다.

최종 작업은 본 작품 논문의 최종 결과물로 ①개괄, ②청년 1인 가구: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사적 공간의 크기는?, ③최종 요약 작업 총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작업을 제작했다. 1차 기반 연구의 모든 내용이 좀 더 정렬된 형태로 최종 작업에 반영되었으며, 항목①, ②는 대형 인쇄물, 항목③은 키오스크용 인터페이스를 가정한 스크린 미디어로 제작되었다.

1인 가구의 대두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그 원인이 분석된다. 논쟁에서 제기되는 서로 다른 관점들은 일정한 시점에 정답과 오답이 판가름나는 예측된 선택지라기보다는—즉, 특정한 분석이 선택되고 나머지 분석이 버려진다고보다는—여러 시점을 중첩해야만 유의미한 국면 파악을 완성할 수 있는, 서로를 보완하는 원소에 가깝다. 그 증가는 세대교체 및 라이프스타일의 변천과 맞물려 있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구조의 비가역적 변화와 동기화되어 있다. 즉, 자발적이고 문화적인 '선택'과 구조적 요인으로 말미암은 '선택의 유예'가 결합하여 있는 셈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디자인과 리서치 방법론을 통해 청년 세대의 주요 쟁점이기도 한 1인 가구 문제를 인구, 주거비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그 과정은 (개별적 수치를 제시하는 시각화 방법론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개인적 해석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수치 자체는 자기

완결적인 가치중립성을 배태할 수 있지만, 어떠한 수치를 드러낼 것인지를 선택하는 과정 자체는 가치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단, 주관적 해석은 해당 표현의 용례에 따라 논문작업에서 지양해야 할 가치일 수도,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태도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객관적 접근방식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용례를 특정하지 않은) 원칙 없는 공정함을 전제하는 것에 적용되기보다는, 능동적 해석을 왜곡 없이 전달하는 방법론을 구성하는 데에 쓰였다.

1인 가구라는 주제는 항목에 따라 수많은 접근 방식을 취해 연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논지의 통일성과 방향성을 위해 주로 경제적 요인(주거유형과 방의 개수, 임대료, 자산, 부채, 소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나, 그 외 1인 가구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이 존재할 것이다. 이를테면 1인 가구의 생활 반경과 교통 인프라의 상관관계를 추적해볼 수도, 그것을 통해 1인 가구의 이동 특성을 알아보며 이들의 자신의 노동과 여가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또는 1인 가구의 실제 주거환경을 주요 주제로 삼는다면, 고시원,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 도면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주어진 보금자리의 물질적 형식을 심층적으로 연구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이러한 항목들과 경제지표를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특정한 주제어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전체 경제권 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도 있다. 특히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등의 대규모 리서치는 5년 단위로 제공되므로, 2015년 말에는 또다시 변화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활발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참고 문헌

- 강성중·오병근, «정보디자인교과서», 서울, 안그라픽스, 2008.
- 고영복, «사회학사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2000.
- 마리 노이라트·로빈 킨로스, 최슬기 옮김, «트랜스포머 아이소타이프 도표를 만드는 원리», 서울, 작업실유령, 2013.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2011.
- 이현송 외, «DRS4: 도시의 시간», 서울, 사회적기업티팟, 2011.
- 정인숙,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 존 A. 워커 외, 임산 옮김, «비주얼 컬처», 서울, 루비박스, 2004.
- 할 포스터 외, 박해천 엮음, «디자인 앤솔러지», 서울, 시공사, 2004.
- 홍은주 외, «DRS 01 특별한 도시공부», 서울,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2008.
-
- 도미노 편집부, «DOMINO», 통권 2호, 2012-06.
- 도미노 편집부, «DOMINO», 통권 3호, 2012-12.
-
- 김용하·임성은,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제31권(2), 2011.
- 노영훈, <베이비붐 세대 가계의 주택자산 구성과 은퇴>, «재정포럼», 2013-06월호.
- 박해천, <디자인 방법론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67호 (19-05), 2006.
- 변미리 외 2명,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 신동균, <베이비 붐 세대의 근로생애사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3권(2), 2013.
- 신상영, «서울의 준주택 실태와 정책방향»,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 안신현, <부상하는 1인 가구의 4대 소비트렌드>, «SERI 경제포커스», 제159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2.
- 이동훈,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SDI 정책리포트», 제109호,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 이은미, <인구와 가계통계로 본 1인 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제422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3.

- 이희연, <1인 가구의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과 공간분포>, «대한지리학회지» 제46권 (4), 2011.
- 장동훈, <정보디자인의 개념과 멀티미디어 제작 분석>, «인포디자인이슈» 통권 제1호, 2002.
- 정경희 외 3명,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제37권(9), 2011.
- 채정은, <서울시 1인 가구의 공간적 밀집지역과 요인 분석>, «서울도시연구», 제 15권(2), 2014.
- 최경은 외, «1인 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 현대경제연구원, <아파트 가격 하락 가능성과 시사점>, «VIP Report», 통권 제 435호(10-08), 현대경제연구원, 2010.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보도자료), 통계청, 2012-08-02.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보도자료), 통계청, 2012-12-11.
- Alexander, Christopher, *Notes on the Synthesis of For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 Spek, Rob van der, André Spijkervet, *Knowledge management Dealing intelligently with knowledge*, The Hague, CIBIT, 1996.
-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http://kosis.kr>).
-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http://mdss.kostat.go.kr>).
- 서울특별시.주택.도시계획.부동산.마곡사업 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
- 인구주택총조사 웹사이트(<http://census.go.kr>).
- 통계청 웹사이트(<http://kostat.go.kr>).
- e-나라지표 웹사이트(<http://index.go.kr>).

부록1: 1인 가구의 이면

한겨레신문에서 발행했던 잡지 «사람매거진 나들»에서는 <아파트 키드의 생애>라는 쪽지를 통해, 특정 인물의 삶이 그리는 궤적(혹은 부모 세대의 궤적)을 인터뷰 형식을 통해 서술한다. 그리고 인터뷰의 말미에 해설에 해당하는 '주석'이 따라붙어, 인터뷰에서 언급된 개인사와 관련지을 수 있는 몇몇 경제지표가 언급되고, 그것을 통해 한국 사회의 변천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인터뷰와 해설 사이에는 두 개의 이야기를 매개하는 인포그래픽스(Infographics)가 첨가된다. 다음은 제17호(2014)에 실린 <독립의 낭만은 개고생의 시작: 지방 소녀의 서울살이>의 일부이다.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나는 전세 7,000만~8,000만원의 집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수준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서울, 특히 도심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집들은 내 믿음을 쉽사리 배반했다. 낡은데다 구조마저 이상한 집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었던 것이다. 살겠다는 사람이 몰리는 동네라 그런지 집주인은 걱정만 듯 집 상태에 무심했다. 자신의 경제 사정에 맞춰 사는 곳을 결정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나도 알고 있지만, 새로운 집을 알아볼 때마다 앞으로의 서울살이가 아득해지는 것이다.^[1]

다음은 <지방 소녀의 서울살이>에 첨가된 해설의 일부이다. 이는 위의 본문이 끝나는 지점에 주석의 형태로 첨부되어 있다.

2008년 이후 한국의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고용 역시 마찬가지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자 청년층은 취업준비생 상태로 대기 중인 반면, 노령층이 빠르게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독립한 청년층 1인 가구는 현재 상황을 단적으로 증언한다. 39살 이하 1인 가구의 소득은 2008년 이후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대신 소비는 식료품과 월세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두 항목은 필수적 지출이어서

[1] 강선영, <독립의 낭만은 개고생의 시작>, «아파트 키드의 생애: 지방 소녀의 서울살이», 2014-03, (<http://na-dle.hani.co.kr/arti/economy/664.html>).

절약하기가 어렵다. 앞으로 가스와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이 인상된다면 이들의 저축 여력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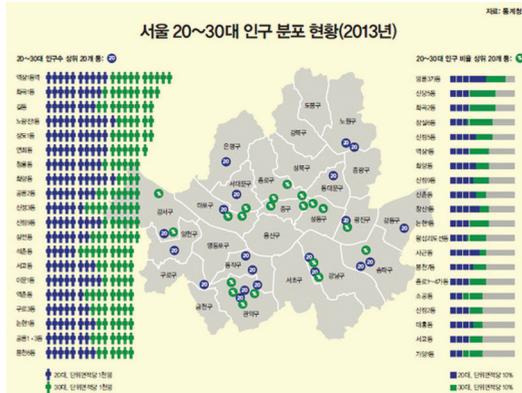


그림6-1 나들 17호(2014) <지방소녀의 서울살이>에 첨부된 인포그래픽스.

여기에서 인터뷰와 해설, 인포그래픽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는다. 인터뷰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사적 시간 축과, 해설에서 드러나는 사회·경제적 변천의 공적 시간 축이, 인포그래픽스라는 시각적 작업을 통해 결합하는 것이다. 사적 서사와 공적 서사가 정보디자인 작업을 매개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완결된 형식을 갖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예시는, 정보시각화 작업이 확장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부록에서는 정보시각화 작업의 외연이 확장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해본다. 현실의 경제 지표나 역사적 사실들을 기반으로 개연성 있는 ‘가상의 서사’를 만들고, 그 서사를 다시 정보시각화 작업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정한 가상의 가족을 상정하고, 그 가족이 한국 사회의 경제적 변천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패턴을 그려보았다.

패턴을 그려봄에 있어 표준적인 가족 모델로 상정한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 부모와 에코 세대 자녀이다. 베이비붐 세대 혹은 베이비부머는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특정 시기에 태어난 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산율이

[2] 박재현, <주석: ‘집으로 중산층 진입’ 시대는 끝났다>, «아파트 키드의 생애: 지방 소녀의 서울살이», 2014-03, (<http://na-dlc.hani.co.kr/arti/economy/664.html>).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 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거대 인구 코호트(Cohort)^[3]를 지칭^[4]하는 표현이다. 또한, 에코 세대는 베이비부머(母)의 자녀 세대로 1979~1992년에 태어난 인구 코호트로 정의된다.^[5]

베이비붐 세대는 고도성장기에 생애 주직장에 빠르게 안착한 수혜자인 동시에, 1990년대 말 외환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로 호명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험을 했지만 자산 시장에서는 상대적 우위를 누렸으며,^[6] 경제적 혜택의 불균형이 남성과 여성, 장남과 여타 자녀들 사이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세대이기도 하다.^[7] 흔히 베이비부머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으로 불리며, 세대 내부의 양극화도 심한 편이다.^[8]

이처럼 한국 사회의 경제적 변천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베이비부머를 1955년생, 1958년생 부모로 삼고 에코 세대인 1987년생 청년을 자녀로 삼아, 1980년대 초반 신혼에서 출발하여 자녀의 탄생, 1990년대 초반의 내 집 마련, 1990년대 말의 IMF 사태, 2000년대 초부터 서울에서 시작된 호황, 2008년 금융위기를 통과하여 2010년 이후 은퇴를 맞이하는 하나의 생애 주기를 가상으로 설정했다. 생애 주기 안에서 부모는 한국 사회가 맞이한 주요 분기점마다 특정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해당 분기점은 다음과 같다.

[3] 특정 경험(특히 연령)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체를 말하며, 주로 5년 혹은 1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출생 코호트라 한다.(고영복, 《사회학사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2000.)

[4]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1955~63년생을 기준으로 규정되기도 하고, 1955~74년생을 기준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의 베이비부머는 (정부의 고령화 정책 등이나 통계청 보도자료에서 통상적으로 규정하는) 한국전쟁 종료 이후부터 산아제한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태어난 1955~63년생으로 정의한다.(김용하·임성은,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제31권(2), 2011, p.37.)

[5]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보도자료), 통계청, 2012-08-02, p.3.

[6] 신동균, <베이비 붐 세대의 근로생애사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3권(2), 2013, p.30.

[7] 정경희 외 3명,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제37권(9), 2011, p.76.

[8] 노영훈, <베이비부머 세대 가계의 주택자산 구성과 은퇴>, 《재정포럼》, 2013-06월호, p.35.

- ① 1990년대 초, 첫 번째 집을 어디에 마련했는가?
- ② 1990년대 말, IMF 사태 시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 ③ 2002~2007년 서울의 집값 호황 후반 시기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위와 같은 세 가지 분기점을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는 30여 년의 시간 동안 몇 가지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 총 12가지 사례가 만들어진다. 그 과정에서 청년 1인 가구가 어떻게 탄생하여, 그를 둘러싼 자금의 흐름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드러난다. 동일한 출발점을 가지더라도 선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고, 각 가상의 행위자들은 아르바이트, 취업, 입주, 상가 임차, 임대 등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서로 관계 맺게 된다. 예를 들어, 사례11의 자녀가 대학 신입생일 때 거주한 고시원이 사례3의 부모 소유이거나, 사례8의 자녀가 아르바이트한 도넛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정리하고 당한) 사례 7의 부모이고, 그 부모가 운영하는 도넛 전문점이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가 사례4의 부모인, 소위 ‘얹히고설킨’ 구조가 만들어진다.

12가지 사례의 전체 및 세부설계는 부동산 연구자 박재현이 진행했으며, 배민기가 해당 데이터를 토대로 텍스트와 시각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각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장남으로 태어나 집안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공부하여 상고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 70년대에 은행에 취직한 55년생 아버지와 여상 졸업 후 같은 은행에 근무하던 58년 어머니는 80년대 초에 결혼했다. 어머니는 은행에 5년간 근무하며 저금한 재형저축으로 천만 원 정도를 이미 마련해놓은 알뜰한 분이였다. 신혼살림은 사당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로 시작했고, 결혼 후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되셨다. 80년대 말 내가 태어난 후에도, 부모님은 재형저축과 청약저축을 부으며 열심히 살림을 꾸리셨다.

내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어렸던 90년대 초반, 부모님은 강남에 18평 아파트를 마련하셨다고 한다. 5천만 원의 빚을 내서 1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셨지만, 아버지가 은행 직원이셔서 용자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들었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떠돌던 1기 신도시 이야기에 혹하기도 했지만,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빚이 생겼으므로,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몇 해 전쯤 어머니는 예전 은행 근무 경험을 살려 세무서 사무소에 채용직하셨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나는 소위 '강남 사교육'을 받았다. 다들 지금만큼 극성스럽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강남으로 이사한 이후 '이 동네는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변화에 열심히 적응해야 했다.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을 통과하여 고학년에 올라갔을 때, 뉴스에서 IMF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다.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들의 부모님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다행히도 아버지는 은행에 계속 다니실 수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성인이 된 후 그때를 회고하시면서, "그땐 해고가 워낙 많아 인사 공백이 컸고 그 덕을 내가 많이 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내가 중학생일 때, 부모님은 좀 더 큰 아파트를 구하셨다. IMF 여파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2000년대 초반이 되었을 때, 같은 강남에 있던 좀 더 넓은 아파트를 매입하신 것이다(33평형에 3억 정도였다고 들었다). 일정 정도 빚을 지고

집을 사셨다고 들었지만, 나는 아무튼 집이 넓어진다는 것이 좋았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아버지는 지점장으로 승진하셨고, 우리가 사는 집의 가격이 두 배가 넘게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잠자코 대학입시를 준비했고, 다행히 현역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 입시 결과가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썩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재수는 하기 싫었다. 대학에 06학번으로 입학하여 새내기로 정신없이 놀러 다니며 지낼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다. 물론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신 적은 없지만, 조금씩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어머니는 여러모로 경기가 좋았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으니 주택 재개발에 뛰어들자는 이야기를 하셨고, 아버지는 그다지 내켜 하지 않으셨다.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식이었다.

결국, 어머니의 강력한 주장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어머니는 최소한 월세소득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내가 다니는 대학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세대주택을 사셨다. 아버지도 은퇴 후 월세소득이 있으면 나쁠 것은 없다는 식으로 동의하셨다. 몇 해가 지난 후, 뉴스에서 '금융위기'라는 말을 들었다. 어린 시절 IMF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들었을 때만큼이나 이진 뭘가 심각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아버지는 재개발은 이미 물 건너간 거라고 혀를 차셨고, 어머니는 집값이 빠지긴 했지만, 장부상으론 별 손해도 아니고 나쁠 것이 없다는 식이었다.

나는 예전부터 유학을 생각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가기 위해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었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나는 우리 집이 꽤 부유한 '강남 주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유학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한테 유학비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는, 웬만해선 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것은 묵묵히 지원해주셨던 부모님조차 진지하게 "다른 방식의 진로는 생각해본 적이 없느냐"고 물으셨다.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 결국 나는 유학을 가게 되었다. 학위 과정 중 아버지는 은행에서 퇴직하셨고, 가끔 연락할 때마다 경제적 상황에 대한 약간의 한탄이나 노후에 관해 이야기를 하시곤 한다. 현재 나는 학위과정을 마무리하고, 현지에서 취직자리를 구하고 있다.

사례2

장남으로 태어나 집안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공부하여 상고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 70년대에 은행에 취직한 55년생 아버지와 여상 졸업 후 같은 은행에 근무하던 58년 어머니는 80년대 초에 결혼했다. 어머니는 은행에 5년간 근무하며 저금한 재형저축으로 천만 원 정도를 이미 마련해놓은 알뜰한 분이였다. 신혼살림은 사당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로 시작했고, 결혼 후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되었다. 80년대 말 내가 태어난 후에도, 부모님은 재형저축과 청약저축을 부으며 열심히 살림을 꾸리셨다.

내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어렸던 90년대 초반, 부모님은 강남에 18평 아파트를 마련하셨다고 한다. 5천만 원의 빚을 내서 1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셨지만, 아버지가 은행 직원이셔서 용자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들었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떠돌던 1기 신도시 이야기에 혹하기도 했지만,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빚이 생겼으므로,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몇 해 전쯤 어머니는 예전 은행 근무 경험을 살려 세무서 사무소에 채용직하셨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나는 소위 '강남 사교육'을 받았다. 다들 지금만큼 극성스럽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강남으로 이사한 이후 '이 동네는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변화에 열심히 적응해야 했다.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용을 통과하여 고학년용 올라갔을 때, 뉴스에서 IMF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다.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들의 부모님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다행히도 아버지는 은행에 계속 다니실 수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성인이 된 후 그때를 회고하시면서, "그땐 해고가 워낙 많아 인사 공백이 컸고 그 덕을 내가 많이 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내가 중학생일 때, 부모님은 좀 더 큰 아파트를 구하셨다. IMF 여파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2000년대 초반이 되었을 때, 같은 강남에 있던 좀 더 넓은 아파트를 매입하신 것이다(33평형에 3억 정도였다고 들었다). 일정 정도 빚을 지고

집을 사셨다고 들었지만, 나는 아무튼 집이 넓어진다는 것이 좋았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아버지는 지점장으로 승진하셨고, 우리가 사는 집의 가격이 두 배가 넘게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잠자코 대학입시를 준비했고, 다행히 현역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 입시 결과가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썩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재수는 하기 싫었다. 대학에 06학번으로 입학하여 새내기로 정신없이 놀러 다니며 지낼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다. 물론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신 적은 없지만, 조금씩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어머니는 여러모로 경기가 좋았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으니 주택 재개발에 뛰어들자는 이야기를 하셨고, 아버지는 그다지 내켜 하지 않으셨다.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식이었다.

아버지는 끝까지 못마땅해 하셨고, 결국 부모님은 주택 재개발에는 뛰어들지 않았다. 몇 해가 지난 후, 뉴스에서 '금융위기'라는 말을 들었다. 어린 시절 IMF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들었을 때만큼이나 이긴 뭘가 심각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어머니는 두 배 이상 올랐던 우리 집의 가격이 꽤 많이 떨어졌다고 쓸쓸해 하셨다. 아버지는 이럴 줄 모르고 재개발 주택이라도 샀으면 어쩔뻔 했냐고 몇 번이나 강조하며 이야기하셨다.

나는 예전부터 유학을 생각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가기 위해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었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나는 우리 집이 꽤 부유한 '강남 주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유학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한데 유학비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는, 웬만해선 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것은 묵묵히 지원해주셨던 부모님조차 진지하게 "다른 방식의 진로는 생각해본 적이 없느냐"고 물으셨다.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 결국 나는 유학을 가게 되었다. 학위 과정 중 아버지는 은행에서 퇴직하셨고, 가끔 연락할 때마다 경제적 상황에 대한 약간의 한탄이나 노후에 관해 이야기를 하시곤 한다. 현재 나는 학위과정을 마무리하고, 현지에서 취직자리를 구하고 있다.

사례3

장남으로 태어나 집안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공부하여 상고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 70년대에 은행에 취직한 55년생 아버지와 여상 졸업 후 같은 은행에 근무하던 58년 어머니는 80년대 초에 결혼했다. 어머니는 은행에 5년간 근무하며 저금한 재형저축으로 천만 원 정도를 이미 마련해놓은 알뜰한 분이었다. 신흥살림은 사당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로 시작했고, 결혼 후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되었다. 80년대 말 내가 태어난 후에도, 부모님은 재형저축과 청약저축을 부으며 열심히 살림을 꾸리셨다.

내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어렸던 90년대 초반, 부모님은 강남에 18평 아파트를 마련하셨다고 한다. 5천만 원의 빚을 내서 1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셨지만, 아버지가 은행 직원이셔서 용자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들었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떠돌던 1기 신도시 이야기에 혹하기도 했지만,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빚이 생겼으므로,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몇 해 전쯤 어머니는 예전 은행 근무 경험을 살려 세무서 사무소에 재취직하셨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나는 소위 '강남 사교육'을 받았다. 다들 지금만큼 극성스럽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강남으로 이사한 이후 '이 동네는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변화에 열심히 적응해야 했다.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을 통과하여 고학년에 올라갔을 때, 뉴스에서 IMF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다.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들의 부모님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우리 아버지 또한 그 흐름을 피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퇴직금 2~3억 원 정도를 받고, 20년 가까이 근무해 온 은행을 나오셨다.

은행을 나오신 후 아버지는 다소 의기소침해지셨고, 가정 내에서 어머니의 입김이 점점 세지는 것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잠깐 전업주부였고 곧 세무서 사무소에 재취직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감각이 나름대로 유지되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종종 하신다. 아버지의

퇴직이라는 큰 변화를 계기로, 어머니는 약간의 모험을 시작하셨다. 모아두었던 돈과 아버지의 퇴직금을 이용하여, 어머니는 당시 재건축아파트를 3채나 매입하셨다. 전세를 끼고 구매하신 것이긴 했지만, 반포 1단지 아파트 2채와 반포 3단지 아파트 1채를 (속칭 '줍기'라는 방식으로) 경매에서 사신 것이다. 물려있는 전세금만 5억 정도였지만, 어머니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신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이중 반포 1단지 아파트 1채는 이후 내 명의로 이전되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의 내 집이 마련되었다.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부모님은 신촌에 있는 고시원 한층 전체를 매입하셨다. 무엇보다도, 중고생 시절 우리 집은 (특히 아버지의 퇴직 이후 줄곧 저기아 있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해가 지날수록 여유로워졌고 그 변화가 확연히 느껴질 정도였다. 나중에 물어봐서 안 것이지만, 당시 7억 원 상당(전세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내 금액은 2억 원 정도였다)의 아파트 3채는, 내가 고3이던 시절 거의 40억 원 가까이 올라있었다. 그때 부모님은 (나중에 반포 자이가 될) 반포3단지 펜트하우스의 분양권을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18억 원 상당의 분양권을 처분하고 그 돈을 디딤돌로 다른 투자처를 찾아볼 것인가, 아니면 넓은 펜트하우스에 들어가 살 것인가.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결정권을 넘겼다.

어머니가 펜트하우스에 들어가 살기로 선택한 순간, 나는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교 2학년 때쯤 넓은 집에 실제로 입주하면서 어머니 얼굴에는 성취감이 가득 꽃피었지만, 이후 금융위기로 집값이 내려갔을 땐 다소 속상해하시기도 했다. 나 또한 운택하게 대학생활을 보냈지만, 성적에 맞춰 진학했던 학교의 전공이 내 성격과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해고로 인해 시작된 경제적 모험을 완성했다고 여기셨는지, 부모님은 그때쯤부터 '사'자 직업에 대한 동경을 뒤늦게 나에게 투사하기 시작했다. 학교 전공에 관심을 잃은 나의 마음과 부모님의 은근한 강요 및 지원이 어우러져, 나는 결국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부모님은 내 명의의 반포 1단지 재건축이 곧 시작된다며, '젊은 나이에 자기 집 있는 의사'가 얼마나 1등 신랑감인지를 매일 나에게 이야기하신다.

사례4

장남으로 태어나 집안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공부하여 상고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 70년대에 은행에 취직한 55년생 아버지와 여상 졸업 후 같은 은행에 근무하던 58년 어머니는 80년대 초에 결혼했다. 어머니는 은행에 5년간 근무하며 저금한 재형저축으로 천만원 정도를 이미 마련해놓은 알뜰한 분이였다. 신혼살림은 사당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로 시작했고, 결혼 후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되었다. 80년대 말 내가 태어난 후에도, 부모님은 재형저축과 청약저축을 부으며 열심히 살림을 꾸리셨다.

내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어렸던 90년대 초반, 부모님은 강남에 18평 아파트를 마련하셨다고 한다. 5천만 원의 빚을 내서 1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셨지만, 아버지가 은행 직원이셔서 용자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들었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떠돌던 1기 신도시 이야기에 혹하기도 했지만,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빚이 생겼으므로,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몇 해 전쯤 어머니는 예전 은행 근무 경험을 살려 세무서 사무소에 재취직하셨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나는 소위 '강남 사교육'을 받았다. 다들 지금만큼 극성스럽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강남으로 이사한 이후 '이 동네는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변화에 열심히 적응해야 했다.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을 통과하여 고학년에 올라갔을 때, 뉴스에서 IMF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다.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들의 부모님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우리 아버지 또한 그 흐름을 피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퇴직금 2~3억 원 정도를 받고, 20년 가까이 근무해 온 은행을 나오셨다.

은행을 나오신 후 아버지는 다소 의기소침 해지셨고, 가정 내에서 어머니의 입김이 점점 세지는 것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잠깐 전업주부였고 곧 세무서 사무소에 재취직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감각이 나름대로 유지되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종종 하신다. 아버지의

퇴직이라는 큰 변화를 계기로, 어머니는 약간의 모험을 시작하셨다. 모아두었던 돈과 아버지의 퇴직금을 이용하여, 어머니는 당시 재건축아파트를 3채나 매입하셨다. 전세를 끼고 구매하신 것이긴 했지만, 반포 1단지 아파트 2채와 반포 3단지 아파트 1채를 (속칭 '줍기'라는 방식으로) 경매에서 사신 것이다. 물려있는 전세금만 5억 정도였지만, 어머니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신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이중 반포 1단지 아파트 1채는 이후 내 명의로 이전되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의 내 집이 마련되었다.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부모님은 신촌에 있는 고시원 한층 전체를 매입하셨다. 무엇보다도, 중고생 시절 우리 집은 (특히 아버지의 퇴직 이후 줄곧 저기압이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해가 지날수록 여유로워졌고 그 변화가 확연히 느껴질 정도였다. 나중에 물어봐서 안 것이지만, 당시 7억 원 상당(전세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낸 금액은 2억 원 정도였다)의 아파트 3채는, 내가 고3이던 시절 거의 40억 원 가까이 올라있었다. 그때 부모님은 (나중에 반포 자이가 될) 반포3단지 펜트하우스의 분양권을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18억 원 상당의 분양권을 처분하고 그 돈을 디딤돌로 다른 투자처를 찾아볼 것인가, 아니면 넓은 펜트하우스에 들어가 살 것인가.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결정권을 넘겼다.

어머니가 분양권을 처분하고 상가매입을 시작하기로 선택한 순간, 나는 대학에 입학했다. 홍대에 있는 5층 상가를 매입하셨고, 곧 카페나 옷을 파는 가게들이 들어섰다. 가끔 여자친구와 홍대 근처를 드라이브할 때 그 건물 앞을 지나갈 때도 있었다. 3학년 방학 시절 어학연수를 처음 떠난 이후, 나는 방학이 되면 종종 외국에 나갔다. 어학능력이 특출나게 향상되어 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정확히 무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유로 부모님은 종종 못마땅해 하셨지만, 비용은 항상 군말 없이 지원해주셨다. 군대에 다녀와 가까스로 학부를 졸업한 후, 나는 본격적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사례5

장남으로 태어나 집안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공부하여 상고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 70년대에 은행에 취직한 55년생 아버지와 여상 졸업 후 같은 은행에 근무하던 58년 어머니는 80년대 초에 결혼했다. 어머니는 은행에 5년간 근무하며 저금한 재형저축으로 천만 원 정도를 이미 마련해놓은 알뜰한 분이였다. 신흥살림은 사당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로 시작했고, 결혼 후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되셨다. 80년대 말 내가 태어난 후에도, 부모님은 재형저축과 청약저축을 부으며 열심히 살림을 꾸리셨다.

내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어렸던 90년대 초반, 부모님은 1기 신도시에서 내 집 마련을 시작해야겠다고 판단하셨다. 여러 곳을 비교해보면서 결정한 곳은 평촌 30평 아파트였다. 어머니가 강남 아파트 이야기길 꺼내시기도 했지만, 가격 차이나 집의 넓이 등을 따져봤을 때, 같은 가격이면 평촌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하셨다고 한다. 강남으로 가려면 더 작은 평수도 빚을 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고, 6천만 원에 용자 없이 첫 번째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너무 어린 시절 평촌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내 유년기의 기억 속에는 서울의 풍경이 없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미술학원이나 피아노학원에 다녔고, 학교의 (아마 극성스런 집의) 몇몇 아이들을 빼고는 다들 그 정도 학원들에 다녔던 걸로 기억한다.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을 통과하여 고학년에 올라갔을 때, 뉴스에서 IMF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다.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들의 부모님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다행히도 아버지는 은행에 계속 다니실 수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성인이 된 후 그때를 회고하시면서, “그땐 해고가 워낙 많아 인사 공백이 컸고 그 덕을 내가 많이 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아버지는 지점장으로 승진하셨고, 나는 잠자코 대학입시를 열심히 준비했다. 대학에 06학번으로 입학하고 나서도,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내가 대학 2학년에 올라갈 즈음, 부모님은 부친의 상가 한 칸을 매입하셨다. 아마 소규모 학원 같은 것이 들어와 있는 모양이었다. 그때쯤부터, 우리 아파트가 낡았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왔다. 용적률이 어찌고 하는 이야기들이 식탁에서 가끔 나왔지만, 정확히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른 분들과의 통화 중 재개발이 어머니 수직중축이 어머니 하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일 년 후, 뉴스에서 ‘금융위기’라는 말을 들었다. 어린 시절 IMF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들었을 때만큼이나 이젠 뭔가 심각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아버지는 재개발은 이제 정말로 물 건너간 거라고 혀를 차셨고, 어머니는 소위 장부상으론 별 손해도 아니고 나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씩씩해하셨다. 부모님은 “우리는 부유하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가난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중산층인지도 모르겠다”는 묘한 말씀을 자주 하신다. 그건 결국 내가 전문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말을 듣기 전에도, 나는 로스쿨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결국, 지난해 나는 로스쿨에 입학했고 부모님은 비싼 학비를 흔쾌히 지원해주시고 있다.

사례6

장남으로 태어나 집안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공부하여 상고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 70년대에 은행에 취직한 55년생 아버지와 여상 졸업 후 같은 은행에 근무하던 58년 어머니는 80년대 초에 결혼했다. 어머니는 은행에 5년간 근무하며 저금한 재형저축으로 천만 원 정도를 이미 마련해놓은 알뜰한 분이였다. 신혼살림은 사당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로 시작했고, 결혼 후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되었다. 80년대 말 내가 태어난 후에도, 부모님은 재형저축과 청약저축을 부으며 열심히 살림을 꾸리셨다.

내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어렸던 90년대 초반, 부모님은 1기 신도시에서 내 집 마련을 시작해야겠다고 판단하셨다. 여러 곳을 비교해보면서 결정한 곳은 평촌 30평 아파트였다. 어머니가 강남 아파트 이야길 꺼내시기도 했다지만, 가격 차이나 집의 넓이 등을 따져봤을 때, 같은 가격이면 평촌이 나은 것 같다고 판단하셨다고 한다. 강남으로 가려면 더 작은 평수도 빛을 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고, 6천만 원에 용자 없이 첫 번째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너무 어린 시절 평촌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내 유년기의 기억 속에는 서울의 풍경이 없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미술학원이나 피아노학원에 다녔고, 학교의 (아마 극성스런 집의) 몇몇 아이들을 빼고는 다들 그 정도 학원들에 다녔던 걸로 기억한다.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을 통과하여 고학년에 올라갔을 때, 뉴스에서 IMF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다.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들의 부모님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우리 아버지 또한 그 흐름을 피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퇴직금 2~3억 원 정도를 받고, 20년 가까이 근무해 온 은행을 나오셨다.

내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직전, 다행히 아버지는 채권추심회사에 다시 취직하셨다. 어머니 또한 전업주부를 벗어나 보험회사에 취직하시게 되었다. 두 분이 모두 일을 시작하시면서 해고 때의 충격에선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두 분의 소득을 합쳐도 예전 은행 재직 때의 아버지 소득에 미치지 못해 중학교 시절 내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기억이 난다.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 두 분은 퇴직금을 밀천으로 '파리바게뜨'를 창업했다. 비교적 별이가 나쁘지 않았고, 내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부모님은 계속 빵집을 운영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2000년 중반까지 5년 남짓 가게를 운영하신 셈이다. 가게를 그만두시기 몇 년 전부터, 부모님은 서울 부동산 가격이 점점 오르는 것을 목격하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모양이다. 아마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에 싸게 나왔던 아파트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사례 등을 손님이나 지인을 통해 들으셨을 것이고, 그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나 아까우셨을 법하다. 내가 대학에 입학하는 2006년경, 부모님은 '파리바게뜨'가 하락세라고 판단하고 점포를 다른 이에게 넘겼다. 그와 거의 동시에 대학 근처의 다세대주택을 3채 매입했다. 전세를 끼고, 평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별도의 주택을 마련한 이유는, 앞서 말한 '놓쳐버린 기회' 탓이 컸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곧 부모님은 커피전문점 '이디야 에스프레소'를 예전에 받은 권리금으로 다시 개점했다. 부모님은 앞으로 커피전문점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 매입해놓은 주택들이 재건축에 들어갔을 때 발생할 이익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금융위기가 닥친다. 나는 그와 거의 동시에 군대에 갔다. 금융위기로 평촌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하락했고, 하락한 만큼 빛을 상환해야 했으므로 채무가 과중해졌다. 게다가 다세대주택 3채의 가치도 하락해 재건축의 가능성이 한층 더 희박해졌다. 그 사이 2010년으로 접어들자,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너도나도 커피전문점, 빵집 등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 점포의 매출도 줄어들고 있다. 이제 부모님에게 남은 것은 소소한 월세수입이고, 나에게 남은 것은 대학 졸업장뿐이다.

사례7

장남으로 태어나 집안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공부하여 상고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 70년대에 은행에 취직한 55년생 아버지와 여상 졸업 후 같은 은행에 근무하던 58년 어머니는 80년대 초에 결혼했다. 어머니는 은행에 5년간 근무하며 저금한 재형저축으로 천만 원 정도를 이미 마련해놓은 알뜰한 분이였다. 신흥살림은 사당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로 시작했고, 결혼 후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되셨다. 80년대 말 내가 태어난 후에도, 부모님은 재형저축과 청약저축을 부으며 열심히 살림을 꾸리셨다.

내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어렸던 90년대 초반, 부모님은 서울 은평구에 단독주택을 마련하셨다. 강남이니 분당이니 평촌이니 말들이 많은 시기였지만, 부모님은 별로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다. 주택 가격은 1억 원 정도였고 빛도 있었지만, 그리 부담될 만한 액수는 아니었다. 나는 학원에 다니기는 했지만, 유별난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 어린 시절엔 주로 골목길을 다니며 논 기억이 가장 많고, 그게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을 통과하여 고학년에 올라갔을 때, 뉴스에서 IMF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다.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들의 부모님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다행히도 아버지는 은행에 계속 다니실 수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성인이 된 후 그때를 회고하시면서, “그땐 해고가 워낙 많아 인사 공백이 컸고 그 덕을 내가 많이 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난 후, 부모님은 원래 우리가 살던 단독주택을 전세 놓은 후, 대치동 아파트를 매입했다. 아마 교육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즈음부터 나는 꽤 착실한 딸이었고, 유난스럽다면 유난스럽지만 견딜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여러 학원을 군말 없이 다녔다. 지금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즈음엔 원래 살던 은평구 주택도 대치동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라서, 소득 중 많은 부분을 과감하게 사교육비에 투자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나는 대학에 입학했다. 신입생 시절 잠깐 놀기는 했지만, 곧바로 마음을 잡고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이른 시기부터 토익이나

취업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금융위기가 있었고, 집 가격이 내려갔다는 얘긴 간간이 들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기억한다. 그런데 2010년, 아버지가 지점장 직전에 정리해고되었다. 부모님은 퇴직금을 기반으로 ‘던킨도너츠’를 홍대 근처에 창업했다. 웬지 모를 위기감으로 나는 더욱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고 결국 2지방 정도였던 대기업에 입사했다. 입사 후 회사에서 만난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고, 지금은 결혼을 앞두고 있다. 부모님은 딸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서 대치동 아파트를 처분하실 생각이시다.

사례8

장남으로 태어나 집안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공부하여 상고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 70년대에 은행에 취직한 55년생 아버지와 여상 졸업 후 같은 은행에 근무하던 58년 어머니는 80년대 초에 결혼했다. 어머니는 은행에 5년간 근무하며 저금한 재형저축으로 천만 원 정도를 이미 마련해놓은 알뜰한 분이였다. 신흥살림은 사당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로 시작했고, 결혼 후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되었다. 80년대 말 내가 태어난 후에도, 부모님은 재형저축과 청약저축을 부으며 열심히 살림을 꾸리셨다.

내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어렸던 90년대 초반, 부모님은 서울 은평구에 단독주택을 마련하셨다. 강남이니 분당이니 평촌이니 말들이 많은 시기였지만, 부모님은 별로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다. 주택 가격은 1억 원 정도였고 빛도 있었지만, 그리 부담될 만한 액수는 아니었다. 나는 학원에 다니기는 했지만, 유별난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 어린 시절엔 주로 골목길을 다니며 논 기억이 가장 많고, 그게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을 통과하여 고학년에 올라갔을 때, 뉴스에서 IMF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다.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들의 부모님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우리 아버지 또한 그 흐름을 피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퇴직금 2~3억 원 정도를 받고, 20년 가까이 근무해 온 은행을 나오셨다.

퇴직금을 기반으로 부모님은 1층은 가게, 2~3층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근린주택을 매입했다. 고정 월세소득을 생각하신 결정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버지는 이후로도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지만, 딱히 이거다 싶은 고정 직업은 없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평범한 성적을 받았고 평범한 학원에 다녔다. 한창 고등학교에 다닐 때쯤엔, 예전에 구매한 근린주택 가격이 꽤 올랐다는 이야기를 이후에 전해 들었지만, 그때를 기억해보면 생활이 크게 바뀐만한 변화는 없었다. 평범한 대학에 진학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군대에 갔고, 그때 금융위기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역 후엔 복학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한 학기 정도를 약간 빈둥대며 보냈다. 홍대 근처의 '던킨도너츠'에서 아르바이트하기도 했고, 복학 이후에는 열심히 학점을 올렸지만, 전체 평점 3.0을 넘기지 못했다. 대학을 졸업한 지 반년쯤 되는 지금, 나는 영락없는 취업준비생이다.

사례9

장남에게 집안의 물질적·정신적 지원이 집중되던 집에서 태어난 우리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장남이 아니었다.

기술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공고를 졸업한 후 경인공업단지에 취직했다. 이후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 82년 인천의 다가구에서 사글세로 시작한 우리 가족은 몇 년씩의 텃밭 두고 사글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주거의 수준을 차차 올려가고 있었다. 그 사이에 내가 태어나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쯤 다세대주택을 매입했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듬해에는 인천의 조그만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에 올라갔을 때, 뉴스에서 IMF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다.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들의 부모님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아버지가 일하시던 회사는 폐업했다. 특화된 기술 외엔 가지고 있지 않고 나이도 적지 않았던 아버지는 취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셨다. 우여곡절 끝에 이전 회사의 하청업체에 재취직하게 되었지만 급여는 절반 수준이었고, 어머니는 보험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내가 중학교에 입학한 순간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가 되었다.

우리 집은 가난한 편이었지만, 일탈의 핑계로 가정환경을 댈 수 있을 만큼 극단적으로 궁핍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 애매한 가난이 그리 부끄럽지도 않았고 자랑스럽지도 않았다.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못했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열심히 했고, 장학금을 목표로 다소 하향지원했던 서울 소재 대학에도 좋은 성적으로 붙었다. 입학 후 2년 정도는 기숙사에서 살 수 있었고, 장학금도 받았다. 집에서도 약간의 생활비 등을 받아 대학생할엔 큰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금융위기 시기를 즈음해서 왔다. 장학금을 항상 받을 수는 없었고 여분의 돈은 계속 필요했는데, 집의 사정이 점차 안 좋아지는 듯 했다. 3학년에 올라가서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인 원룸에서 살아야 했는데, 이걸 아르바이트를 닦치는 대로 늘려야 한다는 뜻이었다. 처음엔 '이디야 에스프레소' 카페의 아르바이트와 고등학생 과외를 병행했다. 이듬해가 되자 아버지가 일하던 하청업체가

부도났다. 이걸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뜻이었다. 아파트 경비원을 시작하신 아버지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몰래 휴학을 결정했다. 과외 경험을 통해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고 스스로 재능도 꽤 있다고 생각한 참이어서, 일단 학원 강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1년 정도 학원 보조교사로 취업하여 본격적으로 학비를 벌고 난 후 복학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년간의 경험으로 인해, 나는 사교육 시장에 꽤 깊이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복학 후에도 이런저런 인맥을 통해 과외가 들어왔고, 학원 아르바이트도 계속했다. 졸업 후엔 명확히 특정 학원에 소속되지는 않았지만 일거리가 늘어났고, 벌이가 점차 나아지면서 월세도, 생활비도, 유흥을 위한 약간의 돈도, 집으로 송금할 여분의 돈도 마련할 수 있었다. 애초에 아무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학원 강사'가 내 직업 비슷한 것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나는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나갈 참이다.

사례10

장남에게 집안의 물질적·정신적 지원이 집중되던 집에서 태어난 우리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장남이 아니었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거나 물려받은 돈이 없었던 아버지는 부산 대연동의 조그만 건물을 얻어 세탁소를 시작했다. 어머니를 만나 가정을 꾸린 이후에도 얼마간은 세탁소 내의 조그만 쪽방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매출이 크게 늘지도 않았지만 심하게 줄어들지도 않은 채로, 세탁소는 조금씩 성장해나갔다. 쪽방에서 시작한 우리 집은 전세를 거쳐서,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엔 그럴듯한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을 통과하여 고학년에 올라갔을 때, 뉴스에서 IMF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다.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들의 부모님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수요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세탁소를 운영하던 우리 집은 그 위기에서 아주 큰 피해를 보진 않았던 것 같다. 매출은 일부 감소했지만, 부모님은 세탁소를 계속 운영했다. 몇 년이 지나자 사업도 꽤 번창했고 돈도 어느 정도 모여서, 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부모님은 해운대에 30평형 아파트를 매입하셨다. 당시의 ‘해운대 신시가지’는 밤이 되면 가로등 불빛조차 잘 보이지 않는 을씨년스러운 곳이었다. 아파트만이 가득한 유명도시 같던 분위기는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해운대에 사는 아이들은 독특한 자부심(“이곳은 미래의 부촌이다”)이 있었고, 그 자부심은 나에게도 얼마간 영향을 끼친 것 같다. 나는 공부를 곧잘 하는 편이었고,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했다. 이후 내가 대학 신입생이던 시절이 해운대 아파트값이 급상승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학교 2학년 때 살았던 원룸의 전셋값 5천만 원을 싼뜻 마련해주신 것을 보면, 그 말이 사실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리고 보면, 나는 타지에서 살면서도 유별난 생활고를 겪어본 적이 없다. 대부분 집에서 생활비를 보조받았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해본 적도 없다.

사례11

장남에게 집안의 물질적·정신적 지원이 집중되던 집에서 태어난 우리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장남이 아니었다.

조그마한 기업을 다니시던 아버지는 어머니와 만나 서울 변두리의 다가구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사글세가 월세로 바뀌고, 월세가 전세로 바뀌던 시점에 내가 태어났다. 유치원에 들어갈 때쯤 '우리 집'이 생겼던 기억이 난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엔, 놀러 갔던 친구들 집이 깔끔하고 화사한 아파트라는 것이 부럽기도 했다. 하지만 나중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을 통과하여 고학년에 올라갔을 때, 뉴스에서 IMF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다.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들의 부모님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아버지는 정리해고를 당하셨다고 했다. 내가 중학교에 다니는 동안 아버지는 직업이 없었다. 그때부터 부모님의 말다툼이 잦아졌고, 가족 모두 말수가 줄었다. 갈등이 조금씩 커지다가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사건이 터졌다. 아버지는 남아있던 퇴직금으로 주식을 하고 있었고, 손실에 손실을 거듭했다고 한다. 그러던 와중 우리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모님은 거의 매일 고함치며 싸우셨고, 나는 친척 집에 머무는 일이 잦아졌다. 나는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를 영똥한 곳에 풀어 진로를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힘든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려 했지만, 성적은 점점 떨어졌다. 재수는 생각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나는 하향지원한 서울 소재 사범대학의 윤리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내가 대학 합격이 확정된 시점과 거의 동시에, 부모님은 이혼했다. 경제난 때문에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나는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서울에 혼자 남게 되었다. 신입생 시절엔 고시원에서 살았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방을 지저분하게 쓴다고 어머니에게 자주 야단맞았다. 그러나 혼자 살게 되면서 맛닥뜨린 고시원은, 너무 좁아서 뭉가를 어질러 놓을 수도 없었다. 등록금은 아버지와 어머니, 친척의 소소한 도움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고, 정말 많은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게 되었다. 카페에서

화장품가게에 이르기까지. 몸이 너무 피곤했지만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은 나한테 허락되어 있지 않았다. 어쨌든 졸업하고 취직해서 자리를 잡아야 했다. 나는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돈을 모았고, 친구들과 모여 수다를 떠는 소소한 즐거움까지도 포기했다. 나에게 허락한 유일한 여유는, 숨이 턱 막히는 고시원을 벗어나 뭉가를 어질러 놓을 공간이 있는 원룸으로 옮긴 것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서 택시기사를 하시는 아버지와는 가끔 의례적인 통화를 하곤 한다. 아버지는 “언젠가 너도나도 자리를 잡으면 같이 모여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하나 마나 한 이야기를 버릇처럼 뱉는다. 솔직히 나는 가족은 고사하고 점점 내 앞가림에도 자신이 없어진다. 내가 잘못된 전공을 선택한 것인지, 이상하게도 교원을 뽑지 않는다. 졸업 이후에도 나는 취업공부와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면서, 월세와 생활비를 마련하며 챗바퀴를 돌고 있다. 가끔 나는, 내가 영원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사례12

장남에게 집안의 물질적·정신적 지원이 집중되던 집에서 태어난 우리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장남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머리가 굽어지던 시점부터 내놓은 자식처럼 바깥으로 돌았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 단순노무를 시작하셨다고 한다. 동년배보다 사회생활을 무척 일찍 시작한 셈이고, 그리 많지 않은 돈도 차곡차곡 모아놓았다고 한다. 어머니와 동거를 시작하신 시점에는 월세에 살았고, 내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 월세에 살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비슷했다.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다른 아이들처럼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옮겨 다니는 대신 집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을 통과하여 고학년에 올라갔을 때, 뉴스에서 IMF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다.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들의 부모님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당시 우리 부모님이 어렸는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다. 원래 고정적인 일을 하시지 않는 분이어서, 어딘가에서 해고된다는 것이 그리 특별한 일인지 나는 잘 몰랐다. 오히려 부모님은 IMF 이후 집값이 많이 내려가서 (예전부터 염원하던) 내 집 마련을 싸게 할 수 있었던 시절이라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회고하신다.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아버지는 요샌 노무 일이 없다며 다른 일을 알아봐야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 중학교 2학년 때쯤 아버지는 모아둔 돈과 빚을 보태서 대형 트럭을 구입했다. 이걸로 전국을 왔다 갔다 하게 될 거라고 했고, 집 형편도 앞으로 나아질 거란 이야기를 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미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굳혔다. 우리 집 형편에 미술학원 학비를 감당하는 게 어려울 거란 생각이 있었지만, 주변의 가난한 친구 중에도 미술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고 어떻게든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만 생각했다. 부모님에게 미대 이야기를 하자, 생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다. 나는 당연히 반대하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며칠 동안 의논하신 뒤 선뜻 찬성해주셨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원비는 사정 설명을 들은 원장선생님의

결단으로 싸게 해결하고, 입시 막바지의 비싼 학원비를 대기 위해서는 대출도 받으셨다고 한다.

그때쯤 건설 붐이어서, 아버지는 일거리가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하시곤 했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 디자인 관련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나는 이제 집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했다.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선배들에게 아르바이트를 되도록 많이 소개받았고, 약간의 학비 지원을 제외하면 내 힘으로 경제적 여건을 해결했다. 나중에 졸업반이 되었을 땐, 선배가 운영하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 정기적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졸업 이후에도 스튜디오에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아예 집에서도 나와 대학가의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 ‘직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년실업률이 어찌고 하는 요즘 세상에서 어쨌든 취직은 한 셈이라 다행이 아닐까 생각한다.

각 텍스트는 동일한 문단을 공유하고 있다. 하나의 이야기 유닛을 상정하고, 모든 사례에 공통되는 서사와 개별 서사를 별도로 만든 후, 시간 순서에 맞춰 재배치하여 여러 개의 이야기를 만들었다. 행 간격으로 구분된 문단이 하나의 유닛으로, 문단 단위의 개별 이야기들이 (사례별 가족들이 겪는) 서사로 ‘조립’된다. 또한, 후반부의 몇몇 사례에서는 청년 1인 가구가 등장하고, 이야기 속에는 그들이 지출하는 주거비와 벌어들이는 생활비에 대한 묘사가 들어있다. 해당 텍스트들은 책의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책의 예시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의 이면 1: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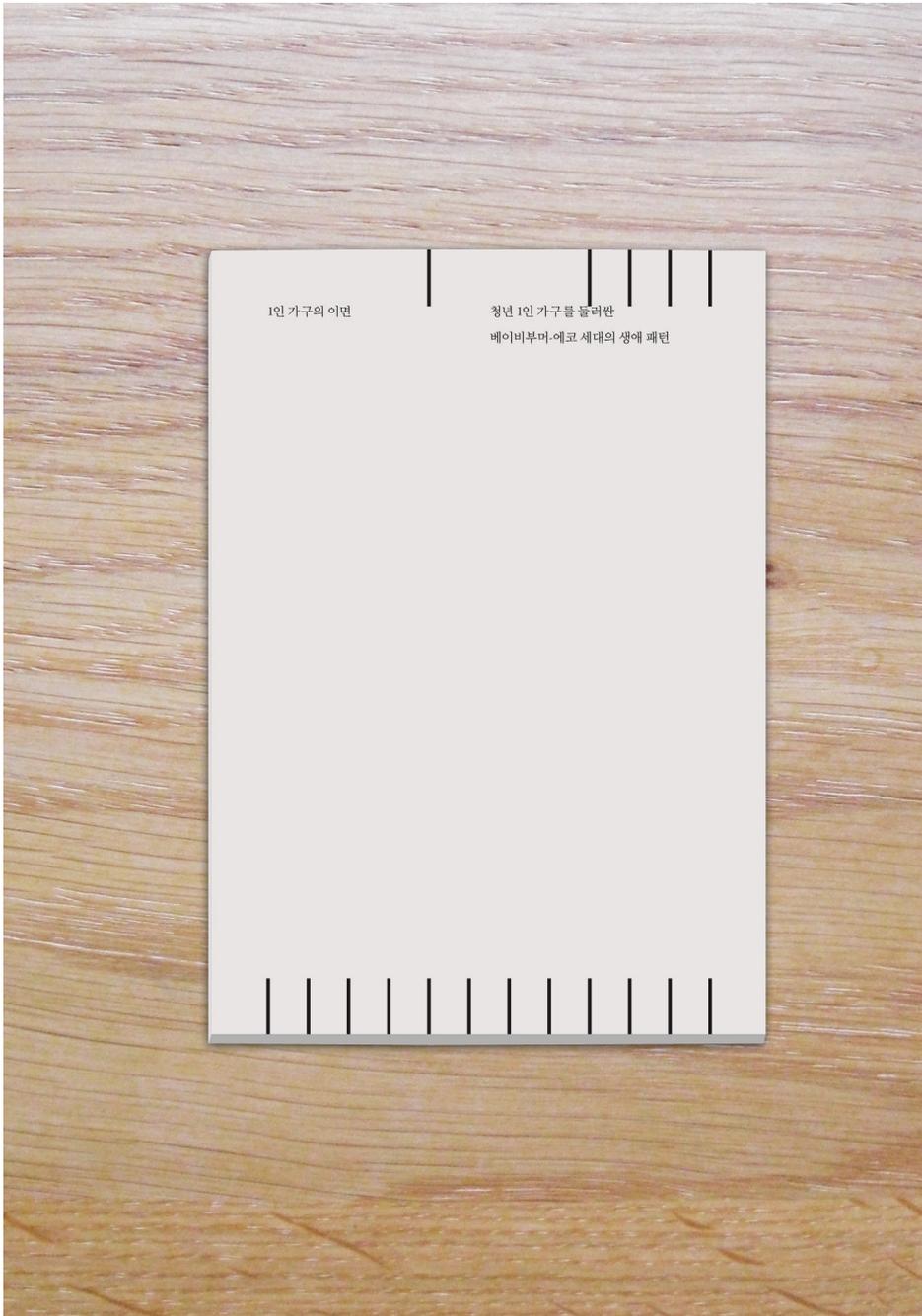


그림6-2 1인 가구의 이면 1: 책 표지

장남에게 집안의 물질적·정신적 지원이 집중되던 집에서 태어난 우리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장남이 아니었다.

조그마한 기업을 다니시던 아버지는 어머니와 만나 서울 번두리의 다가구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사급제가 월세로 바뀌고, 월세가 전세로 바뀌던 시절에 내가 태어났다. 유치원에 들어갈 때쯤 우리 집이 생겼던 기억이 난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엔 놀러 갔던 친구들 집이 깔끔하고 화사한 아파트라는 것이 부럽기도 했다. 하지만 나중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 가장 행복할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을 통과하여 고학년에 올라갔을 때, 뉴스에서 IMF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다.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들의 부모님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아버지는 정리해고를 당하셨다고 했다. 내가 중학교에 다니는 동안 아버지는 직일이 없었다. 그때부터 부모님의 말다툼이 잦아졌고, 가족 모두 말수가 줄었다. 갈등이 조금씩 커지다가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사건이 터졌다. 아버지는 남아있던 퇴직금으로 주식을 하고 있었고, 손실에 손실을 거듭했다고 한다. 그러던 와중 우리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모님은 거의 매일 고향집에 싸우셨고, 나는 친척 집에 머무는 일이 잦아졌다. 나는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를 영동한 곳에 흠여 진로를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힘든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려 했지만, 성적은 점점 떨어졌다. 재수는 생각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나는 하향지원한 서울 소재 사범대학의 윤리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내가 대학 합격이 확정된 시점과 거의 동시에, 부모님은 이혼했다. 경제난 때문에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나는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서울에 혼자 남게 되었다.

신입생 시절엔 고시원에서 살았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방을 지저분하게 쓴다고 어머니에게 야단을 종종 맞았다. 혼자 살게 되면서 빡빡프린 고시원은, 너무 좁아서 땀가를 어질러 놓을 수도 없었다.

등록금은 아버지와 어머니, 친척의 소소한 도움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고, 정말 많은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게 되었다. **카페에서 화장품가게에 이르기까지,** 몸이 너무 피곤했지만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은 나한테 허락되어 있지 않았다. 어쨌든 졸업하고 취직해서 자리를 잡아야 했다. 나는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돈을 모았고, 친구들과 모여 수다를 떠는 소소한 즐거움까지도 포기했다. 나에게 허락한 유일한 여유는, 숨이 턱 막히는 고시원을 벗어나 **‘땀가를 어질러 놓을 공간’이 있는 원룸으로 옮긴 것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서 택시기사를 하시는 아버지와는 가끔 의례적인 통화를 하곤 한다. 아버지는 “언젠가 너도나도 자리를 잡으면 같이 모여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비롯처럼 뱉는다. 솔직히 나는 가족은 고사하고 점점 내 앞가림에도 자신이 없어진다. 내가 잘못된 전공을 선택한 것인지, 이상하게도 교원을 뽑지 않는다. 졸업 이후에도 나는 취업공부와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면서, 월세와 생활비를 마련하며 헛바퀴를 돌고 있다. 가끔 나는, 내가 영원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미래에 고교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없었다. 우리 집 형편에 미술학원 학비를 감당하는 게 어려운 거만 생각이 있었지만, 주변의 가난한 친구 중에도 미술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고 어떻게든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만 생각했다. 부모님에게 미래 이야기를 하자, 생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었다. 나는 당연히 반대할 것임으로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며칠 동안 의논하신 뒤 선택 찬성해주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원비는 사정 설명을 들은 원장선생님의 결단으로 싸게 해결하고, 임시 막바지의 비싼 학원비를 대기 위해서는 대출도 받으셨다고 한다.

그때쯤 건설 붐이어서, 아버지는 일거리가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 디자인 관련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나는 이제 집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했다.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선배들에게 아르바이트를 되도록 많이 소개받았고, 약간의 학비 지원을 제외하면 내 힘으로 경제적 여건을 해결했다. 나중에 졸업만이 되었을 땐, **신배가 운영하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 정기적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졸업 이후에도 스튜디오에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아예 집에서 나와 대학가의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 ‘직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년실업률이 어찌고 하는 요즘 세상에서 어쨌든 취직은 한 셈이라 다행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림6-3 1인 가구의 이면 1: 책 내지

12가지의 개별 이야기를 책으로 옮김에 있어, 크게 2가지의 특징을 물리적으로 반영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이야기들은 공통부분과 개별 부분이 별도로 제작된 후 시간순에 맞춰 조합된 것이다. 그러한 단위 이야기의 조합이라는 특성을 본문 디자인에서 시각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책의 본문 우측에는 흑색 실선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야기 단위의 범위를 나타낸다.

또한, 사례 8에서 사례12까지의 자녀들은 대학 진학 이후 청년 1인 가구가 된다. 그 과정에서 원룸의 월세를 내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원룸 및 소형주택의 주인, 그들이 일하는 카페·학원·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업주, 해당 점포가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의 주인은 모두 사례1에서 사례8에 등장하는 부모들이다.

본문에서 이와 관련된 문장이 등장할 때마다 색상을 적용했다. 청년 1인 가구의 수입(아르바이트)과 관련된 문장은 청색으로 표시하였다. 즉, 아르바이트하는 자녀를 묘사하는 문장, 해당 점포를 운영하는 부모를 묘사하는 문장, 점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건물주인 부모를 묘사하는 문장 모두에 청색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지출(월세)과 관련된 문장은 적색으로 표시하였다. 즉, 소형주택에 입주하는 자녀를 묘사하는 문장, 해당 소형주택의 주인인 부모를 묘사하는 문장 모두에 적색이 적용되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례를 한 화면에 구조화한 것이 다음 이미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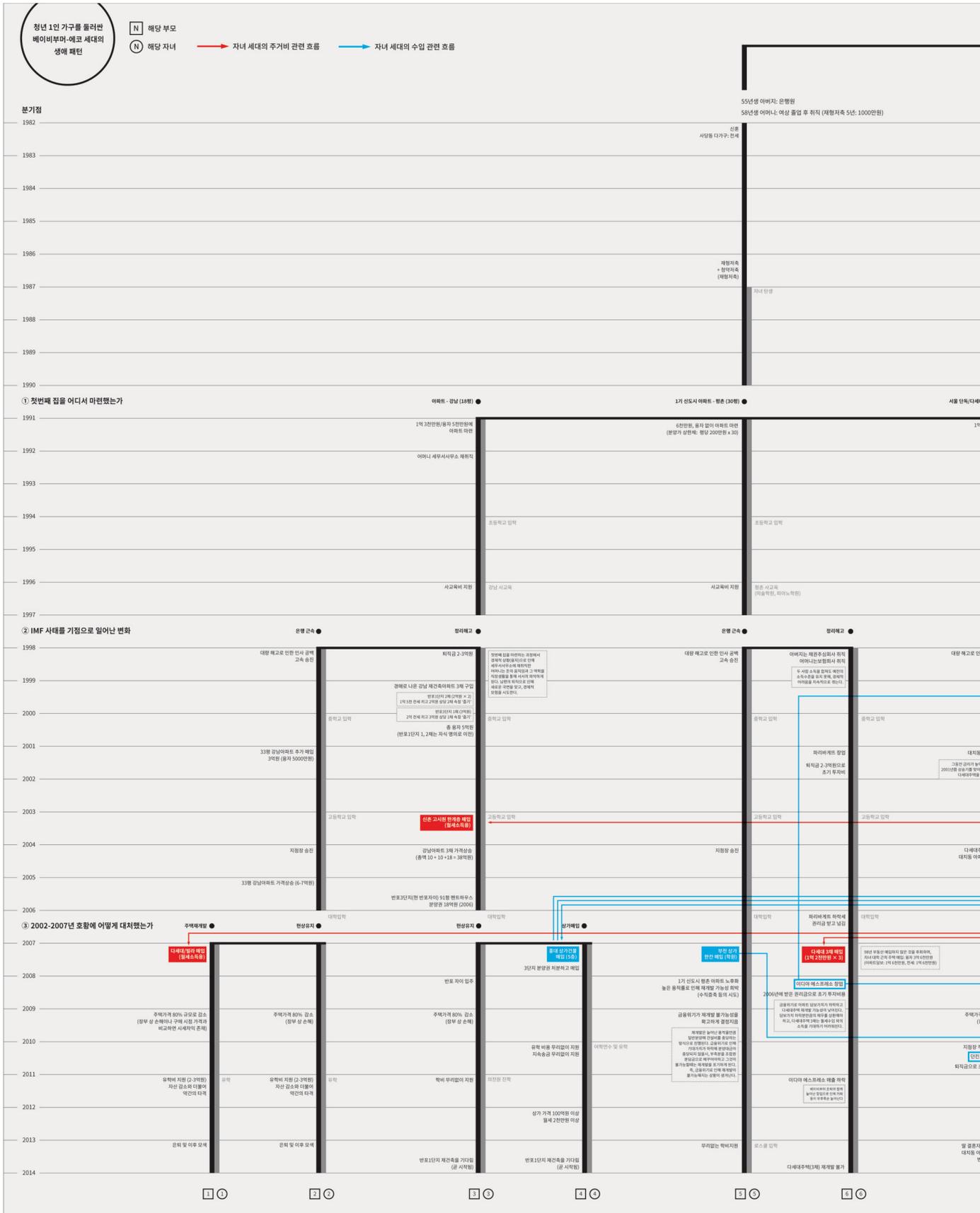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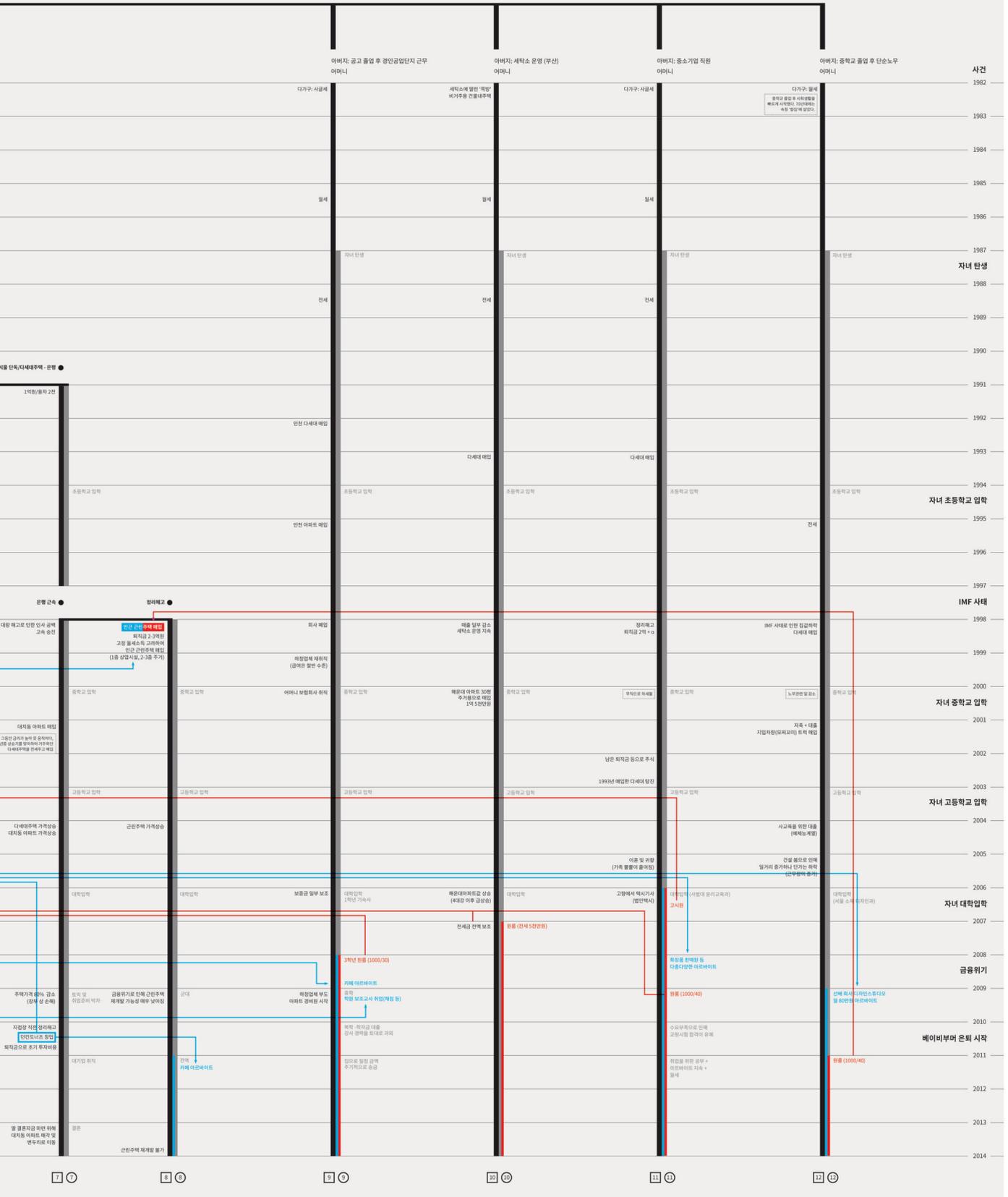


그림6-4 1인 가구의 이면 2: 구조도



(2) 1인 가구의 이면 2

화면은 좌측에서 우측 순으로 사례1~사례12의 생애 주기를 나타내고 있다. 세로축은 시간으로 1982년에서 시작해 1년 단위로 선이 그어져 있으며, 화면 최하단에 현재(2014년)가 표시되어 있다. 사례1에서 사례8까지는 하나의 줄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며, 사례9부터 사례12는 별도의 타임라인을 나타낸다.

사례1~사례8은(앞서 언급했듯이) 첫 번째 집을 마련한 장소, IMF 사태를 전후한 변화, 2002~2007년 호황 후반의 대처라는 3개의 분기점을 따라 시기별로 나뉘어 독립된 사례를 형성한다. 각 사례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1은 (장남으로 태어난) 은행원 아버지와 같은 은행에 근무했던 어머니가 첫 번째 집을 강남 아파트에 마련한 경우로, 이후 IMF 사태를 해고당하지 않고 통과했다. 2002~2007년의 호황 후반에는 주택재개발에 뛰어들었고, 이후 은퇴를 맞이하고 있다.

사례2는 사례1과 동일한 경로를 지나오지만, 2002~2007년의 호황 후반에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은퇴를 맞이하고 있는 경우이다.

사례3 역시 첫 집을 강남 아파트에 마련한 경우이지만, IMF 사태 때 정리해고 당했다. 퇴직금 및 비축된 자본을 원료로 삼아 과감하게 부동산에 투자했고,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2002~2007년의 호황 후반부에는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사례4는 사례3과 같이 정리해고 당한 가구로 부동산에 모험적으로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2002~2007년의 호황 후반부에는 상가에 투자하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경우다.

사례5는 1990년대 초 '1기 신도시 붐' 시기 평촌 아파트에 첫 번째 집을 마련한 경우로, 이후 IMF 사태를 해고당하지 않고 통과했다. 2002~2007년의 호황 후반부에는 학원 상가 한 칸을 매입했으나 큰 이문을 남기지는 않은 경우다.

사례6 역시 '1기 신도시 붐' 시기 평촌 아파트에 첫 번째 집을 마련한 경우이나, IMF 사태 때 정리해고 당했다. 베이커리와 커피전문점을 차례로 창업하고, 호황 후반부에 다세대주택을 매입하기도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채무 상환 압박이 심해지고 다세대의 재개발도 불가능해져 손해를 본 경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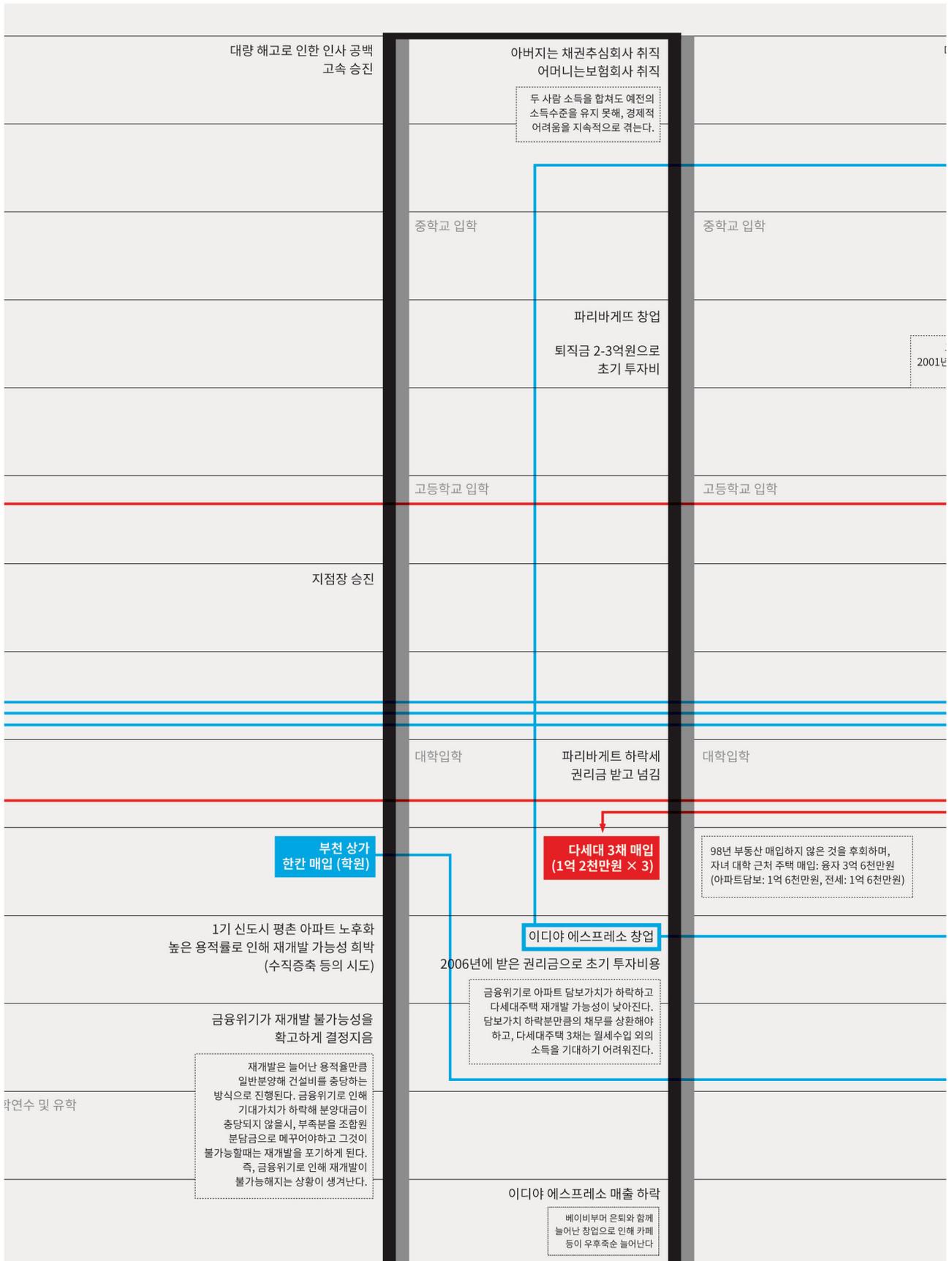


그림6-5 1인 가구의 이면 2: 구조도 (부분)

사례7은 서울 시내 일반주택으로 첫 집을 마련한 경우로, 이후 IMF 사태를 해고당하지 않고 통과했다. 이후 대치동으로 아파트를 구매해 이사하며, 2000년대 말 해고당해 도넛 전문점을 창업한다. 이후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지방으로 이동한다.

사례8 역시 서울 시내 일반주택으로 첫 집을 마련한 경우이고, IMF 사태 때 정리해고 당했다. 퇴직금으로 근린 주택을 매입했으나, 이후 금융위기로 재개발 가능성이 낮아졌다. 자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다.

사례9부터는 장남이 아닌 베이비부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이다. 공업단지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IMF 이후 근로환경이 나빠지고, 이후 대학에 진학한 자녀는 청년 1인 가구가 되어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한다. 생활고에 휴학한 자녀는 학원의 보조 강사를 하게 되고, 이후 학원 강사로 본인의 진로를 설정한다.

사례10은 세탁소를 운영하다 2000년 초 해운대에 아파트를 매입한 부모와 서울로 상경한 자녀의 이야기를 다룬다. 역시 자녀는 청년 1인 가구가 된다.

사례11은 IMF 시기 중소기업에서 정리해고 당하고, 이후 주식투자에 실패한 아버지, 그와 이혼하게 된 어머니, 그 갈등 속에 있는 자녀의 이야기이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서울에 혼자 남은 자녀는 청년 1인 가구가 된다. 대학 진학 후 고시원에 거주하는 자녀는 화장품 판매원 등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 이후 집을 원룸으로 옮기게 되고, 취직의 지연으로 인해 계속 생활고에 시달린다.

사례12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가 IMF를 기점으로 집을 마련하게 되지만, 일의 감소로 인해 트럭운전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가정의 이야기이다. 자녀는 대학에 진학하여 혼자 힘으로 학업을 이어나간다. 졸업 즈음하여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을 시작하고, 따로 나와 살게 되면서 청년 1인 가구가 된다.

이처럼 12가지 사례를 한 화면 안에 구조화하였고, 책에서 적용한 원칙과 동일하게 자녀 세대의 지출(주거비) 관련 흐름은 모두 적색으로 표시했고, 자녀 세대의 수입(아르바이트) 관련 흐름은 모두 청색으로 표시했다. 적색의 주거비 관련 흐름의 경우, 자녀의 원룸(다세대) 입주에서 화살표가 시작되어 구매한 건물로 향한다. 청색의 수입 관련 흐름은 창업점포로부터 화살표가 시작되어

□ N 해당 부모

○ N 해당 자녀

→ 자녀 세대의 주거비 관련 흐름

→ 자녀 세대의 수입 관련 흐름

그림6-6 사례별 부모와 자녀, 주거비 관련 흐름과 수입 관련 흐름의 범례

2개의 다른 방향으로 향한다. 하나는 점포가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에게 지급되는 임대료의 방향이며, 다른 하나는 점포에서 일하는 청년(1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방향이다. 그리고 번호로 분류된 사각형, 원형 테두리는 부모와 자식 사례 번호를 뜻한다. 청색과 적색 라인이 묘사하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 사례8의 자녀가 아르바이트하는 도넛 전문점은 사례7의 부모가 창업한 것이며, 해당 점포는 사례4의 부모 소유의 건물에 입주해있다.
- 사례9의 자녀가 대학 3학년 때 입주한 원룸은 사례6의 부모 소유이며, 그가 아르바이트한 커피전문점도 사례6의 부모가 창업한 것이다. 이 커피전문점이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는 사례8의 부모이다. 또한, 사례9의 자녀가 휴학 후 근무한 학원 건물은 사례5의 부모 소유이다.
- 사례10의 자녀가 대학 진학 후 거주하는 원룸은 사례1의 부모 소유이다.
- 사례11의 자녀가 대학 입학 후 거주하는 고시원은 사례3(혹은 4)의 부모 소유이다. 그가 일하는 화장품판매 점포는 사례4의 부모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해있다. 이후 고시원에서 벗어나 그가 옮긴 집은 사례1의 소유이다.
- 사례12의 자녀가 일하는 디자인 스튜디오는 사례4의 부모 소유의 건물에 입주해있다. 이후 그가 독립하면서 살게 되는 원룸은 사례8의 부모 소유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다시 한 번 시각화되었다.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그림6-7 1인 가구의 이면 3: 구조도

(3) 1인 가구의 이면 3

앞의 시각화가 가상의 이야기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었다면, 이 작업은 세분화한 경제주체들(은행, 기업, 임대인, 상가 임차인, 집주인)과 사회구성원(가계, 자녀, 청년 1인 가구)의 구조에, 가상의 이야기 구조를 병치한 것이다. 화면의 기본 구조는 거대한 원들의 중첩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들은 각각 은행, 대기업, 임대인, 상가 임차인, 가계(부모), 집주인, 청년(자녀), 청년 1인 가구, 정부(한국장학재단)의 집합을 나타낸다. 특히 은행과 정부를 제외하면 각 원은 교집합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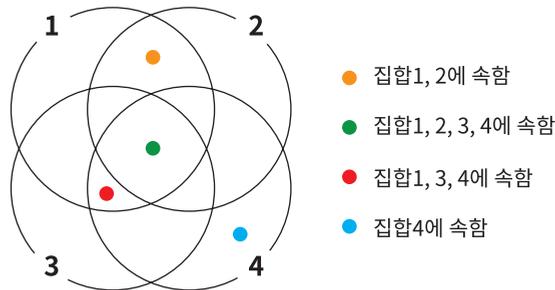


그림6-8 사례별 부모, 자녀를 배치하는 방식

작업은 시각적 복잡도가 높지만, 기본 구조는 간단하다. 앞서 작업된 구조도에서(사각형, 원형 테두리가 붙은) 자녀와 부모 사례는 원소로 활용되어, 큰 원들의 영역 위에 배치된다. 위의 설명 그림과 같이, 각 원이 만들어내는 공간 중 어느 영역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각 자녀/부모의 속성이 결정된다. 이를테면 사례8의 부모는 가계(부모)이자, 임대인이자, 집주인에 속하지만, 사례11의 부모는 가계(부모) 영역에만 속해있다.

각 행위자(원소) 사이의 역학관계는 앞서 적용한 청색 라인과 적색 라인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단, 점포에서 건물주로 흘러가는 임대료는 청년 1인 가구와 직접 연결되는 흐름이 아니라(청년의 아르바이트로 인해 발생한 영업이익 일부가 흘러가는) 간접적인 것이므로, 별도의 색상인 황색으로 라인을 지정했다.

부록2: 첨부 자료

(단위: 가구수)

		1인 가구 수			2인 이상 가구 수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종로구	방1	247	3043	240	2712	19210	2233
	방2	5	324	125	1090	13550	3462
	방3	0	124	32	397	8384	949
	방4	1	54	1	181	4384	110
	방5	0	29	1	111	3464	19
중구	방1	342	2394	179	3340	18845	586
	방2	3	161	139	1376	12611	1562
	방3	2	68	52	489	5950	698
	방4	1	10	3	161	2100	118
	방5	0	11	0	103	1372	1
용산구	방1	644	4898	336	2401	21735	1006
	방2	48	476	173	1086	16341	4347
	방3	14	166	251	366	8207	3488
	방4	4	56	147	137	2739	1748
	방5	2	23	91	78	1921	1181
성동구	방1	50	5311	36	4497	66056	308
	방2	3	592	40	1332	35339	903
	방3	0	236	14	534	20337	476
	방4	0	58	8	189	7422	114
	방5	0	33	13	98	3772	967
광진구	방1						
	방2						
	방3						
	방4						
	방5						
동대문구	방1	115	6131	128	6163	75522	663
	방2	5	437	138	1971	46893	4630
	방3	0	184	49	768	26374	1625
	방4	0	42	20	278	8754	619
	방5	0	19	5	137	3149	578
중랑구	방1						
	방2						
	방3						
	방4						
	방5						
성북구	방1	34	5260	48	2365	52052	260
	방2	0	406	116	901	34551	1698
	방3	0	165	21	329	18282	573
	방4	0	42	4	114	7445	116
	방5	0	25	2	76	4208	52
강북구	방1						
	방2						
	방3						
	방4						
	방5						
도봉구	방1	84	4751	75	4250	65475	254
	방2	3	388	76	1556	41182	2551
	방3	0	177	13	548	24219	744
	방4	0	61	0	188	10326	45
	방5	0	21	1	123	5235	166
노원구	방1						
	방2						
	방3						
	방4						
	방5						
은평구	방1	58	1886	21	3059	25400	103
	방2	5	241	26	1111	20495	833
	방3	1	146	3	389	17087	95
	방4	0	29	0	114	6615	18
	방5	0	17	0	77	3052	0
서대문구	방1	35	2715	254	2637	30252	2245
	방2	1	300	167	1001	22732	4758
	방3	1	164	37	428	12966	1022
	방4	0	34	3	162	4202	188
	방5	1	23	0	62	3144	15

(단위: 가구수)

		1인 가구 수			2인 이상 가구 수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마포구	방1	61	4151	108	2411	36296	400
	방2	4	273	126	789	23302	1416
	방3	0	126	30	247	14364	771
	방4	0	29	14	82	5721	630
	방5	0	22	4	35	4168	149
양천구	방1						
	방2						
	방3						
	방4						
	방5						
강서구	방1	37	2876	107	3152	40895	373
	방2	1	208	105	1024	25820	3021
	방3	0	136	80	377	16998	2911
	방4	0	59	30	140	6972	1479
	방5	0	27	10	95	3984	1157
구로구	방1	44	4307	64	2539	56040	493
	방2	4	296	61	983	29944	3418
	방3	0	99	73	374	14991	4400
	방4	0	21	13	127	4240	1113
	방5	0	9	0	84	1481	2
금천구	방1						
	방2						
	방3						
	방4						
	방5						
영등포구	방1	145	3120	114	2956	40774	404
	방2	10	120	178	1055	20968	2926
	방3	1	41	199	377	8465	4639
	방4	0	7	39	85	1846	2505
	방5	0	2	30	67	675	2829
동작구	방1	48	2577	60	2590	31485	294
	방2	2	222	56	916	22169	1572
	방3	0	65	27	353	13055	1304
	방4	1	13	9	80	4645	491
	방5	0	5	0	45	2483	59
관악구	방1	89	2787	76	2597	42129	272
	방2	1	231	32	912	33383	1220
	방3	0	69	27	368	15988	1812
	방4	0	17	7	101	4119	302
	방5	0	2	0	43	1556	0
서초구	방1						
	방2						
	방3						
	방4						
	방5						
강남구	방1	119	1037	635	2045	14102	1436
	방2	4	176	431	711	10132	7817
	방3	1	129	679	223	9092	15009
	방4	0	64	528	102	5017	18342
	방5	0	54	210	75	5765	11447
송파구	방1						
	방2						
	방3						
	방4						
	방5						
강동구	방1	57	2097	1135	1634	33020	3270
	방2	1	169	483	493	20586	11218
	방3	0	68	379	201	11148	15352
	방4	0	13	96	49	2290	7206
	방5	0	1	41	35	649	3834

1980년 1인 가구 수와 주택유형 및 방의 개수와
2인 이상 가구 수와 주택유형 및 방의 개수.

(단위: 가구수)

		1인 가구 수			2인 이상 가구 수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종로구	방1	752	5150	239	2045	19822	1617
	방2	49	444	105	900	15040	3224
	방3	5	115	27	371	8152	918
	방4	3	56	13	126	3681	275
	방5	2	30	2	38	2273	35
중구	방1	985	4209	212	2568	17468	454
	방2	60	365	93	1296	12581	1362
	방3	14	77	56	495	5913	753
	방4	5	29	17	147	1981	226
	방5	3	16	8	64	1103	100
용산구	방1	644	4898	336	2282	22429	930
	방2	48	476	173	1105	17617	2847
	방3	14	166	251	438	9232	3661
	방4	4	56	147	162	3656	3026
	방5	2	23	91	75	1969	2239
성동구	방1	1157	9904	130	6270	72461	278
	방2	61	515	40	2486	42518	1162
	방3	10	107	40	932	23362	1217
	방4	2	48	13	383	9226	744
	방5	2	19	34	233	5316	1256
광진구	방1						
	방2						
	방3						
	방4						
	방5						
동대문구	방1	1174	11936	208	6827	87804	495
	방2	60	606	136	2524	53886	4386
	방3	16	199	65	1083	31909	1819
	방4	4	75	52	490	11765	2160
	방5	4	21	8	213	5058	525
중랑구	방1						
	방2						
	방3						
	방4						
	방5						
성북구	방1	486	8580	111	2746	52897	368
	방2	39	537	62	1212	39041	1614
	방3	6	156	27	563	19630	982
	방4	3	40	3	184	6825	140
	방5	2	20	0	104	3718	102
강북구	방1						
	방2						
	방3						
	방4						
	방5						
도봉구	방1	871	9734	153	4798	72195	358
	방2	50	633	114	1936	51499	3653
	방3	5	239	54	810	30576	1770
	방4	2	77	25	339	12199	1539
	방5	1	16	9	202	6285	492
노원구	방1						
	방2						
	방3						
	방4						
	방5						
은평구	방1	464	3792	67	3416	29448	202
	방2	20	318	17	1663	26422	808
	방3	9	148	25	627	19475	1069
	방4	2	38	4	215	6891	45
	방5	1	18	0	128	4706	0
서대문구	방1	571	5584	317	2340	29733	1695
	방2	22	374	148	1111	23386	4056
	방3	6	105	62	514	13857	1697
	방4	6	32	24	177	5444	813
	방5	1	21	11	119	3566	358

(단위: 가구수)

		1인 가구 수			2인 이상 가구 수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마포구	방1	451	6990	250	2064	38481	414
	방2	26	465	140	867	27086	1435
	방3	7	145	94	400	16532	1493
	방4	3	35	17	150	5773	644
	방5	2	13	6	62	3846	330
양천구	방1						
	방2						
	방3						
	방4						
	방5						
강서구	방1	733	7277	395	5295	52229	917
	방2	37	416	174	1916	38486	5048
	방3	12	221	80	776	26668	4023
	방4	5	81	18	299	10845	1722
	방5	2	17	4	159	4828	499
구로구	방1	639	10588	516	3493	71972	1033
	방2	28	331	101	1249	39327	4068
	방3	5	86	107	515	19065	5296
	방4	4	18	49	132	4478	3585
	방5	0	2	6	52	1308	339
금천구	방1						
	방2						
	방3						
	방4						
	방5						
영등포구	방1	740	6343	247	2960	40729	525
	방2	51	219	109	1272	21657	2421
	방3	8	48	214	554	10494	5056
	방4	3	15	152	168	3146	5235
	방5	2	7	72	120	1179	5019
동작구	방1	460	4992	229	2628	33658	552
	방2	27	313	44	1225	25152	1742
	방3	8	77	55	571	14377	2077
	방4	1	27	6	182	4737	373
	방5	0	13	9	95	2872	591
관악구	방1	604	5741	188	3868	44268	416
	방2	34	395	30	1537	36563	1112
	방3	8	112	20	681	19746	1932
	방4	3	35	23	289	7043	1407
	방5	3	20	3	185	4032	130
서초구	방1						
	방2						
	방3						
	방4						
	방5						
강남구	방1	739	3186	2046	3528	19728	2576
	방2	67	382	1192	1574	17510	14687
	방3	9	191	1618	540	15382	28657
	방4	9	65	578	248	7500	20994
	방5	2	39	386	174	7540	28000
송파구	방1						
	방2						
	방3						
	방4						
	방5						
강동구	방1	844	5109	3007	4961	45410	5526
	방2	34	359	854	1708	32698	14824
	방3	11	114	1061	670	18502	37154
	방4	1	34	340	250	5245	22492
	방5	0	9	123	118	2351	11201

1985년 1인 가구 수와 주택유형 및 방의 개수와
2인 이상 가구 수와 주택유형 및 방의 개수.

(단위: 가구수)		1인 가구 수			2인 이상 가구 수			(단위: 가구수)		1인 가구 수			2인 이상 가구 수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종로구	방1	712	6154	303	1448	15363	1113	마포구	방1	747	7580	341	2170	27175	377
	방2	57	718	138	1005	15683	2840		방2	29	849	98	900	28110	1029
	방3	16	317	46	389	9711	899		방3	16	413	96	533	21094	1631
	방4	10	103	28	119	4210	491		방4	4	108	282	259	9147	4669
	방5	4	62	3	88	4171	91		방5	1	39	26	247	6378	1256
중구	방1	1153	5227	206	1634	14574	476	양천구	방1	382	6976	810	1550	23582	1161
	방2	121	498	105	1296	12870	1006		방2	39	647	141	927	22403	1826
	방3	22	170	94	540	6841	1085		방3	6	373	336	432	20625	7934
	방4	4	42	20	148	2449	412		방4	4	181	339	180	11556	10999
	방5	3	24	9	100	1404	694		방5	1	20	110	112	3733	11392
용산구	방1	610	6057	389	1028	16885	527	강서구	방1	583	7157	465	1906	22000	834
	방2	69	1054	288	735	19528	2044		방2	59	841	115	1174	21795	1749
	방3	16	431	260	333	12719	3102		방3	11	434	195	571	19809	5156
	방4	3	121	157	114	4946	1809		방4	7	155	40	202	10349	2530
	방5	2	45	115	94	3111	5111		방5	1	48	12	180	6267	1081
성동구	방1	865	16420	383	3106	64578	492	구로구	방1	722	17978	794	2191	65372	1113
	방2	75	1286	53	1815	52015	574		방2	57	932	182	1350	42573	3154
	방3	28	455	166	948	33278	2223		방3	20	338	219	552	26324	6280
	방4	8	133	273	351	13798	5307		방4	6	160	186	226	13990	9541
	방5	4	67	116	288	9582	4850		방5	1	34	47	169	7564	3535
광진구	방1							금천구	방1						
	방2								방2						
	방3								방3						
	방4								방4						
	방5								방5						
동대문구	방1	697	10354	279	2731	38431	495	영등포구	방1	454	8608	441	1637	33857	737
	방2	37	735	83	1841	32774	1225		방2	39	662	77	998	26748	1462
	방3	14	241	160	822	20249	4307		방3	15	186	270	536	14650	5416
	방4	8	55	85	426	8747	2847		방4	4	54	262	186	6019	9333
	방5	4	31	30	251	4465	1319		방5	1	12	112	128	2879	9094
중랑구	방1	519	7893	117	2200	33911	251	동작구	방1	384	7999	352	1217	23456	382
	방2	52	657	81	1246	30352	408		방2	46	979	51	1045	25788	819
	방3	25	287	93	749	20250	1516		방3	15	401	87	522	19306	2329
	방4	7	107	40	334	10106	1682		방4	6	107	100	219	9742	2376
	방5	3	28	9	167	4728	353		방5	1	41	96	145	6534	3608
성북구	방1	658	13452	140	1879	41123	354	관악구	방1	476	8324	221	1964	35639	256
	방2	50	1304	47	1341	40327	1050		방2	66	1038	33	1328	40364	639
	방3	15	441	79	724	24373	1265		방3	19	371	74	707	26179	2262
	방4	6	142	18	272	10132	479		방4	3	113	36	331	13222	2110
	방5	1	55	3	196	6878	150		방5	9	50	4	299	10056	588
강북구	방1							서초구	방1	907	3536	574	2657	8363	596
	방2								방2	126	786	389	2112	11757	1467
	방3								방3	26	275	1044	830	10768	6077
	방4								방4	10	112	467	355	6100	11009
	방5								방5	4	56	432	281	7341	24469
도봉구	방1	693	9952	215	2604	39133	287	강남구	방1	1150	3846	2332	4202	7349	1726
	방2	60	1073	130	1678	39247	892		방2	81	789	950	1222	10006	8177
	방3	17	499	479	872	30628	7860		방3	42	378	995	766	9537	14990
	방4	4	184	240	422	15702	9895		방4	11	144	476	382	6102	17906
	방5	4	46	47	351	9283	3036		방5	5	84	342	335	9260	25141
노원구	방1	250	4390	820	1070	18298	735	송파구	방1	874	5444	1978	3083	20143	1661
	방2	16	369	900	626	16337	8095		방2	127	799	924	2458	24201	4078
	방3	5	127	1249	268	9904	29218		방3	47	350	1363	1446	18013	23144
	방4	1	41	562	131	5299	20166		방4	12	138	475	742	8826	18719
	방5	0	10	89	76	2150	6112		방5	3	48	223	623	6069	21882
은평구	방1	498	6200	149	2330	22185	218	강동구	방1	589	5954	1237	2420	23756	1434
	방2	57	917	36	1877	27511	634		방2	125	891	493	1819	25871	6554
	방3	15	534	23	874	26861	657		방3	39	286	575	958	17377	14023
	방4	4	148	67	402	13827	1989		방4	4	113	268	438	8632	15683
	방5	2	61	24	281	9627	1249		방5	3	32	67	314	5398	5646
서대문구	방1	635	8201	475	1613	21551	1880								
	방2	62	963	178	1211	22895	3502								
	방3	13	390	90	640	16847	1813								
	방4	8	152	114	279	8866	2230								
	방5	3	57	32	217	6969	1156								

1990년 1인 가구 수와 주택유형 및 방의 개수와
2인 이상 가구 수와 주택유형 및 방의 개수.

(단위: 가구수)

		1인 가구 수			2인 이상 가구 수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종로구	방1	1093	5984	356	792	4437	354
	방2	248	2274	181	874	9867	1243
	방3	42	780	273	609	10923	2420
	방4	29	411	83	379	8295	1697
	방5	11	194	11	162	4902	356
중구	방1	1776	5626	194	1063	4210	119
	방2	248	1553	82	1171	8334	367
	방3	53	465	237	735	8378	1436
	방4	15	158	72	312	4419	893
	방5	13	46	19	115	1455	396
용산구	방1	802	6412	191	710	5569	133
	방2	173	2850	126	872	13259	506
	방3	64	1376	167	714	17351	1424
	방4	16	362	292	389	10318	3539
	방5	8	84	369	175	3519	4713
성동구	방1	640	8318	52	869	9687	30
	방2	199	3272	15	1111	19464	82
	방3	55	761	171	1059	23803	1797
	방4	8	242	324	617	14090	6594
	방5	3	50	93	209	2663	2205
광진구	방1	542	8587	202	921	10414	309
	방2	181	3618	22	1259	19843	278
	방3	50	942	100	1317	26016	1513
	방4	17	286	184	784	17938	8366
	방5	10	70	62	441	6781	1206
동대문구	방1	1166	11599	54	1398	11988	38
	방2	203	3873	31	1705	22662	385
	방3	57	974	519	1445	26801	4917
	방4	22	317	261	1036	19050	5666
	방5	12	63	29	511	5535	1328
중랑구	방1	543	7554	95	1077	9480	43
	방2	150	3965	88	1312	23335	159
	방3	62	1164	129	1574	33021	2298
	방4	17	368	207	1246	23288	8523
	방5	4	50	14	428	5046	910
성북구	방1	862	12811	99	924	12136	74
	방2	240	5093	94	1318	27698	472
	방3	70	1601	205	1164	36478	2107
	방4	26	563	146	818	24435	3657
	방5	3	126	38	390	9026	1508
강북구	방1	543	6417	34	676	7218	21
	방2	160	3475	5	951	18564	487
	방3	49	1295	194	964	29534	6191
	방4	22	439	70	715	22268	2988
	방5	5	72	9	350	6680	624
도봉구	방1	237	3185	490	401	3772	297
	방2	106	1564	273	1674	8798	915
	방3	23	769	856	612	18591	11093
	방4	12	272	492	548	15379	23202
	방5	1	35	31	255	3663	1376
노원구	방1	163	3182	509	403	4196	283
	방2	74	1325	1192	600	8868	8299
	방3	15	433	3299	580	12720	54830
	방4	2	153	928	451	11244	37486
	방5	2	23	78	138	2161	4678
은평구	방1	932	6243	31	1138	6474	47
	방2	252	3173	32	1551	16936	72
	방3	72	2782	103	1247	40239	1611
	방4	25	979	119	1031	36547	4660
	방5	10	139	15	445	10426	486
서대문구	방1	678	7015	296	680	5340	203
	방2	170	3377	194	836	14257	1519
	방3	73	1630	286	799	25268	2888
	방4	17	602	400	599	19748	7869
	방5	7	118	43	276	7145	2120

(단위: 가구수)

		1인 가구 수			2인 이상 가구 수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마포구	방1	1159	8156	122	1147	7276	48
	방2	176	3513	40	877	16930	179
	방3	74	1686	325	1014	27361	4743
	방4	19	583	365	783	22173	5928
	방5	10	110	70	413	7357	1585
양천구	방1	406	5321	125	661	5062	140
	방2	143	2767	48	1056	12989	296
	방3	53	1177	690	903	26111	11933
	방4	14	557	356	782	26632	15976
	방5	4	36	118	271	3773	8803
강서구	방1	494	5259	294	907	5406	198
	방2	157	2861	315	1158	13395	5030
	방3	52	1319	1258	1096	27631	23034
	방4	12	471	411	888	23895	16648
	방5	8	57	40	383	6493	2935
구로구	방1	657	10310	298	731	10732	128
	방2	142	2812	107	795	16380	466
	방3	19	847	150	916	22645	3739
	방4	8	248	298	490	16189	13577
	방5	3	33	15	201	3795	850
금천구	방1	440	11629	115	553	13513	103
	방2	102	2081	32	621	15780	307
	방3	18	447	245	537	15826	4995
	방4	10	172	89	331	11868	3989
	방5	2	36	2	165	3164	304
영등포구	방1	1338	13269	353	956	12271	149
	방2	370	4672	97	1304	20298	452
	방3	73	1049	532	1094	24470	6326
	방4	17	212	581	622	13004	14535
	방5	5	28	228	270	3185	6417
동작구	방1	607	8057	305	721	7272	126
	방2	190	4227	48	995	17405	307
	방3	52	1336	338	874	28782	4901
	방4	23	414	421	714	21812	10019
	방5	3	101	154	333	7491	5234
관악구	방1	908	12317	259	963	11194	76
	방2	236	5820	85	1145	29907	595
	방3	64	1693	163	1181	39434	3092
	방4	22	551	203	882	29962	7503
	방5	5	111	34	485	9178	1577
서초구	방1	1417	4004	305	1098	3053	351
	방2	451	2181	243	1843	7784	1581
	방3	138	937	1547	1518	12492	5769
	방4	40	349	1421	881	11584	23632
	방5	11	136	402	562	7985	16655
강남구	방1	1654	5293	1228	1682	3341	734
	방2	477	2972	1148	1563	7828	5952
	방3	182	1188	2795	1329	12103	23635
	방4	37	355	1553	1073	10892	35640
	방5	10	133	486	684	8821	19783
송파구	방1	1082	5070	631	1645	5531	319
	방2	518	3907	939	2784	16089	1393
	방3	150	1116	2244	3312	27030	24714
	방4	38	415	822	2125	21156	29387
	방5	13	61	319	1042	6602	18236
강동구	방1	1080	6439	351	1363	7663	159
	방2	274	3509	285	1893	19275	859
	방3	83	800	996	2015	24696	16224
	방4	23	303	391	1243	17244	21021
	방5	6	60	49	563	5266	3390

1995년 1인 가구 수와 주택유형 및 방의 개수와
2인 이상 가구 수와 주택유형 및 방의 개수.

(단위: 가구수)

		1인 가구 수			2인 이상 가구 수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종로구	방1	1259	5341	29	423	2246	24
	방2	244	2368	211	403	3878	149
	방3	147	1546	434	670	10035	2419
	방4	43	640	166	569	11163	3126
	방5	15	326	15	342	7386	667
중구	방1	1395	3405	43	588	1442	32
	방2	349	2001	101	585	2842	97
	방3	150	1107	822	862	7651	3864
	방4	41	341	383	655	6925	3667
	방5	9	111	95	384	2653	1861
용산구	방1	605	4357	43	365	2050	14
	방2	204	3814	166	407	4858	103
	방3	117	3121	432	751	16616	2192
	방4	36	753	842	602	14083	6946
	방5	15	212	516	316	5150	5295
성동구	방1	915	5577	22	471	3078	12
	방2	306	5531	254	555	7000	958
	방3	115	2321	587	1305	23591	4837
	방4	26	521	705	1041	17710	14655
	방5	9	89	227	500	4285	5082
광진구	방1	724	9414	14	426	4552	13
	방2	460	7001	172	606	8414	388
	방3	157	3097	260	1652	30038	3180
	방4	52	657	437	1352	22575	13707
	방5	35	204	27	878	9890	1824
동대문구	방1	2018	10121	34	671	4495	27
	방2	566	7717	90	852	8371	342
	방3	221	3196	855	1736	25897	5925
	방4	60	789	492	1606	22230	10817
	방5	35	201	103	873	7720	3590
중랑구	방1	411	5848	26	361	3366	23
	방2	268	6562	260	628	10200	311
	방3	125	3276	1108	1506	34344	10495
	방4	47	647	340	1561	26382	14623
	방5	12	141	44	761	7556	3737
성북구	방1	1017	9335	132	632	4984	113
	방2	432	6880	217	828	11049	370
	방3	173	3705	732	1618	33734	5859
	방4	56	990	499	1357	30934	11168
	방5	24	281	103	733	11520	4281
강북구	방1	428	3520	5	316	2021	7
	방2	225	4940	51	470	6375	35
	방3	134	2856	600	1292	27931	5672
	방4	30	877	173	1338	28118	5818
	방5	16	169	25	748	8607	877
도봉구	방1	181	2505	63	176	1380	39
	방2	101	2463	998	254	3684	2894
	방3	56	1832	1429	655	18113	14601
	방4	19	527	534	767	17531	25183
	방5	14	81	23	483	5118	2118
노원구	방1	191	2470	85	192	1466	87
	방2	114	1764	3430	343	3669	5404
	방3	71	1146	6708	745	11659	69881
	방4	24	374	1060	790	12616	43866
	방5	8	59	117	366	3041	8096
은평구	방1	570	4189	46	415	1935	35
	방2	361	4327	44	564	5289	56
	방3	176	5368	211	1449	34508	2380
	방4	71	1843	215	1715	43366	6683
	방5	28	363	12	1017	15709	1026
서대문구	방1	712	5918	77	284	2139	42
	방2	405	4393	365	477	4856	1008
	방3	153	3593	807	951	22572	5389
	방4	45	1075	722	876	24363	13122
	방5	17	283	133	559	10333	4388

(단위: 가구수)

		1인 가구 수			2인 이상 가구 수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마포구	방1	1599	8266	24	467	3175	15
	방2	410	5689	163	543	6001	323
	방3	209	3997	1131	1009	25079	8523
	방4	60	1245	601	1173	26464	10434
	방5	30	250	80	838	9503	3331
양천구	방1	528	4425	33	398	1989	35
	방2	278	4107	246	450	5913	326
	방3	113	3036	1960	1093	23688	20971
	방4	35	977	423	1210	29181	19223
	방5	11	105	149	583	5015	9815
강서구	방1	1411	4503	39	674	2061	71
	방2	478	4202	1019	623	5591	3083
	방3	169	3266	4264	1333	25611	28587
	방4	60	983	516	1397	27896	21778
	방5	14	183	51	886	9632	4108
구로구	방1	971	10024	384	561	4882	198
	방2	334	4520	225	672	7711	461
	방3	111	2305	780	962	22566	8245
	방4	29	780	603	781	21752	23508
	방5	16	129	63	436	5435	3350
금천구	방1	520	11327	18	382	6970	18
	방2	86	2215	118	329	8557	621
	방3	38	1127	562	610	16706	4938
	방4	29	344	205	537	14017	8800
	방5	9	86	22	347	4606	1505
영등포구	방1	1089	9326	58	471	4845	22
	방2	400	6037	551	667	8873	632
	방3	146	2301	911	1501	24012	7749
	방4	53	466	933	1286	16079	22213
	방5	17	76	340	675	4884	7689
동작구	방1	593	8501	15	280	2709	17
	방2	300	6296	86	495	7360	114
	방3	136	3233	796	985	27609	7209
	방4	42	916	498	979	26122	12348
	방5	19	233	169	678	10982	6943
관악구	방1	1698	11418	22	605	4356	17
	방2	375	8455	241	610	11795	483
	방3	172	4362	777	1417	38631	6923
	방4	53	1042	314	1384	35508	10409
	방5	21	259	47	994	13657	3003
서초구	방1	1427	5659	66	521	2015	48
	방2	483	3800	377	742	3545	315
	방3	210	2244	2421	1334	11990	7828
	방4	67	671	1884	1243	12821	24234
	방5	36	367	492	1139	11480	16791
강남구	방1	2713	10342	219	1155	3531	177
	방2	532	5326	2044	756	4679	2839
	방3	206	3263	5820	1196	13126	27474
	방4	70	809	2126	1100	12921	34051
	방5	50	362	785	1210	10794	21400
송파구	방1	1111	7466	245	752	4021	126
	방2	681	5825	1253	1057	9825	1064
	방3	264	2989	4181	2552	28574	28736
	방4	69	697	1238	2081	24944	34967
	방5	26	146	415	1424	9027	17287
강동구	방1	1291	5998	13	667	3370	17
	방2	323	6119	421	828	9868	576
	방3	145	2400	1911	1655	26307	17452
	방4	46	498	777	1326	19761	28087
	방5	22	125	75	941	8043	4654

2000년 1인 가구 수와 주택유형 및 방의 개수와
2인 이상 가구 수와 주택유형 및 방의 개수.

(단위: 가구수)

		1인 가구 수			2인 이상 가구 수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종로구	방1	1626	4064	170	312	833	74
	방2	359	3328	56	203	2064	41
	방3	78	2301	370	279	8842	1451
	방4	39	1079	370	306	12140	3462
	방5	17	594	141	242	8143	1550
중구	방1	2105	2338	55	159	577	23
	방2	790	2974	130	181	1962	83
	방3	311	1840	1071	400	7781	4271
	방4	43	565	627	290	7944	4583
	방5	9	122	148	145	2605	2493
용산구	방1	959	3236	146	230	764	44
	방2	255	4232	101	167	2340	46
	방3	53	4735	614	204	14516	1843
	방4	29	1487	1246	215	15694	8334
	방5	10	356	759	143	5021	8346
성동구	방1	1576	2912	19	385	762	9
	방2	596	7893	235	295	4127	595
	방3	97	4718	1445	464	21545	6385
	방4	30	1124	1858	435	18391	22034
	방5	11	170	477	204	3699	8994
광진구	방1	1263	6481	12	360	1830	7
	방2	270	10426	31	168	4840	37
	방3	129	6468	340	572	29627	2576
	방4	47	1411	769	700	30579	16973
	방5	18	188	122	367	6209	3025
동대문구	방1	3033	7028	48	493	1455	23
	방2	879	10965	100	387	5133	306
	방3	157	5819	1098	690	24096	5232
	방4	54	1542	1364	733	23089	21563
	방5	25	286	312	361	6475	8467
중랑구	방1	783	1699	4	234	542	3
	방2	339	10175	857	177	4474	2516
	방3	196	7742	976	847	33069	6650
	방4	57	1643	875	934	32284	21423
	방5	7	168	101	373	4903	3856
성북구	방1	1023	5936	16	267	1284	8
	방2	406	8329	57	175	4422	330
	방3	131	6164	1261	504	25313	5887
	방4	45	2236	1636	634	33422	24267
	방5	23	626	389	455	11917	9731
강북구	방1	640	1456	3	122	486	1
	방2	160	6165	544	114	3046	2570
	방3	61	6317	990	322	23791	4641
	방4	25	2242	635	520	34219	12244
	방5	15	313	95	273	7761	2948
도봉구	방1	422	1010	132	110	326	33
	방2	177	3141	599	107	1521	970
	방3	54	4251	3022	266	16209	14602
	방4	26	1414	1360	490	22110	35234
	방5	10	145	127	173	3737	4714
노원구	방1	799	1235	371	255	414	200
	방2	149	2544	3361	137	1471	6607
	방3	89	2535	11305	370	10324	62991
	방4	31	859	2043	567	13746	54438
	방5	6	132	242	186	3063	10872
은평구	방1	1072	1187	11	299	319	6
	방2	556	4937	12	257	2295	22
	방3	102	9742	325	492	31168	2016
	방4	56	4123	691	841	55538	12363
	방5	22	516	109	454	12571	3375
서대문구	방1	1407	5860	29	284	1127	24
	방2	727	6719	443	198	3023	859
	방3	127	6395	1122	375	21207	4287
	방4	33	2110	1133	441	28326	16411
	방5	18	445	196	312	9173	5055

(단위: 가구수)

		1인 가구 수			2인 이상 가구 수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마포구	방1	3464	7755	252	549	1455	141
	방2	601	7979	386	259	3568	480
	방3	170	6857	1804	429	21425	8138
	방4	102	2394	1767	663	28077	21096
	방5	30	452	249	442	8360	5698
양천구	방1	1115	1215	68	345	340	50
	방2	277	4814	51	142	2206	99
	방3	182	5851	3055	839	20566	20534
	방4	114	1959	1140	1604	31248	31918
	방5	24	161	318	615	3651	13760
강서구	방1	3373	2443	76	653	524	34
	방2	999	5496	1333	378	2323	4711
	방3	309	6933	4906	844	23623	18119
	방4	72	2738	1946	884	40385	38525
	방5	23	279	237	409	6493	8977
구로구	방1	2022	4091	91	520	1116	55
	방2	662	7171	227	393	4158	286
	방3	223	4429	802	777	21123	5468
	방4	54	1514	1726	642	25716	37088
	방5	9	216	169	220	4828	6909
금천구	방1	560	5307	5	122	1652	3
	방2	207	6070	26	93	3825	41
	방3	67	2978	1290	195	16301	6657
	방4	20	915	513	249	17332	12622
	방5	10	127	106	179	4297	3402
영등포구	방1	3106	4017	385	543	1301	248
	방2	622	9852	256	347	5492	275
	방3	321	5109	1173	1100	22981	6909
	방4	148	1054	1819	1664	18469	31174
	방5	14	198	550	292	4450	11740
동작구	방1	1054	7131	32	96	1379	10
	방2	208	8309	181	111	4344	999
	방3	73	6047	1182	316	24689	6200
	방4	31	1815	1289	395	31666	21002
	방5	8	273	435	229	7281	10078
관악구	방1	8999	27776	55	1181	2421	23
	방2	1055	12600	261	358	5446	1470
	방3	128	8768	2013	643	34576	8383
	방4	57	2413	1239	788	40450	22056
	방5	31	424	239	504	11102	7329
서초구	방1	1876	4324	423	405	1093	145
	방2	856	5625	1343	429	3085	936
	방3	191	2869	1649	784	11008	4864
	방4	58	1050	1934	940	12876	20827
	방5	27	564	1560	711	12178	30303
강남구	방1	4107	12655	1591	1025	3024	347
	방2	1240	11581	3238	632	4563	5574
	방3	517	5006	3874	1074	13564	15955
	방4	194	1291	2889	1064	12455	34110
	방5	86	591	1685	1053	10243	30792
송파구	방1	1026	5487	251	309	1670	143
	방2	635	10481	880	405	6490	1112
	방3	253	6527	2187	1080	31843	11881
	방4	62	1543	1515	1137	33349	32151
	방5	15	214	896	679	7878	24901
강동구	방1	2057	2234	96	550	790	34
	방2	249	8842	1053	280	5814	2458
	방3	149	4790	1316	797	26365	11069
	방4	41	1049	1396	783	23859	34075
	방5	11	156	147	369	5610	6490

2005년 1인 가구 수와 주택유형 및 방의 개수와
2인 이상 가구 수와 주택유형 및 방의 개수.

(단위: 가구수)

		1인 가구 수			2인 이상 가구 수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종로구	방1	2862	5196	118	459	953	54
	방2	383	3154	136	211	2061	56
	방3	119	2690	366	233	7699	931
	방4	45	1439	592	256	10889	4777
	방5	22	729	305	181	7623	3268
중구	방1	1935	2311	12	222	491	5
	방2	419	3054	52	155	1592	36
	방3	319	1919	397	407	5960	855
	방4	109	653	1591	288	6327	5461
	방5	41	148	949	118	2269	7561
용산구	방1	2882	4176	103	445	873	40
	방2	726	4896	362	322	2812	134
	방3	176	5589	691	292	12685	1472
	방4	80	2050	2070	313	14256	10951
	방5	20	642	1383	140	5336	10553
성동구	방1	2385	6016	31	381	1228	6
	방2	421	6419	266	246	4003	254
	방3	162	4202	1892	446	14656	5716
	방4	40	1310	2788	379	14185	23661
	방5	11	231	867	197	3716	10999
광진구	방1	2171	12149	24	473	2576	16
	방2	391	9903	32	237	6886	16
	방3	164	6866	395	686	24031	1895
	방4	77	2193	1234	750	26891	17645
	방5	27	395	390	390	8244	6321
동대문구	방1	3483	10673	142	564	1577	41
	방2	593	8923	314	233	4774	156
	방3	161	5738	1469	467	17490	4334
	방4	73	1782	2402	582	17904	24933
	방5	18	401	725	304	6247	11539
종로구	방1	983	4391	47	253	982	7
	방2	380	11234	147	214	6792	66
	방3	173	9220	2016	657	26991	6481
	방4	76	2309	1735	816	28623	25162
	방5	27	299	287	376	6883	7324
성북구	방1	2820	10463	50	338	1624	18
	방2	349	7763	151	189	4519	76
	방3	143	6748	1953	439	20739	5706
	방4	77	2843	3555	574	29028	34292
	방5	30	751	956	306	10485	15911
강북구	방1	1381	2733	24	169	620	6
	방2	232	6506	73	131	3547	113
	방3	140	7361	2101	336	19882	6023
	방4	59	3407	1266	531	31221	14770
	방5	19	510	242	285	8362	5022
도봉구	방1	1062	1636	60	179	323	8
	방2	218	3425	331	111	2180	267
	방3	208	5076	3703	555	13296	11371
	방4	56	2018	2735	516	20179	34803
	방5	13	288	404	208	4846	8872
노원구	방1	1123	2719	96	257	506	20
	방2	258	2776	1853	166	1815	1085
	방3	117	2911	15550	256	8681	53877
	방4	65	1253	4672	644	12373	60848
	방5	15	200	682	243	3634	18473
은평구	방1	1536	2483	32	290	489	1
	방2	491	5255	146	190	3307	130
	방3	180	10642	600	440	25244	2014
	방4	82	5356	1705	716	48318	20383
	방5	25	748	514	422	13201	9983
서대문구	방1	2935	7166	49	490	1144	6
	방2	513	5422	300	165	2971	252
	방3	166	5946	1550	288	14669	3796
	방4	89	2647	1977	446	22837	17948
	방5	21	602	560	240	9132	8374

(단위: 가구수)

		1인 가구 수			2인 이상 가구 수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비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마포구	방1	6088	9081	134	771	1585	18
	방2	948	6970	264	389	3783	82
	방3	284	6938	1102	531	16701	2096
	방4	226	3151	3140	1189	23930	16758
	방5	26	551	2206	519	7598	24343
양천구	방1	1423	2037	49	297	473	4
	방2	251	4972	85	164	3076	46
	방3	261	6570	413	947	16249	1712
	방4	127	2920	4092	1699	27882	28732
	방5	34	371	1613	693	6226	40821
강서구	방1	5945	3872	79	887	689	22
	방2	944	5720	135	371	3578	63
	방3	594	7342	1240	963	18696	4812
	방4	169	3746	8914	918	37303	34897
	방5	22	559	2523	391	9507	38728
구로구	방1	5552	4797	124	896	1290	27
	방2	1003	5344	322	622	4092	277
	방3	495	4811	1226	1059	16907	4763
	방4	162	2282	3033	999	23585	39676
	방5	26	367	612	285	5733	12311
금천구	방1	3726	5995	22	408	1462	9
	방2	418	5574	32	114	4669	18
	방3	82	3369	1256	225	13091	4385
	방4	43	1260	975	360	15369	12972
	방5	13	301	208	200	5459	4518
영등포구	방1	6128	5776	50	673	1376	17
	방2	1162	7157	661	424	5242	369
	방3	729	5020	1401	1657	18291	5331
	방4	487	1433	2709	2985	16567	30658
	방5	55	242	1148	707	3782	16400
동작구	방1	4846	13259	49	221	1921	10
	방2	346	7202	266	159	4550	327
	방3	156	6199	1721	436	19132	5610
	방4	64	2583	2103	418	26916	22897
	방5	16	540	906	239	8635	14017
관악구	방1	16230	35907	171	1476	4106	34
	방2	1010	11266	116	429	7253	54
	방3	367	9130	2666	690	27066	7287
	방4	114	3574	2428	796	35338	24743
	방5	41	788	615	440	12384	10840
서초구	방1	2995	5311	517	522	1270	159
	방2	612	5214	1481	284	2717	695
	방3	235	3430	1799	624	9810	4433
	방4	132	1405	2901	773	12938	26218
	방5	47	602	2507	558	9187	37464
강남구	방1	5054	13953	499	1011	2753	154
	방2	1461	11881	3185	624	4760	951
	방3	367	5757	7006	770	12122	16646
	방4	272	1677	5042	1115	12345	40519
	방5	108	681	2585	858	8418	38391
송파구	방1	1515	6854	166	352	1524	19
	방2	659	10469	1522	464	6396	752
	방3	322	8311	2960	1078	26876	9850
	방4	78	2777	4236	1028	31587	51608
	방5	30	526	1797	596	9752	35322
강동구	방1	2283	4636	265	468	1155	49
	방2	374	8992	670	295	6497	419
	방3	186	6119	2736	647	21157	11384
	방4	91	1631	2825	752	21771	42005
	방5	17	283	611	398	6890	14024

2010년 1인 가구 수와 주택유형 및 방의 개수와
2인 이상 가구 수와 주택유형 및 방의 개수.

아파트 외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 등)

	환산월세 1분위(하위) 평균	환산월세 2분위 평균	환산월세 3분위 평균	환산월세 4분위 평균	환산월세 5분위(상위) 평균
종로구 환산월세	32.1	49.5	63.4	82.4	124.3
1평당(3.3) 환산월세	3.5	5.1	5.7	7.0	9.6
평균 면적	30.5	32.1	36.5	38.9	42.7
중구 환산월세	36.2	49.2	64.0	73.7	107.2
1평당(3.3) 환산월세	4.5	5.2	6.3	5.8	8.4
평균 면적	26.4	30.9	33.4	41.8	42.2
용산구 환산월세	34.1	51.4	62.6	77.0	107.9
1평당(3.3) 환산월세	3.4	4.7	5.8	6.5	8.8
평균 면적	33.1	36.1	35.6	38.9	40.4
성동구 환산월세	26.7	41.0	50.9	66.3	95.3
1평당(3.3) 환산월세	3.6	5.5	5.6	6.2	8.5
평균 면적	24.2	24.6	29.9	35.2	37.0
광진구 환산월세	31.6	45.0	54.3	71.5	103.2
1평당(3.3) 환산월세	3.6	4.7	5.3	6.5	8.5
평균 면적	28.6	31.5	34.1	36.4	39.9
동대문구 환산월세	18.8	35.7	46.2	54.4	76.2
1평당(3.3) 환산월세	3.2	4.0	5.0	5.0	6.6
평균 면적	19.5	29.7	30.5	36.2	38.0
성북구 환산월세	25.6	37.8	47.5	60.4	91.2
1평당(3.3) 환산월세	3.8	4.6	4.9	5.5	7.7
평균 면적	22.3	27.2	32.1	36.4	39.3
중랑구 환산월세	23.6	35.7	46.1	58.3	81.7
1평당(3.3) 환산월세	3.4	4.6	4.6	5.8	7.4
평균 면적	23.1	25.7	33.0	33.0	36.3
강북구 환산월세	22.8	31.5	41.5	49.2	66.9
1평당(3.3) 환산월세	3.4	4.2	4.8	4.8	6.0
평균 면적	22.0	24.5	28.3	33.9	36.6
도봉구 환산월세	24.4	34.9	41.4	49.2	69.4
1평당(3.3) 환산월세	3.2	4.0	4.4	5.1	5.9
평균 면적	25.5	29.2	31.2	31.9	38.9
노원구 환산월세	27.1	38.0	46.6	54.5	74.0
1평당(3.3) 환산월세	3.4	4.3	4.8	5.1	5.9
평균 면적	26.7	29.2	32.2	35.2	41.6
은평구 환산월세	17.8	28.3	36.8	47.6	67.8
1평당(3.3) 환산월세	2.4	3.5	4.0	4.8	5.8
평균 면적	24.2	26.4	30.5	32.9	38.3
서대문구 환산월세	28.8	42.4	51.4	62.1	93.6
1평당(3.3) 환산월세	3.5	4.6	5.0	5.5	7.8
평균 면적	26.9	30.5	34.2	37.1	39.7

서울 소형주택 매물의 환산 월세, 평당 환산 월세, 평균 면적(종로구~서대문구, 단위:만원, m²). 서울 각 구에 존재하는 전/월세 매물들의 면적과 월세, 그리고 평당 월세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축의 '분위'는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매물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매물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전체를 5등분 한 것이다. 즉 좌측의 월세 1분위는 하위 20%에 존재하는 가장 저렴한 매물들의 평균값, 우측의 월세 5분위는 상위 20%에 존재하는 가장 비싼 매물들의 평균값이다(환산 월세와 평당 환산 월세의 단위는 만원, 면적은 m²이다).

아파트 외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 등)

	환산월세 1분위(하위) 평균	환산월세 2분위 평균	환산월세 3분위 평균	환산월세 4분위 평균	월세 5분위(상위) 평균
마포구	환산월세 29.3	44.7	55.8	70.5	96.1
	1평당(3.3) 환산월세 3.4	4.8	5.8	6.3	8.2
	평균 면적 28.4	30.7	31.6	36.8	38.5
양천구	환산월세 24.6	38.7	45.9	57.1	81.1
	1평당(3.3) 환산월세 2.9	4.4	4.8	5.0	6.8
	평균 면적 28.0	28.8	31.2	38.0	39.2
강서구	환산월세 25.8	35.9	43.3	51.4	73.7
	1평당(3.3) 환산월세 3.0	4.0	4.2	4.7	6.2
	평균 면적 28.1	29.8	34.1	35.9	39.5
구로구	환산월세 23.5	33.3	42.5	51.0	68.9
	1평당(3.3) 환산월세 3.0	3.4	3.9	4.8	6.5
	평균 면적 25.4	31.9	36.2	35.2	35.2
금천구	환산월세 23.3	34.3	43.9	57.9	79.5
	1평당(3.3) 환산월세 3.4	4.2	4.3	5.1	6.4
	평균 면적 23.0	27.2	33.6	37.3	41.2
영등포구	환산월세 26.0	40.2	50.4	64.2	95.0
	1평당(3.3) 환산월세 3.0	4.1	4.7	5.7	7.9
	평균 면적 28.3	32.6	35.3	37.5	39.9
동작구	환산월세 26.1	40.5	51.9	65.9	98.2
	1평당(3.3) 환산월세 3.0	4.5	5.3	6.1	8.5
	평균 면적 28.5	29.9	32.5	35.4	38.3
관악구	환산월세 28.5	42.7	52.9	65.8	95.7
	1평당(3.3) 환산월세 3.4	4.2	5.3	6.1	7.8
	평균 면적 27.7	33.7	32.7	35.4	40.8
서초구	환산월세 33.4	53.3	71.3	89.6	121.8
	1평당(3.3) 환산월세 4.0	5.4	7.0	7.8	9.5
	평균 면적 27.6	32.3	33.6	37.8	42.4
강남구	환산월세 42.0	59.8	75.4	96.8	150.1
	1평당(3.3) 환산월세 4.8	6.8	7.5	9.0	12.0
	평균 면적 28.6	28.9	33.2	35.4	41.5
송파구	환산월세 28.6	43.7	55.1	72.7	102.4
	1평당(3.3) 환산월세 3.3	4.8	5.1	6.4	8.4
	평균 면적 28.2	30.2	35.7	37.6	40.0
강동구	환산월세 27.9	41.2	51.1	67.6	99.3
	1평당(3.3) 환산월세 3.6	4.2	4.8	5.9	8.4
	평균 면적 25.6	32.4	34.8	37.7	38.9

서울 소형주택 매물의 환산 월세, 평당 환산 월세, 평균 면적(마포구~강동구, 단위:만원, m²). 서울 각 구에 존재하는 전/월세 매물들의 면적과 월세, 그리고 평당 월세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축의 '분위'는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매물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매물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전체를 5등분 한 것이다. 즉 좌측의 월세 1분위는 하위 20%에 존재하는 가장 저렴한 매물들의 평균값, 우측의 월세 5분위는 상위 20%에 존재하는 가장 비싼 매물들의 평균값이다(환산 월세와 평당 환산 월세의 단위는만원, 면적은 m²이다).

1인가구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순자산 1분위	자산총액	6,045,417	17,715,135	7,841,563	10,525,333	4,721,724
	순자산	-18,333	445,405	-10,692,500	-4,667,333	1,671,264
	저축액	5,242,083	16,086,757	7,038,438	2,490,333	3,796,552
	부채	6,063,750	17,269,730	18,534,063	15,192,667	3,050,460
	부동산담보대출	500,000	-	1,406,250	8,000,000	908,046
순자산 2분위	자산총액	10,412,917	30,043,514	24,846,563	13,301,333	22,818,488
	순자산	9,075,417	24,903,514	14,941,875	10,392,667	17,997,674
	저축액	10,396,250	23,628,649	17,629,063	12,752,333	18,266,395
	부채	1,337,500	5,140,000	9,904,688	2,908,667	4,820,814
	부동산담보대출	-	2,432,432	2,031,250	-	1,959,302
순자산 3분위	자산총액	29,491,200	70,964,054	62,094,688	50,576,897	57,908,161
	순자산	27,309,200	58,010,000	48,995,000	35,470,345	50,610,920
	저축액	28,616,400	59,390,270	40,551,250	39,737,241	32,665,977
	부채	2,182,000	12,954,054	13,099,688	15,106,552	7,297,241
	부동산담보대출	-	3,378,378	6,562,500	4,551,724	4,483,448
순자산 4분위	자산총액	65,222,500	123,887,297	146,235,938	154,583,667	157,286,395
	순자산	63,547,500	113,513,243	115,498,750	114,718,000	138,282,674
	저축액	64,030,833	77,354,595	75,448,438	52,022,667	32,759,302
	부채	1,675,000	10,374,054	30,737,188	39,865,667	19,003,721
	부동산담보대출	-	2,972,973	19,531,250	22,316,667	5,614,302
순자산 5분위	자산총액	160,071,250	300,973,514	536,271,250	678,684,000	535,732,184
	순자산	144,655,833	249,800,541	446,464,063	575,539,000	504,234,828
	저축액	113,268,333	148,051,351	212,871,563	213,147,333	70,528,736
	부채	15,415,417	51,172,973	89,807,188	103,145,000	31,497,356
	부동산담보대출	3,958,333	32,891,892	29,656,250	38,160,000	10,862,069

수도권 1인 가구의 순자산 분위별 자산 구성(단위: 원).

2인 이상 가구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순자산 1분위	자산총액	25,435,517	56,268,407	55,952,791	55,658,043	51,966,179
	순자산	2,255,172	20,799,115	2,733,650	11,444,306	21,693,740
	저축액	15,638,966	34,250,708	30,783,773	28,715,302	21,386,667
	부채	23,180,345	35,469,292	53,219,141	44,213,737	30,272,439
	부동산담보대출	6,896,552	11,616,903	20,522,178	21,216,584	20,421,179
순자산 2분위	자산총액	42,726,429	132,655,708	147,027,945	167,460,320	192,373,659
	순자산	32,874,643	87,681,593	91,449,387	115,702,705	151,668,740
	저축액	34,988,571	77,506,150	66,405,613	63,533,986	46,911,138
	부채	9,851,786	44,974,115	55,578,558	51,757,616	40,704,919
	부동산담보대출	3,214,286	20,546,770	30,645,675	25,604,520	21,443,618
순자산 3분위	자산총액	90,340,000	205,749,159	285,875,168	352,697,750	386,580,531
	순자산	65,813,448	152,409,956	205,365,719	269,260,321	319,240,857
	저축액	58,164,138	107,725,044	92,295,657	86,686,786	59,228,980
	부채	24,526,552	53,339,204	80,509,450	83,437,429	67,339,673
	부동산담보대출	10,344,828	27,452,788	50,320,336	53,510,429	33,856,327
순자산 4분위	자산총액	132,887,857	326,105,929	472,735,491	642,162,989	707,530,528
	순자산	106,775,357	253,718,805	364,538,190	493,986,370	665,914,837
	저축액	80,941,786	144,927,655	144,310,460	144,472,206	88,693,211
	부채	26,112,500	72,387,124	108,197,301	148,176,619	41,615,691
	부동산담보대출	11,035,714	31,597,876	50,697,577	68,038,932	41,615,691
순자산 5분위	자산총액	252,298,276	782,740,575	1,235,998,558	1,817,498,363	2,197,461,016
	순자산	233,563,793	655,255,973	1,018,717,270	1,499,596,406	1,984,569,228
	저축액	152,502,069	255,244,336	319,618,896	401,303,843	353,432,602
	부채	18,734,483	127,484,602	217,281,288	317,901,957	212,891,789
	부동산담보대출	8,379,310	54,542,655	115,786,902	152,460,427	75,156,016

수도권 2인 이상 가구의 순자산 분위별 자산 구성(단위: 원).

1인 가구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소득1분위	총소득액	15,840,833	22,782,432	14,149,375	11,797,667	6,579,310
	근로소득	12,761,667	20,245,946	9,784,375	8,256,667	1,780,460
	사업소득	2,500,000	1,216,216	2,330,625	400,000	297,241
	재산소득	-	-	125,000	100,000	-
	가처분소득	13,467,083	17,369,459	11,651,875	9,985,667	6,086,897
	연간 지급이자	517,917	1,687,297	687,813	1,094,333	162,184
	소득2분위	총소득액	16,087,500	25,141,892	18,705,625	14,013,000
근로소득	14,941,667	21,964,865	10,102,500	10,571,667	1,863,488	
사업소득	416,667	2,216,216	7,687,500	1,093,333	527,907	
재산소득	-	285,135	-	333,333	8,953	
가처분소득	14,525,833	21,284,595	16,236,250	11,869,000	7,217,791	
연간 지급이자	91,667	264,865	282,813	384,333	242,674	
소득3분위	총소득액	22,348,400	30,918,649	26,377,500	16,051,724	7,803,333
	근로소득	18,888,400	20,863,243	20,462,500	6,004,828	2,078,621
	사업소득	960,000	8,924,324	4,328,125	8,544,828	698,851
	재산소득	68,000	560,270	708,750	36,207	16,667
	가처분소득	19,962,000	25,248,649	21,910,313	13,074,483	6,825,402
	연간 지급이자	71,200	745,946	573,125	1,528,621	158,506
	소득4분위	총소득액	23,047,917	31,384,324	31,530,000	20,976,333
근로소득	19,687,500	24,059,459	21,695,625	16,838,333	2,046,628	
사업소득	1,333,333	6,881,081	9,750,000	3,383,333	716,279	
재산소득	35,417	443,784	53,125	390,000	946,395	
가처분소득	20,380,833	26,642,162	24,711,875	15,955,333	8,075,233	
연간 지급이자	117,500	508,649	1,244,375	1,650,667	359,302	
소득5분위	총소득액	33,620,833	52,243,243	48,842,813	33,148,000	16,545,632
	근로소득	32,433,333	44,710,811	26,224,063	14,561,333	1,496,092
	사업소득	-	6,432,432	17,343,750	12,033,333	1,405,747
	재산소득	654,167	1,100,000	5,275,000	2,974,667	5,016,322
	가처분소득	27,626,667	40,718,108	35,765,625	22,011,000	13,054,368
	연간 지급이자	510,833	2,568,378	3,377,813	2,086,667	492,644

수도권 1인 가구의 분위별 소득 구성(단위: 원).

2인 이상 가구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소득1분위	총소득액	27,316,207	31,201,593	28,537,393	30,106,548	18,094,919
	근로소득	22,518,621	25,607,301	19,399,632	23,278,612	10,114,959
	사업소득	2,655,172	4,321,416	7,070,031	5,187,189	2,648,780
	재산소득	-	161,416	175,767	44,484	200,041
	가처분소득	24,140,690	25,812,522	22,851,534	25,563,132	16,196,138
	연간 지급이자	1,118,276	1,743,540	2,851,595	1,878,114	737,480
	소득2분위	총소득액	32,956,786	45,517,788	37,793,252	40,293,950
근로소득	29,756,071	37,717,168	28,898,037	27,481,566	15,242,927	
사업소득	2,357,143	7,076,770	7,626,687	11,377,580	4,259,756	
재산소득	-	148,142	268,865	308,399	910,447	
가처분소득	27,972,143	37,459,115	30,981,012	32,984,021	22,906,707	
연간 지급이자	634,643	2,091,106	2,365,153	2,530,854	1,350,894	
소득3분위	총소득액	35,586,552	48,376,460	54,587,064	52,330,893	34,868,122
	근로소득	31,865,517	42,180,841	39,779,939	35,959,643	17,328,898
	사업소득	3,275,862	5,333,186	13,708,012	14,156,500	7,727,714
	재산소득	165,517	341,062	389,113	853,393	2,515,306
	가처분소득	30,658,621	39,184,823	43,242,018	42,252,821	28,632,122
	연간 지급이자	933,103	2,154,602	3,295,321	3,149,964	2,000,980
	소득4분위	총소득액	37,672,500	62,160,221	72,983,160	73,084,377
근로소득	31,210,357	52,758,673	56,012,669	51,029,324	19,133,333	
사업소득	5,542,857	8,197,788	15,543,374	17,366,690	8,776,016	
재산소득	122,857	611,062	966,043	2,920,356	7,655,000	
가처분소득	32,768,214	50,802,876	58,002,669	57,081,530	36,350,285	
연간 지급이자	1,091,071	2,129,292	3,109,172	4,051,317	2,375,528	
소득5분위	총소득액	55,452,069	87,337,832	103,286,994	129,759,751	83,752,398
	근로소득	38,641,379	65,655,664	70,075,061	70,252,313	30,829,350
	사업소득	14,551,724	14,924,336	24,571,779	40,505,409	19,931,545
	재산소득	560,690	5,383,628	8,194,448	17,149,964	21,159,959
	가처분소득	49,509,655	69,582,522	77,074,939	96,254,021	63,353,293
	연간 지급이자	565,862	3,062,965	5,551,656	8,264,947	3,574,187

수도권 2인 이상 가구의 분위별 소득 구성(단위: 원).

Abstract

A Study of Information Visualization about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Applying Design Research and Information Design Methodology

Bae, Minkee

Visual Communication Design Major, Faculty of Craft & Design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cademic Advisor : Prof. Kim, Su zung

The popularization of the internet, and the advent of the PC (personal computer) and smart devices, has created a complex media environment which continues to evolve. This, in turn, has changed the cultural patterns of technology users. At the same time, the rapid evolution of the visual communication environment creates corresponding changes in design.

“Design research” is a methodology that uses trend analysis and market research, etc., to capture the “clues” that will help in making design decisions. However, it is a term that has various meanings, depending on its origin and context. It means the systematizing of the design business in a highly capitalist environment and, in the context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discourse, it refers to the cultural critique that combines design microhistory and the historical context of visual culture studies. “Information design” is the term for the methodology used to analyze the best way to convey information effectively so it is readily understood. This concept has gradually begun to be expressed as “information visualization” or “knowledge visualization.”

These have become useful phrases for referring to the visual representation of abstract data. This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many researchers, and many papers have been published on the topic.

Neither design research nor information design is a field that can be applied straightforwardly. Nevertheless, their critical validity is not yet completely exhausted. Their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are both clearly evident, and they can provide a useful methodological framework.

In this paper, I apply the methodology of information design and design research to the issue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Residents of single-person households do not readily visualize themselves as a distinct group in society. Childcare, education, and healthcare are common issues for standard four-person households, and people in these households are aware of their group interests, directly and indirectly. They are able to understand and promote their position in society through the exercise of rights such as voting. However, residents of one-person households, despite having already achieved effective numbers for political action, do not have many opportunities to promote issues that affect single person householders as a group. Often they are not permanent residents in a particular area, and it is easy for them to remain as temporary residents. Furthermore, looking at various economic indicators that reveal current economic conditions few people in single-person households will be able to afford to move to four-person households. Most are likely to remain as long-term temporary residents. Because they do not act as a distinct group in society, others have little information about their way of life. It is difficult to know their lifestyle, their cultural characteristics, what they require, and what policies would help them.

I explored how to intervene effectively as a designer in this matter in many ways. By applying design research methodology, I examined the social and economic position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and visualized the findings using the techniques of information design and knowledge visualization. The methodology

and this paper followed these steps:

1. I analyzed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I created a particular context by placing the data in different forms in accordance with a specific standpoint.

2. I visualized the content that had been organized through the preceding step. Each section was visualized intuitively, using the techniques of information design and knowledge visualization.

3. As a final step, I applied the output to two types of media: printed matter and screen media. In the case of printed matter, prints were created elaborately and produced clearly. The audience can easily grasp the context and understand a vast amount of information simultaneously. I produced special interactive content for screen media to create a variety of experiences for users.

Keyword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Design Research, Information Design, Knowledge Visualization
Student ID	2011-31038
email	baeminkee@gmail.com